

권혁진(강원한문고전연구소 소장)

: 춘천의 산과 하천, 행정동별 설명문

손주일(전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춘천 관내 동, 동내면, 신동면, 북산면

심보경(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 옥천동, 교동, 신북읍

이학주(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 동면, 동내면, 남산면

박현숙(옛이야기연구소 소장)

: 사북면

최윤(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서면

김근태(춘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 남면

춘천지명사전 | 중

남면 · 남산면 · 동면 · 동내면

| 제2편 |
읍면동별 지명유래

13장 | 남면

1절 가정리	… 8
2절 관천리	… 9
3절 박암리	… 30
4절 발산리	… 38
5절 추곡리	… 45
6절 한덕리	… 57
7절 후동리	… 67
	… 72

14장 | 남산면

1절 강촌리	… 77
2절 광판리	… 79
3절 방곡리	… 92
4절 방하리	… 104
5절 백양리	… 109
6절 산수리	… 116
7절 서천리	… 123
8절 수동리	… 131
9절 창촌리	… 135
10절 행촌리	… 142
	… 149

15장 동면	… 156	16장 동내면	… 245
1절 감정리	… 157	1절 거두리	… 246
2절 만천리	… 166	2절 고은리	… 259
3절 상걸리	… 174	3절 사암리	… 267
4절 신이리	… 181	4절 신촌리	… 280
5절 월곡리	… 185	5절 학곡리	… 289
6절 장학리	… 194		
7절 지내리	… 206		
8절 평촌리	… 214		
9절 품걸리	… 219		
10절 품안리	… 232		

春川地名事典

中

제2편

인용문헌 서지사항

- 『춘주지(春州誌)』(1648, 인조 26)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 영조 33~41),
『호구총수(戶口總數)』(1789)
『춘천읍지(春川邑誌)』(1831, 순조 31)
『춘천부지(春川府誌)』(1850 이후 추정)
『대동지지(大東地志)』(1864)
『관동읍지(關東邑誌)』(1871, 고종 8)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0)
『강원도지지조사(江原道地誌調查)』(1915)
『강원도지(江原道誌)』(1941)
『수춘지(壽春誌)』(1953)
『춘주지(春州誌)』(1984)
『춘천백년사(春川百年史)』(1996)

춘천의 읍면동별 지명유래



남면(南面)

동쪽으로 신동면(新東面)과 동산면(東山面), 남쪽으로 홍천군 서면(西面), 서쪽으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북쪽으로 서면과 가평군 가평읍 등과 접한다.

가정리·발산리·후동리·추곡리·관천리·박암리·한덕리 등 7개의 법정리를 관할한다. 본래 춘천군 남산외면(南山外面)이라고 불렸으나, 1895년(고종 32)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과 남산외이작면의 2개면으로 분리되었다. 1914년 남산외일작면의 군자곡(君子谷)·종자리(宗子里)의 2개리를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에 넘겨주고, 남산외이작면의 관천(冠川)·박암(博岩)의 2개리 및 남내이작면(南內二作面)의 의암(依岩)·마곡(馬谷)·갈동(葛洞)의 3개리를 남산외일작면에 편입했다. 1917년에 남산외이작면은 남면, 남산외일작면은 남산면으로 고쳤다가, 1943년 2개면을 합쳐 남면으로 하면서 의암리(依岩里)를 신동면에 넘겨주었다. 1957년 발산출장소를 개설하여 7개 법정리(11개 행정리)를 관할하게 하였다. 198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발산출장소 지역을 남면으로 승격하고, 종전의 남면을 남산면으로 개편하였다.

1절

가정리(柯亭里)

위치와 현황 | 북동쪽으로 봉화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청평호 상류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대골, 약바우, 제청말, 절골, 집실 등이 있다. 가정리는 가정 자라고 부르며, 왜적을 물리치고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킨 유인석(柳麟錫) 등 많은 의병장이 탄생하였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남산외면(南山外面) 가정자(柯亭子)로 표기했다. 『여지도서』는 남산외면(南山外面) 사동리(寺洞里)로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사동리(寺洞里),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산외면(南山外面) 사동리(寺洞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남산외면(南山外面)을 1895년에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과 남산외이작면의 2개 면으로 분리하였는데, 사동리(寺洞里)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에 포함되었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의 가정리(柯亭里)로, 『강원도지』와 『수춘지』는 남면(南面) 가정리(柯亭里)로,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남면(南面) 가정1리, 가정2리, 가정3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가정리고 법정리는 가정1리, 가정2리, 가정3리이다.

유래 | 가나무 정자가 있으므로 가정자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여우내, 고란터, 텁골, 왕동, 약바우, 집실, 제청말, 절골, 재궁골을 병합하여 가정리라 하였다.

● 가래울버덩

[형태] 들

[위치] 쟁골 굴아우와 큰성골로 갈라지는 곳 부근

[유래] 쟁골에서 굴아우와 큰성골로 갈라지는 곳을 가래울이라 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들판을 말한다.

[어원풀이] ‘가래[分]+울[谷]+버덩’으로 분석된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지형을 ‘가래울’이라 하고,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말한다. ‘가래울(가래골)’에서 특별히 ‘잔돌과 풀만 있는 둔덕진 곳’이다.

는 저수지란 의미이다.



가정저수지

● 가정나루

[형태] 수리

[위치] 가정리 초입 부질골, 보무개골 앞 홍천강변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 앞에 있는 홍천 강(洪川江)의 나루”, 지역조사보고서에 “이 나루는

1944년 청평댐 건설로 청평호가 생기면서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졌다. 소주고개로 통하는 도로와 방하리로 통하는 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이곳 나루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다. 현재는 나루는 없어졌고 명칭만 남아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정+나루’로 분석된다. 가정리에 있는 나루란 의미이다.

● 가정천(柯亭川)

[형태] 하천

[유래] 쟁골 끝 산에서 발원하여 가정리를 관통하여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 강원학생교육원

[형태] 공공기관

[위치] 가정중학교 가기 전 충효로가 굽어지는 곳으로 가정리 833-1번지이다.

[유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위탁형 공립 대안교육기관이다.



강원학생교육원

● 가정저수지

[별칭] 절골저수지

[형태] 수리

[위치] 딴꽃산 건너편 골짜기

[유래] 1979년에 축조된 절골저수지를 2000년대 다시 개축하면서 저수지의 위치를 고려하여 가정 저수지로 명명했다.

[어원풀이] ‘가정+저수지’로 분석된다. 가정리에 있

● 개경자

[별칭] 가정자, 가정리, 갱자

[형태] 마을

[위치] 가정리 초입에 있는 부질과 주일당(主一堂) 사이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부질과 주일당(主一堂) 사이를 가정자라 한다. 이곳에 가나무(또는 갈나무)로 만든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때문에 가정리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또 가정리 입구 벤터(가정나루)에 갈나무 정자가 큰 게 있었는데 배와 뗏목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쉬어 갔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갈나무(참나무) 있는 동네라고 부르면서 마을 이름이 가정자로 불리게 됐다고도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갈나무(역갈나무)/가나무(‘근’탈락)’로 만든 정자에서 ‘가정자→가정리’가 유래했다면 ‘갈+정자’인데, 그 변이형 ‘개경자’의 실현은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애매한 면이 있다.『조선지지자료』 영월군 북면 마을이름으로 ‘柯亭(가람말)’이, 영월군 천상면 마을이름으로 ‘柯井洞(가람물)’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은 ‘강말’ 즉 ‘강가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고란(臯蘭)+터[基]’로 분석된다. 골짜기 안쪽에 있는 마을이나 벌판이란 의미의 고유어 지명 ‘골안터’를 한자로 음차표기한 지명이다.

● 고란터나루

[형태] 수리

[위치] 고란터 앞 강변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란터 앞에 있는 홍천강(洪川江)의 나루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는 “고란터 앞에 있던 홍천강의 나루이다. 가정자 나루, 횡골 나루와 함께 가정리에는 세 개의 나루가 있었다. 청평호로 인해 만들어진 나루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란터+나루’로 분석된다. 고란터에 있는 나루란 의미이다. ‘고란터’ 참조. 홍천강에서 가정천을 따라 현 가정보건진료소 주변까지 배가 다녔다고 한다.

● 고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절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곰(熊)+애/의+골[谷]’로 추정된다.

● 고란터

[별칭] 난곡(蘭谷), 고란(臯蘭), 골안터

[형태] 마을

[위치] 가정천이 홍천강과 만나는 부근의 좌측[서쪽] 일대

[유래] 일제강점기 지도에 ‘난곡(蘭谷)’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이조 광해(光海) 때 태우(泰宇) 유활(柳活)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고란을 심고 살다가 그 후에 충청도 목천(木川)으로 이사하였음”이라 소개되어 있다.

● 고흥유씨분산동구비

[형태] 비석

[위치] 강원학생교육원 입구 좌측에 비석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 어귀에 있는 비. 앞면에 ‘고흥유씨분산동구비(高興柳氏墳山洞口碑)’의 8자를 새기었음”이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는 “가정리 어귀에 있는 표석이다. 비 앞면에 고흥유씨분산동구비(高興柳氏墳山洞口碑)라는 8자의 글씨를 음각(陰刻)으로 새겼다. 성재(省齋) 류중교(柳重教, 1832~1893) 선생의 친필이라 전한다. 그

러니 이 동구비(洞口碑)가 세워진 것은 성재가 살았을 때니까, 1800년대 중후반이라 할 수 있다. 고흥 류씨의 조상 산소가 있는 곳임을 표지(標識)한 것이다.”라 하였다. 고흥유씨의 무덤이 있는 마을 입구임을 알리는 비석이다.



고흥유씨분산동구비

● 광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3리에서 북동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보이는 소주봉(489m) 서편 능선에 위치한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챙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화제약 별장에서 미나리 폭포 가기 전 오른쪽에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광산+골[谷]’으로 분석된다. 광산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구드랫골

[별칭] 귀뚜랫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저수지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쇠파니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구들+애/애+ㅅ+골[谷]’으로 분석된다.

● 굴아우

[별칭] 굴아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3리 마을쉼터 건너편으로 옹장골 가기 전 좌측으로 난 골짜기이다. 골짜기를 따라 계속 올라가면 백양리 경강이 나온다. 예전에 지역민들이 이용하던 길이다.

[유래] 굴이 뚫려 있는 바위가 있다고 하여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굴[穴]+바우[岩]/아우+골[谷]’로 분석된다.

● 깃대봉

[별칭] 기봉(旗峰)

[형태] 산

[위치] 웃터골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물갈봉 우측 웃터골 뒤에 있는 봉우리이다. 깃대봉 앞에는 한화제약이라는 제약회사가 들어와 있다. 기봉이라고도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旗)+대(殆)+ㅅ+봉(峰)’으로 분석된다.

● 너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리에서 가정리로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 골짜기로 ‘보무개골’ 우측에 있다. 가정리 859-1번지 일대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타 지역의 경우를 참조하면 ‘너머[越]+ㄴ+골[谷]’로 분석된다. ‘가정리로 넘어가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논골

[별칭] 담동(畜洞)

[형태] 골짜기

[위치] 삿골에서 위쪽[서쪽]으로 한참 들어가면 나온다.

[유래] 『춘천지명유래』에 논이 많은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논[沓]+골[谷]’로 분석된다. 논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삿골에서 가정천으로 유입되는 물줄기가 있고 실제로 삿골 상단부에 꽤 넓은 논과 밭이 있었다고 한다.

많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능(陵)+골[谷]’로 분석된다. 무덤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다락골

[별칭] 다랫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삿골로 들어가서 우측[북쪽]으로 난 골짜기

[유래] 계단식 논인 다랭이논이 조성되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농바우

[형태] 바위

[위치] ‘가정교’ 바로 위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농처럼 생긴 바위이다. 술워니고개 올라가기 직전 길 밑의 개울가에 있었다. 아주 크고 시커멓게 생긴 바위였다. 가정3리 쟁골에서 개를 잡아서 거리제(길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지금은 보(渾)와 길을 정비하면서 깨뜨려서 없어졌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농(籠)+바우(岩)’로 분석된다.

● 두리봉

[형태] 산

[위치] 가정리에서 박암리로 가는 길에서 고란터 뒤편.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두리봉[斗尾峰]’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고란터 뒤에 있는 산. 봉우리가 둥그스름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두리+봉’으로 분석된다. 둥글둥글한 봉우리란 의미로 추정된다.

● 능골

[별칭] 능곡(陵谷)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저수지 좌측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제청말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흥성부원군(興城府院君) 유몽표(柳夢彪)의 묘가 있음”이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흥성부원군(興城府院君)으로 추증된 유몽표(柳夢彪)의 묘가 있어 불러진 것이다. 또는 무덤을 팠다고 해서 능골로 불러졌다고도 한다. 절골 들어가서 첫 번째 골짜기이다. 올라가면 바위가 넓적하고 평평한계

● 뒤닐고개

[별칭] 둔일고개

[형태] 고개

[위치] 쟁골 끝 미나리폭포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에 있는 고개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는 “복희안 들어가서 미나리폭포 있는 곳이다. 그곳으로 계속 가면 창촌이 나온다.”라 하였다. 남산면 창촌3리로 연결되는 고개이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란터 뒤쪽[북쪽]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 뒤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박암리로 가는 도로 위쪽[북쪽]이다.

[어원풀이] ‘뒤[後]+골[谷]’로 분석된다. 고란터 뒤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든바우

[별칭] 들어얹은바위

[형태] 바위

[위치] 여우내골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많은 바위들이 모여 있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여우내골 산꼭대기에 들어 올려놓은 모양으로 있다 하여 든바우라고 한다. 돌부처 모양으로 보여서 부처바위라고도 한다. 바위가 서 있다고 해서 선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흔들면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바위라고도 한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발산리의 횡골이 나온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들-(擧)+ㄴ+바우’로 분석된다. ‘들-(擧)’에 관형사형어미 ‘-ㄴ’이 결합하여 ‘-든’으로 실현되었다.

[유래담]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가서 든바우 밑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어느 날 집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없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 어린아이를 찾아다녔다. 마을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는데, 든바우 아래에 가니 그곳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어린아이 혼자 그곳으로 걸어갔을 리는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서 바위 밑에 갖다놓았다고 하였다.

● 땀忤산

[별칭] 독산(獨山)

[형태] 바위

[위치] 늄연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산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약마우마을 뒤와 제청말 앞에 외따로 있는 산이다. 다른 산과 연계되지 않고 홀로 있으므로 독산(獨山)이라고 불러진다. 독산에는 약마위와 할미바위가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딴[獨]+뫼[山]+산[山]’으로 분석된다.



땀忤산

● 떡돌배기

[별칭] 떡돌배기

[형태] 골짜기

[위치] 『지역조사보고서』에 쟁골 동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청각절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는 가정3리인 쟁골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떡+들/돌[石]+배기’로 분석된다. ‘-배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떡돌(떡판 같은 바위)이 박힌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말구리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에 있는 산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말구리’는 지명 전설에 따라 형태소 분석이 달라진다. ‘말이’ 굴러 떨어졌다(단순한 유래담)’면 ‘말(馬)+구르-(轉)+이](접미사)’로 분석한다. ‘말이’ 굴 속에서 나왔다(신이한 유래담)’면 ‘말(馬)+굴(窟)+이](접미사)’로 분석된다.

● 말기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쟁골 굽아우 서쪽으로 가정리 산130-1번지 일대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골짜기에 넓은 농지가 있었다고 한다.

● 무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문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역조사보고서에 절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물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성골 가기 전 좌측[북쪽] 골짜기

[유래] 골짜기에 야수터가 있다고 한다.

● 물갈봉

[형태] 산

[위치] 지역조사보고서에 “옛날에 술워니고개 쪽 가평으로 넘어가는 곳에 물갈이라는 참나무가 크게 있어서 물갈봉이라고 불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물갈(나무)+봉(峰)’으로 분석된다. ‘물갈나무’는 ‘상수리나무’의 강원방언이다.

● 미나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쟁골을 따라 봉화산(486m)쪽으로 가다보면 커다란 바위 즉 ‘장군바위’가 보이는데 그 아래가 ‘미나리폭포’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미나리가 있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미[미미하다, 小/뫼]+나리[川]+골[谷]’로 분석되며, 미미한[작은] 개천이 흐르는 골짜기, 또는 산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미나리폭포

[별칭] 작은폭포

[형태] 폭포

[위치] 미나리골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미나리골에 있는 폭포이다. 원래는 작은 폭포인데 폭포 밑에 산미나리가 많이 자생한다고 해서 미나리폭포로 명명되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미나리+폭포’로 분석된다. ‘미나리골’ 침조, 문무승상에 따라 규모가 큰 구곡폭포를 문폭(文瀑), 작은 미나리폭포를 무폭(武瀑)으로 대응지어 불렀다.

● 미래미

[별칭] 미염(米鹽)이, 미리미

[형태] 들판

[위치] 류숙(柳瀟)의 사당인 늄연실 부근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쇠파니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늄연실이라는 류숙공의 사당이 위치한 부근이다. 미래미라고도 부른다. 한자로는 미염(米鹽)이라고 쓴다. 옛날 이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흥 류씨의 선조인 류숙이 갖고 있는 쌀과 판가의 구휼미를 이곳에서 풀고, 소금을 풀어서 아사(餓死) 직전에 있던 사람들을 구휼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쌀과 소금을 나누어 준 곳이라는 뜻으로 쌀 미(米)자 소금 염(鹽)자를 써서 미염이라고 했다. 나중에 사람들이 미염이를 미래미라고 발음해서 현재는 미염이와 미래미가 같이 쓰이고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미래미’의 유래에 대한 위의 이야기는 전설일 뿐이다. ‘미래미’는 ‘미륵(彌勒)’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미륵불이나 미륵바위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바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삫골을 따라 상단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논골 부근에서 오른쪽[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삿골 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골짜기로 들어가면 바른손 쪽에 속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른[右]+골[谷]’로 분석된다. 우측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박수고개

[별칭] 박석고개

● 고개

[위치] 가정리에서 박암리로 넘어가는 도로의 초입이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고란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박수고개라고도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박수+고개’로 분석된다. 예전에 신을 모시던 기와집이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 벼덩들

[위치] 가정3리 술워니고개로 가는 길과 쟁골로 가는 길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가정리 317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벼덩+들’로 분석된다. ‘벼덩’은 ‘들’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땅이 비교적 거친 들판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 벌개경자

[형태] 들

[위치] 지역조사보고서에 “가정자가 있던 곳의 벌판을 일컬던 명칭이다.”라 하였다.

● 병문안

[형태] 바위

[위치] 가정저수지 안쪽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바위가 양쪽으로 병풍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병풍/병문+안’으로 분석된다. 저수지 안쪽에 큰 바위가 있다고 한다.

● 보무개골

[별칭] 보매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리에서 가정리로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 골짜기로, ‘부질골’과 ‘너먼골’ 사이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보[洑]+무개/매기/막이+골[谷]’로 분석된다. 발음상 ‘보막이골’의 오기로 보인다. 지금은 청평댐 건설로 홍천강의 수위가 높아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옛날에는 골짜기 앞에 물을 막은 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 보코안

[별칭] 복희안

[형태] 골짜기

[위치] 미나리 폭포 근처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큰성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복희안’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봇골안’의 와전으로 추정된다. ‘보를 막았던 골짜기 안쪽’이란 의미이다.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단체로 거주하였다고 한다.

● 부러진바우

[형태] 바위

[위치] 여우내골 끝자락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위 중간이 갈라져 있음”이라 하였다. 여우내골 끝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폐로 모여 있다고 한다.

● 부처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역조사보고서에 “쇠파니 너머에 있는 골이다. 절골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부처안골이라 했다.”라 하였다.

● 부질

[별칭] 부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리에서 가정리로 꺾여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골짜기로, 가정리 산48-1번지 일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색싯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여우내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정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다. 충의대교 못가서 있는 곳이다. 옛날에 집을 지을 때나 벽을 비를 때 그곳에서 흙을 파왔다. 마차로 흙을 파서 날랐다. 그래서 불이는 토질이라고 한데서 유래한 것 같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부(釜)+질/실[谷]+골[谷]’로 추정된다. ‘가마골[釜谷]’의 음차인 ‘부실’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리 재궁동과 제청말에 숯가마터가 있었다고 하며, 인근의 ‘여우내골’에도 숯가마를 사용하여 화약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 비랭이소

[형태] 소(沼)

[위치] 고란터 아래 강가쪽에 있는 ‘비령바우’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벼랑 밑에 있는 소(沼)라 하였다.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어원풀이] ‘비랭이’/벼랑[涯]+소(沼)로 분석된다.

● 비령여울

[별칭] 비랭이

[형태] 여울

[위치] 고란터 아래 강가쪽에 있는 ‘비령바우’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홍천강에 있는 여울. 벼랑밑이 됨”이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박암리 가기 전에 있다. 보통 비랭이라고 한다. 옛날 박암리 사람들이 비랭이를 지나 학교를 이곳으로 왔

다.”라 하였다.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어원풀이] ‘비[碑]/벼랑[崖]+여울[灘]’로 분석된다.

● 비령바우

[별칭] 벼랑바우

[형태] 바위

[위치] 고란터 아래 강가 쪽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벼랑바우라고도 한다.

벼랑 밑에 있는 바위이다.”라 하였다. 현재는 바위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일부만 보인다고 한다.

[어원풀이] ‘비[碑]/벼랑[崖]+바우[岩]’로 분석된다.

● 빗돌배깃들

[형태] 들

[위치] ‘왕동’과 가정1리마을회관 근처이다. 더 가면 ‘의암유인석기념관’이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왕동 위쪽에 있는 들. 흥성부원군 유몽표와 그 아들 취흘(醉吃) 유숙(柳瀟) 부자의 신도비가 있음”이라 하였다. 빗돌은 비석이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늄연실 옆이다. 지금은 늄연실을 옮겼다. 옮기기 전에 있던 곳이다.

[어원풀이] ‘비[碑]-+들+배기(박이)+ㅅ+들(坪)’로 분석된다. 앞 ‘-들’은 복수접미사이다. 또는 ‘빗들’은 ‘빗돌’의 와전으로 볼 수도 있다. 빗돌[비석]이 박혀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사랑바웃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사랑+바우(바위)+ㅅ+들’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삽골

[별칭] 삽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의암류인석기념관 아래에서 서쪽 산으로 난 골짜기로 가정리 산88번지 일대이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유인석 기념관 뒤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삽골에는 바른골과 논골이 있다. 삽골이라고도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삭/삿/사이[間]+골[谷]’로 분석된다.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지역민은 맹수인 ‘삶’이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라 하기도 한다.



삽골

● 삼성봉(三聖峯)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텃골에 있는 산. 삼성묘(三聖廟)가 있음”이라 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에 “칠성묘(七聖廟) : 가정리 西方二에 在함”이라 하였는데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어원풀이] ‘삼(三)+성(聖)+봉(峯)’ 세 성인을 모

신 사당이 있는 산이란 의미이다.

● 상아골

[별칭] 생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생아골이라고도 한다.

골짜기 세 개가 합쳐진 곳이다.”라 하였다.

● 상암(上岩, 象岩)

[별칭] 웃바위, 웃바우

[형태] 바위

[위치] 한화제약 뒤편(서쪽) 방향의 돌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자 위쪽에 있는 바위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상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코끼리 상(象) 또는 윗 상(上)이라고도 한다. 저수지 쪽에서 상암을 보면 코끼리처럼 보인다. 웃바우라고도 한다.”라 하였다.

● 상암산(上岩山)

[형태] 산

[위치] 한화제약 뒤편(서쪽) 방향의 돌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텃골 뒤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웃바우[上岩]가 있는 산이라서 상암산이라 부른다.

● 색시골

[별칭] 색싯골, 새악시골, 연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나리골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미나리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샘보

[형태] 보(深)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샘을 이용한 보(深)”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야마우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하였다.

● 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의암류인석기념관과 북쪽으로 붙어 있는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삭골과 웃텃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사이)[間]+ㅅ+골[谷]’로 분석된다.

● 생강골

[별칭] 상강골 삼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역조사보고서에 “옛날 이곳에 장승이 서 있었다. 가정2리 마을회관 뒤 골짜기를 일컫는다.”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서낭당터

[형태] 터

[위치] 의암류인석기념관 남쪽 삿골 입구

[유래] 예전에 서낭목이 있었다고 한다.

● 설통바우

[형태] 바위

[위치] 삿골 중턱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설통(설통)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삿골에 있다. 설통처럼 생긴 바위이다. 설통바위 밑에 설통바웃보가 있다. 설통은 벌을 놓는 통인 벌통을 일컫는 이칭

이다. 가정리에는 설통바우가 여러 개 있다. 약바위에도 있고, 쟁골에도 있고, 샷골에도 있다.”라 하였다. 샷골 설통바우는 벌통을 놓기 좋은 바위로, 옛날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돈을 주고받았다고도 한다.

● 설통비웃보

[형태] 보(渙)

[위치] 샷골 입구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설통바우 밑에 있는 보라 하였다. 샷골에서 가정천으로 유입되는 물줄기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어원풀이] ‘설통(벌통)+바우(岩)+보(渙)’로 분석된다.

● 소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저수지 입구 부근 북쪽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안꼴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소막을 짓고 장사 준비를 하던 곳이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막(素幕)은 흰 장막을 뜻하는 것이고 장사(葬事)는 묘혈을 파고 죽은 사람을 묻는 작업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소막(素幕)+골[谷]’로 분석된다. 무덤이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쇠파니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저수지 절골 뒤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쇠를 파낸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쇠[鐵]+파-[掘]+{-ㄴ}+ㅇ’(접미사)’로 분석된다. 쇠를 파냈다는 것은 철광산이 있었다는 의

미인데 실제로 광산이 있었다는 골짜기와는 한참 차이가 난다. 산의 모양에서 유래한 ‘솟바리’의 와전이나, 동쪽으로 넘어가는 등성이 정도의 의미로 추정된다.

[유래담] 일제강점기 때 고을의 혈을 끊기 위해 쇠를 박았다는 말과 쇠물을 끊여 부었다는 말이 전하는데, 근거는 찾을 수 없다.

● 수락산(壽樂山)

[형태] 산

[위치] 딴윗산 북쪽 가정저수지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위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능골 뒤에 있는 산. 이 산에 흥성부원군 유몽표의 묘가 있음. 1950년 6.25 사변 때, 유몽표의 후손 봉상(鳳相)이 지방청년 백여명을 모아 가지고 산악대(山岳隊)를 조직하여 스스로 대장이 되어, 수락산에 응거하면서 각처에서 들어오는 괴뢰군을 모두 섬멸하니, 괴뢰군이 감히 침입하지 못하여, 완전히 자유 독립 지대를 이루었으므로, 강원도가 수복된 후에도 정부에서 이 지방의 치안을 유봉상에게 맡기고 상을 주어 크게 표창하였음”이라 하였다. 고흥류씨의 재실인 ‘수락재’가 산 앞에 있다.

● 수령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3리에서 방하리로 넘어가는 술어니고개 초입의 남쪽 골짜기로 가정리 산116번지 일대이다.

[유래] 술어니고개가 있는 술어니골의 또 다른 표기로 보인다. 술어니고개가 공식적인 지명으로 쓰이는 바, 술어니골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술어니고개’ 참조.

● 술어니고개

[별칭] 술위이고개, 술원이고개, 주원현(酒原峴)

[형태] 고개

[위치] 가정3리에서 방하리로 넘어가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술원이고개’(酒原峴)가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선조(宣祖) 때 취흘(醉吃) 유숙(柳瀟), 문상옹(汶上翁) 유혁(柳奕), 태우(泰宇) 유활(柳活) 삼형제가 명사 박상의(朴尙義)를 데리고 대지(大地)를 구하러 다니다가 이 고개에서 술을 마시고 능골로 와서 대지를 잡았다는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술[金]+원/안[内]+이’로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금 안쪽에 있는 마을 또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또는 산에 둘러싸여 숨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의 ‘숨은동’이 ‘술원동’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술어니, 수러니, 수렁이’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는 북한강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물안이’에서 물이 한자인 ‘수(水)’로 쓰이면서 ‘수런이’로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유래담] 1. 조선조 선조(宣祖) 때 취흘(醉吃) 유숙(柳瀟), 문상옹(汶上翁) 유혁(柳奕), 태우(泰宇) 유활(柳活) 3형제가 박상의(朴尙義)라는 명사를 데리고 대지(大地)를 구하러 다니다가 이 고개에서 술을 마시고 능골로 와서 대지(大地)를 잡았다고 한다.
2. 원님이 고개를 넘다가 하도 힘이 드니까 술을 한 잔 먹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산에 술이 있을 리는 없고 해서, 술을 원한다고 해서 술원이고개라 했다.

● 심금솔

[형태] 숲

[위치] 의암류인석기념관 앞 남면전천후게이트볼장 부근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솔밭이 아주 무성하게 있었는데, 솔밭을 심금솔이라 명명했다. 1980년대에 없어졌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심은/심근[植, 栽]+솔[松]’로 분석된다.

● 아랫고개

[형태] 고개

[위치] 고란터 북쪽, 가정리에서 박암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 부근이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아랫골’이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란터에 딸린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ㅅ+고개[峙]’로 분석된다. ‘아랫골’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아랫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아랫고개 북쪽 위에 있는 골짜기로, 가정리 산64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아래[下]+ㅅ+고개[峙]’로 분석된다. 도로가 개설되기 전 가정리와 박암리의 웃바개미로 연결되는 골짜기인 ‘음지폐’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아랫들

[형태] 들

[위치] 가정리마을회관 주변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 아래쪽에 있는 들”이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가정리 아래쪽에 있는 들로 대곡에 있는 벼덩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들[坪]’로 분석된다.

● 안골

[별칭] 안꼴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저수지 남쪽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절골과 대곡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안[內]+골[谷]’로 분석된다.

● 앞들

[형태] 들

[위치] 가정3리마을회관에서 북동쪽으로 600m 남짓 떨어져 있다.

[유래] 도로지명 ‘큰성골길’이 북동 방향에서 위 아래로 갈라지는 사이에 있는 들(밭)이다. 마을 앞쪽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약물

[형태] 우물

[위치] 쟁골에서 북쪽으로 뻗어있는 골짜기인 물안골에 있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쟁골에서 한시간 반 정도 걸어서 가면 산의 9부 능선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밑으로 약 3m 가량 길이의 굴이 뚫어져 있다.”라 하였다.

● 약바우

[별칭] 약암리(藥岩里)

[형태] 마을, 바위

[위치] 딴윗산 남쪽에서 서쪽 방향 마을 건너편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약암리(藥岩里). 약바우가 있는 마을. 텁골 북쪽 딴윗산 기슭에 있는 큰 바우가 매우 영험하여 병든 사람을 위하여 빌면

효험이 있다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약(藥)+바우[岩]’로 분석된다. 병을 낫게 하는 효험이 있는 바위란 의미인데, 그 바위가 있는 마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 약바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약바우 뒤쪽[서쪽] 방향으로 가정리 산98번지 일대이다.

[유래] 약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엄연당(儼然堂)

[별칭] 늄연실(凜然室)

[형태] 건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제청말에 있는 사당. 인조(仁祖) 때 침판 취흘(醉飮) 유숙(柳瀟)의 화분을 모신 사당. 춘추로 제사를 지냄”이라 하였다. ‘늄연실(凜然室)’의 또 다른 이름이다.

● 여우내

[별칭] 우계(右溪, 遇溪), 여의내, 여우계(如遇溪)

[형태] 하천, 마을

[위치] 가정중학교 뒤편으로 난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개울인데, 개울이 흐르는 마을도 아울러 가리킨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여우니(如遇溪)’가 기재되어 있다. 『춘천지명유래』에 “가정리 옆에 있는 마을. 이곳에서 의암 유인석이 탄생했다. 여우내 뒤에 있는 골짜기를 여우냇골이라 한다. 정미의병 때 유홍석(柳弘錫)을 주축으로 한 의병이 탄약을 만들었으며 의병을 훈련시켰다. 지금도 첫조각이 나오고 첫물이 녹았던 자리가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여성의병 윤희순(尹熙順)도 여우냇골 의병진에 참

가했다.”라 하였다. 가정리 고흥류씨 중에 이 곳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을 우계파(右溪派)라 한다.

[어원풀이] ‘여우[狐]+내[川]’로 추정된다. 여우처럼 모습을 바꾸는 냇물이란 뜻이다.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내리면 흐르는 개천인 건천(乾川)에서 따온 지명으로 보인다.

● 여의내골

[별칭] 여우냇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중학교 뒤편으로 난 긴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여우내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의내+여우내+골[谷]’로 분석된다. ‘여우내’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여우내’ 참조.



의암류인석기념관 앞으로 이전한 안내석

● 오리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여의내골을 따라 올라가다 좌측[북쪽]으로 난 골짜기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여우냇골 줄기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여의내골의병훈련장

[형태] 터

[위치] 여의내골

[유래] 구한말 춘천출신 의병장인 유홍석과 부인 윤희순 등이 화약과 탄환 등을 제조하고 의병을 훈련시키던 곳이다. 안내석은 의암류인석기념관 앞으로 옮겼다.



여의내골에 있는 훈련장 터

● 올여울

[별칭] 울여울, 읊여울

[형태] 여울

[위치] 홍천강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홍천강(洪川江)에 있는 여울. 물살이 세어서 늘 소리가 남”이라 하였다. 청평댐 공사로 수위가 상승하면서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올/울[鳴]-+여울’로 분석된다.

● 웅장골

[별칭] 웅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3리 쟁골을 따라 곁가지로 펼쳐진 골짜기 가운데 굽아우골 좌측 골짜기이다.

[유래] 웅기를 굽던 가마나 웅기점이 있던 골짜기

란 의미이다. 지역민이 중언에 따르면 피난민이 많아 내려와 살았던 큰 골짜기라고도 하므로 ‘옹장골’이란 지명으로도 불렸다.

[어원풀이] ‘옹(甕)+장/점[店]+골[谷]’로 분석된다.



옹장골

● 옷물

[별칭] 쟁골약수

[형태] 우물

[위치] 쟁골을 따라가다 좌측[북쪽]으로 난 골짜기인 물안골에 있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가정리 쟁골약수라고도 한다. 쟁골 입구인 설통거리 밑 계곡물 옆에 있는 샘물이다. 옷에 오른 사람이 이 물로 씻으면 말끔히 나았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옻[漆]+물[水]’로 분석된다.

● 왕골

[별칭] 왕월골 웅월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1리 마을회관 동쪽 산자락에 있는 골짜기로, 가정리 산28번지 일대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왕(王)+골[谷]’로 분석된다. ‘왕월골’은 ‘왕[王]+월[洞]+골[谷]’로 분석되며, ‘앵월골’은 ‘왕월골’의 이칭이다. ‘왕월’ 참조.

● 왕월

[별칭] 왕동(旺洞), 웅월

[형태] 마을, 들

[위치] 가정1리마을회관 남동쪽 마을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여우내 북쪽 들에 있는 마을. 웅월 뒤에 있는 골짜기는 웅월골”이라 하였다. 가정1리 들판을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왕(王)+월[洞]’로 분석된다. 왕월 맞은 편[서쪽]을 ‘덧골’ 또는 ‘대곡(垈谷)’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큰 골짜기 또는 큰 들판이란 의미로 보인다.

● 우터골

[별칭] 웃터골, 웃덧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3리 한화제약 서북쪽 골짜기로, 가정리 357번지 일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덧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上]+터[垈명]+골[谷]’로 분석된다. ‘터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유중락 묘

[형태] 골짜기

[위치] 여의내골

[유래] 구한말 춘천 출신 의병장인 유중락(柳重洛, 1842~1922)과 부인 죽산박씨의 무덤이다.



유중락 묘

● 은행나무

[형태] 나무

[위치] 가정저수지와 가정3리 방향으로 갈라진 벌판 가운데로, 딴.Modules 앞 들판에 있다.

[유래] 가정리 당산목 역할을 하던 은행나무로, 높이는 25m, 수령(樹齡)은 500여년이 되었다.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은행나무

● 음지파

[형태] 골짜기

[위치] 고란터 북쪽에 있는 뒷골에서 좌측[서쪽] 방향으로 더 들어가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음지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가정리에서 박암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

되기 전에는 가정리에서 뒷골과 음지파를 거쳐 박암리의 웃바개미로 연결되는 길이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음지(陰地)+파(沛)’로 분석된다. ‘음푹 파여서 항상 그늘지는 곳’이란 의미이다.

● 의정공 묘

[형태] 무덤

[위치] 가정저수지 방향에서 북쪽 골짜기인 능골에 있다.

[유래] 능골에 있는 흥성부원군(興城府院君) 유몽표(柳夢彪)의 묘이다.

● 쟁골

[별칭] 재궁동(齋宮洞)

[형태] 골짜기, 마을

[위치] 수락산 북쪽 가정3리로 들어가는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제청말 위에 있는 마을. 흥성부원군(興城府院君) 유몽표(柳夢彪)의 재궁이 있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재궁(齋宮)+동(洞)’에서 ‘재궁(齋宮)’이 ‘쟁’으로 변음 축약되어 ‘쟁+ㅅ+골’이 되었다.

● 절골

[별칭] 사동(寺洞),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저수지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집실 동쪽에 있는 마을. 절이 있었음”이라 하였다. 가정리의 옛 행정명인 사동리(寺洞里)의 근원이 되는 지명이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절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제청말

[별칭] 제청촌(祭廳村)

[형태] 마을

[위치] 만둣산 북쪽, 수락산 앞쪽 마을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웽월 북쪽에 있는 마을. 광해 때 취흘(醉乞) 유숙(柳肅), 문상옹(汶上翁) 유혁(柳奕), 태우(泰宇) 유활(柳活) 삼형제가 그 부모의 제청을 이곳에 모시고 6년간 시묘(侍墓)를 살았음”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제청(祭廳)+말[村]’로 분석된다. 제청(祭廳)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제청(祭廳)은 장례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 옆에 임시로 마련 한 제터를 말한다. 고흥류씨 재실이 있다.

항와(恒萬) 유중악(柳重岳)을 배향하고 춘추로 제사 를 지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주일(主一)’은 “마음에 경(敬)을 두고 정 신을 집중하여 외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일무적(主一無適)’에서 따온 말이다.

● 중의 물

[형태] 샘물

[위치] 절골에 있는 절터에 있던 우물이다. 현재는 저수지가 생기면서 수몰되었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절골 절터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중이 먹던 우물이다. 바른골, 문안골 가는 그곳이다.”라 하였다.

● 주일당(主一堂)

[형태] 건물

[위치]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자에 있는 사당.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의암(毅庵) 유인석(柳麟錫).

● 주산

[별칭] 쥐산

[형태] 산

[위치] 강원학생교육원 뒤쪽 산



주일당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여우내골에 있는 높은 봉을 일컫는다. 밸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란 설명으로 ‘쥐산’이 소개되어 있다.

● 점터

[별칭] 즘터

[형태] 골짜기

[위치] 텁글[垈谷] 입구

[어원풀이] ‘점(店)+터[基]’로 분석된다. 옹기를 구워서 팔던 옹기점이 있던 곳이란 뜻이다.

● 차돌배기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차돌이 많이 박혀 있는 들이라 하였다.

● 지바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3리 쟁골로 들어가는 초입의 북쪽 골짜기로, 가정리 산125-2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지/제[祭]+바/밭[田]+골[谷]’으로 분석된다. 제사에 필요한 용품을 생산하는 밭을 ‘지밭’이라 하는데 여기서 유래한 지명이다. ‘지밭’은 ‘제밭’의 변이형이다. ‘제밭’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청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챙골’ 상부에 있는 ‘선교사의집’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쟁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청밧고개

[별칭] 청았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정리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청밭/청밧+고개’로 분석된다. ‘청밭’→‘청밧’→‘청앗’으로 변형되었다. ‘청밭’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집실(執室)

[별칭] 집술

[형태] 마을

[위치] 가정3리 쟁골로 들어가는 초입 마을이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약바우 북쪽 쟁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한자로 집실(執室)이라고도 쓴다. 의병 김경달(金敬達, 1849~1896)의 묘소가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집/지밭+실[村]’로 추정된다. 제사에 필요한 용품을 생산하는 밭인 ‘지밭’이 ‘집’으로 와전된 것이다. ‘지밭’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취흘공묘(醉吃公墓)

[형태] 무덤

[위치] 수락산 중턱 능골

[유래] 취흘(醉吃) 유숙(柳瀟)의 묘이다.

● 큰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쟁골에서 미나리폭포 가기 전 좌측[북쪽]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굴아우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큰한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성골에서 동쪽방향 골짜기이다. 골짜기를 따라 계속 올라가면 남면 창촌3리와 후동리로 연결된다.

[어원풀이] ‘큰[大]+한[漢]+치[峙]+골[谷]’로 분석된다. ‘큰’과 ‘한’은 동일한 의미이다. ‘큰 고개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성된 마을이란 의미이다.

● 평촌들

[형태] 들

[위치] 가정1리 마을회관 주변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평촌 부근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 텃골

[별칭] 대곡(垈谷), 대골

[형태] 마을

[위치] 가정1리 마을회관 서쪽으로 가정천 건너편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란터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넓은 터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주변엔 도로지명 ‘대곡길’이 산재한다.

● 할미바위

[형태] 바위

[위치] 쟁골에서 갈라져 나가는 옹장골 건너편으로, 가정3리 마을쉼터 뒤편이다.



할미바위

[유래] 산 초입에 바위가 곧게 솟아 있는데 그 모습이 할머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약바위 옆 판랫산에도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할미+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평촌

[별칭] 벼덩

[형태] 마을

[위치] 가정1리 마을회관 주변. 동쪽 왕월과 서쪽 대곡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벼덩. 벼덩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평촌은 글자 그대로 평평한 들판에 조

● 훌짝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정리에서 빙하리로 넘어가는 도로 서쪽편 골짜기로 가정2리 마을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웃바우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훌짝/훌쭉+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



홍무벽

가 길고 좁게 뻗어 있는 모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 홍무벽(洪武壁)

[별칭] 글씨바위

[형태] 바위

[위치] 고란터에서 홍천강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 면 강가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란터 남서쪽 홍천강가에 있는 큰 바위. 앞면에 ‘기봉강역(箕封疆域) 홍무의 관(洪武衣冠)’ 여덟 자가 새겨져 있음”이라 하였다.

씨(李氏)가 효성이 지극하여, 산새와 물고기를 잡아 부모를 봉양하며, 먼 산골짜기의 물을 길어다가 부모에게 드리는데, 이씨가 꿈에 얻은 신령의 지시를 따라 살강 밑을 파니 맛 좋은 물이 나왔으므로, 그 종조(從祖)가 되는 참관 유영하(柳榮河)가 효정기(孝井記)를 지어 크게 칭찬하였음.”이라 하였다.

● 효정(孝井)

[형태] 우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약마우 서쪽에 있는 우물. 조선 철종(哲宗) 때 유중이(柳重履)와 그 아내 이

위치와 현황 | 마을 대부분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구릉성 지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강이 마을을 감싸며 흐르고 있고, 동부는 산지로 조성되어 있다. 자연마을로는 갓내울, 서낭댕이, 아랫마을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남산외면(南山外面)의 관라불(冠羅佛)이 표기되어 있는데 관천리인지 불명확하다. 『여지도서』는 남산외면(南山外面) 관천리(冠川里)라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의 관천리(冠川里)로,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산외면(南山外面) 관천리(冠川里)라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관천리(冠川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남면(南面) 관천리(冠川里)라 표기했다. 현재 법정리와 행정리 모두 동일하게 관천리다.

유래 | 소양강과 홍천강이 합하는 어귀에 있으므로 갓내울 또는 관내, 입천(笠川)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개웅개, 쇳골을 병합하여 관천리라 하였다.

● 갓내울

[별칭] 관천리(冠川里), 간내울, 간내울(竿奈兀), 입천(笠川)

[형태] 마을

[위치] 홍천강이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곳에 있다.

[유래] 행정지명 관천리(冠川里)의 고유지명이다. 홍천강이 북한강과 만나는 지점이기에 '강물이 시작되는 곳', 또는 '강변에 있는 골짜기[마을]'란 의미에서 부여된 지명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마을 이름으로 '간나울[冠川里]'이 등재되어 있다. '간내울' '간내울'은 변형된 명칭이고 '입천(笠川)'은 멎을 부린 명칭이다.

[어원풀이] '갓[冠]+내[川]+울[谷]'로 분석된다.

붙인 지명이라고 지역민은 중언한다. 관천리 끝자락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갓뫼'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추론된다. '갓뫼' → '갈뫼' → '갈마'로 변이되고 거기에 '산'이 중복되어 붙은 것이다.

[어원풀이] '갓/갈+뫼/마+산'으로 분석된다.



갈마산

● 갓내울나루

[형태] 나루

[위치] 박암관천길 끝 북한강 가에 있다.

[유래] 갓내울에 있는 나루터이기에 붙인 이름이다. 북한강 건너 가평군 외서면에 있던 고성리(고생이)나루터와 오고가던 배가 있었으며, 청평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홍천강을 따라 내려온 뗏목꾼들이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간나울쥬막(冠川酒幕)'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뗏목꾼을 비롯하여 나루 이용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어원풀이] '갓내울+나루'로 분석된다.

● 갈마산(渴馬山)

[별칭] 강마산

[형태] 산

[위치] 쉿골에서 윤대로 가는 길에 있는 야트막한 산이다

[유래] 풍수지리상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이라서

● 가옹개

[별칭] 개옹개, 개용개, 가온개, 개온개, 개궁개

[형태] 마을

[위치] 관천리 일대

[유래] 서낭댕이에 있는 '개옹개골'에서 관천리 끝 북한강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두루 통칭하는 지명이다. 가옹개로 불리는 지역이 넓기에 '개옹개골'과 한참 떨어진 쉿골 부근 도로명도 현재 '가옹개길'로 표기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옹개'의 '옹'은 흔하게 지명에서 '음절말음'-ㄴ-'이'이'옹소리'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 '가온개/개온개'일 수 있다. 홍천강이 굽이치는 곡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에 있는 물가' 정도의 의미로 추정된다.

● 개옹개골

[별칭] 개옹개골, 개옹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낭댕이에서 산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유래] ‘가옹개’ 참조.

● 개공동묘

[형태] 골짜기

[위치] 배나뭇골 북쪽

[유래] 예전에 마을에서 죽은 갓난아이 시체를 묻었던 곳인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개공동묘라 불렀다고 하며, 마을의 공동묘지는 ‘미네미’란 곳에 별도로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개+공동묘’로 분석된다.

● 넉동구리

[형태] 들

[위치] 숫골 부근

[유래] 홍천강 가에 있던 들판인데 지금은 대부분 강물에 매몰되었다. 종일 밭을 갈아도 네 고랑 밖에 못 갈 정도로 길어서 생긴 지명이다.

[어원풀이] ‘넉+동+구리/갈이’로 분석된다.



넉동구리

● 단지뫼기

[별칭] 단지메기, 단지목

[형태] 고개

[위치] 관천리와 박암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 강가

쪽 길이 아니라 북쪽 산등성이에 있다.

[어원풀이] ‘단지+뫼기’로 분석된다. ‘뫼기/메기/매기/모기/목이’ 등은 ‘목(項)’의 변이형이다. ‘목’은 ‘좁다란 산협이나 물 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이면서 ‘통로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지형적 특징으로 가진다. ‘단지’처럼 생긴 골짜기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배나뭇골에서 산쪽으로 펼쳐진 골짜기

[유래] 북한강을 기준으로 배나뭇골 뒤편에 있다고 하여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뒤[後]+ㅅ+골’로 분석된다.

● 미네미

[별칭] 마네미

[형태] 골짜기

[위치] 서낭댕이 뒤편 골짜기

[유래] 예전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골짜기이다. 공동묘지로 넘어가는 골짜기, 공동묘지 너머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미/묘[墓]+너미/네미[越]’로 분석된다.

● 마산골

[형태] 고개

[위치] 단지뫼기 넘어가는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말이 나왔다는 골짜기. 옛날에 용마가 나왔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산골’로 분석된다. ‘마’는 ‘남쪽’을 의미하므로 관천리 ‘남쪽 산골’이란 의미로 볼 수 있다.

[유래] 가평 금대리에서 아기장수가 태어났는데, 아기장수가 탈 말이 나온 곳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 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웃말 북쪽에 있다.

[유래] 옛날 을축년 대장마 때 북한강이 범람해 이 곳에 배를 묶어두었기에 생겨난 지명이라고도 하고 배나무가 많았던 골짜기라고도 한다. 현재는 몇 채의 집과 캠핑장, 밭이 펼쳐져 있다.

[어원풀이] ‘배나무+ㅅ+골’로 분석된다.

배나뭇골



● 불큰뎃고개

[형태] 고개

[위치] 배나뭇골에서 산쪽으로 올라가는 고개

[유래] 주변이 황토라 붉은색을 띠기에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붉은/불큰+데[垈]+ㅅ+고개’로 분석된다.

● 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서낭댕이 부근의 홍천강에서 도로로 올라오는 고개

[유래] 홍천강 물줄기를 따라 형성되었던 길이 청평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산중턱에 새롭게 현재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예전 길에서 현재 축사가 있는 도로로 올라오던 고개가 서낭고개이다. 예전에는 서낭당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사진에서 강 가쪽 소나무가 우거진 둔덕에 서낭당이 있었고 그 위편으로 고개길이 열핏 보인다.

[어원풀이] ‘서낭[城隍]+고개’로 분석된다.



서낭고개

● 봉우재

[형태] 고개

[위치] 서낭댕이 뒤편

[유래] 서낭댕이에서 윤대로 가는 고개가 있다.

[어원풀이] ‘봉우리+재’로 분석된다. 봉우리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부엉바우

[형태] 바위

[위치] 서낭댕이 강가 쪽

[유래] 부엉이가 와서 울던 바위로, 강쪽에서 볼 수 있다.

[어원풀이] ‘부엉+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서낭댕이

[형태] 마을

[위치] 현재 축사 앞 강가 쪽

[유래] 서낭당이 있던 마을이란 의미로 생겨난 지

명이다. 서낭고개 밑에 있다. 예전에는 꽤 큰 마을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수몰되었고 별장이나 펜션 정도만 남아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성황당리(城隍堂里)’로 표기되어 있다.

[어원풀이] ‘서낭당[城隍堂]+이’로 분석된다. ‘서낭당+이’가 ‘서낭댕이’로 변음(Umlaut)된 것이다. 강원 빙언을 포함한 중부 방언에 흔히 쓰인다. ‘당’은 접미사 ‘이’와 결합하면서 ‘당이/댕이/댕/뎅이/대이’ 등 여러 이형태로 나타난다.



서낭댕이

● 세목여울

[별칭] 쇠목여울

[형태] 여울

[위치] 웃물굼치 앞쪽이다.

[유래] 북한강이 홍천강과 만나는 부근에 형성된 여울인데 지금은 북한강 속에 잠겼다.

[어원풀이] ‘세(細)+목(項)+여울(灘)’로 분석된다. 물 속을 가로지르는 가는 길목진 여울이란 의미이다.

● 소잠마루

[별칭] 소잿마루

[형태] 둔덕

[위치] 아랫물굼치 좌측

[유래] 아랫물굼치 좌측에 홍천강쪽으로 뻗어있는 등성이다. 사진에서 좌측편에 보이는 산줄기이다. 예전 길이 있었던 곳이다.

[어원풀이] ‘소잠+마루’로 분석된다. ‘소잠’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마루’는 ‘길게 등성이가 이루어진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뜻하며 ‘정상의 의미보다는 평지보다 약간 높고 평펴침한 곳’을 가리킨다. ‘소가 잠자면서도 넘을 수 있는 적당히 높은 고갯마루’란 의미로 추정된다.



소잠마루

● 슛돌고개

[형태] 고개

[위치] 홍천강 옛길에서 서낭댕이로 올라가는 고개



슛돌고개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숫돌이 나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숯돌+고개’로 분석된다. 숫돌을 만드는
 사암(砂巖)과 이암(泥巖)이 나는 고개란 의미이다.



숯골들

● 숫골

[별칭] 쉬골

[형태] 마을

[위치] 마을회관 좌측

[유래] 관천리 마을회관 좌측에 있는 마을이다. 홍천강 쪽으로는 다랑논이 조성되어 있고, 산쪽으로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다. ‘논밭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쉬’는 ‘수령’을 의미하기도 하니 ‘진흙이 나 개흙이 많은 골짜기’란 의미도 가능하다.

[어원풀이] ‘쉬+ㅅ+골[谷]’로 분석된다. ‘쉬’는 ‘곡식이 열리는 풀’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다. 『신증유합』에는 ‘禾’의 음과 뜻을 ‘쉬 화’로 풀이하고 있다.



숯골

● 숫골들

[형태] 들

[위치] 마을회관 좌측 ‘숯골’ 아래, ‘아랫말굼치’ 위 쪽이다.

[유래] 숫골에 있는 들판이란 말로 현재도 다랑논이 형성되어 있다.

[어원풀이] ‘숯골+들’로 분석된다.

● 아랫말

[형태] 마을

[위치] 마을회관 아래 강가에 있다.

[유래] 마을회관 주변이 ‘중간말’이고 그 아래쪽에 있기에 명명된 지명이다.

[어원풀이] ‘아래+ㅅ+말[마을]’로 분석된다.

● 아랫말굼치

[형태] 벌판

[위치] 숫골들 아래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말쪽에 있는 모룡이라 하였다. 흄타구니처럼 생겨 물이 들어오는 곳인데 현재는 흙으로 메웠다.

[어원풀이] ‘우(上)+ㅅ+말(마을)+굼치’로 분석된다. ‘아랫말굼치’와 ‘웃말굼치’는 모두 강쪽으로 늘어진 산기슭 사이에 위치한다. ‘굼치’는 팔이나 발을 굽혔을 때 안쪽의 오목한 부분을 의미하는 ‘오금’과 ‘팔(발)굼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 옷물

[별칭] 우두물

[형태] 우물

[위치] 서낭댕이 서낭고개 옆

[유래] 웃 오른데 좋다는 우물인데 현재는 사라졌다.
[어원풀이] ‘웃[漆]+물[우물]’로 분석된다. ‘웃우물’이 ‘온우물’로 발음되고 ‘오두물/우두물’로 변음되었다.

● 웃골

[별칭] 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어빈슬로우시티 들어가기 전 골짜기이다.

[유래] 『춘천지명유래』에 갓내울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上]+ㅅ+골[谷]’로 분석된다.

들판이다. 예전에는 논밭이 많았는데 현재는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다.

[어원풀이] ‘아랫말꿈치’ 참조.



웃말꿈치

● 웃말

[형태] 마을

[위치] 중간말 북쪽으로 웃말고개 너머에 있다.

[유래] 관천리 마을회관 부근이 ‘중간말’이고, 남쪽 홍천강가쪽 마을이 ‘아랫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 ‘웃말’이다.

[어원풀이] ‘우[上]+ㅅ+말[마을]’로 분석된다.

● 윤대

[형태] 골짜기

[위치] 웃골 부근에 있다. 개옹개골과 연결되는 임도가 있다.

[유래] 산속 골짜기인데 넓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다. 윤씨가 전답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서 ‘윤대’라 불렀다고 한다.

[어원풀이] ‘윤(潤)+대(垈)’로 분석된다. 물이 있고 땅이 기름져 농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곳이란 의미로 보인다.



윤대

● 웃말고개

[형태] 고개

[위치] 중간말과 웃말 사이

[유래] 중간말과 웃말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현재는 평탄화 작업으로 낮아졌지만 예전에는 꽤 높았다고 한다.

[어원풀이] ‘우[上]+ㅅ+말[마을]+고개’로 분석된다.

● 웃말꿈치

[형태] 들판

[위치] 웃말에서 북한강 강변에 있다.

[유래] 웃말에서 북한강 강변쪽으로 펼쳐져 있는

● 장사바우

[형태] 바위

[위치] 배나뭇골 산쪽에 있다.

[유래] 옛날에 장사(壯士)가 공깃돌처럼 던지며 놀던 바위로, 바위 위에는 말발자국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장사(壯士)+바우(바위)’로 분석된다.

[유래답]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가평 장사와 관천리 장사가 서로 바위를 공깃돌처럼 던지며 놀았다 고 한다.

● 장설미

[형태] 들

[위치] 웃말

[유래] 웃말에서 강을 따라 길게 뻗은 들판을 말한다. 산자락도 함께 길게 늘어져 있다.

[어원풀이] ‘장(長)+설/살[箭]+미/뫼[山]’로 분석된다. 화살처럼 한쪽으로 길게 뻗은 들이나 산을 말한다.

● 절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낭댕이 축사 뒤편 끝에 있다.

[유래] 예전에 절이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절[寺]+터[墓]+ㅅ+골[谷]’로 분석된다.

● 틈바우

[형태] 바위

[위치] 가옹개 요양원 아래 강쪽에 있다. 예전에는 그 길로 박암리와 가정리를 다녔다.

[유래] 사람기보다 조금 더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고 그 사이로 길이 나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틈+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항짬부리

[별칭] 항짬부리

[형태] 들

[위치] 관천리 끝 아랫물굼치 우측편으로 아래 사진에서 캠핑장이 들어선 부근이다.

[유래] 아랫물굼치 우측편으로 펼쳐진 둑덕이다. 홍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강가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아래쪽으로는 물에 잠겼고 평탄화 작업으로 현재 둑덕이기보다는 들판에 가깝다.

[어원풀이] ‘항짬+부리’로 분석된다. ‘항짬’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강가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부리’라 하였다. ‘한물(큰물, 홍수)이 나면 물에 잠기는 들’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항짬부리

위치와 현황 | 박암리는 남쪽으로 홍천강이 흐르고, 청평호 상류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웃말, 본말, 함바지 등이 있다. 박암리는 바개미, 소가암, 박의암, 박암이라고도 부른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남산외면(南山外面)의 소가암(所加巖)으로 표기했다. 이후 『조선지 지자료』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의 박의암리(博衣岩里)로,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 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의 박암리(博岩里)로,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남면(南面) 박암리(博岩里)로 표기했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박암리다.

유래 | 본래 바개미 또는 박의암, 박암, 소가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웃바개미, 별말, 지누리를 병합하여 박암리(博岩里)라 하였다.

● 가운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웃바개미 위쪽에 있다.

[유래] 웃바개미에서 단지메기로 이어지는 골짜기이다. 단지메기가 박암리와 관천리의 경계이기에 박암리와 관천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가운데+ㅅ+골’로 분석된다.



가운뎃골

● 고무덕골

[별칭] 가무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박암리 마을회관 좌측 건너편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고무/가무[熊]+덕[둔덕]+골[谷]’로 분석된다. 큰 둔덕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고무덕골

● 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미골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

[유래] 구미골과 양쪽으로 갈라진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갈[分]+골[谷]’로 분석된다.



갈골

● 골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방례저를 지나면서 보이는 벌판 마을의 산쪽 골짜기. 차미을 아래.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골[谷]+개[溪]+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에서 흘러오는 개울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구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제따나와선원을 지나 더 들어가 도로 끝 부분 골짜기. 갈골 우측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구미/굼+골[谷]’로 분석된다. ‘옴푹 패인 것처럼 깊숙한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단지메기

[별칭] 단지뫼기, 단지목

[형태] 고개

[위치] 박암리와 관천리 경계에 있는 고개이기에 관천리에도 동일한 지명이 쓰인다.

[유래] 웃바개미에서 가운뎃골을 지나 관천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예전에 박암리 주민들은 단지메기를 넘어 관천리 북한강가에서 가평 금대리나루터를 이용하였다라고 한다. 현재도 성황당이 있다.

[어원풀이] ‘단지+뫼기’로 분석되며 ‘뫼기/메기/매기/모기/목이’ 등은 ‘목(項)’의 변이형이다.

● 대감묘

[별칭] 양문대감묘, 대감산소

[형태] 무덤

[위치] 함바지 홍천강 근처

[유래] 조선후기 문신인 이서구(李書九)와 그의 부친인 이원(李遠)의 무덤이다. 이원(李遠)의 무덤이 원래 경기도 포천군 양문리에 있었기에 양문대감묘라고도 부른다.

[어원풀이] ‘대감(大監)+묘(墓)’ 분석된다.

[유래담] 이서구 사후에 비석을 만들기 위한 석재를 강원도에서 채취하여 홍천강 물길을 따라 신고 오던 중 박암리 앞에 이르자 배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 하늘의 뜻이라 하여 이곳에 무덤을 조성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대감묘

● 되링개터

[별칭] 도렁개터

[형태] 마을

[위치] 이대을 근처

[유래] 홍천강이 돌아서 흐르는 곳에 있는 지역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돌린[回]/돌링+개[溪]+터(基)’로 분석된다. ‘돌리-+ㄴ(관형사형어미)’에서 ‘ㄴ’이 ‘이옹소리’로 변음(돌링)되는 일은 특히 지명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돌아가는 물가에 있는 터란 의미이다.

● 동산

[형태] 산

[위치] 바개미 입구 동쪽에 있는 얕은 산이다.

[어원풀이] ‘동(東, 洞)+산(山)’으로 분석된다. 동쪽에 있는 산, 또는 동네에 있는 산이란 의미이다.



동산

● 뒷재

[별칭] 뒷재, 뺏재

[형태] 고개, 산

[위치] 웃바개미 북쪽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이다. 그 산을 넘으면 가정리와 연결된다.

[유래] 비교적 높은 산이기에 넘어 다니기가 힘들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어원풀이] ‘되[돼]+ㅅ+재[峙]’로 분석한다. ‘고되고 힘들다’의 방언(주로 남부방언권)이 ‘되다’이다. ‘되다’의 발음이 [돼다/뒈다]로 실현되기에 ‘뒷재’가 ‘뒷재’로 표기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지명접미사 ‘재’가 ‘고개’ 이외에 ‘산’ 자체에 부여되는 경우도 많다.

● 문앞골

[형태] 골짜기

[위치] 벌말 입구에 있는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문하동(門下洞)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문(門)+앞[前, 下]+골[谷]’로 분석된다. 문앞골 뒤편 산쪽에 ‘쌍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마을의 문 역할을 하여 생겨난 지명으로 추정된다.

● 미처울

[별칭] 미처울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체육대학교 왕터연수원 부근이다.

[유래] 가정리에서 박암리로 접어드는 초입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미처+울/울[谷]’로 분석된다. ‘미처’는 ‘미치[美峙]’의 와전으로 보이는데, ‘미’는 산을 의미하는 ‘뫼’로 볼 수도 있고, 고대어에서 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높은 고개가 있는 골짜기’거나 ‘물가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바개미

[별칭] 박암(博岩), 박의암(博衣岩), 바가미, 소가암(所加岩)

[형태] 마을

[위치] 박암리

[유래] 박암리의 중심마을이자 바탕이 되는 지명이다. 표기된 한자를 보면 ‘넓은 바위[博岩]’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그런 바위가 없다고 한다.

[어원풀이] ‘박[博]+암[岩]/앰+이’로 분석된다. ‘소가암(所加岩)’의 ‘소(所)’는 뜻이 ‘바’이고 ‘가(加)’는 받침 ‘ㄱ’의 역할을 하기에 ‘박’이 된다.

● 바랑골

[별칭] 바른골

[형태] 골짜기

[위치] 뒷재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유래] 뒷재 오른쪽에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바랑/바른[右]+골[谷]’로 분석된다.

● 범말재

[별칭] 본발재, 본발치

[형태] 골짜기

[위치] 가운데골 옆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범의 빌자국이 있는 바위라 하였다. 그런데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그런 바위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어원풀이] ‘가운뎃골’에서 내려오면 박암리의 본마을이 나오므로 ‘본마을로 가는 골짜기’ 정도의 의미로 추정된다. ‘본말’이 ‘봄말’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 본말

[별칭] 벌말, 중간말, 중리(中里)

[형태] 마을

[위치] 웃바개미 아래쪽에 있다.

[유래] 박암리의 중앙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본말 또는 중간말로 불렸다. ‘벌말’로도 불리는데 ‘본



본말

말’의 와전일 수도 있고, 벌판에 있는 마을이란 의
미의 지명일 수도 있다.

[어원풀이] 가정리를 지난 홍천강이 북쪽 큰 골에
형성된 박암리에 이르러, 홍천강과 ‘바개미(박암)
와의 중앙 부분인 벌판에 있다는 말이다.

● 샛골

[별칭] 샛골재

[형태] 골짜기

[위치] 웃박암에서 가정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유래] 가정리와 박암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
미이다.

[어원풀이] ‘사이[間]/새+골[谷]’로 분석된다.

● 살찐바우

[형태] 바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통통하게 생긴 바위라 하
였다.

[어원풀이] ‘살+찐+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쌍바우

[형태] 바위

[위치] 문앞골 뒤편 산쪽

[유래]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바위이다.

[어원풀이] ‘쌍(雙)+바우[岩]’로 분석된다.

● 서낭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단지메기 고개 부근

[유래] 단지메기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겼다고 한다.

[어원풀이] ‘이대+울’로 분석된다. ‘-울’은 ‘골/울’로 마을(고을), 골짜기, 고개 등을 의미한다. ‘이대’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이대울

● 웃바개미

[별칭] 웃바개미, 상리(上里), 웃말, 상박암(上博岩)

[형태] 마을

[위치] 박암리 본마을에서 산쪽으로 더 올라가면 나온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바개미 웃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개미’ 참조.

● 오금리

[형태] 마을

[위치] 동방레저와 박암지 부근이다.

[유래] 홍천강 쪽으로 육지가 돌출되어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오금+리(里)’로 분석된다. ‘오금’처럼 생긴 마을이란 의미이다. ‘오금’은 무릎 관절 안쪽의 오목한 부분을 말한다.

● 지누리

[별칭] 진우리

[형태] 마을

[위치] 웃박암과 벌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웃바개미에 펼린 작은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진[長]+울[谷]+이’로 분석된다. 박암리 본말과 웃바개미 사이가 꽤 긴 등선으로 이루어졌기에 생겨난 이름으로 추정된다.

● 이대울

[별칭] 이대울

[형태] 이대울은 홍천강가에 있는 골짜기이고 그 위 고개가 팔풍재이다.

[위치] 가정리에서 박암리로 연결되는 국도에서 되링개터 가기 전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팔풍재와 동일한 지명이라 하였다. 그런데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강가 쪽에 있는 골짜기가 이대울이고, 팔풍재는 국도 위 산쪽이라 하였다. 청평댐이 생기면서 골짜기가 많이 잠

● 차멸

[별칭] 채멸, 채미울, 차미울

[형태] 골짜기

[위치] 가운뎃골 넘어 관천리 들어가기 전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채멸. 가운뎃골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천자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함바지 뒤편 산속이다. 가운데 골 넘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차멸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천자+골’로 분석된다. ‘천자’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위치] 단지폐기 가는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횃골이 있는 모룡이라 하였다. 지역민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대신 단지폐기 가는 골짜기에 횃가마가 있었다고 하므로 그 골짜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회(灰)+ㅅ+모룡이’로 분석된다.

● 팔풍재

[별칭] 팔풍재

[형태] 고개

[위치] 되링개터 옆 이대울에서 북쪽 산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얏마루, 이대울, 바개미에 있는 재”라 하였다. 지역민은 ‘가얏마루’ 또는 ‘가얏고개’에 대해 알지 못한다.

[어원풀이] ‘팔풍+재’로 분석된다. ‘팔풍/팔풍’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팔봉’ 또는 ‘발봉’의 와전인 듯하다.

● 함바지

[별칭] 하리(下里)

[형태] 마을

[위치] 관천리 서낭댕이 가기 전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개미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함/한[大]+박[바위]+이’로 분석된다. 유사한 지명으로 ‘함박골’이 있는데, ‘큰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암(博岩)’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함/한[大]+바/밭[田]+이’로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이럴 경우 ‘큰 밭이 있는 곳’이란 의미가 된다.

● 횃모룡이

[형태] 골짜기

4절

발산리(鉢山里)

위치와 현황 | 서쪽으로 홍천강이 흐르고, 청평호 상류에 위치한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황골, 저질, 솔만이, 전의골, 가재골, 새여울, 속실 등이 있다. 발산리에는 의병장 유홍석과 윤희순이 살던 생가터가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에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의 가지동(加之洞)과 항곡리(恒谷里)로 표기되었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의 발산리(鉢山里)로, 『강원도지』, 『수춘지』는 남면(南面) 발산리(鉢山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발산1리, 발산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발산리고 법정리는 발산1리, 발산2리이다.

유래 | 발산리는 발산리 마을 가운데에 있는 작은 산인 발봉(鉢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지동, 속실, 작은나미섬, 솔만이, 전의골, 저질, 황골을 병합하여 발산리(鉢山里)라 하였다.

● 가래나무골

[별칭] 가래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 황골 안쪽 매차나무골 건너편에 위치함.

[유래] 기존 문헌과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좌방산 자락(남면 발산리 648-1)에 표기되어 있어 현지 거주민의 증언과 위치가 다르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가래나무골’은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와 ‘두 갈래로 갈라진 골짜기’란 의미 두 가지로 설명된 곳이 많은데, 발산리의 경우 가래나무가 많다는 증언도 있고, 매차나무가 있어서 명명된 ‘매차나무골’과 같은 편에 있기에 전자의 경우로 보인다.

[어원풀이] ‘가래나무[楸]+ㅅ+골[谷]’로 분석된다.

● 가재골

[별칭] 가작골, 가지동(加之洞).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교차로에서 홍천강 방향으로 조금 가면 나오는 오천교 부근

[유래] 뒷재봉에서 추곡천 방향으로 펼쳐진 골짜기로, 골짜기 끝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갓[邊]+애[조사]+골[谷]’로 분석된다. ‘가지골/가재골/가랫골/가자골/가작골, 가재말, 가재울(加再鬱), 가지동(加之洞), 가좌동(加佐洞)’ 등 전국에 산재한 지명이다. 한자 지명은 음차표기이며 그 의미와는 무관하다.

● 감투비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감투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감투+바우(바위)’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흔한 편인 바위 이름으로, ‘탕건(宕巾)바위’라고도 한다.

● 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지나 위치한 주유소 뒤편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호랑바우가 있는 골짜기’라 설명되어 있는데, 지역민의 증언에 따르면 ‘호랑바우’와 ‘갯골’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고 한다. 추곡천 물가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개[물가]+ㅅ+골’로 분석된다.

[유래담] 맞은편 쪽에 있는 ‘호랑바우’와 연관시켜 호랑이가 개를 노려보고 있는 형국이란 설명도 전한다. 이 경우 ‘갯골’은 개와 관련된 지명이 된다.

● 거년들

[형태] 들판

[위치] 남면 발산리 271-1 일대이다.

[유래] 포털사이트에 ‘거년들’은 발산교차로에서 홍천강 방면 우측, 추곡천 건너편에 있는 들판에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민이 증언에 따르면 ‘거년들’이란 지명은 쓰이지 않고 ‘멍덜들’로 부르고, 약간 아래쪽 맞은편 들판을 ‘건년들’로 부른다고 한다. 따라서 ‘거년들’이란 지명은 폐지하는 것 이 타당해 보인다.

● 꺽쟁이

[형태] 여울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홍천강(洪川江)에 있는 여

울이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건년들

[형태] 들판

[위치] 발산교차로에서 홍천강 방면으로 오천교를 지나 좌방산 쪽 들판이다.

[유래] 하천(추곡천) 건너편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위치가 좌방산 쪽임을 감안할 때 예전에는 발산교차로에서 홍천강 방면쪽으로 추곡천 우측에 마을이 주로 조성되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어원풀이] ‘건년[越]+들[野]’로 분석된다.

● 골말

[별칭] 골말골

[형태] 마을

[위치] 발산1리 노인정 건너편이다.

[유래] 발산1리 노인정 건너편 쪽에 ‘웃자골’, ‘노랑고개골’ 등 여러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이란 의미이다. 기존 문헌과 지도에는 ‘골말골’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은 ‘골말’로 부른다는 중언이 있다.

[어원풀이] ‘골[谷]+말[마을]’로 분석된다.

● 곰도무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남이섬 맞은편 좌방산 쪽 골짜기이다.

[유래]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를 지닌 ‘공동묘지골’의 변형으로 보이는데, 지역민의 중언에 따르면 마을 공동묘지는 발산1리 노인정 부근 좌방산 인근에 있었다고 하여 ‘곰도무지골’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곰도무지[공동묘지]+골[谷]’로 분석된다.

● 곰동골

[별칭] 곰든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남이섬 맞은 편 좌방산 쪽 골짜기

[유래] 지역민의 중언에 따르면 ‘곰이 들어앉았던 골짜기’란 의미로 ‘곰든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어원풀이] ‘곰[熊]+동[洞]/든[入]+골[谷]’로 분석된다.

● 노랑고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1리 노인정 건너편

[유래] ‘노랑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노랑고개’는 ‘늘란고개’의 변형으로 보인다.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면서 긴 고개란 뜻이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 고개를 넘어 가제골로 다녔다고 한다.

[어원풀이] ‘노랑/늘란[廣]+고개+골[谷]’로 분석된다.

● 달부재

[별칭] 관월산(觀月山)

[형태] 고개

[위치] 발산1리 노인정 맞은편 ‘골말’ 위쪽이다.

[유래] 달을 보던 고개, 즉 달맞이를 하던 고개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달[月]+부[보다]+재[고개]’로 분석된다.

● 달부재장등

[형태] 산

[위치] 발산1리 노인정 맞은편

[유래] 달부재가 위치한 산등성이를 말한다.

[어원풀이] ‘달[月]+부[보다]+재[고개]+장등[등성이]’으로 분석된다.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기존 문현에 ‘가래나무골’ 옆이라 고 하였다.

[유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안방처럼 아늑한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도장+골’로 분석된다. ‘도장’은 ‘안방’의 고어이다.

다. ‘예/애’는 처격조사이다.

● 등지봉

[형태] 산

[위치] 발산1리 노인정 건너편 산

[유래] 등지처럼 생긴 봉우리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등지+봉’으로 분석된다.

● 돌물

[형태] 개울

[위치] 추곡천이 굽이져 흐르기 시작하는 곳

[유래] 법정동인 발산1리와 발산2리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 추곡천이 굽이져 흐르기 시작하는 곳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돌[回]+물[水]’로 분석된다.

● 뒷재골

[별칭] 후현(後峴), 웃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재골에서 북쪽 산쪽에 있는 골짜기

[유래] 가재골 정상에 있는 ‘뒷재봉’이란 봉우리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뒷재’는 마을이나 골짜기 뒤 편에 있는 고개란 뜻이다.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뒷재골’과 ‘웃재골’이 나란히 표기되어 있는데, 지역민의 중언으로는 ‘웃재골’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며, ‘웃재골’이 ‘위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기에 ‘뒷재골’과 동일한 지명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뒤[後]+ㅅ+재[고개]+골[谷]’로 분석된다. 옛날에는 가재골에서 뒷재를 통해 후동리로 오갔다.

● 되룡골

[형태] 골짜기

[위치]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지나 위치한 주유소 뒤편 골짜기

[유래] 기존 문현에는 유래에 대한 설명이 없다. ‘대룡골’의 변이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처럼 등그스름하게 생긴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되[竹]+룡(籠)+골[谷]’로 분석된다.

● 들얹은바우

[형태] 바위

[위치] 큰황골 정상 부근

[유래]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가 올려져 있는 형태 이기에 생겨난 이름이다.

[어원풀이] ‘들[擧]+얹은+바우[岩]’로 분석된다.

[유래담] 옛날에 어떤 장사가 바위를 들어서 엎어 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작은황골’ 부근 골짜기

[유래] 잔디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로, 예전에 무덤이 있었던 곳이기에 생겨난 지명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뙤[잔디]+예/애+ㅅ+골[谷]’로 분석된

● 등잔박골

[별칭] 등잔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밸산교차로에서 추곡리 방향으로 ‘뭇질’ 가기 전 좌방산 방향 골짜기

[유래] 기존 문헌에서 유래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등잔밭골’의 오기로 보인다. ‘등잔밭’은 ‘산등성이에 있는 밭’이란 의미로 풀 수 있다.

[어원풀이] ‘등잔[등성]+박/밭[田]+골[谷]’로 분석된다.

● 매차나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황골에서 가래나무골 맞은편 골짜기

[유래] 매차나무[매자나무]가 많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매차/매자–나무+ㅅ+골[谷]’로 분석된다.

● 명덜말

[별칭] 명덕촌(明德村), 명덕말

[형태] 마을

[위치] 밸산교차로에서 홍천강 방향 추곡천 오른쪽 벌판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명덕처럼 생긴 마을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명덕’은 벌통 위를 덮는 재래식 뚜껑으로, 짚으로 틀어서 바가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어원풀이] ‘명덜[명덕]+말[마을]’로 분석된다. 한 자지명 명덕촌(明德村)은 후에 덧붙여진 이름이다.

● 명덜들

[형태] 벌판

[위치] 명덜말 부근

[유래] 명덜말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명덜+말[마을]’로 분석된다.

● 명지매골

[별칭] 명지매기

[형태] 골짜기

[위치] 밸산1리 노인정 뒤편 좌방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지나 위치함

[유래] 기존 문헌에서 유래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명지’는 명주(明紬)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단이 넘실거리듯 산자락이 펼쳐진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명지[明紬]+매[山]+골[谷]’로 분석된다. ‘명지매기’의 ‘매기’는 ‘목[項]’의 변이형이다.

● 물깻말

[형태] 마을

[위치] 황골에서 홍천강 주변

[유래] 홍천강 물가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물[水]+개[溪]/깨+ㅅ+말[마을]’로 분석된다.

● 뜻질

[별칭] 무젤골, 뜻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강촌IC교차로를 지나 추곡리 방향으로 충효로를 따라가다가 샛길로 직진하는 방향

[유래] 기존 문헌에는 유래에 대한 설명 없이 ‘배나 뜻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근처에 ‘짚고개’란 곳이 있는데 진흙이나 쟤흙이 많은 고개란 의미라고 한다. 따라서 ‘뜻질’은 ‘낮은 곳에 위치하여 물기가 많은 골짜기’란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무[水]+ㅅ+질[室, 谷]’로 분석된다.

● 바른골

[형태] 골짜기

[위치] 빌산1리 노인정 뒤편 좌방산 골짜기 가운데

좌방골 오른편

[유래] ‘길게 쭉 뻗은 골짜기’란 의미나 ‘벼랑처럼 가파른 절벽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볼 수 있다.

[어원풀이] ‘바른[直]/벼랑+골[谷]’로 분석된다.

[어원풀이] ‘배나무+ㅅ+골[谷]’로 분석된다.

● 배바우

[별칭] 선암(船巖)

[형태] 바위

[위치] 소남이섬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배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船]+바우[岩]’로 분석된다.

● 밸봉(鉢峰)

[별칭] 빌산(鉢山)

[형태] 산

[위치] 미상이사.

[유래] 기존 문헌에 ‘빌산리 마을 가운데 있는 작은 산으로 모양이 바릿대처럼 생겼다 함’이라 소개되어 있다. 행정지명 빌산리(鉢山里)의 유래가 되는 산이다. 밸봉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옛날 빌산리의 중심마을이 ‘멍덜말’과 ‘가재골’ 인 점과 일제강점기 지도를 참고할 때 ‘멍덜말’ 북쪽에 있는 ‘뒷재봉(해발 267m)’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밸[바릿대/바리때/발우]+봉(峰)’으로 분석된다.

● 뱕골

[별칭] 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재골을 지나 홍천강 쪽으로 추곡천과 도로가 빙 돌아가는 곳에서 좌방산 쪽 골짜기

[유래] 뱀처럼 길고 완만하게 굽은 곳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뱅/뱀[蛇]+골(谷)’로 분석된다.

● 벼락바우

[형태] 바위

[위치] 큰황골

[유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조각난 형태의 바위를 말한다.

[어원풀이] ‘벼락[雷]+바우[岩]’로 분석된다.

● 봉배들

[형태] 들판

[위치] 남면 추곡리 나막골 맞은편 들판

[유래] 기존 문헌에 소개되지 않은 지명인데, 부엉이 모양의 바위가 있는 들판이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봉[부엉이]+배[바위]+들[野]’로 분석된다.

● 밤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강촌IC교차로를 지나 추곡리 방향 설악막국수 뒤쪽 골짜기

[유래] 밤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밤나무+골[谷]’로 분석된다.

● 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빌산1리 노인정 뒤편 골짜기

[유래]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비둑바우

[형태] 바위

[위치] 비둑재 부근

[유래] 비둘기가 많이 모여드는 바위라고 한다.

[어원풀이] ‘비둑[비둘기]+바우[바위]’이다. ‘비둑바우’에서 ‘비둑’은 ‘비둘기’보다는 ‘비탈’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비탈이 진 것처럼 가파른 바위’ 또는 ‘비탈에 있는 바위’ 정도의 의미이다.

● 비둑재

[형태] 고개

[위치] 충효로에서 소남이섬으로 가는 길

[유래] 비둘기들이 많이 서식하는 고개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비둑[비둘기]+재[고개]’로 분석된다. ‘비둑바우’의 경우처럼 비탈진 고개란 의미이다.

● 삼형제바우

[형태] 바위

[위치] 되룡골

[유래] 되룡골 초입에 있는 바위로, 세 개가 나란히 서 있다.

[어원풀이] ‘삼(三)+형제+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소남이섬

[별칭] 소남도(小南島), 소남이도, 소남이섬

[형태] 섬

[위치] 홍천강

[유래] 홍천강에 있는 섬으로 남이섬보다 작은 섬이란 의미로 불은 이름이다. ‘남이섬’은 ‘마을 앞에 있는 섬’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소(小)+남[앞]+이+섬[島]’으로 분석된다. 조선시대 한자사전에 ‘南’의 풀이를 ‘앞 남’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은 ‘남쪽’이란 의미

외에 ‘앞쪽’이란 의미로도 불린다. 마을 앞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 부르는 경우와 동일하다.

● 소못들어가는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횡골 안쪽 골짜기

[유래] 바위가 많아 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골짜기 안은 꽤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소[牛]+못[否]+들어가는[入]+골[谷]’로 분석된다.

● 속실

[별칭] 석실(石室)

[형태] 마을

[위치] 남면 행정복지센터 부근

[유래] 추곡천과 큰횡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속[裏]+실[室, 村]’로 분석된다.

● 속실들

[형태] 들판

[위치] 속실에서 충효로와 추곡천 사이의 들판

[유래] 속실에 있는 들판이다. ‘속실’ 참조.

[어원풀이] ‘속[裏]+실[室, 村]+들[野]’로 분석된다.

● 솔만이

[별칭] 송만리(松巒里)

[형태] 마을

[위치] 강촌IC교차로 부근 설악막국수 뒤편

[유래] 기존 문헌에서는 ‘백암리에서 제일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백암리는 발산리의 오류이다.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

이 없다.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솔[松]+만이’로 분석된다. ‘송만리(松蠻里)’는 한자표기 지명이다.

● 수암골

[별칭] 수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남면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추곡천 너머 좌방산쪽 골짜기

[유래] ‘수암골’은 ‘수안골’의 오기로 보인다. ‘금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인 ‘숲안골’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근처에 ‘속실’이란 지명이 있기에 ‘속안골’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근처에 있는 다리이름도 ‘수암교’이다.

[어원풀이] ‘수[金 蔽]/[속,裡]+안[內]+골[谷]’로 분석된다.

● 심일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말’에서 홍천강 방면쪽 옆 골짜기

[유래] ‘심일’은 ‘숨은골’이란 뜻으로, 한자로는 ‘은곡(隱谷)’이라 표기한다. ‘숨어있는 듯 잘 보이지 않는 골짜기’거나 ‘나무가 우거져 잘 보이지 않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심일/숨은[隱]+골[谷]’로 분석된다.

● 아랫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기존 문헌에 ‘도장골’이 ‘가래나무골’ 옆이라고 하였다.

[유래] ‘도장골’ 참조.

● 아랫배골

[별칭] 아랫뱀골, 아랫뱅골

[형태] 골짜기

[위치] ‘뱅골’ 뒤편 좌방산 쪽

[유래] 가재골을 지나 홍천강 쪽으로 추곡천과 도로가 빙 돌아가는 곳이 ‘뱅골’인데, 시작점이 ‘윗뱅골’이고 종착점이 ‘아랫뱅골’이다. 기존 문헌과 포털사이트에는 ‘웃배골’, ‘아랫배골’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역민의 증언에 따르면 ‘뱅골’의 오기라고 한다. ‘뱅골’은 ‘뱀골’의 와전으로 뱀처럼 길게 굽은 지형을 말한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배/뱅[뱀]+골[谷]’로 분석된다.

● 아랫자울

[별칭] 아랫재울

[형태] 마을

[위치] ‘돌물’ 하류

[유래] ‘자울’은 전국적으로 ‘장자울’, ‘가자울’ 등 지명의 후부요소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단독 지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남면 발산리가 유일하다.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추곡천이 굽이져 흐르기 시작하는 ‘뱅골’ 부근을 ‘돌물’이라 불렀고, 이를 경계로 상류를 ‘윗재울’, 하류를 ‘아랫재울’로 불렀다고 한다. 현재 법정명인 발산1리와 발산2리의 경계가 된다. 여기서 ‘자울’ 또는 ‘재울’은 ‘개울’의 변이형이 아닌가 한다. 추곡천을 따라 길게 형성된 마을이기에 ‘윗개울’, ‘아랫개울’로 나누어 부른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아래(下)+ㅅ+자울[재울, 개울]’로 분석된다.

● 양짓말

[형태] 마을

[위치] 아랫자율 추곡천 북쪽

[유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양지(陽地)+ㅅ+말[村]’로 분석된다.

● 오짓소

[형태] 소(沼)

[위치] 소남이섬 부근

[유래] 홍천강 소남이섬 부근에 있던 ‘소(沼)’인데 유래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강이나 벌판으로 불쑥 튀어나온 산자락을 의미하는 ‘곶[串]’의 변이형으로 많이 쓰이는 ‘고지[오지]’의 용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오지[고지 串]+ㅅ+소(沼)’로 분석된다.

● 웃배골

[별칭] 웃뱀골, 웃뱅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건넌들’ 끝부분 좌방산 쪽

[유래] 가재골을 지나 홍천강 쪽으로 추곡천과 도로가 빙 돌아가는 곳이 ‘뱅골’인데, 시작점이 ‘웃뱅골’이고 종착점이 ‘아랫뱅골’이다. 기존 문헌과 포털사이트에는 ‘웃배골’, ‘아랫배골’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역민의 중언에 따르면 ‘뱅골’의 오기라고 한다. ‘뱅골’은 ‘뱀골’의 와전으로 뱀처럼 길게 굽은 지형을 말한다.

[어원풀이] ‘위[上]+ㅅ+배/뱅[뱀]+골[谷]’로 분석된다.

● 웃자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말’ 북쪽 골짜기

[유래] 기존 문헌에서는 ‘자율의 위쪽 골짜기’라고 하여 ‘웃자율’과 동일한 지명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웃자율’과 ‘아랫자율’이 ‘돌물’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를 말하므로 ‘웃자골’과는 다른 지명이다. ‘웃자골’은 위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웃자[웃짝]+골[谷]’로 분석된다. ‘웃자’는 ‘위쪽’의 방언인 ‘웃짝’의 변이형이다.

● 웃자울

[별칭] 아랫재울

[형태] 마을

[위치] ‘돌물’ 상류. ‘웃자율’ 아래에 ‘자율’이 있고, ‘자율’은 ‘명덕(명덜)들’ 부근에 있다. ‘명덕들’은 ‘가재골(마을)’에서 동쪽으로 꺾어진 곳에 있다.

[유래] ‘아랫자율’ 참조.

● 원수골

[별칭] 온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뱅골’에서 홍천강 방면쪽으로 내려가다 좌방산 쪽 방면

[유래] 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물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지역민의 중언으로는 샘물이 웃에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개발로 인해 사라졌다 고 한다.

[어원풀이] ‘원수/온수(溫水)+ㅅ+골[谷]’로 분석된다.

● 웃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기존 문헌에 ‘도장골’이 ‘가래나무골’ 옆이라고 하였다.

[유래] ‘도장골’ 참조.

● 응달말

[형태] 마을

[위치] ‘저질’에서 좌방산 쪽 마을

[유래]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응달+말[마을]’로 분석된다.

[위치] 충효로에서 소남이섬으로 가는 길 위쪽

[유래] 충효로와 소남이섬으로 가는 길이 개통되기

전에는 꽤 큰 밭이 있었기에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장(長)+밭[田]+들[野]’로 분석된다.

● 작은솔만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솔만이골’에서 좌방산 방향으로 더 들어간 골짜기

[유래]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란 의미로 명명된 ‘솔만이골’에서 더 깊은 산속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솔만이’ 참조.

● 저질

[형태] 마을

[위치] 잡생이골에서 더 들어간 골짜기

[유래] 기존문헌에서는 ‘갓방산 밑에 있는 마을로 좌방동(座防洞)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저질’과 ‘좌방동’의 연관성은 미상이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저혈(猪穴)에 해당되기에 생겨난 지명이라는 중언이 있다.

[어원답] 마을 뒤편 산자락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통소혈(通索穴)이기에 충주지씨 집안에서 무덤을 조성하면서 7개의 가묘를 만들었다고 함.

● 작은황골

[별칭] 작은황골

[형태] 골짜기

[위치] 남면행정복지센터 부근인 ‘큰황골’ 서쪽 골짜기로 입구에 산토리니펜션이 있다.

[유래] 큰 골짜기란 의미의 황골 가운데 작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작은[小]+황[恒, 크다]+골[谷]’로 분석된다.

● 전의골

[별칭] 전의동(全儀洞)

[형태] 마을

[위치] 발산교차로에서 좌방산 쪽으로 난 ‘한덕발산길’을 따라 가다가 서울양양고속도로 부근 마을

[유래] 기존 문헌에서는 ‘솔만이’ 서쪽에 있는 마을’로만 소개되어 있다. ‘전의동(全儀洞)’에서 ‘전(全)’의 뜻이 ‘갖추다’란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흔한 ‘까치골’의 한자표기 지명이 아닐까 한다. ‘까치골’에서 ‘까치’는 ‘가장자리’란 의미의 ‘갖’이나 ‘작다’란 뜻을 지닌 ‘아치’의 변이형으로 보인다. 따라서 ‘맨 끝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거나 ‘작은 골짜기’란 의미로 풀이된다.

[어원풀이] ‘전[全, 갖추]+의[]+골[谷]’로 분석된다.

● 잡생이골

[별칭] 잣송아리골, 잣송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1리 노인정 뒤편 좌방산 골짜기

[유래] ‘잣송이처럼 생긴 골짜기’란 의미로 좌방산의 유래가 되는 골짜기이다.

● 장밭들

[형태] 들판

● 절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교차로에서 좌방산 쪽으로 난 ‘한덕발산길’ 초입 골짜기

[유래] ‘절토골’은 ‘절터골’의 오기로 보인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는 거주민의 증언도 있다.

[어원풀이] ‘절토/절터[寺址]+골[谷]’로 분석된다.

● 좌방동(座防洞)

[별칭] 좌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1리 노인정 뒤편 좌방산 골짜기 가운데 명지매골 위쪽

[유래] 기존 문헌에는 ‘저질’의 한자 지명이라 되어 있다. 좌방산의 이칭이 ‘갓방산’인 점을 고려할 때 ‘갓방골’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어원풀이] ‘좌/갓+방/봉(峰)+골[谷]’로 분석된다.

● 줄바우

[형태] 바위

[위치] ‘큰황골’에 있는 ‘들없은바우’ 아래에 있다.

[유래] 바위가 줄을 서듯 죽 늘어서 있는 모양에서 유래하였다.

[어원풀이] ‘줄+바우[巖]’로 분석된다.

● 진논들

[별칭] 진논틀

[형태] 벌판

[위치] 발산1리 노인정 앞 벌판

[유래] 발산1리 노인정 앞 충효로와 추곡천 사이에는 예전에 상당히 길고 넓은 논이 있었는데, 현재는 개발과 밭으로 변경되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골말’과 연결되는 다리이름을 원래는 해당지

명을 따라 ‘장답교(長沓橋)’로 명명하려고 하였는데, 현재는 ‘양지교’라 불린다.

[어원풀이] ‘진/긴[長]+논[沓]+들[野]’로 분석된다.

● 진벌들

[형태] 들판

[위치] 강촌IC 서울춘천고속도로 사무실 자리

[유래] 추곡천 옆 벌판이기에 질퍽질퍽한 들판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진[질다]+벌+들[野]’로 분석된다. ‘벌’은 들판으로 ‘들’과 동의어다.

● 질고개

[형태] 고개

[위치] 솔만이골로 넘어가는 고개

[유래] 땅이 질어 진흙이 많은 고개란 의미이다. 마을 학생들이 찰흙을 캐가던 곳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질[질다]+고개’로 분석된다.

● 촛대봉

[형태] 바위

[위치] 소남이섬 맞은편 좌방산 방향

[유래] 촛대처럼 불쑥 솟은 봉우리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촛대+봉(峰)’으로 분석된다.

● 큰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지나 위치한 주유소 뒤편 골짜기

[유래] 추곡천 물가에 있는 골짜기란 뜻의 ‘갯골’ 가운데 큰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큰[大]+개[溪]+ㅅ+골[谷]’로 분석된다.

● 큰황골

[별칭] 큰황골

[형태] 골짜기

[위치] 남면행정복지센터 북쪽 골짜기

[유래] 남면행정복지센터 부근을 ‘큰골[황골]’로 부르는데, 그 가운데 복지센터 우측편 북쪽으로 펼쳐진 골짜기를 말한다. ‘큰황골’에서 홍천강 방면쪽으로 내려와 산쪽으로 난 골짜기는 ‘작은황골’로 부른다.

[어원풀이] ‘큰[大]+황골[恒谷]’로 분석된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화채바우가 있는 등성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화채(상여)+장(長)+등(등성이)’로 분석된다.

● 황골

[별칭] 큰골, 항골, 항곡(恒谷)

[형태] 골짜기

[위치] 남면 행정복지센터 부근

[유래] 큰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황+골[谷]’로 분석된다. ‘큰골’은 한글 지명이고 ‘항곡(恒谷)’은 한자지명이다. 어원을 따지면 ‘한골[漢谷]’이 원형이다. ‘한’은 ‘한물(홍수), 한숨, 한밭(대전), 한치(큰고개), 한길(대로), 한강’ 등 ‘크다’는 뜻을 지닌다. ‘큰 골짜기’란 의미의 ‘한골’이 발음의 편의에 따라 ‘항골’로 변했고, 다시 ‘황골’로 불렸다.

● 평풍바우

[별칭] 병풍바위

[형태] 바위

[위치] 큰황골

[유래] 병풍을 세운 듯 서 있는 바위를 말한다.

[어원풀이] ‘평풍/병풍(屏風)+바우(岩)’로 분석된다.

● 호랑바우

[형태] 바위

[위치] 갯골 맞은 편 좌방산 방향

[유래]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를 말한다.

[어원풀이] ‘호랑[虎]+바위[岩]’로 분석된다.

● 화채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상여처럼 생긴 바위’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화채(상여)+바우(岩)’로 분석된다.

● 화채장등

[형태] 등성이

위치와 현황 | 추곡리 남쪽에 추곡지수지가 있으며, 청평호 상류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터골, 안말, 본말, 벌말, 삽다리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는 남산외면(南山外面) 추동(楸洞)이라 표기했다. 『여지도서』는 남산외면(南山外面) 추곡리(楸谷里)라 했는데, 『호구총수』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에 포함시켰다.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산외면(南山外面) 추곡리(楸谷里),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의 추곡리(楸谷里)로 표기했다.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남면(南面) 추곡리(楸谷里)라 표기했다. 현재 법정리와 행정리 모두 동일하게 추곡리다.

유래 | 가래나무가 많으므로 가래울 또는 추곡(楸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터골, 안말, 벌말을 병합하여 추곡리라 하였다.

● 가래울

[별칭] 추곡(楸谷)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리 전체

[유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추곡리 전체를 일컫는 지명이다.

[어원풀이] '가래[楸/分]+울[谷, 마을]'로 분석된다. '가래울'을 훈차한 '추곡(楸谷)'이 그대로 행정지명이 되었다.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 또는 '양쪽으로 갈라진 골짜기'란 의미로 흔히 쓰인다. 지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후자의 경우로 추정된다. '가래울', '추곡', '삽다리' 모두 같은 유래를 지니고 있는 지명이다.

● 고깔봉

[형태] 산

[위치] 추곡리 북쪽, 남산면 수동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유래] 해발 420m 높이의 산으로 고깔 모양으로 생겨서 불리는 이름이다.

● 골말

[형태] 마을

[위치] 추곡리마을회관 우측 골짜기인 안골 초입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골[谷]+말[마을]'로 분석된다.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이란 의미이다.

● 공주묘

[별칭] 공주묘

[형태] 무덤

[위치] 텁골 남쪽 진당골에 있다.

[유래] 중종(中宗)과 문정왕후 윤씨의 소생으로 명종의 친누나인 효순공주(孝順公主, 1522~1538)의 무덤이다. 1533년 능원위(綾原尉) 구사안(具思顏)에게 하가하였으나 난산으로 졸하였다. 무덤은 원래 경기도 금곡에 있었는데 남면 추곡리로 이장하였다.

● 구윤명묘

[형태] 무덤

[위치] 추곡리마을회관 건너편 길가 옆으로, 추곡리 93-1번지이다. 충무공구인후의 무덤과 위아래로 나란히 있다.

[유래] 조선 후기의 문신인 구윤명(具允明, 1711~1797)의 무덤이다. 구윤명은 이조를 제외한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에 봉해진 구인후(具仁厚)의 봉사손(奉祀孫)으로 능은군(綾恩君)을 습봉(襲封)하였다. 경기도 금곡에 있던 무덤을 이장한 것이다.



구윤명묘

● 나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리에서 추곡리로 가는 충효로를 따라 화광사와 태평사 중간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추곡리 산98번지 일대이다.

[유래] 나막신처럼 좁다랗게 쑥 들어가 있는 골짜기의 모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나막/나막신+골[谷]’로 분석된다.

● 널남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삽다리고개 남쪽 방향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덤뱃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널[棺]+남[越]+골[谷]’로 추정된다. 지역민이 들어보지 못한 지명이라고 하는 점과 덤뱃골 옆에 ‘행상너머’란 고개가 있는 점으로 보아 ‘행상너머’와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관이 넘어가던 골짜기’가 ‘널남골’이고 고개가 ‘행상너머’이다.

● 늘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리 마을회관 주변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골짜기로, 추곡리 473번지 일대이다.

[유래] ‘늘란골’에서 ‘늘란’은 ‘늘어진’ 또는 ‘넓은’이란 의미로 볼 수 있다. 지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비교적 길게 뻗어있기에 길게 늘어진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늘란[늘어진, 넓은]+골[谷]’로 분석된다.

● 더령골

[형태] 골짜기

[위치] 피아골로 들어가는 골짜기인 도락골 옆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도락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덕둔지

[형태] 골짜기

[위치] 피아골 좌측으로 난 문닫은골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문닫은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덕+둔지’로 분석된다. ‘둔덕이 있는 터’란 의미이다.

● 덤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삽다리고개 남쪽 방향 골짜기로 작은덤뱃골과 큰덤뱃골이 나란히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덩망골

[형태] 골짜기

[위치] 텃골에서 광판리 방향인 늘란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늘란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도라골

[별칭] 도락골, 도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리 318번지 일대로 추곡고개 가기 전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돌밭[石田]+골[谷]’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돌밭’ → ‘돌밭’ → ‘돌았’ → ‘도릿’의 변이 과정을 거쳐 ‘도라골’ 또는 ‘도락골’이 되었다. ‘돌이 많은 곳에 밭을 개간한 골짜기’란 의미이다.

● 드란골

[별칭] 드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저수지 뒤편 절골에서 더 들어간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밤나뭇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마당재

[형태] 터

[위치] 고깔봉 밑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꼭대기가 마당처럼 평평 함”이라 하였다. 골짜기에 살던 화전민들이 수확한 곡식을 털던 곳이라 한다.

[어원풀이] ‘마당+재[峙]’로 분석된다. 산속에 비교적 넓은 터가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 마상골

[형태] 골짜기

[위치] 피아골 끝 골짜기이다. 섬뱃골 북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섬뱃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문닫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도락골에서 더 들어가다가 좌측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골 어귀가 좁아서 문을 닫은 것 같은 골짜기라 하였다. 골짜기 초입에 바위가 뒤엉켜 있는 모습이 마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문+닫은+골’로 분석된다.

● 밤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저수지 뒤편 절골 위쪽

[유래] 밤나무가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 벌말

[별칭] 평촌리(坪村里)

[형태] 마을

[위치] 충효로 부근 ‘터골[塹谷]’ 주위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벌[坪]+촌[村]’으로 분석된다. 벌판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베틀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베틀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베틀+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본말

[형태] 마을

[위치] 추곡리 3반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가래울의 큰마을, 본마을”이라 하였다. 추곡리의 본마을이란 의미이다.

● 부엉바우

[형태] 바위

[위치] 충효로에서 추곡리 넓은 들판이 시작되는 봉래를 건너편 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부엉이가 집을 짓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부엉이/부엉+바우(바위)’로 분석된다.

산제를 지낸다고 한다.

[어원풀이] ‘산(山-神)+제(祭)+당(堂)’으로 분석된다.

● 부처님집께

[형태] 골짜기

[위치] 섬배골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흙으로 만든 불상이 있음”이라 하였다. 현재도 암자가 있고 암자 안에는 돌로 만든 불상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부처님+집+께’로 분석된다. 부처님을 모신 집이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 삼포밭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삼포(參圃)가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삼포(參圃)+밭[田]’으로 분석된다.

● 봉배들

[형태] 들판

[위치] 충효로에서 추곡리 넓은 들판이 시작되는 부근

[유래] 봉배들 건너편 산에 ‘부엉이바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엉이바위가 있는 들판이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봉/부엉+배/바위+들[坪]’로 분석된다. 부엉이바위가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삽다리

[형태] 마을

[위치] 톱골에서 삽다리고개로 연결되는 들판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톱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삽/섶+다리/들[野]’로 분석된다. 잎나무, 풀거리 등을 총칭하는 ‘섶나무’가 ‘섶/섶>삽’의 과정을 거쳤고, ‘-다리’는 ‘들(坪, 野)’의 변이형이다.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그런데 추곡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개천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쇠다리를 직접 보았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실제 다리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 사예

[별칭] 사해

[형태] 마을

[위치] 도락골 밑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예전에는 추곡리에서 꽤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 삽다리고개

[형태] 고개

[위치] 추곡리와 행촌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 고개를 넘으면 강아지숲이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삽다리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삽다리+고개’로 분석된다. ‘삽다리’ 참조.

● 산제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응골 좌측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지금도 정월초열흘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 석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피아골 끝 좌측에 있는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래울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섬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추곡리와 행촌리 경계에 있는 고개로 섬배 골 정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행촌리의 섬배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추곡리와 행촌리를 오가던 길이 예전에 있었다.

● 섬배골

[별칭] 섬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말에서 추곡고개 방면으로 올라가다 ‘사예’ 가기 전 우측골짜기로 추곡리 65-1번지 일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섬배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이 골짜기를 따라 계속 올라가면 섬배고개가 나온다. 예전에 이 골짜기를 통해 추곡리와 행촌리 사람들이 왕래하였다.

[어원풀이] ‘섬배+골[谷]’로 분석된다. 행촌리 섬배마을로 가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섬배고개를 중심으로 추곡리와 행촌리에 모두 ‘섬배골’이란 동일한 지명이 존재한다.

● 세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삽다리고개 가기 전 남쪽 골짜기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수풍들

[형태] 들

[위치] 충효로에서 추곡리마을회관 방면으로 들어오는 길의 좌측 들판

[유래] 옛 지명이 ‘평촌(坪村)’인 점으로 미루어 ‘수평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수풍/수평+들[坪]’로 분석된다. 수평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이란 의미이다.

● 신단지터

[형태] 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래울에 있는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신(神)+단지(항아리)+터[基, 堡]’로 분석된다. ‘단지’는 ‘항아리’나, ‘독’을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이다. 신을 모시던 제당이 있던 곳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치지

[형태] 고개

[위치] 석장골을 따라 올라가다가 추곡리와 남산면 수동리 경계에 있는 고개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덕둔지 위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추곡고개가 개통되기 전에는 석장골을 따라 추곡리와 남산면 수동리를 왕래하였다고 한다. 아치지로 가는 골짜기는 ‘아치지골’이다.

[어원풀이] ‘아치[氷]+지/재[峙]’로 분석된다. ‘작다’는 의미의 고유어가 ‘氷’인 점으로 미루어 높지 않은 고개 정도의 의미로 추정된다.

● 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리마을회관 남동쪽에 위치한 골짜기의

끝부분으로 추곡리 136번지 일대이다.

[유래] 골짜기가 시작되는 추곡리마을회관 부근을 ‘안말’이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말’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안[內]+골[谷]’로 분석된다.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안말

[형태] 마을

[위치] 추곡리 마을회관 부근이다. 추곡리 2반에 해당한다.

[유래] 추곡리의 본 마을인 ‘가래울’에서 조금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에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안[內]+말[마을]’로 분석된다.

● 약수터

[형태] 샘

[위치] 섬배골을 따라 올라가다 섬배고개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추곡리에 있는 약물 터라 하였다. 섬배고개 부근에 샘터가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약수(藥水)+터[基]’로 분석된다.

● 여우밭

[형태] 골짜기

[위치] 섬배골 초입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여우가 살던 굴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우 굴’을 ‘여우+밭’이라 했다. 여우가 흔했던 시절의 지명이다.

● 윗말

[형태] 마을

[위치] 골말 북쪽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래울 위쪽에 있는 마을

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위[上]+ㅅ+말[마을]’로 분석된다. 골말보다 위쪽(북쪽)에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 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배들 북쪽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은항아리를 캤던 골짜기라 함”이라 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은골’이라 한 것은 ‘응골’의 와전이라 한다.

[어원풀이] ‘응[응달]+골[谷]’로 분석된다. 응달진 골짜기란 의미이다.

● 자주봉

[별칭] 자지봉

[형태] 산

[위치] 진당골 뒤쪽 봉우리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자주색으로 보인다는 산이라 하였다. 남성의 성기 모양으로 생겨서 만들어진 지명이라 한다.

● 장사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장사가 들었다 놓은 손자국이 있다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사(將帥)+바우[峯]’로 분석된다.

● 저고리골

[별칭] 저고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저수지 뒤편 ‘진정골’ 옆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범이 사람을 물어

가고 그 저고리를 이 골짜기에 걸어 두었었다 함”
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저고리+골[谷]’로 분석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채반이나 바구니를 만드는 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채나물+채’로 분석된다.

● 절골

[별칭] 절터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저수지 뒤편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절을 짓다가 손을 다쳐 피를 흘리자 그만 중지하였다는 골짜기라 하였다.
현재도 기왓장이 나온다고 한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절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추곡고개

[별칭] 추곡현(楸谷峴), 아랭이고개

[형태] 고개

[위치] 추곡리 북쪽, 추곡리와 남산면 수동리 사이에 있는 고개.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아랭이고개라 하였다. 예전에는 수동리의 아랭이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아랭이고개’라 불렸다. 현재는 추곡고개로 통한다. 고갯길이름도 ‘추곡고개길’이다.

● 진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충효로에서 추곡고개길로 접어들기 전 우측에 있는 골짜기로 추곡리 산92번지 일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골이 깊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긴/진[長]+당/등+골[谷]’로 분석된다.
‘긴 산등성이를 따라 뻗어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지금은 개간되어 넓게 펼쳐져 있지만 주소상으로 보면 길게 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추곡저수지

[형태] 저수지

[위치] 충효로 삽다리고개 전 우측

[유래] 1980년대에 축조된 저수지이다. 추곡천으로 물을 흘려보낸다.

● 충무공구인후장군묘

[형태] 무덤

[위치] 추곡리마을회관 건너편 길가 옆으로, 추곡리 93-1번지이다.

[유래] 조선중기의 무신인 구인후(具仁垕, 1578~1658)의 무덤이다. 조선시대 무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호가 ‘충무(忠武)’이다. 조선시대에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이는 모두 아홉 분인데, 그 가운데 한 분이다. 경기도 금곡에 있던 무덤을 이장한 것이다.

● 진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저수지 뒤편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저고릿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채나물채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저수지 뒤편 절골 우측 골짜기



구인후 장군묘 안내석과 묘역

● 터골

[별칭] 대곡리(垈谷里)

[형태] 떠울

[위치] 충효로에서 추곡리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사거리 부근

[유래] 추곡리에서 잘 정비된 가장 넓은 들판(전답) 한복판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터[垈]+골[谷]'로 분석된다. 넓은 터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평풍/병풍+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피아골

[별칭] 피악골, 피앗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도라골'을 지나 동쪽으로 끝까지 들어간 곳으로, 추곡리 27번지 일대이다.

[유래] '넓은 피밭이 있거나 피밭이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피[稷]+밭[田]+골[谷]'로 분석되는 '피밭골'이 '피밭골' → '피앗골' → '피아골'의 변이과정을 거쳐 생겨난 지명이다.

● 평풍바우

[별칭] 병풍바우

[형태] 바위

[위치] 수봉들의 추곡천 건너편 산

[유래] 병풍처럼 넓게 펴져 있는 바위이다.

● 하전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응골 초입으로 추곡리 343번지 일대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하전+옹골’로 분석된다. ‘하전’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위치상 응골의 아래쪽이란 뜻으로 추정된다.

[위치] 섬배골 맞은편 골짜기

[유래] 지형적 특성상 좁고 길게 형성된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홀짝개, 홀짝고개’ 등도 지형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홀짝/홀쭉+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담] 옛날 추곡고개를 넘어가던 나그네를 호랑이가 홀짝 잡아먹어서 생겼나 이름이라고 한다.

● 행상너머

[별칭] 행상너미

[형태] 고개

[위치] 삽다리고개에서 남쪽 방향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공주뫼 부근의 고개는 구씨(具氏)들이 행상(상여)의 통행을 금하고 오직 이 고개로만 다니게 하였다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행상(상여)+너머[越]’로 분석된다. 행상 즉 상여가 넘어다니던 고개란 의미이다. 실제로 부근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 흥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말 초입 남쪽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덩망골 옆에 있는 골짜기란 설명의 ‘홍청골’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민은 ‘흥천골’이라 하고 위치도 서로 다르다. 긴 골짜기라는 의미라고 한다.

● 호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응골 옆 골짜기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호랑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호랑/호랑이+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홀짝골

[형태] 골짜기

위치와 현황 | 남쪽으로 홍천강이 흐르고, 청평호 상류에 위치한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안말, 바깥말, 오아동(五我洞), 셉일 등이 있다. 한덕리는 홍천강 근처 큰 언덕에 위치하여 생겨난 지명이다.

연혁 | 『강원도지지조서』에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의 한덕리(漢德里)로 표기되었다. 『강원도지』에서 남면(南面) 한덕리(漢德里)로 표기된 이후, 『수춘지』, 『춘주지』도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다. 현재 법정리와 행정리는 동일하게 한덕리다.

유래 | 홍천강가 큰 언덕에 있었으므로 한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셉일, 바깥말, 오라우, 안말을 병합하여 한덕리라 하였다.

● 강언덕부엉이마을

[별칭] 부엉이마을

[형태] 마을

[위치] 홍천강에 놓인 한덕교를 건너 한덕리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한덕리가 너무 외진 동네라 부엉이 소리가 늘상 들려서 불인 이름이라고 한다. 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리’는 ‘강’이나 ‘나루’를 말한다.

● 논골

[별칭] 담동(畜洞)

[형태] 골짜기

[위치] 안말 좌측으로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논이 많은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논[畠]+골[洞]’로 분석된다.

● 과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덕리 마을에서 길을 따라 셉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개[川]+골[谷]’로 추정된다. 홍천강 강가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매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날 홍수에 이 산이 매 애를 만큼 남고 모두 잠겼었다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매봉’은 대부분 마을에 있는 산이름으로 대부분 마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붙이는 이름이다.

● 구멍바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시밀에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구멍바위+골[谷]’로 분석된다. ‘구멍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한덕리 마을에서 시밀로 가는 임도가 가파른 절벽을 끼고 있다. 예전에 바위 사이로 통과하였기에 생겨난 지명으로 추정된다.

● 매차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매차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좌방산 너머에 있는 발산리에도 동일한 지명이 보인다.

● 바깥말

[형태] 마을

[위치] 서낭고개를 기준으로 홍천강 쪽 마을

[유래] 한덕리마을회관 앞 고개를 경계로 강가쪽으로 있는 마을로, 한덕리에서 거주민이 가장 많은 마을이다.

[어원풀이] ‘바깥+말[마을]’로 분석된다.

● 나리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라울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강 근처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나리[川]/나루+골[谷]’로 분석된다. ‘나

● 불우니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덕리 마을에서 길을 따라 셉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위치] 발산리에서 한덕리로 넘어오는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논꼴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는데, 지역민의 증언과 차이가 있다. 발산리에 있는 ‘송만리(松巒里)’와 동일한 지명을 가진 또다른 곳인지는 알 수 없다.

[어원풀이] ‘설/솔[松]+만+이’로 분석된다. 소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사래울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덕리 마을에서 길을 따라 셉일로 가다가 산수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큰사래울골’과 ‘작은사래울골’이 있다.

[어원풀이] ‘사래+울[洞]+골[谷]’으로 추정된다. ‘사래’는 ‘길게 늘어진 산등성이 아래 밭골인 이랑’을 뜻한다. 따라서 긴 밭이랑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홍천강에 놓인 한덕교를 통해 마을로 들어가 좌측방향으로 뻗어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일반적으로 ‘성골’은 성(城)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많이 불린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성(城)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성(城)처럼 길게 뻗은 산자락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성(城)+골[谷]’로 분석된다.

● 산지당골

[형태] 고개

[위치] 한덕리 마을에서 임도를 따라 시밀로 가는 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셉일

[별칭] 협의동(挾衣洞), 섭일, 셉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리에서 ‘한덕발산길’로 접어들어 ‘강촌노인요양원’을 지나면서 보이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한덕리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셉/숲+일/실[谷]’로 추정된다. 숲이 우거진 골짜기란 의미의 ‘숲실’이 ‘습일’ → ‘섭일’ → ‘셉일’의 과정으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자 지명 ‘挾衣’는 음차표기이다.

● 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한덕리마을회관 앞 고개이다.

[유래] 예전에 성황당이 있어서 생겨난 지명으로, 안말과 바깥말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어원풀이] ‘서낭+고개’로 분석된다.

● 설마니

[별칭] 솔마니, 송만리(松巒里)

[형태] 골짜기

[형태] 고개

[위치] ‘강촌노인요양원’에서 한덕리 방향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셉일 뒤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셉일+고개’로 분석된다. 셉일로 가는 고개란 의미이다.

● 시밀

[별칭] 이십곡(二十谷), 십일, 십일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덕리 649 일대로, 홍천강의 모곡밤벌유원지 캠핑장 건너편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이십곡. 이 마을에 골짜기가 스물이나 있다고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숨은골’이란 의미의 ‘은곡(隱谷)’에서 변형된 지명이다. ‘숨은’을 ‘스물’로 보아 ‘이십곡(二十谷)’이라 하였고, ‘숨’이 ‘심’이 되어 ‘심[숨]+일/실[谷]’로, 다시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여 ‘시밀’이 되었다.

● 안말

[형태] 마을

[위치] 서낭고개를 기준으로 좌방산 산쪽이다.

[유래] 한덕리마을회관 앞 고개를 경계로 좌방산쪽으로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안[內]+말[마을]’로 분석된다. 고개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양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셉일에서 한덕리 방향으로 한참 내려오면 좌측으로 있다. ‘미소정사’ 부근이다.

[유래] 양지쪽 골짜기란 의미이다.

● 앵골

[별칭] 대곡(大谷),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한덕리에 가까운 마을이라 하였다. 별칭인 ‘큰골[大谷]’을 『한국지명총람』에서 통골 북서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통골이 현재 산수리에 속하므로 한덕리에 서는 북동쪽 끝 경계가 된다.

[어원풀이] ‘앵+골’로 분석된다. ‘앵’은 ‘왕’의 변형으로 보인다. 그래서 ‘앵골’을 한자로 ‘대곡(大谷)’이라 표기하였다.

● 열두단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명마위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오라우

[별칭] 오아-동(五我洞), 오라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시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셉일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전국에 산재한 ‘오얏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얏골’의 유래에 대해서는 ‘오얏나무가 있는 곳’ ‘마을의 윈幡’ ‘외딴 곳, 호젓한 곳’, ‘기와를 굽던 곳’ 등으로 본다.

● 자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셉일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자작[자작나무]+골[谷]’로 추정된다. 자작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중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시밀 옆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중[僧]+박/밭[田]+골[谷]’로 추정된다. 절이나 암자가 있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지굽

[형태] 골짜기

[위치] 괴골 북쪽, 셉일로 가는 길에서 양지골 근처 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한(漢) + 덕(德)’으로 분석된다. ‘한’은 ‘한물(홍수), 한숨, 한밭(대전), 한치(큰고개), 한길(대로), 한강’의 용례와 같이 ‘크다’는 의미이고, ‘덕’의 어원은 고구려어로 ‘고(高)’나 ‘산(山)’을 뜻하나, 현재 많은 지명에 ‘언덕, 둔덕’ 등에 그 잔영이 남아 있다. 따라서 ‘한덕’은 ‘큰 산’이나 ‘큰(높은) 언덕’이란 의미이다.

● 한치고개

[형태] 고개

[위치] 셉일에서 발산리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크고 높은 고개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한(漢)+치(峙)+고개’로 분석된다. ‘한’은 ‘크다, 높다’는 의미이고 ‘치(峙)’와 ‘고개’가 중복되어 쓰였다. 크고 높은 고개란 의미이다.

● 최장군묘

[형태] 무덤

[위치] 서낭고개 동쪽 산 언덕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최장군의 무덤이라 하였다. 현재도 무덤과 비석이 있다고 한다.

● 통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한덕리에서 셉일로 가다가 동쪽편으로 통곡리(산수리)로 통하는 골짜기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통곡리(通谷里)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통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한덕(漢德)

[형태] 마을

[위치] 안말과 바깥말 일대

[유래] 행정지명 한덕리를 말한다.

후동리(後洞里)

위치와 현황 | 청평호 상류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골말, 옹장골, 의실, 소실촌(小室村) 등이 있다. 후동리는 뒷골이라고도 하는데, 발봉 뒤쪽에 있어서 후동리가 되었다고 한다. 춘천지역에서 일어난 화서학파 의병과 충절을 기리는 의병기념비인 충의현비(忠義峴碑)가 있다.

연혁 | 춘천의 남쪽 산 바깥 지역이라 하여 남산외면(南山外面)이라 하다가, 1895년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과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의 2개 면으로 분리되었다.『조선지지자료』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에 후동리(後洞里)를 포함시켰다.『강원도지지조서』도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에 후동리(後洞里)를 표기하였다.『강원도지』,『수춘지』,『춘주지』는 남면(南面) 후동리(後洞里)로,『춘천백년사』는 후동1리, 후동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후동리고 법정리는 후동1리, 후동2리다.

유래 | 발봉 뒤쪽에 있으므로 뒷골 또는 후동(後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골말, 버들, 쇠실을 병합하여 후동리(後洞里)라 하였다.

● 가래벼덩

[형태] 골짜기

[위치] 용장골 안쪽 골짜기

[유래] 가래나무가 많기에 생겨난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형적인 면이나 타 지역의 경우를 볼 때 두 갈래로 갈라진 골짜기 형태로 인해 생겨난 지명으로 여겨진다.

[어원풀이] ‘가래[갈라지다]+벼덩’으로 분석된다.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말한다.

[위치] 후동2리 샛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유래] 커다란 회화나무[槐木]가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괴나무[槐木]+골[谷]’로 분석된다.

● 검은터들

[형태] 들판

[위치] 발산교차로에서 소주고개로 올라가는 구도로와 새로 놓인 도로 사이의 들이다.

[유래] 광산이 있었던 ‘쇠실골’에서 발생한 물로 인해 하천이 검은색을 띠었기에 생겨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발산리에 가마터가 있었다고 하므로 가마터가 있던 들판이란 의미의 ‘가마터들’의 와전으로 볼 수도 있다.

[어원풀이] ‘검은[黑/가마]+터+들’로 분석된다.

● 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후동2리 벼들에서 수동리 흰도라지마을로 연결되는 골짜기

[유래] 다행이논이 있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현재는 벼들과 수동리 흰도라지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뚫려있다.

[어원풀이] ‘논[沓/느른]+골[谷]’로 분석된다. ‘논이 펼쳐진 골짜기’와 ‘넓은 골짜기’ 두 가지로 추론이 가능하다.

● 두둑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후동1리 마을회관 남서쪽 골짜기로 현재는 파가니카CC가 들어서 있다.

[유래] 언덕진 곳에 밭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두둑+밭+골[谷]’로 분석된다. ‘두둑’은 ‘둔덕’의 고어로 불룩하게 솟아난 곳을 말한다.

● 골말

[별칭] 고촌(古村)

[형태] 마을

[위치] 파가니카CC 입구

[유래] 골짜기애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골[谷]+말[마을]’로 분석된다. ‘고촌(古村)’은 한자표기이다.

● 뒷골

[별칭] 고촌(古村), 후동리(後洞里)

[형태] 마을

[위치] 후동1리 전체

[유래] 발봉(鉢峰) 뒤쪽에 있어서 생겨난 지명으로 행정지명 ‘후동리’의 배경이 된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한자 지명은 ‘後洞’이다.

● 괴나무골

[별칭] 괴나막골

[형태] 골짜기

● 벼들

[별칭] 유대곡(柳垈谷)

[형태] 마을

[위치] 후동2리

[유래] 벼드나무가 많은 마을이라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선산김씨와 평해김씨의 집성촌이기도 하다.

[어원풀이] ‘벼드나무골’을 단축하여 ‘벼들’이라고 만 지칭하는 드문 경우이다. ‘유대곡(柳垈谷)’은 ‘벼들’의 한자표기 지명이다.

● 배골

[별칭] 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강촌 IC교차로에서 추곡리 방향으로 가는 충효로에서 후동2리로 들어가는 초입 오른쪽 골짜기.

[유래] 배나무가 많아서 ‘배골’ 또는 ‘배나무골’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타 지역의 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근처 발산리에 뱜처럼 구불구불 길게 뻗은 지형으로 인해 생긴 ‘아랫배골’과 ‘윗배골’이란 지명이 있기에 ‘뱀골’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는 지형이 바뀌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어원풀이] ‘배[梨]/뱀+골[谷]’로 분석된다.

● 쇠실

[별칭] 쇠실골, 소실촌(小室村)

[형태] 골짜기

[위치] 소주고개에서 후동리 방면 왼쪽 골짜기.

[유래] 1. 근처에 발산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쇠[鐵]가 나오는 골짜기란 의미로 명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의 ‘속실’에서 ‘ㄱ’이 탈락돼 ‘소설’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후동2리(벼들)와 소주고개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의 ‘새실’에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원풀이] ‘쇠[鐵]+실[谷]’, ‘속실’→‘소실’→‘쇠실’, ‘쇠[사이]+실[谷]’로 분석된다.

[유래답] 옛날에 부자들이 소실을 얻어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소실촌이라 한다는 유래가 전한다.

● 쇠실고개

[별칭] 소실고개

[형태] 고개

[위치] 쇠실골과 후동2리 벼들 사이에 있는 고개.

[유래] 후동2리 벼들에서 쇠실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예전에는 소주고개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쇠실+고개’로 분석된다.

● 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후동2리 벼들 북쪽 골짜기.

[유래] 후동2리 벼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골과 쇠실고개 사이에 있기에 명명된 지명이다.

[어원풀이] ‘새[사이]+ㅅ+골[谷]’로 분석된다.

● 소주고개

[별칭] 소죽고개, 소주현(燒酒峴)

[형태] 고개

[위치] 남면 후동리와 남산면 창촌리 사이에 있는 고개.

[유래] 속대의 일종인 효죽(孝竹)이 세워져 있는 고개란 의미에서 ‘효죽고개’로 불리던 것이 ‘소죽고개’→‘소주고개’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효죽(孝竹)은



소주고개

과거급제자가 나온 마을임을 표시하는 솟대의 일종이다. 현재 솟대는 볼 수 없고 ‘살신성모비’와 의병들의 충절을 기리는 ‘충의현비’가 세워져 있다.

[어원풀이] ‘효죽(孝竹)’ → ‘소죽’ → ‘소주’로 변형되었다.

[유래답] 1. 고개가 너무 가팔라 소주를 많이 마시고 넘다가 고개에서 굴렀다.

2. 소가 고개를 넘다 너무 힘들어서 죽은 고개이다.

3. 고개가 험하여 소에게 여물을 끓여 먹여야 넘을 수 있는 고개이다.

●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후동2리 마을회관 좌측

[유래] 후동2리를 관통하는 도로 좌측[서쪽]에 있는 마을로, 우측[동쪽]에 있는 마을에 비해 햇볕이 더 잘드는 마을이란 의미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말’[마을]’로 분석된다.

● 염불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밭산리 삼거리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

[유래] 염불을 올리던 대상인 절터나 부처 형상 바

위 또는 부처가 새겨진 바위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염불(念佛)+대(垈)+골[谷]’로 분석된다.

● 응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주고개에서 후동리 방향 우측

[유래] 옹기를 굽던 가마나 옹기점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옹(甕)+장/점[店]+골[谷]’로 분석된다.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리 삼거리 북쪽 ‘우사’ 아래에 위치한 골짜기

[유래] 후동1리와 후동2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두 마을을 오고가던 길이었다. ‘고개를 넘어다니던 골짜기’란 의미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재남이/재너미+골[谷]’로 분석된다. ‘재남이/재너미’는 ‘재[고개]+너머[越]’로 다시 분석된다.

● 으실

[별칭] 의실

[형태] 마을

[위치] 소주고개에서 후동리 방향 우측 응장골, 가래버덩 부근

[유래] 골짜기가 깊어 으스스하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처음 개간되었거나 조성된 마을이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어원풀이] ‘의/으+실[谷]’로 분석된다. ‘의/으’의 어원은 ‘아시[始初]>아이>아/으/의’로 추정된다.

● 음달말

[별칭] 음지말

[형태] 마을

[위치] 후동2리 마을회관 우측

[유래] 후동2리를 관통하는 도로 우측[동쪽]에 있는 마을로, 좌측[서쪽]에 있는 마을에 비해 헷별이 덜 비추는 마을이란 의미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음달[陰地]+말[마을]’로 분석된다.

● 재남이골

[별칭] 재너미골



남산면(南山面)

동쪽으로 경기도 가평군, 북쪽으로 남면(南面), 서쪽으로 동산면(東山面), 남쪽으로 홍천군과 접한 춘천시의 남쪽에 위치한 면이다. 창촌리(倉村里)·방곡리(芳谷里)·강촌리(江村里)·서천리(西川里)·방하리(芳荷里) 등 10개의 법정리를 관할한다. 『춘주지』를 보면 남산외면(南山外面)에 소일(所日), 추동(楸洞), 가정자(柯亭子), 서사천(西士川), 방하곡(方下谷), 소가암(所加巖), 군대곡(軍帶谷), 벌질배(伐叱陪), 한외곡(閑外谷), 구동발리(仇童發里), 관라불(冠羅佛)이 표시되어 있다. 『여지도서』는 남산외면(南山外面)에 군자곡리(君子谷里), 추곡리(楸谷里), 사동리(寺洞里), 관천리(冠川里), 방하곡리(芳下谷里), 서사천리(西士川里), 하방곡리(下芳谷里), 상방곡리(上芳谷里)를 표기하고 있다. 『호구총수』에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과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으로 나뉘어 있다. 남산외일작면은 군자곡리·추곡리·사동리·관천리·방하곡리의 5개 동리로 편성되어 있었고, 남산외이작면은 서사천리·하방곡리·상방곡리·나동리의 4개 동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남면과 행정구역 통폐합을 몇 번 반복했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 개편 때 남산외면을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과 남

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으로 분할하였다. 1917년 남산외일작면을 남산면, 남산외이작면을 남면으로 하였다. 그 후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반복한 후 1989년 남산면이 되었다. 남산면에는 북한강을 따라 경춘선이 지나며, 방하리에 있는 남이섬을 비롯해 강촌유원지·구곡폭포·문배마을·검봉산 등의 관광지가 있다.

위치와 현황 | 대부분의 지대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이다. 남쪽에서 동쪽방향으로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자연 마을로는 강촌, 구구리, 말골마을 등이 있다. 강촌유원지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연혁 | 『여지도서』는 남산외면(南山外面) 하방곡리(下芳谷里), 『호구총수』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의 하방곡리(下芳谷里)라 표기했다. 『춘천읍지』, 『관동읍지』는 남산외면(南山外面) 하방곡리(下芳谷里), 『조선지지자료』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하방곡하리(下芳谷下里), 하방곡상리(下芳谷上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강촌리(江村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남면(南面) 강촌리(江村里), 『춘주지』는 남면(南面) 강촌1리, 강촌2리, 『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山面) 강촌1리, 강촌2리로 표기했다. 현재 행정리는 강촌리고 법정리는 강촌1리, 강촌2리, 강촌3리다.

유래 | 북한강가에 있으므로 물깨말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남산외이작면의 하방곡하리를 병합하여 강촌리(江村里)라 하였다.

● 가노골 내치리

[형태] 골짜기

[위치] 말골에서 의암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칠성당나무 있는 곳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말골 사람이 밤에 춘천에서 의암으로 해서 말골로 오다가 보면 의암 부근에서 호랑이가 따라왔다. 호랑이가 눈에 불을 밝히고 따라오다가 말골의 가노골 내치리에만 오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 강선봉(降仙峰)

[형태] 산

[위치] 강촌 검봉산 옆의 산이다. 높이는 485.4m이다.

[유래] 원래 좌수봉(座首峰)이라 하던 곳으로 으뜸자리라는 뜻이다. 좌수봉이라는 명칭은 이소옹의 『습재집』에 나온다.

● 강선사(江仙寺/降仙寺)

[형태] 절

[위치] 강촌리 검봉산 기슭에 있는 절이다.

[유래] 1959년 5월 15일에 창건하였다. 한국전쟁 전에는 구곡폭포 입구에 있었으나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현재 위치로 옮겼다.

● 강촌교(江村橋)

[별칭] 강촌다리

[형태] 다리

[위치] 북한강 위로 강촌과 서면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유래] 1972년 국내 최초로 건설한 현수교인 강촌출렁다리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984년 대체교량으로 만든 2차선 다리이다.

● 강촌배터

[별칭] 둔더리배터

[형태] 배터

[위치] 강촌에 있던 배터이다. 북한강을 건너 사람과 짐을 실어 날랐다. 두명이라는 소(沼)가 있었다.

● 강촌생태연못

[형태] 연못

[위치] 강촌리 남쪽에 있는 연못이다. 강촌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환경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만든 연못이다.

● 강촌역

[별칭] 구 강촌역

[형태] 역

[위치] 강촌리 강촌다리 부근

[유래] 경춘선(景春線)의 정거장으로 1939년에 설치되었다. 전철로 바뀌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신 강촌역이 방곡리에 건립되었다.

● 강촌유원지(江村遊園地)

[형태] 유원지

[위치] 강촌 물깨말 앞 북한강에 있는 유원지이다. 강촌천 끝자락과 동틸리강 양쪽으로 형성된 모래사장이 유명했다.

● 거북바위

[형태] 바위

[위치] 검봉산에 있는 거북이 모양의 바위이다. 거북이가 산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거북바위

● 곤은골

[별칭] 고동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양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가 곧게 뻗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래] 폭포가 아홉 구비이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라는 말과 폭포골에서 문배마을로 올라가는 고개가 아홉 구비라서 생겨난 이름이라고도 한다.



구곡폭포

● 공동산(共同山)

[형태] 산

[위치] 말골 앞에 보이는 안산 뒤와 쪽골 뒤에 있는 산이다.

[유래] 마을에 공동계(共同契)가 있어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산을 샀기 때문에 공동산이라 했다고 한다.

● 구구리

[별칭] 구곡리(九曲里)

[형태] 마을

[위치] 강촌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곡폭포로 오르는 곳이다.

[유래] 골이 깊고 여러 굽이로 되어 있다.

● 광대골

[형태] 골짜기

[위치] 폭포골 옆에 있다.

[유래] 넓고 긴 골짜기라서 생겨난 지명이다.

● 구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독바위 지나서 뒷골로 가는 곳에 있다. 잣나무가 많다고 한다.

● 구곡폭포(九曲瀑布)

[별칭] 문폭(文瀑), 큰폭포, 구구리폭포

[형태] 폭포

[위치] 구구리 서남쪽 문배마을 밑에 있는 폭포이다.

● 궁소

[형태] 소(沼)

[위치] 칼봉 밑 두명 위쪽으로 구 강촌역 바로 뒤이다.

[유래] 소 구유 모양으로 움푹 패인 소(沼)이다. 폭 약 3m, 깊이가 7~8m, 길이가 15~20m정도 되는 크기이다.



궁소

● 금구덩이

[형태] 구덩이

[위치] 말골 박달산에 있다.

[유래] 옛날에 금을 캐던 구덩이라고 한다. 굴이 있는 곳을 무적瞽이라 한다.

● 금송재

[형태] 고개

[위치] 논골 옆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논골에서 강촌 본부락으로 이어지는 길에 누런 금빛을 띠는 소나무가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 깔딱고개

[별칭] 깔딱고개, 문배고개

[형태] 고개

[위치] 구곡폭포에서 문배마을로 오르는 고개이다.

[유래] 문배마을로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숨이 깔딱 넘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깔딱고개라 한다.

● 너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양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너머골과 작은너머골이 있다.

● 노래비

[형태] 비석

[위치] 물깨말 앞 신 출렁다리를 건너기 전 공터에 있다.

[유래] 김설강이 작사하고(1965년), 김학송이 작곡하여(1969년) 나훈아가 불렀던 <강촌에 살고 싶네>란 노래가 새겨져 있다.



노래비

● 논골

[형태] 마을

[위치] 본부락(물깨말)에서 강선사 쪽으로 오르다가 왼쪽으로 난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작은 마

을이 있다.

● 뎅강바위

[별칭] 호랑바위

[형태] 바위

[위치] 빨래골 가는 길 산기슭에 있는 종(鐘) 모양으로 생긴 큰 바위이다.

[유래] 바위가 종처럼 생겨서 종을 칠 때 뎅강뎅강 하는 소리가 나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 도칫골

[별칭] 덕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구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당재 밑에 있다.

[어원풀이] ‘도치/돌[豚]+골’로 분석된다.

● 도토리마당재

[별칭] 뜻우물마당재

[형태] 터

[위치] 강선봉 남동쪽에 있는 넓은 지역이다. 옛날에 화전을 일구던 곳이다.

[유래] 맷돼지들이 먹는 우물인 뜻우물이 연음으로 발음되어 도투물로 되었다.

● 독바우

[형태] 바위

[위치] 강촌천이 끝나는 지점과 동덜리강이 만나는 지점 부근에 있었다.

[유래] 홀로 서 있다고 해서 독바우라 했다.

● 돌자수바우

[형태] 바위

[위치] 강촌역 뒤에 있는 바위이다. 검봉산 중간쯤

이다.

[유래] 옛날에 엽전을 찍었던 ‘돈자수’가 ‘돌자수’로 바뀌었다고 한다.

● 돋바우

[형태] 산

[위치] 본마을에서 구구리로 가는 중간에 있는 산이다.

● 두명

[형태] 소(沼)

[위치] 북한강에 있는 소(沼)이다. 옛날 이곳에 배터가 있었다. 강촌의 옛 현수교 아래 약 100여m 부근이다.

[유래] 소(沼)의 형상이 물을 길어 담아 놓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닮아서 생겨난 지명이다.

● 두명마당재

[형태] 터

[위치] 구 강촌역 뒷산에 있는 넓은 곳을 말한다.

[유래] 두명과 가까이 있는 마당재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둔더리배터

[별칭] 둔덕진

[형태] 배터

[위치] 강촌 두명 부근에 있던 배터를 말한다. 옛 출렁다리 부근에 해당한다. 이곳은 예전에 둔덕이 조금 져 있었다.

● 둉덜리

[형태] 하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미(渼) 이름으로 나온다.

미(渼)는 물놀이, 강이름, 뜻이름 등으로 강촌 앞을 흐르는 강을 일컫는 말이다.

● 동덜리강

[별칭] 둑돌리강, 둔더리강

[형태] 하천

[위치] 신연강 밑자락부터 서천리 부근까지 이어지는 북한강의 이름이다.

[유래] 강촌의 앞부분 강이 동덜리강에 해당한다. 『조선지지자료』에 강이름으로 ‘동덜리강’이 기재되어 있다.

● 들판바우

[형태] 바위

[위치] 강촌역 앞 바위가 있는 산이다. 지금은 외곽 도로가 나 강촌터널이 생기면서 없어졌다.

● 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깨말과 구곡폭포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레일파크 강촌역

[형태] 역

[위치] 2012년부터 김유정역(구 신남역)에서 강촌역까지 운행되는 레일바이크의 강촌역이다. 옛 강촌역을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마당재

[형태] 터

[위치] 검봉산 바로 아래 8부 능선쯤에 있는 넓은 평야이다.

[유래] 산 위에 마당처럼 평평하고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넓이가 대략 일만 평 이

상 된다. 옛날 화전을 할 때 어두니와 폭포골에 있는 사람들이 마당재까지 올라가서 농사를 지었다.

● 말골

[별칭] 마곡(馬谷)

[형태] 마을

[위치] 물깨말에서 강을 따라 난 작은 길을 따라 올라가다 오른쪽 골짜기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말골’이라 한글로 표시하고, ‘마곡리(馬谷里)’라 한자표기를 하였다. 계곡은 상당히 길게 이어져 있는데 좁은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 짜나 넓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유래답] 맥국과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먼저 맥국의 왕이 삼악산성으로 들어가면서 이곳에서 말을 길렀다고 한다. 또는 적군이 허수아비를 세우고 안장 없는 말을 매 두었다고 해서 불려진 지명이라고 한다. 맥국과 관련없이 마을의 형상이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생겼다고 보기도 하고, 공동산 앞에 있는 속골이 말이 다리를 길게 뻗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생겨났다고 보기도 한다.

● 말골고개

[별칭] 마곡치(馬谷峙)

[형태] 고개

[위치] 말골에서 의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마곡리(馬谷里) 소재 고개 이름으로 ‘말골고개(馬谷峙)’가 기재되어 있고, 일제 강점기 지도에는 ‘마곡현(馬谷峴)’이 표기되어 있다.

● 말골서낭당

[형태] 민속

[위치] 말골 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커다란 소나무 세 그루가 신목으로 서 있고, 소나

무 앞에 당집을 세워 두었다. 세 그루의 소나무 중 두 그루는 춘천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말골서낭당

● 말골제당터

[별칭] 샘물가

[형태] 민속

[위치] 말골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된 제단이다.

[유래] 원래는 현재 말골로 들어오는 개울가에 있었는데 도로를 넓히면서 현재 제단이 있는 도로가로 옮겼다. 마을사람들은 깨끗하고 차며 맛있는 샘이 나던 곳이라서 그냥 ‘샘물가’라고 불렀다. 제단은 현재 시멘트로 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는 단을 높여서 세 개의 바위를 세워 놓았다.

● 매차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양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매차나무가 많아서 불러진 골 이름이다. 매차나무는 색깔이 희고 키가 커다랗다.

● 머덜[머더래]

[형태] 들판

[위치] 도투물마당재 밑에 서델(산비탈에 돌이 흘러내려 무더기를 이룬 곳)이 있는 곳이다. 독바우에서 횟골로 가는 사이에 있다.

● 문배마을

[별칭] 문보, 문배리

[형태] 마을

[위치] 구구리의 서남쪽에 구곡폭포 상단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문변리(文倍里)’가 기재되어 있다. 문보(文甫)라고도 부른다. 일설에는 문폭의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문배(文背)라 했다고 한다.

● 문배고개

[별칭] 문배현(文倍峴), 깔딱고개

[형태] 고개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문변고기(文倍峴)’가 기재되어 있다. 문배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일명 깔딱고개로 불린다.

● 문배마을생태연못

[형태] 연못

[위치] 문배마을 아래쪽

[유래] 춘천시에서 만든 연못으로 연못의 물이 구곡폭포로 흘러간다. 연못은 2단으로 만들었는데, 처음 1단은 둑근 원 모양 안에 섬을 돌로 쌓았고, 2단은 긴 타원형의 연못으로 맨 끝에는 구곡폭포로 물이 흘러들게 다리를 놓았다.



문배마을생태연못

● 문암(門岩)

[형태] 바위

[위치] 검봉산에 있는 문처럼 서 있는 바위이다.

● 물가재

[형태] 골짜기

[위치] 어두니에서 문배마을로 가는 등산로 골이다.

● 물깨말

[별칭] 강촌(江村), 물깨말

[형태] 마을

[위치] 강촌의 북한강가에서부터 구곡폭포로 올라가는 삼거리까지를 이른다.

[유래] 물가 마을, 물가 즈음의 마을을 일컫는 말이다.

● 물양금

[형태] 연못

[위치] 문배마을 가운데

[유래] 물이 샘처럼 솟아서 나오는 곳이 있다. 일년 열두 달 끊이지 않고 물이 나오고 있어 자연스럽게 생태연못을 이루었다. 물이 고여 앙금을 이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바일

[형태] 마을

[위치] 강촌의 옛 이름이다. 한자로는 배일(排逸)이라 쓴다. 바일은 구 강촌역에서 수동리까지 이르는 곳을 모두 바일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강촌, 방곡, 창촌으로 나누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박달산

[형태] 산

[위치] 말골 뒤쪽에 있는 산으로 북한강으로 이어

진다.

[유래] 박달나무가 많아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 발래바위

[별칭] 발뢰(發雷)바위, 벼락바위

[형태] 바위

[위치] 발래골 앞 북한강 가의 자전거도로에 있는 큰 바위이다.

[유래] 바위에 벼락이 쳐서 바위가 깨쳤기 때문에 발래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발래골 또는 발뢰골이라 하고 여울을 발래여울이라 한다.

[유래담] 옛날 물깨말 강가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 꼭대기에는 노송이 우람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넓은 노송 위에는 까치 가족이 동지를 틀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구렁이가 새끼까치를 잡아먹으려고 올라가는데 맑은 대낮에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구렁이는 즉사하였고, 노송을 품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쪽 갈라졌다.

● 발래여울

[별칭] 발뢰여울

[형태] 여울

[위치] 발래골 앞 북한강의 동덜리강 여울을 말한다.

[유래] 물살이 센 여울이었는데 청평댐이 생기면서 여울이 없어졌다.

● 발뢰(發雷)

[별칭] 발래, 발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래바위에서 하류로 한참 내려가다 구 백양리역 들어가기 전 좌측으로 난 골짜기이다. 작은 발뢰골, 큰발뢰골이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발뢰리(發雷里)라 하였

다. 마른 도량에 천둥번개가 쳐서 비가 오면 물이 흐른다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 백양리역(白楊里驛)

[형태] 역

[위치] 엘리시안강촌 앞에 있다. 강촌리 백양이다. 구 백양리역과 신 백양리역이 있다. 구 백양리역은 관광 목적으로 이야기를 담아 보존되고 있다. 이 역은 1939년 7월 25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2004년 12월 10일 무배차간이역으로 격하되었다가 2010년 12월 21일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개통과 함께 전철역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 범바위

[형태] 바위

[위치] 문배마을에서 어두니 쪽으로 가다가 있는 바위이다.

[유래] 범이 이 바위에서 새끼를 쳐 갔다고 한다.

● 벼루재

[형태] 고개

[위치] 검봉산 귕소 부근에 있는 고개이다.

● 병풍바위

[별칭] 돌자수바위

[형태] 바위

[위치] 구 강촌역 밑 강가에 길게 늘어진 병풍 같은 바위이다.

● 본부락

[별칭] 본마을, 물깨말

[형태] 마을

[위치] 강촌의 본부가 되는 마을이기에 본마을이라

고 부른다. 물깨말의 다른 이름이다.

● 봉화산(烽火山)

[형태] 산

[위치] 문배마을과 가정리 사이에 있는 산이다.

[유래] 옛날 산꼭대기에서 봉화를 피웠던 곳이다. 해발 487m이다.

● 부채바위

[형태] 바위

[위치] 뒷골에서 도치골 사이에 있는 바위이다.

● 봇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어두니에 있는 골짜기이다.

● 비득재

[형태] 고개

[위치] 논골에서 퇴골로 이어지는 곳에 있는 재이다.

● 사랑바우

[형태] 바위

[위치] 문배마을로 가는 임도로 난 산 위에 있는 바위이다.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바위 두 개가 마주 보고 서 있어서 사랑바우라 부른다.

● 삼밭구렁이

[형태] 골짜기

[위치] 엘리시안강촌이 있는 골짜기에 있다. 건넌 골 아래 골짜기이다.

● 서낭당고개

[형태] 고개

[위치] 문배마을 서낭목이 있던 고개이다. 깔딱고개 있는 곳이다.

● 성밀

[형태] 골짜기

[위치] 구곡폭포로 올라가다 보면 산의 형상이 성처럼 죽 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밑을 성밀이라 했다.

● 속재

[형태] 고개

[위치] 말골의 우대와 쑥골 사이에 있는 재이다. 가운데 있다고 하여 속재라 한다.

● 수리바우

[형태] 바위

[위치] 오양골의 지르내미 안으로 한참 들어가면 있다. 지르내미 안막이다.

● 승새

[형태] 산

[위치] 어두니에서 가정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산이다.

● 승새고개

[형태] 고개

[위치] 어두니에서 가정리로 가는 승새에 있는 고개이다.

● 심박골

[별칭] 신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말골에 있는 골짜기로 안산 옆에 있다. 강촌에서 말골로 들어오는 길 오른쪽이다.

[유래] 예전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신당(神堂)을 만들어놓고 기도를 올리던 곳이다.

● 쌜골

[형태] 골짜기

[위치] 폭포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폭포골 쪽을 일컫는 지명이었다.

● 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말골에 있는 공동산 앞의 골짜기이다.
[유래] 골이 깊게 쑥 들어갔다고 해서 불러진 지명이다. 이곳의 지형이 말형국이라 한다.

● 안보천교

[형태] 다리

[위치] 백양리역 앞에 있는 다리이다. 2011년 9월 1일 착공하여 2011년 12월 30일 준공했다.

● 안산

[형태] 산

[위치] 말골마을 앞에 있는 작은 산이다. 둥굴게 생겼는데 공동산과 심박골 사이에 위치해 있다.

● 어두니

[별칭] 어둔이, 어둔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구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강촌 구곡폭포로 들어가는 입새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긴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방곡하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어둔이골(魚屯谷)’이 기재되어 있다. 골짜기가 어둡다고 해서 어두니라고 부른다. 이곳을 지나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 문배마을에 이르게 된다.

의암리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유래] 말골에서 볼 때 들이 넓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말골에서는 논이 가장 많은 곳이다.

● 역논

[형태] 논

[위치] 역에 딸렸던 논이다.

● 우남바위[雲南岩]

[별칭] 이승만바위, 큰바위얼굴

[형태] 바위

[위치] 구 강촌역 뒤에 있는 검봉산의 돌자수바위 정상 부근에 위치해 있는 사람 얼굴 모양의 바위이다.

[유래] 바위가 사람 옆모습과 흡사한데, 그 모양이 마치 우남 이승만 대통령과 닮았다고 해서 우남바위 또는 이승만바위라 한다. 또 큰 바위로 된 얼굴 모양이라 하여 큰바위얼굴이라 하기도 한다. 이 바위는 돌자수바위 정상에 올라가야 제대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 오양골

[별칭] 오양곡(午陽谷, 五陽谷, 五楊谷)

[형태] 골짜기

[위치] 터일과 발래골 사이에 있다. 백양 3터널 입구를 지나면 깊은 골짜기가 나온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오양곡(午陽谷)’이 기재되어 있다. 골짜기에 다섯 집이 양지바른 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다섯 그루의 큰 벼드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월정바우

[형태] 바위

[위치] 본마을과 백량리역 사이에 있는 바위이다.

● 옷바우고개

[형태] 고개

[위치] 말고개에서 의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옷바위를 한자로 의암(衣岩)이라 하는데, 이를 따라서 옷바우고개이다.

● 유선대(遊仙臺)

[형태] 절벽

[위치] 강촌리 마을 뒤쪽 강선봉을 이루고 있는 절벽이다. 경관이 몹시 빼어나다.

● 옷물[옻물둔지]

[형태] 샘

[위치] 발래골에 있는 샘이다. 뎅강바위 가기 전 길 옆에 있다. 옷이 올랐을 때 마시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 의암순례길

[형태] 길

[위치] 구구리 어두니에 봄내길 2-1코스 의암순례 길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남면 가정리 의암류인석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 우대

[형태] 들

[위치] 말골에 있는 작은 들이다. 말골 본 마을에서

● 이요정(二樂亭)

[형태] 정자

[위치] 강촌 출신 유학자인 이소옹이 1881년 구 강촌역 뒤 산등성이 돌자수바위 아래에 지은 정자 이름이다.

● 작은문배

[별칭] 작은배, 작은문배마을

[형태] 마을

[위치] 문배 옆에 있던 마을이다. 작은배고개를 바로 넘어 어두니 쪽으로 가는 곳에 위치한다.

● 작은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임도로 해서 문배마을로 넘어오는 마지막 고개이다. 고개 너머를 작은배라 한다.

● 절바우

[별칭] 피난바위

[형태] 바위

[위치] 강선사에서 검봉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길목에 커다랗게 있는 바위이다.

[유래] 절을 받은 바위라 해서 절바우라 한다.



절바우

● 쥐형

[별칭] 쥐형봉

[형태] 산

[유래] 발래골 쪽에서 칼봉과 마당재로 연결되는 산봉우리의 형상이 쥐머리 같이 보여서 생겨난 이름이다.

● 지르내미

[형태] 골짜기

[위치] 오양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한 없이 길다고 해서 지르내미가 되었다.

● 진장등

[별칭] 긴장등

[형태] 등성이

[위치] 문배마을에서 가정리 쪽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유래] 장등이 길어서 진장등이라 한다. 진장등을 넘어서 한참을 가면 가정리가 나온다.

● 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독바우에서 구새골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당재 맞은편이다.

● 칠성당나무

[형태] 나무

[위치] 말골서낭당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있는 큰 소나무이다. 나무 앞에는 돌로 만든 부처상도 놓여 있다.

● 칭미기

[별칭] 칭미기, 청매기, 청메기

[형태] 골짜기

[위치] 강촌 본부락에서 말골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유래] 칡덩굴이 많아서 생겨난 이름이다.

● 큰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구리 마당재 부근에 있는 산골짜기이다.

● 터일

[별칭] 터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양골과 건년골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이다. 백양리역 옆에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서울시립대학교 수련원이 있다.

● 통천문

[형태] 굴

[위치] 강선사에서 강선봉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 통천문 옆으로 돌아가면 궁소가 있고 궁소 앞으로 난 절벽으로 내려가면 큰바위열굴(우남바위)을 만나게 된다. 한 사람 정도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굴이 형성되어 있다.



통천문

● 뒷골

[형태] 마을

[위치] 구구리에 있는 마을이다. 본부락에서 구곡폭포로 올라가는 길 옆에 있다. 뒷골로 올라가면 검봉산 등산로와 만난다. 도투물 마당재가 나온다.

● 폭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곡폭포가 있는 골짜기이다.

● 회토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어두니에 있는 골짜기이다. 회토가 났다고 한다.

위치와 현황 | 평지가 대부분을 이루는 농촌이다. 마을 남쪽으로 작은 하천이 흐른다. 자연마을로 장거리, 골말, 탑골, 우리니골, 구만리 등이 있다.

연혁 | 춘천의 남쪽 산 바깥 지역이라 하여 남산외면(南山外面)이라 하다가, 1895년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과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의 2개 면으로 분리되었다.『조선지지자료』는 광판리(光板里)를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에 포함시켰다.『강원도지지조서』도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에 광판리(光板里)를 포함시켰다.『강원도지』,『수춘지』는 남면(南面) 광판리(光板里),『춘주지』는 남면 광판1리, 광판2리, 광판3리로 표시하였다.『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山面) 광판1리, 광판2리, 광판3리로 표시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광판리, 법정리는 광판1리, 광판2리, 광판3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남산외일작면(남면)의 지역으로서 넓은 벌판에 있으므로 광판(光坂)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법소리(法所里), 반의동(班衣洞)을 병합하여 광판리라 하였다. 법소리(法所里)의 고유지명이 ‘별빛’ 또는 ‘양지말’인 것으로 미루어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가리내

[별칭] 가린내, 가리내골, 가린내골

[형태] 마을

[위치] 광판리 산56번지 일대이다. 광판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광판리의 한 부분. 가린내고개와 가린내들이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리+ㄴ+내(川)’로 분석된다.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갈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가린내뒷산

[형태] 산

[위치] 가리내 부근

[유래] 가리내 뒤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내 바깥에 있는 둔지’로 볼 수도 있다.

● 고라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산57번지 일대로 가리내 부근이다.

[유래] 광판장터 건너 구만천 동남쪽 골짜기로서 고라니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고라니+골[谷]’로 분석된다.

● 골말

[형태] 마을

[위치] 광판1리

[유래] 광판1리에 펼친 마을이다.

[어원풀이] ‘골[谷]+말[村]’로 분석된다.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가린냇들

[별칭] 가린냇들

[형태] 들판

[위치] 가리내 부근

[유래] 가리내에 있는 들판을 말한다.

● 광판

[별칭] 광판리, 광판이

[형태] 마을

[위치] 광판1리

[유래] 광판리 본동이다. 광판1리를 일컫는다.

● 갈밭둔지

[형태] 들판

[위치] 광판초등학교 앞

[유래] 예전에 참나무가 많았다. 갈나무, 즉 참나무가 있는 둔덕이라는 뜻이다. 뒤쪽으로 양지마을이 있다. 작은 둔덕인데 갈나무가 많아서 그늘을 이루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있었다. 갈밭둔지는 참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참나무가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어원풀이] ‘갈[岐]+밭[外]+둔지’로 분석된다. ‘갈’은 ‘가리내’, ‘밭’은 ‘바깥’으로 볼 수 있기에 ‘가리

● 구만리(九萬里/九巒里)

[별칭] 구마니, 구만이

[형태] 마을

[위치] 광판중학교 남쪽 구만천에서 동쪽으로 1.5km쯤에 있다. 구만1리마을회관이 있다.

[유래] 광판리 남쪽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마을이다. 굽이 안쪽에 있어서 구마니라고 부른다. 이 지역은 광판리와 붙어있고, 광판리와 생활권이 같다. [어원풀이] ‘굼+안[内]+이’로 분석된다. 물굽이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구미숲평

● 구만리장터

[형태] 시장

[위치] 어유포리와 구만이, 광판리 경계 즉 양짓말에서 갈밭숲 사이에 있는 터이다.

[유래] 광판리에 시장이 서던 곳이다. 장이 아주 크게 섰으나 어느 해 장마에 홍수가 지면서 마을을 휩쓸고 가서 장터를 광판리 장터로 옮겼다.『조선지지자료』에 ‘九巒市場(구만리장)’이 기재되어 있다.

● 구미(굼이)숲평

[형태] 숲

[위치] 구만리

[유래] 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방풍림을 말한다.
[어원풀이] ‘구미/굼이+숲+평[坪]’으로 분석된다.

물굽이에 있는 숲이란 의미이다.

● 구은동(龜隱洞/九隱洞)

[별칭] 굼들이, 구은리, 군드리, 굼두리

[형태] 마을

[위치] 광판중학교와 광판초등학교 사이에 있으며 서편에 산자락을 끼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밭이며 몇 가구만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구만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앞쪽으로 내가 흘렀는데 굽이져서 흘렀다고 하여 굼들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구은동(九隱洞)의 고유지명인 굼들이는 ‘굼+뜰/들+이’로 분석된다. ‘굼’은 ‘곰/굼/금(崇)’이기에 ‘성스러운 마을’로 풀이가 가능하다. 또는 ‘굼’이 ‘구멍’의 고대어이기에 ‘움푹 패인 지형에 있는 들판’ 정도의 의미도 가능해 보인다.

● 군자곡

[형태] 골짜기

[위치] 삐알골 안쪽

[유래] 해주 최씨의 중시조 무덤이 있는데 비석에도 군자곡이라고 쓰여 있다. 예전에는 동산면 군자리의 지역이었는데, 광판 2리가 갈리면서 남산면으로 편입되었다.

● 굽싸리들

[별칭] 구사리들

[형태] 들판

[위치] 광판1리에 있다. 광판초등학교 부근 갈밭둔지 앞에 있는 들이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 굽싸리나무가 많았는데 개간을 해서 지금의 논이 형성되어 있다. 쌔리나무밭을 일궈 논으로 개간했다고 해서 굽싸리들이라 한다. 쌔리비를 매는 쌔리를 굽싸리라 한다. 또는 강물이 굽어 흐르는 지형에서 생겨났다고도 한다. 구만리(九灣里)의 지명이 생긴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물굽이 또는 굽[曲] 사리[川]의 모습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어원풀이] ‘굽[曲]+싸리/사리[川]+들’로 분석된다. 굽은 개천 근처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낡은터

[별칭] 날근터, 뒷골마을

[형태] 마을

[위치] 굽드리 위쪽으로 마을회관 쪽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오래된 터라 소개되어 있다. 이 마을로 누가 이사만 오면 부인이 죽는 등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마을 이름을 뒷골마을로 바꾸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낡은/날근+터[垈]’로 분석된다. ‘낡은

터’는 ‘옛터’나 ‘구터[舊基]’란 의미로, 오래전부터 마을이나 집이 있던 곳이란 뜻으로 볼 수 있다. 광판1리의 본부락 벼덩을 ‘새말’이라 하는데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또는 주위보다 약간 낮은 곳의 땅을 의미하기도 한다.

● 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말 옆

[유래] 광판리에서 처음으로 논이 생긴 골이다. 작은논골과 큰논골로 나뉜다. 큰논골은 위쪽에 있고, 작은논골은 아래쪽에 있다.

[어원풀이] ‘논[沓]+골[谷]’로 분석된다. 논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달랑고개

[형태] 고개

[위치] 우러니골과 뒷골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

[유래] 유홍석 의병장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의 목에 방울을 달고 다녔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을 때에 그 방울이 달랑달랑 움직이며 소리가 들려오면 유홍석이 오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을 달랑고개라 일컫는다.

● 대문바우

[형태] 바위

[위치] 법소리 오른쪽 산기슭에 있다.

[유래] 잣나무가 가려져 있고 바위가 드러나 대문처럼 보인다. 바위가 보이는 곳에 산소를 마련하면 안 좋다고 하여 잣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크기는 집 한 채 정도 된다.

● 덕만이고개

[별칭] 덩마니고개, 억만리고개

[형태] 고개

[위치] 광판리와 군자리와 혈동리 경계에 있다. 터널이 뚫려 있다.

[유래] 원래는 억만리고개라 불렸다고도 한다.

[어원풀이] '덕만이+고개'로 분석된다. '덕만리(德蠻里)'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덕만리'는 둔덕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보인다. '덩마니'는 '덕만리'의 변이형이다.

[유래담] 예전에 어느 관찰사가 이 고개를 넘다가 '덕만이'라는 심복 종을 잃어버렸다 하여 '덕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전설이 전한다.

● 덕바골

[별칭] 독바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209번지. 광판2리 마을회관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독바골이라고도 하는데 큰 바위 한 개가 있다고 하는 말과 장독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부른 지명이라고도 한다.

[어원풀이] '덕바골'은 '덕[언덕/둔덕]+바/밭[田]+골[谷]'로 분석되어 '둔덕에 밭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고, '독바골'은 '독[獨/장독]+바/바위[岩]+골[谷]'로 분석된다.

● 뜯자븐골

[별칭] 도자몽골, 뜯자믄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3리 양지말에서 대문바위를 지나 삼신바위로 가는 중간에 있다.

[유래] 의병들이 출정식을 할 때 돼지를 잡아 제물

로 써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돼지를 잡은 골짜기라 하여 돼지 돈(豚)자를 써서 뜯잡은 골이라 했다.

[어원풀이] '돗[豚]+자븐[屠]+골[谷]'로 분석된다. 돼지를 잡았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유래담] 광판리에서 의병을 모아 작은 논골에서 훈련을 하고, 출정하기 전에 이곳에서 나리를 찾게 해달라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돼지를 잡아 천제(天祭)를 지냈다고 한다.

● 돌무덤

[형태] 고적

[위치] 광판3리 마을회관 뒤쪽으로 가다 보면 길가에 돌무덤이 있다.

[유래] 갈밭둔지에서 물방아둔지로 가는 중간에 있다. 솔문모탱이 옆이다. 돌을 쌓아 놓은 돌무더기란 의미이다.



돌무덤

● 동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1리 논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지금은 골프장이 들어섰다. 동쪽이 막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동막골 밑이 가리내이다.

[어원풀이] '동(東)+막[塞]+골[谷]'로 분석된다. 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초등학교 서편 800m 거리에 광판3리 노인정이 있고, 그 옆이 ‘뒷골’이다.

[유래]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몽골

[형태] 골짜기

[위치] 행촌리와 광판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큰몽골과 작은몽골로 나뉜다.

● 뒷골말

[형태] 마을

[위치] 광판리 842-2. 뒷골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뒷골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무른매미골

[별칭] 무른데미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413. 광판2리 마을회관 남쪽에 위치한 주유소 뒤편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민가가 없고 어두워 사람이 다니기가 무서운 곳이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무른/푸른+데미/덤이+골[谷]’로 분석된다. 푸른 나무가 무성한 골짜기란 의미이다.

● 망아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삐알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의병들이 작은논골에서 훈련을 하는데, 유인석 의병장과 6촌지간인 유흥석 의병장이 말을 타고 가서 세워놓고 의병들 훈련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유흥석 의병장이 타고 간 말이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망아지골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 물방아둔지

[별칭] 물방아뜰

[형태] 들

[위치] 돌무덤 좌측

[유래] 한국전쟁 후까지 물방아가 있었으나 디딜방아가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면서 물방아는 없어졌다. 광판리에서 옛날 디딜방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방앗간을 짓고 디딜방아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광판3리회관에서 약 500m 올라가면 디딜방아를 볼 수 있다.

[어원풀이] ‘물방아+둔지’로 분석된다. 물레방아가 있는 둔지란 의미이다.

● 목너메고개

[별칭] 목너미고개

[형태] 고개

[위치] 우물골 뒤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길이 좁으면서 긴 고개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목[項]+너미/너미[越]+고개[峴]’로 분석된다. ‘목’은 좁고 긴 지형을 의미하고 ‘너미/너미’는 넘어다닌다는 의미이다.

[유래담] 의병 중에 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작은논골을 지나 고개를 넘어 다녔다고 한다. 목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넘어 다니던 고개이다.

● 반의동(班衣洞)

[별칭] 반이동

[형태] 마을

[위치] 광판삼거리 북쪽 가까이에 있는 광판2리마

을회관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광판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예전에는 동산면에 군자리가 있었는데 광판2리가 나뉘지면서 남산면으로 불리는 바람에 마을을 쪼개 놓았다는 뜻에서 반의동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기가 전해온다.
[어원풀이] ‘반의+동(洞)’으로 분석된다. ‘반의’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1교 조금 지나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행촌리와 경계지점이다.

[유래] 뱀처럼 길게 뻗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법소리(法所里)

[별칭] 범비, 별빛,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광판초등학교 북쪽 멀지 않은 곳에 ‘법소리(범비)’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범비”. 광판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정보화마을로 만들면서 선배마을이라고 불린다. 예전에 섬지기를 하던 선비가 살았다고 한다.

[어원풀이] ‘범[별]+소[所]+리(里)’로 분석된다. 고유어지명 ‘별빛’의 한자표기가 ‘法所里’로 보인다. ‘별빛’은 행정지명 ‘光坂里’의 유래가 된다. ‘빛’은 ‘비탈’을 뜻하는 고유어 ‘빛’의 이형표기이기에 ‘햇볕이 잘 드는 비탈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삐알골

[별칭] 뱀골, 백의골, 감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양지말에서 좀 더 올라가서 반의동에 있는 골짜기이다. 탑골 바로 밑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비탈이 진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삐알골은 양지말까지 연계된다. 삐알골 안쪽은 군자곡이라 한다. 이 골짜기에서 100세까지 산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백의골이라고도 한다. 감태골이라고도 한다. 그 골짜기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위낭골이 있는데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삐알[비탈]+골[谷]’로 분석된다. ‘삐알’은 ‘비탈’의 사투리이다. ‘뱀골’은 ‘삐알골’의 줄임말이다. 비탈진 골짜기란 의미도 가능하고 ‘피밭[稷田]’이 ‘파아/파앗/파악/파알/삐악’으로 변이되기도 하기에 ‘피밭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도 가능해 보인다.

● 사방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리논골과 콩밭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산수골

[별칭] 산소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22번지, 광판삼거리 동쪽 방향으로 첫 번째 골짜기이다.

[유래] 무덤이 많이 있어서 산소골이라 하다가 산수골로 바뀌었다고 한다.

● 삼신바우

[형태] 바위

[위치] 거문동과 광판리 경계에 있다.

[유래] 큰 바위가 개울가에 바로 붙어 있는데 깎아 내린 절벽이다. 절벽이 된 것은 벼락을 맞아 부서 졌다고 한다. 돌 위에 앉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돌을 던져 그곳에 앉히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전한다.

● 새마을

[별칭] 새말

[형태] 마을

[위치] 광판1리의 본부락 버덩. 광판초등학교에서 2시 방향 동쪽으로 1km 정도 위치에 있다. 광판보건진료소가 인근에 있다.

[유래] 새로 생긴 마을을 가리킨다. 예전에는 강변이었는데, 그곳을 개간하여 논을 트고 집을 지어서 새로 마을을 만들었다고 해서 새말이라고 한다.

● 솔문모탱이

[형태] 들

[위치] 광판초등학교 옆

[유래] 광판초등학교 전신인 광명학원이 생기기 전에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솔문을 해 세우고, 3.1운동 때 이곳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어원풀이] ‘솔문+모탱이[모퉁이]’로 분석된다. ‘솔문’은 대나무나 일반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솔잎을 입혀 꾸며 놓은 문을 말한다.

● 쇠덕골

[별칭] 쇠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와 행촌리 거문동의 경계에 있다.

[유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의병들이 무기로 쓰기 위해 이 골짜기에서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고, 또는 일

제강점기 때 의병들이 쇠를 녹여서 실탄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는 유래가 있다. 지금도 쇠를 녹인 흔적인 쇳돌이 나온다.

[어원풀이] ‘쇠[鐵]+덕[화덕]+골[谷]’로 분석된다. 쇠를 녹이는 화덕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수리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산155. 광판2리 탑골장거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 앞 개울인 구만이천이 넘쳐서 수리재골이라고 한다. 수리봉을 넘는 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뜻도 있다.

[어원풀이] ‘수리[頂]+재[峙]+골[谷]’로 분석된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수리봉이라 하는데 수리봉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승덕사(崇德祠)

[형태] 사당

[위치] 광판2리 반의동

[유래] 원주김씨(原州金氏)인 김수정(金壽鼎, 1720~1769)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원래 홍천군에 무



승덕사

덤이 있었는데 1993년에 남산면 광판2리로 옮기면서 사당을 세웠다. 사당 내에는 교지 20여점 이상과 묘지명(墓誌銘)과 김행현(金行憲), 박길환(朴吉煥)의 <승덕사중건기(崇德祠重建記)>가 전시되어 있다. 사당 밖에는 후손 김희영(金熙英)이 1976년에 쓴 <현감공행장문(縣監公行狀文)>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

● 안동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84. 동막골 안쪽

[유래] 동막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초입을 동막골이라 하는데, 현재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골짜기 안쪽으로 ‘안동막’과 ‘작은동막’이 있다.

[어원풀이] ‘동막골’ 참조.

● 안산

[형태] 산

[위치] 가리내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린내 앞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 앵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애이골 옆 골짜기로 인근에 삼애농장과 강아지숲이 있다.

● 양지말 1

[별칭] 범비, 양짓말

[형태] 마을

[위치] 광판초등학교 왼쪽(서쪽) 김유정소로와 충효로로 조금 오르다가 오른쪽(동쪽) 산자락 아래 있는 양지바른 마을이다.

[유래] 행촌리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해가 일찍 들어서 양지말이라고 불렸다.

● 양지말 2

[형태] 마을

[위치] 탑골 맞은편 길 건너마을이다.

[유래] 햇빛이 잘 들어 양지마을이라 한다. 탑골 쪽은 음지마을이라 한다. 원주 김씨 사당이 있다.

● 연애골

[별칭] 여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중학교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두 개의 골짜기 가운데 폭이 넓은 골짜기를 ‘큰연애골’이라 하고 폭이 작은 골짜기를 ‘작은연애골’이라 하는데, 현재는 합하여 연애골로 부른다. ‘연애골’로 불리면서 남녀 간의 연애와 관련된 유래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어원풀이] ‘여내+골’로 분석된다. ‘여내’는 ‘여우내’의 축약형으로 추정된다.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흐르는 건천(乾川)을 말한다.

● 오리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사방터골과 진지논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우러니골

[별칭] 우원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날근터와 양지말 중간에 있는, 마을회관 뒤쪽의 골짜기이다.

[유래]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뒷산이 소머리처럼 생겨서 원래 우원이라고 하였는데, 우원이 변하여 우

러니골이 되었다고 한다. 또는 골짜기가 우렁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러니골이라고도 한다.

이다.

[유래] ‘논골’ 참조.

● 우북골

[별칭] 움머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 범비 옆에 있는 어린이집 옆 골짜기이다.

[유래] 우물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이곳에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길어 먹었다고 한다.

● 작은동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산16-1번지 일대로 광판리 하나로 마트 동쪽 맞은편 골짜기이다. 골짜기 초입새를 동막골이라 한다. 동막골로 들어가면서 안동막골이 있고, 가장 깊이 있는 골짜기가 작은동막골이다.

● 워낭골

[별칭] 원앙골, 모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반의동 뻘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가 있다. 지금도 주춧돌과 기와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 작은몽골

[별칭] 작은명골

[형태] 골짜기

[위치] 뻘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몽골과 큰몽골이 있다.

[유래] 큰몽골보다 골짜기가 작아서 이름이 붙었다.

● 음지말

[별칭] 음달

[형태] 마을

[위치] 반의동 양지마을 맞은편에 있다. 광판리 394번지 일대이다.

[유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서쪽인 음지쪽은 음지말, 동쪽인 양지쪽은 양지말이다.

● 작은넉골

[형태] 마을

[위치] 광판리 쪽에서 ‘덕만이터널’ 진입 전 아랫길과 그 근처 구불구불한 예전 ‘덕만이고갯길’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작은넉골’은 그 아래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광판이의 제일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어원풀이] ‘넉골’은 일반적으로 골이 넓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넓은골’이 단축 변음되어 ‘넉골’로 실현된 지명이다.

● 자주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동막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인근에 로드힐스cc 골프장이 들어어서 있다. 가까운 곳에 구만천이 있다.

● 작은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산106 일대이다.

[유래] ‘논골’ 참조.

● 작은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1리 장거리 오른쪽에 있다. 큰논골 옆

● 장거리

[별칭] 구민리장, 광판장, 장터

[형태] 마을

[위치] 광판리에서 충효로와 김유정로가 만나는 역 삼각형 아래 부분 사이에 있다. 광판초등학교 남쪽 가까이에 있으며, 오래된 ‘광판정미소’가 그 앞에 있다.

[유래] 광판리에서 5일장이 서던 마을을 말한다.



광판장거리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뒷골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절터만 있었다고 한다.

● 진지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초등학교에서 남면 강아지숲 가는 쪽으로 오른편에 있는 골짜기이며, 인근 행촌리에도 같은 지명이 있다.

● 질골

[별칭] 길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산208 일대로 반의동 위낭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음지말 북쪽이다.

[유래] 이 골짜기를 통해서 길이 다른 마을로 향해 있다. 길게 뻗은 골짜기라서 생겨난 이름이다.

● 콩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우러니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어느 해 흥년이 극심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논 한 마지기와 콩밥 한 그릇을 바꿔서 끼니를 때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큰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리 666. 광판1리에 있다. 건너편은 동막골이다.

[유래] 광판리 골짜기에 처음 만들어진 다행이논이다.

● 큰넉골

[형태] 마을

[위치] 광판리 쪽에서 ‘덕만이터널’ 진입 전 아랫길과 그 근처 구불구불한 예전 ‘덕만이고갯길’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작은넉골’은 그 아래 마을이다.

[유래] ‘작은넉골’ 참조.

● 큰몽골

[별칭] 큰멍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거문동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크고 깊다.

● 큰애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콩밭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남면 추곡리로 가는 중에 있는 골짜기로서 인근에 강아지

숲이 들어서 있다.

● 큰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거문동에서 고속도로가 난 곳으로 가는 곳이다.

[유래] 큰집이 들어갈 만한 터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대문이 크다고 해서 이름 붙였다는 말도 전해온다.

● 탑골

[별칭] 탑동(塔洞), 탑곡동(塔谷洞)

[형태] 마을

[위치] 광판2리 덕만이고개 밑이다. 광판2리(마을회관)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넘어가 춘천 쪽 도로지명 ‘김유정로’로 오르다 삼거리가 나오는 서편 골짜기 안에 있다. ‘김유정로’로 좀더 오르면 도로지명 ‘탑골삼거리’가 있다.

[유래] 탑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예전에 전방사(箭防寺)가 있었다 한다.

● 탑골서낭당

[형태] 나무

[위치] 탑골 마을 가운데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맞은편에 서낭당이 있었다.

● 호랑바위

[별칭] 호랑부리

[형태] 바위

[위치] 광판리와 홍천 어유포리 경계에 있다. 큰여내골 끝이다.

[유래]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로 굴이 있다고 한다.

위치와 현황 | 마을 대부분 지대가 비교적 평坦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에서 유입한 하천이 마을 중앙을 지나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자연 마을로는 풀무골, 중말, 하방곡 마을 등이 있다.

연혁 | 『여지도서』는 남산외면(南山外面) 상방곡리(上芳谷里)라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상방곡리(上芳谷里), 『춘천읍지』는 남산외면(南山外面) 상방곡리(上芳谷里)라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상방곡리(上芳谷里)로,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방곡리(芳谷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남면(南面) 방곡리(芳谷里)로, 『춘주지』는 방곡1리, 방곡2리로 표기하였다. 『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山面) 방곡1리, 방곡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방곡리고 법정리는 방곡1리, 방곡2리다.

유래 | 방골 또는 방곡(芳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만이, 노일, 덕거리, 풀무골, 중말을 병합하여 방곡리(芳谷里)라 하였다.

● 각시바위

[형태] 바위

[위치] 노일 뒷산에 있다.

[유래] 예전에 한 각시가 바위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다고 전해 온다. 각시가 죽었다고 해서 각시바위라 한다.

● 각시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노일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에 각시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전해 온다.

[어원풀이] ‘각시+박+골’로 분석된다. ‘박’은 ‘바위’의 변형으로 보인다. 각시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개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아텃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갯골

[별칭] 개곡, 개곡리

[형태] 마을

[위치] 방곡 1리에 있다. 노일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개꼬리처럼 길며 들어갈수록 좁아져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구만이

[별칭] 구만리(九巒里), 구만야(驅蠻野)

[형태] 마을

[위치] 방곡2리 3반을 말한다.

[유래] 창촌 서쪽, 노일 원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소옹의 시에서는 ‘구만야(驅蠻野)’라 하였다. 구만이

는 물굽이가 돌아 만(灣)을 이룬 지형을 부르는 명칭이다.

● 구석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아텃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구제비고개

[형태] 고개

[위치] 노일에 있는 고개이다.

● 깍길고개

[별칭] 삐현(削峴)

[형태] 고개

[위치] 방곡리 풀무골을 올라 넘어가면 나오는 마을이 깍길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깍길고개(削峴)’가 기재되어 있다. ‘깍/깻/갓(깍깍거리-) + 길(路)+이(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숨찬 고개인 ‘깔딱고개’와 같은 뜻이다.

● 노일(魯日, 爐一)

[형태] 마을

[위치] 방곡2리 1반 2반을 아우르는 마을이다. 풀무골 맞은 편, 즉 구만이 서남쪽 골짜기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노일이라 하고 한자로 노곡(魯谷)이라 했다. 지형지세는 화로 모양이라 한다.

● 덕거리(德亘里)

[별칭] 덕걸이

[형태] 마을

[위치] 중리 북쪽, 노일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다. 창촌중학교와 덕거리가 방곡리와 강촌과의 경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덕거리라 하고 한자로 덕리(德里)라 표기했다. 개골 밑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마마를 앓아서 사람이 죽으면 덕장을 매고 시체를 옮려두던 것에서 비롯했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 덕장을 매고 시체를 옮려두던 곳이어서 덕거리가 되었다.

● 덕거리들

[형태] 들

[위치] 덕거리에 있는 들판이다.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풀무골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두리봉

[형태] 산

[위치] 숫가마골에서 맞은편에 우뚝 솟아있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 둔일(뒤닐)

[형태] 마을

[위치] 봇당골 옆 구만이를 지나 양단이 골짜기를 지나 있다. 예전에 절이 두 채가 있었다고 한다. 창촌3리에 해당한다.

● 뒷골짜구니

[형태] 골짜기

[위치] 덕거리 뒤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 바른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갯골 안쪽에서 바르게 쭉 뻗은 골짜기이다. 예전엔 화전을 많이 했다.

● 박쥐박굴

[형태] 골짜기

[위치] 풀무골 안쪽 좌측에 위치해 있다.
[유래] 숫가마골 원쪽으로 올라가면 박쥐가 서식하는 바위동굴이 있다.

● 방아텃골

[별칭] 방아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재터골 원쪽 덕거리 맞은편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방아터골(堡谷)’이 기재되어 있다. 예전에 디딜방앗간이 있었다고 한다.

● 범용산

[별칭] 배맹산

[형태] 산

[위치] 방곡리 뒤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228.9m^o다. 용이 난 산이다.

● 보락골

[별칭] 보락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갯터골 옆, 덕거리와 갯골 사이에 난 골짜기이다.

● 봇당골

[별칭] 불당골, 절터

[형태] 골짜기

[위치] 노일 뒷산

[유래] 예전에 불당(佛堂)이 있던 골짜기이다. 절터라고도 한다.

● 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곡리 산64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방아턱 골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밑이 강촌의 청미기이다.

● 소새끼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노일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소를 매어 놓았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다고 전해 온다.

● 수수밭골

[형태] 골짜기

[유래] 수수밭이 많았던 골짜기라 한다.

● 숯가마골

[별칭] 풀무골

[형태] 골짜기

[유래] 풀무골 안쪽에 숯가마가 들어서면서 숯가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승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수밭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곡대학교 앞 방곡1리에 있다.

● 연심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노일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연심이라는 처녀가 나물 뜯으러 갔다가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왕마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갯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고려 때 왕마니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 우갯골

[별칭] 위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곡리 산106번지 일대이다. 방곡1리 갯골 남동쪽에 있는 가장 높은 지대이다.

[유래] ‘갯골’은 마을이 열린[시작된 開] 골짜기, 또는 개의 꼬리처럼 생긴 골짜기, 또는 중심마을에서 떨어진 ‘가액골’의 의미로도 보인다.

● 응달말

[형태] 골짜기

[위치] 지금 강촌역이 있는 곳이다.

[유래] 응달이 져서 종일 해가 들지 않아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 작은창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곡리 산24번지 일대로, 남산초등학교 뒤 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골[倉谷]’이라 했다.

● 재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곡리 산37-1번지 일대로 도장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풀무골에서 강촌방향으로 있다.

[유래] 옛날 마을제사를 지내던 골짜기로 보인다.

● 증말

[형태] 마을

[위치] 방곡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중촌(中村)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지지자료』에 ‘증말[中里]’이 기재되어 있다.

● 치마밭골

[별칭] 치마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풀무골 끝자락 숯가마공장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에 있다. 이곳을 넘어가면 송곡대학교 가 있다.

[유래] 넓적한 바위가 치마처럼 넓적한 모양을 하고 있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풀무골 안으로 들어가다 오른쪽으로 난 큰 골짜기이다.

● 풀무골

[별칭] 품무골, 야동(冶洞)

[형태] 골짜기

[위치] 방곡리 103-6번지 일대로, 남산초등학교 뒤에 위치해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풀무골[冶谷]’이 기재되어 있다. 골짜기 입구 모퉁이 오른쪽에 대장간이

있었는데 대장간에서 쇠를 녹일 때 바람을 일게 하던 풀무가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숯가마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 풀무골느티나무

[형태] 나무

[위치] 풀무골 중간 정도 올라가면 세 갈래 길이 나온다. 숯가마 있는 쪽과 치마박골로 갈라지는 곳인데, 그곳에 아주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다.

● 하방곡리

[형태] 마을

[위치] 방곡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 호랑바우

[형태] 바위

[위치] 풀무골 안의 치마박골에 있다.

[유래]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이다.

● 화채간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갯골 쪽으로 가다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행상을 보관하는 화채간이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4절

방하리(芳荷里)

위치와 현황 | 대부분 지역이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서쪽으로 북한강이 흐른다. 자연마을로 문의골, 큰말, 술어원리, 샛말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남산외면(南山外面) 방하곡(方下谷)이 있다. 『여지도서』는 남산외면(南山外面) 방하곡리(芳下谷里), 『호구총수』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방하곡리(芳下谷里),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산외면(南山外面) 방하곡리(芳下谷里), 『조선지지자료』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방하곡리(芳荷谷里),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방하리(芳荷里)로 표시하였다.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는 남면(南面) 방하리(芳荷里)로, 『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山面) 방하리(芳荷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방하리다.

유래 | 미을의 모양이 방아와 같아서 방하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샛말, 나미섬, 무늬골, 술원이, 큰말을 병합하여 다시 방하리(芳荷里)라 하였다. 구곡(臼谷)이라 표기하기도 했다.

● 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하리 2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이 골짜기에 칡밭이 있어서 '칡 갈(葛)'자를 써서 갈골이라 한다.

[어원풀이] '갈+골[谷]'로 분석된다. '갈'은 칡이란 의미보다는 양쪽으로 갈라진 지형에서 유래된 것으로 방하리의 어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갈월

[형태] 골짜기

[위치] 술워니 고개밑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갈골'과 유래가 같아 보인다.

● 고개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술워니 이대서밧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술워니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에서 유래되었다.

● 고개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술워니 갈월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남이섬(南怡島)

[별칭] 나미섬, 남도(南島)

[형태] 섬

[위치] 방하리 북한강 안에 있는 섬이다. 방하리 1반에 속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남이섬이라 하고 한자로 남이도(南伊島)라 했다.

[어원풀이] '남/나미+섬'으로 분석된다. '남/나미'는 마을 앞이란 의미이다. 조선시대 한자사전에 '南'의 풀이를 '앞 남'이라 하였다.

[유래담] 남이(南怡) 장군의 무덤이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 남이장군묘

[형태] 무덤

[위치] 남이섬 안 입구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들어 가면 있다.

[유래] 봉분 앞에 제단과 향석이 있으며, 무덤 둘레에는 기와로 울타리를 해 놓았다. 묘비와 홍살문이 설치돼 있으며, 남이장군에 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무덤양쪽에는 문무석이 있으며, 무덤 입구에는 자연석에다 남이장군이 지은 한시를 기록해 두었다.

● 넘말

[별칭] 넘마을, 넘어말

[형태] 마을

[위치] 방하리의 옛 명칭이다. 특히 강 언저리를 넘 말이라 일컬었다. 그곳이 널찍하다고 한다.

[어원풀이] '넘/넘어[越]+말[村]'로 분석된다. 물 건너편, 또는 고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뒤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하리 2반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마자골

[별칭] 마주골, 서낭마자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술워니 파소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이곳에 서낭이 있었는데 서낭 마주보는 곳에 있다고 하여 생겨난 이름이다.

● 문의골

[별칭] 문의곡(文義谷) 무닛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하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문리골[文義谷]’이 기재되어 있다. 마을 어구를 어개라 하는데 웃문의골과 아랫문의골 사이에 있다.

[유래담] 옛날 문의라는 선생이 문의골에도 살다가 남이섬에도 살다가 하였다. 한문이 뛰어나서 문의라고 하였다. 문의 선생이 살던 집이 웃문의골 쇠발자국바위 위쪽 맞은편에 있었다고 한다.

● 물안이

[형태] 마을

[위치] 술워니마을에서 강을 따라 난 길로 곧장 한참을 들어가면 나오는 마을이다.

[유래] 강가의 물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박석고개

[형태] 고개

[위치] 마을회관 부근의 고개이다. 이 고개를 통하여 큰말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고개를 지나면 뒷골이 나온다.

[유래] 고개에 큰 돌들이 많아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 방아울

[별칭] 구곡(臼谷)

[형태] 마을

[위치] 방하리를 말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방아울이라 하고 한자로 방하곡리(芳荷谷里)라 했다. 정약용은 방아울(方阿

兀)을 한글로 번역하면 절구골 곧 구곡(臼谷)이 된다고 했다.

[어원풀이] ‘방아+울[谷]’으로 분석된다. ‘방아’는 디딜방아 모양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지형에 일반적으로 붙는 이름이다.

● 방일고개

[형태]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방일고기라 하고 한자로 방하현(芳荷峴)이라 했다.

● 방하리나루터

[별칭] 방하리배터

[형태] 나루

[위치] 문의골 앞 강가

[유래] 문의골 앞 강가에는 예전에 가평 달전리까지 오가던 배가 정박하던 배터가 있었다. 이를 방하리 나루터라 했다. 방하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정리 사람들까지 이용하던 곳이다.

● 뱀골성문안

[형태] 골짜기

[위치] 웃문의골 성문안에 있다.

● 불당골

[별칭]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웃문의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고려시대에 골짜기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 빈냥

[별칭] 섭지빈냥, 비냥

[형태] 들

[위치] 강여가리[강언저리]를 따라서 비탈이 쳐 있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문의골에 있다.

● 새덕산

[별칭] 한덕산

[형태] 산

[위치] 문의골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산이다. 높이는 461.5m이다.

● 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샘이 난다고 해서 샘골이라 한다.

● 샘말

[별칭] 왕대골, 왕다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골에서 술위니모탱이로 오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왕대골 또는 왕다리골이라고도 한다.

● 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문의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샛골로 불러진다.

● 샛말

[형태] 마을

[위치] 웃마을과 아랫마을 중간에 있는 마을로 간촌(間村)이라고 부른다.

● 섭지

[별칭] 큰산밑

[형태] 골짜기

[위치] 장자골 옆 골짜기이다.

● 성문안

[별칭] 큰성문안, 작은성문안

[형태] 들

[유래] 성(城) 모양의 바위가 산꼭대기에 늘어져 있어서 그 안쪽을 성문안이라 부른다. 큰성문안과 작은성문안이 있다. 큰성문안을 넘어가면 경강 방면이 된다.

● 성재

[형태] 바위

[위치] 큰골에 있는 바위이다. 산의 능선을 따라 죽이어져 있는 모양이 마치 산성을 쌓은 것 같아 생겨난 이름이다.

● 쇠발자국바위

[형태] 바위

[위치] 웃문의골 안쪽 길가에 있는 바위에 소발자국 모양의 자국 2개가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예전에 문의골 안쪽으로 마답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소가 도망쳐 나오다가 찍힌 발자국이라 한다.



쇠발자국바위

● 쇠파니

[형태] 골짜기

[위치] 웃문의골 작은성문안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쇠를 팔다고 한다.

개라고 했다고 한다.

● 술워니

[별칭] 술원, 술어원리, 술원리(述院里)

[형태] 마을

[위치] 술워니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형국이라 술워니라 부른다고 한다. 마을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안이 나오는데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다.

[어원풀이] ‘물 안쪽에 있는 마을이나 골짜기’란 의미의 ‘물안이(무라니)’가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술[金]+원/안[內]+이’로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금 안쪽에 있는 마을 또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술워니개울

[형태] 하천

[위치] 술워니 앞을 흐르는 개울이다.

● 술워니고개

[별칭] 술원리고개, 술원현(述遠峴), 주원현(酒原峴)

[형태] 고개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술원리고개(述遠峴)’가 기재되어 있다. 가정리와 방하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담] 1. 조선 선조(宣祖) 때 취흘(醉吃) 류숙(柳肅), 문상옹(汶上翁) 류혁(柳奕), 태우(泰宇) 류활(柳活) 3형제가 박상의(朴尙義)라는 지관을 데리고 대지(大地)를 구하러 다니다가 이 고개에서 술을 마시고 능골로 와서 대지(大地)를 잡았던 곳이다.
2. 고을의 원님이 고개를 넘다가 하도 힘이 드니까 술을 한 잔 먹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산에 술이 있을 리는 없고 해서, 술을 원한다고 해서 술원이고

● 술워니나루터

[형태] 나루

[위치] 방하리 술워니에 있던 나루터이다. 방하리의 원 나루터는 문의골에 있고, 이곳에는 작은 나루터가 있었다. 가평 금대리까지 건너다니는 나루터이다.

● 술워니모탱이

[형태] 들

[위치] 방하리 문의골에서 술워니로 돌아오는 길모퉁이이다. 현재 술워니모퉁이 산 위에 장승이 세워져 있다.

● 신선봉

[형태] 산

[위치] 술워니에서 올려다 보면 보이는 봉우리이다. 옛날에 신선이 그 봉우리 위에 내려와서 놀다 가곤 하였다고 한다.

● 아래문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문의골 아래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 약물터

[형태] 샘

[위치] 큰골에 있는 약물터이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들어갈 때는 굴 입구가 좁고 경사가 져서 밸부터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야 한다. 입구는 좁지만 들어가면 넓은 안방정도의 큰 공간이 펼쳐진다.



약물터 내부

● 여산

[별칭] 섭지산, 섭지여산빈양

[형태] 산

[위치] 장자골에 있는 산이다.

[유래담] 장자골 전설에 여자가 스님이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보다가 죽었다고 해서 여산이라 했다고 한다.

● 웃물

[형태] 샘

[위치] 큰골에 있는 개울 여가리[언저리]에 있는 물이다. 현재 그곳으로 가려면 오동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오동나무를 지나 개울을 건너 산 아래쪽 기슭에 PVC파이프를 타고 물이 떨어진다. 웃이 오른 사람이 이 물을 먹고 씻으면 말끔히 낫는다고 해서 웃물이라 한다.



웃물

● 왕다리골

[별칭] 왕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샘말에 있는 골짜기를 왕다리골이라 한다. 큰골에서 술워니로 오는 사이에 있다.

● 웃문의골

[별칭] 웃무늬골

[형태] 마을

[위치] 문의골 위에 위치한 마을이다.

● 은행나무배기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은행나무배기(銀杏村)’가 기재되어 있다.

● 이대서밧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술워니 서낭마자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자릿고개

[형태] 고개

[위치] 술워니에 있는 고개로 술워니고개로 넘어가는 입구에 있다.

● 장자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문의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섭지 옆이 된다.

[유래담] 옛날에 장자(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스님이 턱발을 오자 쌀을 주지 않고 소똥을 주었다. 그때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는 다시 와서 쌀 한 뜲 박을 주니 스님이 곧 이사를 가라고 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사를 가지 않고 머뭇대며 스님을 바라보니 벼락이 치고 사태가 났다. 그때 금으로 만든 방아가 함께 떠내려갈 정도로 그 장자집이 부자였다고 한다. 방하리 명칭은 그때 떠내려온 방아가 걸려 그런 지명이 붙었고 문의골은 문이 걸려서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조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술워니개울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천동지기

[형태] 골짜기

[위치] 갈골 옆에 있는 골짜기다.

● 큰말

[별칭] 큰골

[형태] 마을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큰말(大村)’이 기재되어 있다. 방하리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골이 커서 큰골이라고도 한다. 큰골을 넘어가면 서천리가 나온다.

● 큰말지당터

[형태] 골짜기

[위치] 큰말 사람들이 예전에 동제를 지내던 곳이다. 마을 안쪽은 남자지당이고, 개울가는 여자지당이었다.

● 톱고개

[별칭] 톱고개

[형태] 고개

[위치] 술워니고개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고개이다.

● 투구봉

[형태] 산

[위치] 웃문의골에 있는 특 불거져 나온 봉우리이다. 모양이 머리에 쓰는 투구처럼 생겼다.

● 파소골

[별칭] 파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술워니 자릿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장자골 바로 옆이다. 헷골을 지나면 서천 경강이 된다.

● 흔들바위

[형태] 바위

[위치] 술워니에 있는 바위이다. 누가 흔들면 쉽게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위치와 현황 | 대부분 지역이 평지를 이룬다. 마을 북쪽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서쪽으로 작은 하천이 흐르는 농촌이다. 자연마을로 샘말, 응달말, 양달말, 건년골, 샛골 등이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서사천상리(西士川上里), 서사천하리(西士川下里)로 구분하였는데 서사천하리(西士川下里)가 백양리인 것 같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에 백양리(白楊里)를 표기하였다. 『강원도지』는 남면(南面)에 자양리(自楊里)를 표기했는데 백양리(白楊里)의 오기인 것 같다. 『수춘지』는 남면(南面) 백양리(白楊里), 『춘주지』는 남면(南面) 백양1리, 백양2리, 『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山面) 백양1리, 백양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백양리고 법정리는 백양1리, 백양2리다.

유래 | 긴 골짜기가 있으므로 뱅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샘말, 도치골, 샘말을 병합하여 백양리(白楊里)라 하였다.

● 가마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1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개울이 흐르다 깊은 소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메워져서 없다.

● 가무나무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절골의 맞은편에 있던 골짜기이다. 예전에 개울 깊은 곳이 있었고 큰바위도 있어 깊은 소를 이루고 있었다.

● 가문암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391-30번지 일대이다. 굴봉산역 남쪽, 서사천 동쪽에 있는 두 개의 골짜기인데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를 가문암소골이라 하고,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를 큰가문암소골이라 한다.

[유래] 검은 바위가 있는 곳에서 소를 먹이던 골짜기라 한다.

● 가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13번지 일대이다. 백양리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장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가지가 많은 골짜기 또는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건넌골

[별칭] 건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2리에 있다.

[유래] 건너편에 있다고 해서 유래되었다. 뱅골에

서 당골을 달리 이르는 이름이다.

● 고등골

[별칭] 곧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102번지 일대이다.

[유래] 곧고 길게 뻗은 골짜기이다.

● 높은터

[형태] 터

[위치] 백양1리 도치골에 있다.

● 높은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488-1번지 일대이다.

[유래] 백양1리에서 방하리로 가기 위해 넘어 다니던 골짜기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 다락터

[형태] 터

[위치] 문의골에 다락같이 생긴 밭이 있는데 그것을 다락터라고 했다.

● 다람바우

[형태] 바위

[위치] 굴봉산 왼쪽에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것 같은 모양의 바위이다.

● 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2리 안뱅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

● 도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97번지 일대이다. 큰새골과 허무 난치골 사이에 있다.

● 도치골

[별칭] 도치동(道治洞)

[형태] 마을

[위치] 백양1리 본동으로 뱅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도치골(道致谷)’ 기재되어 있다. 예전엔 개울로 건너다녀서 사람들이 불편해 했다. 그래서 마을에 길이 없어서 길을 다스려 야 길이 생긴다는 의미로 생겨난 이름이라 한다.
[어원풀이] ‘도치+골’로 분석된다. ‘도치’는 산돼지를 밀한다. 산돼지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도치골에 있다.

● 묘골

[별칭] 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1리 집당골과 작은도치골에서 큰길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다. 옆이 백양2리이다.

● 무시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252번지 일대이다.

● 문의골

[별칭] 다락터, 무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나미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에 다락같이 생긴 밭이 있는데 그것을 다락터라고 부른다.

● 문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97번지 일대이다.

[유래] 강촌리 문배마을로 이어지는 골짜기이다.

● 배나무골

[별칭] 참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121-1번지 일대이다. 굴봉산의 맞은편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비나무골(梨谷)’이 기재되어 있다. 돌배나무가 있던 골짜기로 샛골 동쪽 방곡리 경계에 있는 마을 골짜기이다.

● 배루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186번지 일대이다.

[유래] 윗골과 아랫골 사이에 있다. 벼랑이 있는 골짜기이다.

● 백양교

[형태] 다리

[위치] 뱅골교 밑 북쪽 방향에 있다.

[유래] 2001년 3월 22일 착공하여 6월 19일에 완공하였다.

● 뱅골

[별칭] 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2리이다. 뱅골(뱀골) 또는 안뱅골이라고도 부른다. 안뱅골이 본 마을이다.

[유래] 골짜기가 마치 뱀이 구불구불하게 기어오르는 듯한 모습에서 유래되었다.

● 베드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235번지 일대이다.

[유래] 베드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한다.

● 베섯구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366-1번지 일대이다.

[유래] 베섯이 많이 나는 골짜기이다.

● 북바위

[형태] 바위

[위치] 셋골 쪽으로 가다 오른쪽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예전에 북소리가 그 바위에서 났다고 한다.

● 북밧골

[별칭] 북바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북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북바우골(鼓岩谷)’이 기재되어 있다. 예전에 이 골에서 북소리가 났다고 한다.

● 사다리바우

[형태] 바위

[위치] 배나무골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사다리 모양으로 바위가 되어 있어 타고 올

라가 정월대보름 때 달맞이를 하기도 하였다.

● 샘말

[형태] 마을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심말(間村)’이 기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서사천상리, 도치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사천 위쪽에 있는 큰 샘이다.”라 하였다.

● 샛골

[별칭] 샛말, 간곡(間谷)

[형태] 마을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시골(間谷)’이 기재되어 있다. 웃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안뱅골과 한치고개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석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144-50번지 일대이다.

[유래] 구들장을 캐던 골짜기 또는 돌무덤이 있던 자리라 한다.

● 소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17번지 일대이다. 백양리 서천보 건소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마을에서 소를 풀어놓아 먹였던 곳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소터골’은 ‘쇠터골’의 오기로 보인다. 옛날 대장간이 있던 골짜기거나 광산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수나미골

[별칭] 수너미골, 수네미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355-1번지 일대로 가무나무솔골 옆이다. 수나미골을 따라 올라가면 굴봉산 꼭대기에 서 만난다. 지금의 골프장 쪽에서 물이 넘어와서 수너미 또는 수네미 혹은 수나미골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어원풀이] ‘수(水)+나미)/너미/네미[越]+골[谷]’으로 분석된다. 물 너머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아갈바우

[별칭] 소문혈

[형태] 바위

[위치] 백양1리에서 2리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유래] 마을에서 도로 쪽으로 올라가다 정류장 쪽에서 100미터 정도 가다 보면 길 가에 돌로 세모 모양으로 움푹 패인 부분을 막아놓은 것이 보인다.



아갈바우

● 아랫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굴봉산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백양리 산 184번지 일대로 백양1리 경로당 부근이다.

[유래] 윗골과 대칭되어 아랫골이라 부른다.

● 양달말

[형태] 마을

[위치] 뱅골에서 서사천 건너 양지쪽(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응달말 맞은편이다.

● 웅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291-27번지 일대이다. 굴봉산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굴봉산역 서쪽 철로를 따라 이어져 있다.

[유래] 옛날 이곳에서 사람들이 움을 파고 살아서 움골이라 했는데, 웅골로 바뀌었다고 한다.

● 우물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굴봉산에 있는 굴이다. 굴 안에 물이 차 있어서 우물굴이라 한다. 굴은 크지 않지만 들여다보면 물이 고여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굴이 이어진다. 이심이굴 옆에 있다.

● 응달말

[형태] 마을

[위치] 뱅골에서 서사천 건너 응지쪽(음지쪽,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이심이굴

[형태] 골짜기

[위치] 굴봉산에 있는 굴이다. 우물굴 바로 옆에 있다.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정도이고 들어가면 그리 넓지 않다.

● 자작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당골 밑(북쪽 방향)의 골짜기이다. 예전에 자작나무가 많았다.

● 작은가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11번지 일대이다. 서천분교장 서천천 건너에 있는 골짜기로 가재골 옆에 있다.

● 작은도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진당골 옆이다.

● 작은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310-2번지 일대이다. 백양1리 마을 회관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큰묘골과 작은묘골이 있다.

[유래] 무덤[墓]이 많아서 생겨난 이름이다.

● 작은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97번지 일대이다. 큰새골과 무시터골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 작은지당골

[별칭] 작은진당골

[위치] 백양리 산155번지 일대이다. 큰지당골에서 갈라져 나간 골짜기이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도치골에 있다.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이다.

[유래] 예전에 절이 있던 골짜기이다.

● 제쟁이골

[별칭] 제랑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81-1번지 일대이다. 백양1리 마을 회관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절이 있었던 곳으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 지바골

[별칭] 지밭

[형태] 들

[위치] 백양리 산115번지 일대이다.

[유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치는 위토(位土)의 개념과 비슷하다.

● 진당골

[별칭] 짐당골, 집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문의골로 들어가는 골짜기 안 사이에 있는 골이다. 서낭당이 있던 골짜기이다.

● 참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도치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가문암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26번지 일대이다. 가문암소골 옆에 있다.

[유래] 큰 가죽나무가 있는 골짜기라 한다.

● 큰도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작은도치골 위에 있다. 백양리 산205번지

일대이다. 굴봉산역에서 남진하여 백양1리마을회관 바로 아래 서쪽 골짜기가 도치골이며, 계속 서진하면 큰도치골이, 좀 더 들어가면 작은도치골이 나온다. 도치골 맞은편 골짜기는 수네미골/수네미골이다. 그 앞 백양천에 도치교가 있다.

● 큰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132번지 일대이다.

[유래] 골짜기 내에 무덤이 조성되어 있다. 작은묘골 위쪽에 있다.

● 큰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97번지 일대이다.

[유래] 도덕골과 작은새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두 골짜기 사이에 있다고 해서 ‘큰새골’이라 부른다.

● 큰지당골

[별칭] 큰진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163번지 일대이다. 백양1리 마을회관 좌측으로 난 골짜기 안이다.

[유래] 마을 서낭당이 있었다.

● 한치고개

[별칭] 한치령, 한안치(寒雁稚)

[형태] 고개

[위치] 샛골에서 가정리 쟁골로 가는 고개이다. 쟁골로 가는 길 옆으로 빠지면 강촌의 문배마을로 갈 수 있다. 한치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는 한찻골이다. 한 치만 더 높으면 히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고 하여 생겨난 이름이라 한다.

[어원풀이] ‘한[漢:大]+치[峙]+고개’로 분석된다. 큰고개란 말이다. ‘치[峙]’와 ‘고개’가 중복되어 있다.

● 한찻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치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행상바위

[형태] 바위

[위치] 수너미골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모양이 상여처럼 생겼다. 500미터 정도 올라가면 바위를 볼 수 있다.

● 허무난치골

[별칭] 허무한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백양리 산97번지 일대이다. 백양리에서 남면 방하리로 넘어가는 한치고개 초입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로 옆에 가정리 안정골로 넘어가는 ‘한치’가 있다.

[유래] ‘험난하고 높은 고개’라는 의미이다.

위치와 현황 | 대부분의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곳곳 산지가 분포해 있다. 자연마을로는 논골, 앵골, 큰골마을 등이 있다.

연혁 | 『강원도지지조서』에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통곡리(通谷里)로 표기됐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남면(南面) 통곡리(通谷里)로, 『춘주지』는 남면(南面) 통곡1리, 통곡2리로, 『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山面) 통곡1리, 통곡2리로 구분하였다. 2007. 3. 2 조례 제710호에 의거하여 통곡리를 산수리(山水里)로 명칭 변경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산수리고 법정리는 산수1리, 산수2리이다.

유래 | 통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논꼴, 망단이, 앵골을 병합하여 통곡리(通谷里)라 하였다. 통곡리가 어감이 좋지 않고 ‘통곡한다’ 등의 이미지가 연상된다 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2007. 3. 2 조례 제710호에 의거하여 통곡리를 산수리(山水里)로 변경하였다.

● 가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승비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앞에 홍천강 반곡유원지가 있다.

[유래] 가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갈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장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감투바위

[형태] 바위

[위치] 웃말 논(畠) 가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감투처럼 생겼다.



감투바위

● 감투봉

[형태] 산

[위치] 애막골 뒤쪽으로 난 봉우리이다.

[유래] 산 꼭대기가 마치 감투를 쓴 모양 같다고 해서 생겨난 이름이다.

● 거저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통곡고개와 고시내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수리 산 11번지 부근이다.

● 고시내골

[형태] 골짜기

[위치] 홍천 어유포리에서 산수리로 들어오는 산 5번지 주변 골짜기이다. 거저리골과 통곡고개 옆이다.

● 깃대봉

[형태] 산

[위치] 통골에서 큰골폭포를 지나 강촌나들목으로 넘어가는 봉우리이다.

[유래담] 옛날 어느 때에 산 꼭대기에 기(旗)를 꽂았다고도 하고, 또는 천지개벽을 할 때 사방 물이 찾는데 이 산봉우리에 기를 하나 꽂을 만큼 남았다고 한다.

● 넝마곡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2리 머골 옆 골짜기이다. 잣방산 터널이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있다.

[유래] ‘넝마’를 쌓았던 작으나 깊은 골짜기이다.

● 논골

[별칭] 담동(畜洞)

[형태] 마을

[위치] 산수2리 가장 끝자락으로, 홍천강이 U자 모양으로 휘돌아가는 강변에서 안쪽(북쪽)으로 들어가 동서로 뚫린 큰 골 중앙 부분에 있다.

[유래] 논이 많은 마을이다.

● 다래논이

[별칭] 다락논이, 자래논이

[형태] 마을

[위치] 큰골 안쪽 화전민이 살던 지역이다.

[유래] 옛날 다락논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 터

는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다 묵고 있다.

[위치] 산수2리 머골 옆 서낭댕이골 맞은편이다.

● 단오그네터

[형태] 터

[위치] 망단이 뒤쪽 큰 밤나무가 있던 곳이다.

[유래] 단오가 되면 마을에서 밤나무에 그네를 매고 그네뛰기를 하였다. 근방에서 가장 커다란 밤나무였고 또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놀 수 있을 정도로 평坦하다.

● 둘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2리 홍천강이 돌아 하회(河回)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두미교를 지나 개야로를 따라 가는 옆에 있다. 첫째골과 셋째골 사이이다.

● 동지봉

[형태] 산

[위치] 앵글에 있는 봉우리이다. 예전에 화전을 하던 곳이라 한다.

[유래] 새 동지묘양으로 생겼다.

● 대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1리 북쪽 바로 위 동편으로 난 비교적 짧은 골짜기가 대장골이다. 산수1리 마을회관에서 앵글로 가다가 오른쪽 첫 번째 골짜기이다.

[유래] 산수1리 옷말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을 넘어가면 광판리가 나온다. 앞에 앵글천을 건너는 작은 시멘트콘크리트 다리가 있다.

● 막골

[형태] 골짜기

● 말등바위

[형태] 바위

[위치] 큰골폭포 바로 앞 산능선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멀리서 보면 마치 말등[말목, 말 모자기]처럼 생겼다. 여러 개의 바위가 이어져 있다.



말등바위

● 망단이

[별칭] 망월리(望月里), 망단리, 망월리

[형태] 마을

[위치] 통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망+단+이’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가 거듭 쓰였는데, 후미 ‘-이’는 명사파생접미사로 ‘마을’이나 ‘골’을 주로 지칭한다. ‘-단’은 ‘단/돈/둔’의 변이형을 가지며 주로 ‘마을’과 ‘골’을 의미하므로, ‘망단이’의 의미는 ‘망골/망촌’인 셈이다.

● 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2리 막골과 넝마곡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미골

[별칭] 미곡(徽谷)

[형태] 골짜기

[위치] 애막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서 뱤나무를 많이 했다. 뱤나무를 끌어내리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나무를 끌고 내려온다고 해서 ‘끌터’ 또는 ‘나무끌터’라 했다.

● 밤별

[형태] 들

[위치] 산수1리 자작나무밭 옆에 있는 밤나무 단지이다. 밤나무 단지가 꽤 크다.

● 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직책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배나무가 있어서 배나무골이라 이름 붙여졌다.

● 배바위

[별칭] 쉼바위

[형태] 바위

[위치] 배나무골 앞에 있다.

[유래] 바위가 배[舟]처럼 생겼다. 원래는 밭 가운데 있던 바위로 농사를 지을 때 그곳에서 쉬었다고 해서 쉼바위라 하던 곳이다.

● 배바위나루터

[형태] 나루

[위치] 배바위[쉼바위] 부근에 있던 나루터이다.

[유래] 옛날 <국희>(1999)라는 드라마 촬영장소이기도 하다.

● 범바위

[형태] 바위

[위치] 산수1리 창바위 맞은 편 산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옛날 천지개벽할 때 물이 꽉 찬는데 범이 한 마리 앉아 있을 정도만 남았다고 한다.

● 본부락

[형태] 마을

[위치] 애막골 밑 즉 망단이를 말하며 망단리라고도 불렸다. 산수2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부채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 모양이 부채를 펼쳐놓은 것처럼 생겼다.

● 봇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1리 마을회관에서 앵골로 가다가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장골 맞은편이다.

● 사래울

[형태] 골짜기

[위치] 갈밭골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골 올라가다가 왼편이다.

● 산수천

[형태] 하천

[위치] 북쪽 산수리 산악에서 발원하여, 도로지명 ‘산수로’와 나란히 하며 남쪽으로 내려와, 산수2리 마을휴양지 앞 홍천강에 합류한다.

● 삽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홍천 개야리 가는 쪽 강변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홍천강이 앞으로 흐르는데 ‘가래’ 모양을 하고 있다. 가래 모양의 터에 당집이 있는 골짜기로 분석된다.

● 서낭댕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2리 잡배이골 옆이며, 잣방산 줄기이다. 서낭당이 있었다.

● 세경자

[별칭] 세경재

[형태] 고개

[위치] 통곡의 말골과 절골에 살던 사람들이 한덕리를 지나 모곡장을 보기 위해 넘던 고개이다.

● 셋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2리 홍천강이 돌아 하회(河回)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두미교를 지나 개야로를 따라 가는 옆에 있다. 첫째골과 둘째골의 옆에 셋째골이 있다. 이어지는 셋째골 옆에는 삽당골이 있다.

● 숨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장골 맞은편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 승미골

[별칭] 선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애막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승비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마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홍천군 서면 반곡리가 맞은편에 있다. 홍천 개야리 가는 쪽 오른편이다.

● 앞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1리 장골과 큰사재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애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2리에 있으며 막골 옆이다. 앞으로는 홍천강이 흐른다. 망단이 옆이다.

● 앵골

[별칭] 앤골

[형태] 마을

[위치] 웃말 원쪽에 난 골짜기이다. 이 골을 넘어가면 추곡이 나온다.

[유래] 마을 원쪽에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삼태기 안 같은 모양이다. 한덕리에서 가깝다.

● 여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어유포리에서 산수1리로 넘어오는 고개이다.

● 열두굽이

[형태] 고개

[위치] 큰골에서 발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한덕리로도 통한다. 옛날에는 걸어서 다녔는데 지금은 길을 닦아서 발산리에서 한덕리까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다.

● 옹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1리 마을회관에서 통골로 가다가 오른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웃말

[형태] 마을

[위치] 큰마을을 중심으로 북쪽 마을을 가리킨다. 산수1리 북쪽으로 동편으로 난 대장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 자래노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1리 통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도 화전민이 살던 흔적이 그대로 있다.

● 자작나무밭

[형태] 터

[위치] 산수1리 밤벌 옆에 자작나무를 많이 심어 둔 곳이다.

● 작은사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사재골 산 너머 있는 골짜기이다. 승비골 옆이다.

● 잡배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2리 서낭댕이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유래] 통골폭포 위에 옛날 통원사라는 절이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이곳에서 산을 넘으면 창촌이 나온다.

● 절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2리 홍천강을 끼고 있는 개야로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수리 483번지 일원으로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직책골

[형태] 골짜기

[위치] 승미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넓적하고 평평한 바위가 있다고 한다. 이를 평평바위라 부른다.

● 창바위

[별칭] 창바우, 창암(窓岩, 槍岩)

[형태] 바위

[위치] 숨마골 꼭대기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창 모양으로 생겼다. 옛날 천지개벽을 할 때 모두 물이 쌓는데 창바위 꼭대기는 창(槍) 하나 꽂을 자리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 첫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2리 홍천강이 돌아 하회(河回)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두미교를 지나 개야로를 따라 가는 옆에 있다. 둘째골과 셋째골이 옆에 연달아 있다.



큰골폭포

● 큰골

[별칭] 대곡(大谷)

[형태] 마을

[위치] 산수1리 큰골에서 남면 발산리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지도상에는 통골이라 되어 있다. 통골 북서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나 원래는 전체 통골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이 골을 넘어가면 남면은 발산리가 나오고 홍천은 개야리쪽이 나온다.

● 큰골폭포

[별칭] 통골폭포, 산수리폭포, 항아리폭포

[형태] 폭포

[위치] 산수1리 큰골에 있는 폭포이다. 2단으로 되었고, 물 떨어지는 곳은 깊은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다.

● 큰사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1리 통골로 가다가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터진논

[형태] 들

[위치] 산수2리마을 휴양지에서 홍천강 반대 방향으로 산수길을 가다 보면 원편에 작은 '터진논'이 나온다

● 통곡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산수1리에서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중간에 자비정사라는 절이 있다.

● 통곡천(通谷川)

[형태] 하천

[위치] 산수리[통곡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이다. 예전에 이곳을 통골이라 불렀는데 그만큼 골이 깊었다는 뜻이다. 애막골 앞을 흘러서 홍천강과 만난다.

[위치] 직책골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의 모양이 병풍처럼 생겼다.

● 통골

[별칭] 통곡(通谷), 큰골

[형태] 마을

[위치] 통골은 산수리(옛 통곡리) 전체를 이르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산수1리만 지칭하기도 한다. 큰골 안쪽으로 들어가면 통하리골이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통곡리(通谷里)의 명칭이 생겼다. 산수1리에서 큰골을 지나 통하리골을 지나면 강촌나들목이 나온다.

● 통아리골

[별칭] 통하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수1리 통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자래노니골 맞은편이 된다.

● 통원사터

[형태] 터

[위치] 산수1리 통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자래노니골 맞은편이 된다. 큰골폭포 위에 있던 절터이다. 지금도 그 터에 올라가면 기와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다.

● 평풍바위

[별칭] 병풍바위

[형태] 바위

위치와 현황 | 대부분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강이 마을을 감싸며 흐르고 있다. 자연 마을로는 중간, 햇골, 경강, 도지골, 뱀골마을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남산외면(南山外面)에 서사천(西土川)이 보인다. 『여지도서』는 남산외면(南山外面) 서사천리(西土川里)로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서사천리(西土川里), 『춘천읍지』, 『관동읍지』는 남산외면(南山外面) 서사천리(西土川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서사천상리(西土川上里), 서사천하리(西土川下里)로,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서천리(西川里)로, 『강원도지』, 『수춘지』는 남면(南面) 서천리(西川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는 남면(南面) 서천1리, 서천2리, 『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山面) 서천1리, 서천2리에 해당된다. 현재 행정리는 서천리고 법정리는 서천1리, 서천2리이다.

유래 | 서사천가에 있으므로 서사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햇골, 경강말을 병합하여 서천리(西川里)라 하였다.

● 가쟁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굴봉산 가는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마을 끝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위치] 명태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앉은뱅이가 기어서 약수까지 올라와서 약수를 먹고 걸어서 내려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기어오르다의 앞 자인 '기'와 내려가다의 앞자인 '내'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 강버덩지

[형태] 들판

[위치] 서천 2리 쪽 강변이다.

● 까치여울

[형태] 여울

[위치] 장자골 앞의 하방수 위에 있는 여울인데 물살이 세기로 이름이 났다.

● 경강말

[별칭] 역전말, 정지말

[형태] 마을

[위치] 경강역이 있는 마을이다.

● 다리골

[별칭] 다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다리골[橋洞]'이 기재되어 있다. 서천1리 들어가는 곳으로 서천리 355번지 일대이다. 두 골이 마주치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춘성대교 앞이다.

● 경강역(京江驛)

[별칭] 서천역

[형태] 역

[위치] 경춘선의 정거장이다. 예전에는 서천역이라 불렸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 하여 경강역이 있었지만, 전철이 생기면서 사라지고 지금은 역사만 남아 있다.

● 명태산(明太山)

[형태] 산

[위치] 서천 2리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해발 203.9미터이다.



경강역

● 문바우

[형태] 바위

[위치] 서천리와 방하리 사이에 있는 장자골에 있다. [유래] 스님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 바위로 변한 며느리 이야기가 전한다. 바위가 사람이 문을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 기내미골

[형태] 골짜기

● 방양골[方樣谷]

[형태] 골짜기

[위치] 남산면 서천리 358-7번지 일대에 있다.

[유래] 지형이 직사각형 모양이라 한다.

치골'로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 뱕골포구

[형태] 나루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빙골포구'가 기재되어 있다.

● 사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천리 202-1번지 일대이다. 큰조상골과 접
골 사이이다. 마을 지당[서낭]이 있었다고 한다.

● 신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천2리의 햇글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터

[형태] 터

[위치] 서천 2리 앞쪽을 이룬다. 이쪽저쪽 사이에
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싸리재여울

[형태] 여울

[위치] 서천1리 다리 밑으로 흘렀던 여울이다. 언
덕에서 물이 하얗게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까치가
손님이 온다고 우는 것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이라는 유래가 있다.

● 역전말

[별칭] 역전마을, 정지말

[형태] 마을

[위치] 경강역 앞마을로 기차가 정지하는 곳이라
하여 정지마을이라 하기도 한다.

● 서지대

[형태] 마을

[위치] 서천1리의 본 마을이다. 다클골과 조산골을
지나면 나타나는 마을인데 지금은 서천리라 부르
지만 예전에는 서지대라고 불렸다.

● 월두봉

[형태] 산

[위치] 서천1리 다리골 뒤쪽으로 보이는 뾰족한 산
봉우리를 말한다.

● 소고매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천리 산52-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1. '소(小)+고(孤)+치(峙)+골[谷]'로 분석
된다. 홀로 떨어져 있는 산 고개 골짜기로 해석된다.
2. '소고(小鼓)+매[山]+치(峙)+골[谷]'로 분석된다.
장구모양의 산 고개 골짜기로도 해석된다.
3. '소 고쳐 맨 골짜기'라는 말이 와전되어 '소고매'

● 작은조산골[造山谷]

[별칭] 작은조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천리 390-2번지 일대이다. 영태산(208m)
에서 갈라져 나와 큰조상골과 마주하고 있다.

[어원풀이] '조산(造山)+골[谷]'은 인공적으로 만든
산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조상의 사당이 있어
서 '조상골'로 부르기도 한다.

[유래담] 마을에 살던 천석꾼이 인공산을 만들어서

마을을 가렸다. 청평댐이 생기기 전에 이곳에 뗏목꾼이 많이 내려갔는데 강 건너 주막에서 쉴 때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집 앞에 인공산을 만들어 가렸다고 한다.

● 장자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방하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천리에도 어느 정도 속해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정자말[亭子洞]’이 기재되어 있다.

[유래담] 부자[장자]에 얹힌 이야기가 전한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집골 뒤쪽, 학교 바로 뒤의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예전에 절이 있었다.

● 주니골

[별칭] 중이골, 중간말

[형태] 마을

[위치] 서천2리의 중간말이라고도 한다. 한사고개 북쪽에 있다. 서천 1리와 2리 사이 중간에 위치해 있다. 서천리 86-2번지 일대이다.

● 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다릿골 위쪽에 있다. 서백길 옆에 400여년 이 넘은 참나무인 동가나무가 있다. 옛날 이곳에 집이 많아서 집골이라 했다. 서천리 86-2번지 일대이다.

● 큰조산골

[별칭] 큰조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천리 170번지 일대이다. 다리골과 사당골 사이에 위치한다.

[유래] ‘작은조상골’ 참조

● 큰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천리 산153-2번지 일대이다.

[유래] 햇골에 있는 큰골짜기이다.

● 한사골

[별칭] 한사고개, 한사곡

[형태] 골짜기

[위치] 햇골 위쪽에 있다. 북쪽으로 신봉골이 있다.

● 햇골

[별칭] 햇골, 하약곡(荷藥谷), 학의동(鶴翼洞)

[형태] 마을

[위치] 서천2리의 본 마을이다. 서사천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 밑 남쪽으로 방하리가 있다. 옆은 새터이다.

[유래] 해가 잘 드는 곳이라는 뜻이다.

위치와 현황 | 대부분 지대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지형이다. 자연 마을로는 탄부, 아랭이, 한치골마을 등이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의 수동리(壽洞里)로 표시하였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남면(南面) 수동리(壽洞里)로, 『춘주지』는 남면(南面) 수동1리, 수동2리, 『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山面) 수동1리, 수동2리가 되었다. 현재 행정리는 수동리고 볍정리는 수동1리, 수동2리다.

유래 | 속가마가 있었으므로 속가마골 또는 탄부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나가지, 도치골, 와룡, 한치골을 병합하여 수동리(壽洞里)라 하였다.

● 가드레이

[형태] 고개

[위치] 수동2리 와룡리에서 집터구렁이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움머골 옆에 있다.

● 갈밭등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동리 470 솟가마골 근처의 골짜기이다. 옆에는 땅이밭골이 있다.

[유래] 갈대가 많아서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두 마을로 갈라지는 곳의 둔덕이 있는 골짜기라 볼 수도 있다.

● 감고개

[형태] 고개

[위치] 수동2리 샘물등지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 큰 감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고깔골

[별칭] 꼬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동리 327-25번지 일대이다.

[유래] 수동리 고깔봉[꼬깔봉]에 딸린 가장 큰 골짜기이다.

● 고깔봉

[별칭] 꼬깔봉

[형태] 산

[위치] 수동리와 행촌리와 경계에 있다. 해발 420.2m이다.

[유래] 옛날에 대홍수가 졌을 때 고깔만큼만 물 위로 드러났다고 한다. 봉우리 모양이 고깔 모양이라 생겨난 이름이다.

● 까치봉

[형태] 산

[위치] 한치고개에서 좌측으로 가다보면 있다.

[유래] 옛날에 대홍수가 졌을 때 까치 한 마리가 앓을 정도만 봉우리가 남았다 해서 까치봉이라 했다.

● 굴바우

[별칭] 굴아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밑에 굴이 있는 바위라 했다.

[어원풀이] ‘굴(窟)+바우[岩]’이며 ‘굴아우/굴아/구바우’ 등의 이형태가 있다.

● 굴아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굴바우가 있는 골짜기라 했다.

● 커길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가맛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 나가지(羅加池)

[별칭] 낙안(落雁), 낙안지(落雁池, 樂安地), 낙애지(樂厓地), 나가지골

[형태] 마을

[위치] 수동1리 마을로 현재는 ‘휘슬링락골프장’이 조성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과 『춘천의 지명유래』에 “큰 못이 있는 마을”이라 했는데 주변에서 연못이나 소(沼)를 볼 수 없다.

[어원풀이] ‘나가지마을’이 ‘수동리(壽洞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壽)’의 고유어 ‘나이[年齡]’의 어원 ‘낳>나’와, ‘동(洞)’의 고유어 ‘곧’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곧-이 > ?디 > ?지 > 가지’로 분석된다.

[유래답] 1. 기러기가 앓는 연못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낙안지(樂雁池)가 ‘나가지’로 되었다.

2. 안동김씨 김환(金鍾, 1650~1744)이 벼슬을 그만 두고 이곳에 낙향해 살았다. 그의 호가 ‘낙애(樂厓)’인데서 유래한 마을이름이다. 낙애공이 94세까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수(壽)’자를 쓰는 수동리(壽洞里)’가 되었다 한다.

● 나가지고개

[별칭] 낙안현(落雁峴)

[형태] 고개

[위치] 수동리 ‘나가지마을’에서 행촌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기러기가 날아가다 이곳에서 떨어졌다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나가지’ 참조. ‘낙안현(落雁峴)’은 ‘나가지’가 가지는 유래답의 하나를 한자 지명으로 표기한 것이다.

● 너려골

[별칭] 너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숯가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탄부저수지를 지나면 나온다.

[유래] 큰 너럭바위가 있다고 한다.

● 땅이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동리 376번지로 갈밭등지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땅이밭[堆肥밭]+골’로 분석된다. 조그마한 밭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도치골

[별칭] 도찻골, 도곡(桃谷)

[형태] 마을

[위치] 수동1리 남서향으로 ‘나가지골’ 맞은 편에 있는 비교적 깊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돛[豚]+골[谷]’으로 분석된다. 산돼지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또는 뒷을 놓아 산짐승을 잡았던 마을이란 유래가 전하기도 한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피아골 맞은편의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뒤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 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동2리 움머골 맞은편의 양지가 되는 마을이다. 양지쪽을 일컫는 말이다.

● 무당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무당이 굿을 하던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무당(巫堂)+산(山)’으로 분석된다.

● 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위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 벼들고개

[형태] 고개

[위치] 후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삼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밭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 샘물둥지

[형태] 터

[위치] 쌍가마골을 지나 뒤쪽에 있다. 예전에 이곳에서 뺄래를 하기도 하고 눈에 물을 대기도 했다고 한다.

● 서캠우양지

[형태] 골짜기

[위치] 수동1리와 골프장 휘슬링락CC 사이 중간쯤에 있는 한치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한찻굴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양지밀’과 ‘서캠우/서캠울’이 결합한 특이한 지명이다.

● 설꼴고개

[형태] 고개

[위치] 수동1리와 신동면 협동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협동리의 유래가 되는 지명이 ‘설꼴’이다.

● 솟가마골

[별칭] 솟가마리, 솟가맛골, 탄부리(炭釜里)

[형태] 마을

[위치] 수동리 464-2번지 일대이다.

[유래] 수동리의 유래가 되는 지명이다. 예전에 솟을 구워 팔았으므로 솟가마골이라 했다. 솟가마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수동리라고 부른다. 솟 탄(炭)자를 써서 탄부리라고도 부른다. 예전엔 이 골짜기에 솟가마가 아주 많았다.

[어원풀이] ‘솟+가마+골’로 분석된다. 솟을 생산하던 가마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쌍가마골

[별칭] 상가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리 방면에서 와룡리로 들어오는 골짜기이다. 원래는 쌍가마골이었다고도 한다.

[유래담] 1. 피난을 가던 사람이 배가 고파 가마를 걸고 엎고 오던 아기를 삶아 먹었다고 한다.
2. 샘물둥지에 있던 샘물의 효험이 널리 알려져 쌍가마가 이 골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 아랭이

[별칭] 와룡리(臥龍里), 와룡(臥龍)

[형태] 마을

[위치] 수동2리 본 마을이다. 도치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아/와(臥)+랑[龍]+이(접미사)’로 분석될 듯하다. 용이 누워있는 형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또는 ‘알[卵]+(-앵이)(접미사)’로 볼 수도 있다. ‘알/얼’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 앞들

[형태] 들

[위치] ‘앞들’을 중심으로 북쪽은 탄부저수지‘가 있고 남쪽으로는 ‘도치골‘ 있다.

● 영천골

[별칭] 영천곡(靈泉谷)

[형태] 골짜기

[위치] 수동리 215 일대이다.

[유래] 수동리 한치골 안 바웃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샘이 있다.

[어원풀이] ‘영(靈)+천(泉)+골[谷]’로 분석된다. 영험한 샘물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움머골

[별칭] 우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와룡리 웃방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원래는 우물골이었는데 발음의 변화로 움머골이 되었다. 샘이 나서 우물골이다.

● 웃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와룡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유도리

[형태] 골짜기

[위치] 한치고개와 숯가마골 사이에 있다. 큰유도리와 작은유도리로 나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숯가맛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 작은한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치골 안 북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수동리 240번지 일대이다.

● 장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탄부저수지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이 막혀 있어서 마치 장막(帳幕)을 쳤다는 뜻이다.

● 지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밭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 진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긴 밭이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진/긴[長]+박/밭[田]+골[谷]’로 분석된다. ‘진박골/진밭골/긴박골/긴밭골’ 등의 이형태 지명이 전한다.

● 집터구령이

[별칭] 집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예전에 박성규 효자각이 있던 골짜기이다.

우물골 뒤에 있다. 집뒷골이라고도 한다.

바우사랑캠핑장 가까이에 있다. 숯가마골에 있는 저수지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991년도에 준공했다. 창촌의 농공단지에 물을 대려고 만들었다.

● 추곡고개

[형태] 고개

[위치] 와룡리에서 남면 추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집터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 콩고개

[별칭] 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와룡리(흔드레골)에서 수동1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원래는 큰고개로 불렸는데 나중에 콩고개로도 불렸다.

● 피아골

[별칭] 피앗골

[형태] 골짜기

[위치] 뒷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뒷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피[稗]+밭[田]+골[谷]’으로 분석된다. ‘피밭골’→‘피밭골’→‘피왓골’→‘피앗골’→‘피아골’의 과정을 거쳐 이름이 정해졌다. 피밭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큰골 1

[형태] 골짜기

[위치] 수동1리에 있는 수동농원 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지금은 골프장이 들어서 있어 윗부분이 막혀 있다.

● 한치고개

[별칭] 한치현(寒峙峴)

[형태] 고개

[위치] 수동리 숯가마골과 신동면 혈동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고개를 넘을 때 이제 한 치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넘었던 고개라 한다.

[어원풀이] ‘한[大]+치(峙)+고개’로 분석된다. 높은 고개 또는 큰 고개란 의미이다.

● 큰골 2

[형태] 골짜기

[위치] 수동1리 숯가마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탄부저수지를 지나 오른쪽에 있다. 이 골짜기를 넘어가면 팔미리 의암댐 있는 곳이 나온다. 지금은 임도(林道)가 있다.

● 탄부저수지

[형태] 저수지

[위치] 수동리 북쪽 수동1리마을회관을 지나 강촌

● 한치골

[별칭] 한치곡(寒峙谷), 큰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동리 숯가마골과 신동면 협동리 사이에 있는 고개인 한치고개에서 수동리 쪽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치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할미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마귀할미가 놓았다 는 바위”라 하였다.

● 흔드레골

[별칭] 흔드렉골, 흔도라지마을

[형태] 마을

[위치] 아랭이 부근에 있는 마을로 수동2리 2반을 말한다. 지금은 흔도라지마을로 불린다.

[유래] 수동리에서 추곡리로 가기 위해 추곡고개로 넘어가다가 추곡리쪽이 아닌 수동농공단지 방향으로 접어들면 곧 서편에 흔도라지마을이 있다.

창촌리(倉村里)

위치와 현황 | 대부분 지역이 평지를 이루고 있다. 북쪽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근처에 탄부저수지가 있어 물이 풍부한 농촌이다. 자연마을로 새말, 보매기, 빙하밑, 둔일, 양단리 등이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에 상방곡리(上芳谷里), 하방곡하리(下芳谷下里), 하방곡상리(下芳谷上里)라 표기했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 창촌리(倉村里)라 표기했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남면(南面) 창촌리(倉村里), 『춘주지』는 남면(南面) 창촌1리, 창촌2리, 창촌3리로, 『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山面) 창촌1리, 창촌2리, 창촌3리라 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창촌리고 법정리는 창촌1리, 창촌2리, 창촌3리이다.

유래 | 남사창(南社倉)이 있었으므로 창말 또는 창촌(倉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둔일, 빙하밑, 보매기, 새말, 양단이를 병합하여 창촌리(倉村里)라 하였다.

● 가운데버덩

[형태] 들

[위치] 창촌 3리 둔일에 있다. 둔일의 가운데 논이 있는 곳이다.

● 골안

[형태] 골짜기

[위치] 뒤뜰너머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구만리

[별칭] 구만이

[형태] 마을

[위치] 창촌과 방곡의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구만이(鷺灣里)’가 기재되어 있다. 언덕을 돌아 물이 굽이쳐 흐르는 동네라는 뜻이다.

● 기와집골

[별칭] 재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금은 재직골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기와집골이다. 예전에 이곳에 기와집이 있었다.

● 남뫼

[별칭] 남산

[형태] 산

[위치] 창촌1리에서 가장 높고 큰 산이며 남쪽 방향에 있다.

[유래] ‘남산’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는 산 이름이다. 이 산 때문에 남산면의 행정지명이 되었다.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쪽에서 보면 정남향에 해당되는 산이다.

● 너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리 농공단지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이곳에 큰 너럭바위가 있다.

● 느질매기

[별칭] 느즌매기, 느진매기

[형태] 마을

[위치] 창촌3리에 있다. 봇둔지 위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길이 멀어 갔다가 늦게 올 수밖에 없어서 붙은 이름이다.

● 대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와집골 바로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덧소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3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오소리와 너구리 등이 많아 덧을 놓아 잡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 도리개

[형태] 마을

[위치] 창촌2리에 있는 마을이다. 창촌리 322-5번지이다. 지금의 공단 뒤쪽 즉 보매기 뒤에 있다. 창촌농공단지 옆쪽이다.

[유래] 마을이 깊숙이 있어서 빙 둘러 돌아서 들어가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둔일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도장+골[谷]’로 분석된다. ‘도장’은 ‘안방’의 고유어이다. 안방처럼 아늑하거나 깊숙한 곳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도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3리 삼거리에서 내려오다 만나는 골짜기이다.

● 둑송골

[별칭] 뜻송골, 뒷썩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3리 둑일, 탑안 못 미쳐서 밤나무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뒷을 놓아서 산짐승을 잡았는데 뒷이 썩어서 생겨난 이름이라 한다. ‘뒷 썩은 골’이 ‘돛송골’로 변한 것이다.

● 뒤짝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마산부리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짝골이라고도 부른다.

● 된봉

[형태] 산

[위치] 뒤타(쪽)골 옆에 있는 봉우리이다. 이곳을 통하면 문배마을이 나온다. 산이 높아 ‘오르기에 되다’고 해서 된봉이라 한다는 설이 있다.

● 두리봉

[형태] 골짜기

[위치] 부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 두집메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리 258-27번지 일대이다. 창촌리에서 후동리로 넘어가는 소주고개로 거곡교차로 부근의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이곳에 두 집이 살아서 만들어진 이름이라 한다.

● 둔일

[별칭] 두릉(杜陵), 두곡(杜谷)

[형태] 마을

[위치] 창촌3리에 있다. 노일 남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둔일[杜谷]’이 기재되어 있다. 둔일에 있는 높은 산봉우리는 된봉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둔+일’로 분석된다. ‘둔+덕’과 같은 의미로 두두룩한 (둔덕)밭이란 의미이다.

● 뒤뜰너머

[형태] 들

[위치] 창촌3리에 있다. 우터골에서 좀 더 내려오면 만날 수 있다. 예전엔 이곳에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한다.

● 뒤뜰림

[형태] 산

[위치] 안산 맞은 편에 자리하고 있는 산 이름이다.

● 뒤타골

[형태] 골짜기

[위치] 탑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타골을 넘어가면 문배마을로 갈 수 있다.

● 마산부리

[형태] 산

[위치] 둔일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산이다.

● 말바위

[형태] 바위

[위치] 창촌3리에 있다. 재직골이란 표시판이 있는 개울에 있다. 둔일로 올라가는 길 좌측이다.

[유래] 물 바닥에 넓게 펼쳐져 있다. 명석처럼 넓은 바위 곳곳에 수십 마리의 말이 지나간 듯한 말발자국이 나 있다.



말바위

● 문안

[형태] 골짜기

[위치] 농공단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구리 넘어가면 장등에 마당재가 평평한 게 있고, 그 곳에 ‘용의물’이 고여 있다. 용의물은 한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 바일

[형태] 마을

[위치] 창말의 옛 명칭이다. 창말은 창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 밤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뜻송골 앞 버레골 옆의 골짜기이다.

[유래] 밤나무가 많았던 골짜기이다.

● 방아다리들

[별칭] 방하다리들

[형태] 들

[위치] 창촌리 177-1 부근의 들이다. 창촌리에서 한치로를 따라 수동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들이다.

[유래] 모양이 디딜방아처럼 양갈래로 갈라져 있다.

● 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둔일에 있다.

[유래] 배나무가 많았던 골짜기이다.

● 버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골 옆의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 많은 벌통을 놔서 벌을 키웠다.

● 보매기

[별칭] 창촌보, 보촌(洑村)

[형태] 마을

[위치] 창촌 2리 1반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보미기[洑村]’가 기재되어 있다. 보(洑)가 있는 마을이다. 예전부터 보가 있다고 하나 지금은 새로 보를 해서 물을 가두고 있다. 비아산 앞에 있는 작은 개울에 있는 보이다. 이 보를 막아서 창촌리 일대의 논에 물을 대었다. 둔일과 양단이와 아랭이에서 물이 흘러 개울을 이

루고 있다.

● 보둔지

[별칭] 보둔지, 보둔지

[형태] 마을

[위치] 보를 막은 뒤에 붙은 이름인데 보 위쪽을 가리킨다.

● 불당골

[별칭] 불당(佛堂)골

[형태] 골짜기

[위치] 보매기 마을의 뒷산을 이르는 이름이다. 이곳을 넘어가면 저고리골이 나온다.

● 비아산

[별칭] 빙애산, 빙하산

[형태] 산

[위치] 보매기 마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유래] 비탈[비일]이 많이 저 경사가 심하다.

● 빙하밀

[별칭] 빙하산, 빙하촌(氷下村), 빙애산

[형태] 마을

[위치] 창촌2리에 있다. 빙애산(빙하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빙애산[冰崖山]’이라 기재되어 있다. 벼랑으로 된 산을 빙하산(氷下山), 빙애산이라고 부른다.

● 새말

[별칭] 신촌(新村)

[형태] 마을

[위치] 창촌리 3반을 새말이라 불렀다.

[유래] 새로 생긴 마을이다. 새말 뒤에 있는 산은 새말뒷산. 새말에 있는 못(池)은 새말못이다.

● 새우갯들

[형태] 들

[위치] 창촌 건너편에 있는 들을 일컫는다.

● 송애골

[별칭] 송에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저고리골 옆 개울을 건너면 있다.

● 송학골

[형태] 골짜기

[위치] 둔일 어귀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수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느질메기 뒤에 있는 골짜기로 수령이 있다.

● 아랭이

[형태] 마을

[위치] 양단이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이다. 삼거리 지나서 수동2리와 추곡리로 가는 쪽에 있다.

● 안산(秦山)

[형태] 산

[위치] 창촌3리 둔일에 있다. 송애골 앞에 있는 산 이름이다.

[유래] 풍수적으로 봄에서 둔일마을의 안산에 해당한다.

● 앞산

[형태] 산

[위치] 밤나무골 옆의 산을 이르는 이름이다.

다. 그리고는 저고리만 나무에 걸어놨다고 한다. 그래서 저고리골이라 불렸다. 그만큼 골이 깊고 울창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 골짜기 모양이 저고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 양단이

[별칭] 양단리(陽丹里)

[형태] 마을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양단리(陽丹里)가 기재되어 있다. 둔일 남쪽에 있는, 소주고개 쪽의 마을이다. 양단이에 있는 개울은 양단이개울이다. 양단이 뒤에 있는 산은 양단이뒷산이다. 남면과의 경계이기도 하다. 최근에 IT산업단지가 들어왔다.

● 창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1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면사무소 뒤를 말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골[倉谷]’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시대 창고가 있던 골짜기이다.

● 웃무골

[별칭] 운무골(雲霧谷), 움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3리 둔일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래로 배나무골이 있다.

● 창뒷산

[형태] 산

[위치] 옛날 창고 뒤에 있는 산이다.

● 창말

[별칭] 창리(倉里)

[형태] 마을

[위치] 창촌리 본말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말[倉里]’이 기재되어 있다. 원래 1반 2반 합쳐서 창말이라 불렸다. 옛날 창고가 있던 곳이라 한다. 지금의 강을 기점으로 창촌1리와 창촌2리가 나뉜다. 원래 이름은 ‘바일’이라 불렸으나 나중에 창말로 불리게 되었다.

● 우터골

[별칭] 우톳골, 우톳골, 웃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3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버레골에서 내려오면 건너편에 있다. 탑마을 위의 골짜기이다.

● 저고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3리에 있다. 큰저고리골과 작은저고리골로 나뉜다. 봇당골을 넘어가면 만나는 골짜기이다. 둔일 입구, 소주고개로에서 둔일길로 갈라지는 곳에 있다.

[유래] 예전에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가서 해쳤는데 유골 하나 남은 것 없이 먹어치워 흔적이 없었

● 창촌농공단지

[형태] 산업단지

[위치] 창촌2리에 새로 생긴 농공단지이다. 보매기 2길로 가면 만난다.

[유래] 농촌의 공업화 일환으로 공업단지를 만들 때 창촌에 세워진 농공단지이다. 1986년 12월 29일 착공하여 1987년 7월 24일에 준공되었다. 농

공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을 서낭댕이로 불렸다.

리에 속해 있다.

[유래] 산 사이 깊숙하게 자리 잡은 골짜기이다.

● 창터

[형태] 터

[위치] 옛날 남사창(南社倉)이 있던 터이다.

● 품실못

[형태] 못

[위치] 품실에 있는 못이다.

● 큰고개

[형태] 고개

[위치] 둔일 도로의 우측에 있는 고개이다. 농공단지 옆을 통해서 이 고개를 넘으면 창촌3리 둔일이 나온다.

● 횃골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횃돌이 나는 산이라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창촌3리 둔일에 있는 골짜기이다. 되짝골(뒤터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을 통하면 가정리가 나온다.

● 큰성개

[형태] 골짜기

[위치] 탑안 부근에 있는 안쪽 골짜기이다.

● 탑안

[형태] 골짜기

[위치] 절터와 탑이 있는 안쪽 골짜기이다. 창촌3리 둔일에 있다.

[유래] 밭에 3층 석탑이 있는데 신라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 품실

[형태] 마을

[위치] 지금의 송곡대학교가 있는 마을이다. 창촌2

위치와 현황 | 마을 대부분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서 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행촌, 거문동이, 봉에텃골 마을 등이 있다.

연혁 |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에 행촌리(杏村里)를 포함시켰다.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는 남면(南面) 행촌리(杏村里)로, 『춘천백년사』는 남산면(南面) 행촌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행촌리다.

유래 | 살구나무가 많으므로 행촌(杏村)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흑림동, 섬배, 봉에텃골, 토목골을 병합하여 행촌리(杏村里)라 하였다.



감투바위

● 가래고개

[형태] 고개

[위치] 징골을 넘는 고개이다.

● 가래울고개

[형태] 고개

[위치] 섬배에서 추곡리(楸谷里)의 가래울로 가는 고개이다.

● 가랫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섬배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래[分, 岐]+ㅅ+골[谷]’로 분석된다. ‘가랫골’은 행정명 ‘추곡리’의 유래가 되는 지명이

다. 따라서 행촌리가 아닌 추곡리에 있는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

● 갈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덩굴 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호산 맞은편에 있다.

[유래] 골짜기에 갈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 감투바위

[형태] 바위

[위치] 봉의턱골 서낭당 뒤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바위 모양이 감투 같다. 바위가 크지는 않고 지금은 약간 쓰러져 있다. 서낭당 바로 옆 개울에 있다.

● 거문동

[별칭] 검은동, 거문댕이, 구름동, 흑림동(黑林洞), 바깥말, 바깥바치
 [형태] 마을
 [위치] 행촌리 3반이다. 행촌 북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나무숲이 우거져서 어두컴컴하다고 하여 생겨난 이름이다. 또는 검은 돌이 많다고도 한다.

● 거문동고개

[별칭] 거문동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거문동이에서 광판리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거문동과 섬배마을을 잇는 고개이다.

● 노장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촌로 239-31에서 서쪽으로 조금가면 나온다.

● 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밤나무골 옆에 있다. 행촌리마을회관에서 500m 정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섬배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 돌배나무골

[별칭] 샛골

[위치] 머드렁골을 돌아가면 있다.
 [유래] 돌배가 많이 나는 골이다. 샛골이라고도 한다.

● 동기안

[형태] 마을
 [위치] 거문동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거문동이에 떨린 마을이라 하였다.

● 등너며

[별칭] 등너메

[형태] 마을
 [위치] 호랑이산 밑을 가리키는 말이다.

● 말재

[형태] 고개

[위치] 웃터골 옆에 있는 고개이다. 웃터께와 호산 사이에 있다. 말재를 넘어가면 토목골이 나온다.

● 머드렁골

[형태] 골짜기

[위치] 토목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먼[遠]+골[谷]’로 분석된다.

● 미역골

[별칭] 떡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섬배의 샘치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침수되어 미역오리만큼 남았었다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미역+골[谷]’로 분석된다. 여름철 미역을 자주 감는 개울에 붙는 지명으로, ‘미역골/먹골/메기골’ 등의 이형태가 있다. 또는 ‘미륵암’이란 절이나 암자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 밤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논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밤나무가 많은 골짜기이다.

● 병에터골

[별칭] 병에텃골, 봉에텃골, 봉의텃골, 휴대곡(堕谷), 봉의터골, 분의터골, 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행촌리 3반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토목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부엉이가 많이 살았음”이라 하였다. 도로명은 ‘봉의텃골길’로 되어 있다.

[어원풀이] ‘부엉이[鳩]/봉에/병에+터[垈]+골[谷]’로 분석된다. 다양한 유래가 전하는데 봉화터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의 ‘봉화텃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담] 1. 김봉희라는 사람이 살았다.

2. 부엉이가 많이 살았다.

● 보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샘찻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섬배마을 가운데에 있다.

● 분의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병에터골’의 변이형으로 추정된다.

● 삼거리

[형태] 거리

[위치] 거문동과 안거문동, 그리고 병에터골로 갈라지는 세 갈래 길이다.

● 삽다리

[별칭] 삽다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섬배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작은콩밭골’이 보이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나온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미역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 삽다리 고개가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섶+들’로 분석된다. 잎나무, 풀거리 등을 총칭하는 ‘섶나무’가 ‘섶/섶>삽’의 과정을 거쳤고, ‘-다리’는 ‘들[坪, 野]’의 변이형이다.

● 샘치골

[별칭] 샘찻골

[형태] 골짜기

[위치] 윗섬배 논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우물터라는 샘터가 있어 샘이 많이 난다. 샘찻골의 물을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쌍둥이샘이라 불리기도 한다.

[어원풀이] ‘샘[泉]+치(峙)+ㅅ+골[谷]’로 분석된다.

● 설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거문동에서 병에터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섬배(蟾背)

[별칭] 섬배리, 섬배마을

[형태] 마을

[위치] 행촌리 1반의 자연마을 이름이다.

[유래] 윗섬배와 아랫섬배로 나뉜다. 행촌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섬배에 있는 골짜기는 논골이다. 섬배는 한 섬 두 섬의 섬리를 밀하는데, 한 섬은 스무 말이 있어야 한다. 그렇듯 이곳에는 옛날부터 스무 집이 살았다. 동네에서 한 집이 이사를 가면 동네 어른이 나서서 다른 동네분을 모셔와 한 섬을 채워 같이 살았다고 한다.

[어원풀이] ‘섬+배/배미’로 분석된다. ‘배미>배’는 ‘논배미’에서 온 것으로 ‘논[畠]’의 의미를 가지며 지명접미사화한 것이다. ‘섬’은 ‘섬돌’이란 고유어에서도 쓰이듯이 돌총계의 계단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섬배’는 다랑이논처럼 ‘계단식으로 조성된 논’이란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섬배 골짜기를 ‘논골’로도 불렀고 골짜기를 따라 작은 논들이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다.

● 섬배고개

[형태] 고개

[위치] 행촌리 섬배골과 추곡리 섬배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행촌리 산152번에 해당한다.

● 쇠도골

[형태] 골짜기

[위치] 행촌리 작은명골 맞은편 개울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 수리취골

[형태] 골짜기

[위치] 토목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빼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토목골 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아갈바위

[별칭] 호랑바위

[형태] 바위

[위치] 머드령골에 있다.

[유래] 산의 형태가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습인데 그 형국의 끄트머리에 큰 바위가 있다. 그 바위를 호랑바위라 한다.

● 아랫섬배

[형태] 마을

[위치] 섬배마을 본 마을이다. 윗섬배는 샘찻골로 올라가는 좌측 골짜기이다.

● 안거문댕이

[별칭] 안검댕이, 안말

[형태] 골짜기

[위치] 거문댕이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오목한 마을이 나온다. 나무가 많은 안쪽이어서 침침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 안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행촌리 고속도로 옆으로 난 골짜기이다.

● 엄마봉

[형태] 산

[위치] 거문댕이 가운데에 있는 산이다. 거문댕이에서 안거문댕이로 들어가는 길 오른쪽에 있는 산

이다. 해발 250m이다.

● 영산나무

[별칭] 토목골참나무

[형태] 나무

[위치] 병에터와 토목골 사이에 있는 나무이다.

[유래] 토목골참나무 참조.

● 옷풀

[형태] 우물

[위치] 토목골 지나 설골에 있다.

[유래] 커다란 느릅나무 밑에 샘이 있다. 옷이 올랐

을 때 몇 번을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 우지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섬배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上]+지[地]+터[基]+ㅅ+골[谷]’로 분석된다.

● 웃섬배

[별칭] 웃섬배

[형태] 골짜기

[위치] 섬배에 있는 골짜기로 ‘섬배(마을)’ 북서쪽에 있고, 더 가면 ‘섬배고개’가 나온다.

● 웃터께

[별칭] 웃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텃골 안쪽으로 들어가면 맨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병에터골 위에 있다.

● 윗토목골

[형태] 골짜기

[위치] 토목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행촌리 산25번지 일대이다.

[유래] ‘토목골’ 참조.

● 이발꼴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거쁜동이에 떨린 마을이라 하였다.

● 작은콩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섬배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나온다.

[유래] 옛날에 콩을 심었던 작은 골짜기이다.

● 정꼴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섬배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 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섬배고개에서 추곡리 산마루 전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진기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울양양고속도로, 추곡터널 중간쯤 위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작은콩밭골 맞은편 골짜기

로 지금은 사방댐이 들어서 있다. 두 골짜기 사이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있다.

에터골'의 줄임말로 보인다. 실제로 '봉에터골'을 '터골'이라 부른다는 지역민의 증언도 있다.

● 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섬배의 밤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본동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넓고 평평하다.

● 토목골

[별칭] 토목동(土木洞)

[형태] 골짜기

[위치] 광판3리에서 북진하여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넘어가서 도로지명 '동촌로'로 진행하면 수동리로 가게 되고, 우측 '봉의텃골길'로 북진하면 혈동리로 가게 되는데, 혈동리로 넘어가기 전, 두 도로가 갈라진 지점과 혈동리 중간쯤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거문동이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흙이 많고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토목골에서 고개를 넘어가면 혈동리가 된다. 근처에 '봉에터골'이 있는데 줄여서 '텃골'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텃골'이 와전되어 '토목골'로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톡골

[별칭] 톳골, 텃골, 터골[垈谷]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신동면(新東面) 혈동리(穴洞里)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 근처에 '봉에터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봉

● 톱골고개

[별칭] 톳골고개, 텃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신동면 혈동리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유래] '텃골' 참조.

● 호랑이바위

[형태] 바위

[위치] 거문댕이에 있는 바위이다. 지금 양계장이 있는 곳이다.

[유래] 옛날에 호랑이가 올라서서 울었다는 바위이다.

● 호산(虎山)

[별칭] 호랑이산

[형태] 산

[위치] 봉에텃골 왼쪽에 있는 산이다. 산모양이 호랑이가 엎드린 자세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면(東面)

춘천시의 동쪽에 위치한 면이다. 지내리(枝內里)·만천리(萬泉里)·장학리(獐鶴里)·감정리(甘井里) 등 10개의 법정리를 관할한다. 북쪽으로 신북읍, 동쪽으로 북산면(北山面), 남쪽으로 동내면(東內面)과 홍천군 북방면(北方面), 서쪽으로 춘천시와 접한다.

『춘주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만법리(萬法里), 장항(獐項), 지내(枝內), 이십곡(二十谷), 후방리(後方里), 명암(鳴巖), 부사원(府使院), 신천(莘川) 등을 들고 있다. 동산외면은 1895년(고종 32)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과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으로 분할되었다. 전자는 만법리·학곡리·이십곡리·지내리·품곡리·말걸리의 6개 동리로, 후자는 하걸은리·상걸은리·풍천리·부사원리·품곡리·말걸리의 6개 동리로 편성되었다. 동리의 명칭은 일부 다르지만 『여지도서』에 만법리·장항리·지내리·품곡리·이십곡리 등 11개 리의 위치와 호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17년에 지방제도의 통폐합으로 동면으로 지정되었다.

『해동지도』 동산외면 주변에 일련의 산들이 그려져 있으며 구봉산이 표기되어 있다.

동면은 춘천분지 동사면과 소양호 주변 산지로 구성되며, 경지면적은 밭이 논보다 많다. 주요 농산물은 쌀·옥수수·콩이며 수박·배·자두·사과·복숭아를 재배하고 젓소·칠면조·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고 양봉 등이 성하다. 소양호의 가두리양식장은 모두 철거되었고, 허가받은 일부 어민들이 잉어·붕어·쏘가리 등을 소규모로 잡고 있다. 면의 중심으로 홍천으로 통하는 국도가 있으나, 동부는 소양호 등으로 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위치와 현황 | 가리산의 서쪽 자락에 위치한 산간 농촌 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독점, 시밀(이십곡리), 유현 등이 있으며, 골짜기가 매우 많다.

연혁 | 『춘주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이십곡(二十谷), 『여지도서』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이십곡리(二十谷里)라 표기했다. 『호구총수』는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에 이십곡리(二十谷里),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이십곡리(二十谷里)을 실었다.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에 이십곡리(二十谷里)를 실었다. 『강원도지』는 동면(東面)에 감천리(甘川里)를, 『수춘지』는 춘성군(春城郡) 동면(東面)에 감정리(甘井里)를 표기하였다. 1984년에 발간된 『춘주지』는 춘성군(春城郡) 동면(東面)에 감정1리, 감정2리를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인 감정리에 법정리인 감정1리, 감정2리를 두고 있다.

유래 | 마을에 골짜기가 20개가 있어서 스모곡 또는 이십곡리라 불렸다. 감정리는 감자농사가 잘 되어 감잣골이라 했었는데, 이 곳에 맛이 좋은 우물이 있어서 감정리(甘井里)라 하였다고 한다.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느릿재, 독점, 시밀, 연산골, 장자골을 병합하여 감정리라 하였다.

● 갈골

[별칭] 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떡갈나무가 많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갈골은 떡갈나무, 갑골은 소나무가 많은 골짜기를 뜻한다.

● 감잣골

[별칭] 감자골, 감정리

[형태] 마을

[위치] 감정1리 1반에 있는 마을이름이기도 하다. 장학리에서 감정리로 가는 입구에 감자골이라는 표식의 음식영업집이 있다.

[유래] 감정리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감정리의 이름이 이 마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유래담] 감잣골이라고 쓰다가, 감정리(甘井里)로 바뀌었다고 한다.

는 '감정이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감정동(甘井洞)으로 이십곡리에 있다고 했다. 감정리가 감자골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감정리 미륵바위

[형태] 바위

[위치] 동면 감정리 느릿재 밑 계곡으로 들어가 인가가 끝나는 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오른쪽 개울 건너에 있다. 이곳의 입구에는 미륵바위와 돌부처를 세워 두었다.

[유래] 마을의 산신제 터였는데, 박수가 와서 미륵을 모시고 있다.

[유래담] 이곳은 '대룡암굿당'이라고 이름을 불인 대한경신연합회 소속 박수가 운영하는 곳이다. 여러 부처를 모신 굿당이 있고, 도량을 건너면 미륵과 몇 기의 돌부처를 모시고 있다. 그리고 바위 밑에 샘이 솟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향과 소주 등을 놓았다.



감잣골 상가 간판

● 감정골

[별칭] 감정동

[형태] 마을

[위치] 감정골 위가 연산골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동명(洞名)으로 한글로

● 감정리 산지당터

[별칭] 감정리 미륵바위

[형태] 민속

[위치] 마을에서 느릿재 계곡으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미륵바위가 있다.

[유래] 원래 미륵바위 있는 곳은 감정리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었다.

● 감정리약수(甘井里藥水)

[형태] 샘

[위치] 감정리 느릿재 중턱에 있다.

[유래] 동면 감정리 느릿재 고개 중턱에 있다.

[유래담] 감정리 느릿재 중턱에 있으며 1980년 6월 발견되었다. 도보건연구소 성분 분석결과 다량

의 칼슘과 횡상이온, 마그네슘, 염소, 규산 제1철이론과 유리탄산, 히드로탄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 신경질환 등에 효과가 있고, 이 물로 목욕을 하면 관능성 신경증과 만성 부인질환,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 감정리 종유굴(鍾乳窟)

[형태] 굴

[위치] 감정리 마을 안길로부터 서쪽으로 300m지점에 위치한다.

[유래] 1980년 9월 춘천군 공보실 답사반에 의해 발견되었다.

[유래담] 입구는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높이 40cm 폭 60cm정도이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폭 3.8m, 높이 3m 되는 공간이 뻗어 있고 바닥은 부식토이다. 천장과 벽에는 갖가지 형태를 지닌 석순이 제법 잘 발달되었다.

● 감정우물

[형태] 샘

[위치] 감정리 마을 입구 중간쯤에 있었다.

[유래] 감정리의 마을 명칭을 만든 우물이다.

[유래담] 시밀에서 도로 쪽으로 나가다가 있다. 원래 '감정'이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거기 집을 지으면서 안내판을 땅에 묻었다. 그곳에 감나무가 우물이 생길 때부터 있었다. 그 물이 좋아서 달 감(甘)자 우물 정(井)자 마을 리(里)자를 써서 감정리라 한다. 이십곡리 다음으로 감정리가 생겼다.

● 거문덩굴

[형태] 골짜기

[위치] 팔배나뭇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검은+뎅이/덩이/덩/당+골'로 분석된

다. '어두운 음지 골짜기'란 의미이다.

● 까끈데

[형태] 골짜기

[위치] 저고리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비탈이 져서 까끈데라고 했다. 옛날 화전민이 있을 때는 사람이 살았다.

[어원풀이] '까끈/깎은+데[곳]'로 분석된다. 깎아지른 듯 비탈 진 곳이란 의미이다.

● 구봉서원터(九峯書院址)

[별칭] 문의서원(文懿書院)

[형태] 터

[위치] 감정2리 517번지이다.

[유래] 순조 경인년(1830) 건립된, 문의공(文懿公) 박항(朴恒)을 배향한 서원이다. 구봉서원은 1821년(순조21)에 춘천의 유림 이현승(李顯升) 등 117인이 설립 발의하여, 1831년 관동감찰(關東監察) 조용화(趙容和)와 이언순(李彦淳) 등에 의하여 동면 감정리 구봉산록(九峯山麓)에 건립하였다.

● 느릿재

[별칭] 유현(榆峴)

[형태] 고개

[위치] 감정리에서 평촌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이 지역 사람들은 고개가 높아 느릿느릿 넘어간다고 해서 느릿재 또는 느릿재로 불렀다고 하는데, 한자로 보면 느릅나무가 많은 고개로 볼 수 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현명(峴名)이며 한글로 '느릿지'라 했고, 한자로는 느릅나무 유(榆)자를 써서 유현(榆峴)이라 하고, 이십곡리에 있다고 했다. 정상 부근에 느릿재 터널이 있다. 이 터널은 옛날 고성에서 세계 챔버리대회를 할 때 뚫었다. 그래서

이 길을 일명 챔버리도로라 했다.

[어원풀이] ‘느르-+앗/엇+재’로 분석하며 ‘-앗/엇’은 명사과생접미사이다. 길게 늘어진 고개란 의미이다.



느릿재터널

● 늘목고개

[별칭] 노루목고개

[형태] 고개

[위치] 장학리의 늘목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단우물

[형태] 샘

[위치] 감정2리에 윤승구네 집이 단우물이라 한다.

[유래] 단맛이 나는 좋은 우물이란 의미이다.

● 덧밧재

[형태] 골짜기

[위치] 까끈데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덕(둔덕, 언덕)+밧+재(峙)’로 분석되며 ‘밧’은 지명에서 자주 ‘밭(田)’의 변이형으로 나타난다. 아주 일부 ‘밧’이 ‘밖’일 때도 있다. ‘까끈데’ 건너편이면 ‘덕밧재’에서 ‘덕’은 보통 ‘언덕/둔덕’이나 ‘산등성이나 둔덕에 있는 ‘밭(田)’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 독점

[형태] 마을

[위치] 감정1리 3반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한글로 ‘독점’이라 하고 한자로는 ‘옹점곡(甕店谷)’이라 하고 이십곡리에 있다고 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서는 옹기점이 있는 마을이라고 했다. 『강원의 설화』에서는 순홍 안씨가 홀로 점령하고 살았다고 해서 독점이라 했다고 한다.

[어원풀이] ‘독+점’의 ‘독’은 ‘독아지, 항아리’이며 한자어 ‘옹기(甕器)’이다. 옹기를 굽던 가마나 옹기점이 있었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 독주봉

[별칭] 독묘봉, 독지봉

[형태] 산

[위치] 구봉산 꼭대기 중 하나이다.

[유래] 옛날 천지개벽을 할 때 독만큼 물에 잠기지 않고 남았다고 한다. 구봉산을 시밀에서는 독지봉이라 한다.

[유래답] 『조선지지자료』에는 한글로 ‘독묘봉’이라 하고 한자로는 구봉산(九峯山)이라 하고 이십곡리에 있다고 하였다. 홍수전설이 전한다. 옛날 엄청 큰 장마가 졌는데, 독만큼만 남았다. 물이 차서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었다. 그 사람이 살아서 자손을 펴뜨렸다.

● 된이매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가파른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된+이+매’로 분석하며 ‘된’은 ‘되다, 가파르다’이고 ‘이’는 명사과생접미사로 읽히며, ‘매’

는 ‘뫼/매[山]’이다. ‘-뫼/매’는 어의전성되어 ‘골짜기’ 등 다른 의미(마을, 들, 고개, 터, 우물)로도 쓰인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시밀에 물 나오는 데가 뒷골이다.

[유래] 김정리 시밀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무랑애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웃말을 올라가 있다.

[유래담] 골이 하도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피난을 했다. 6.25 때 이 골에 피란민이 가 있어도 폭격을 못했다. 워낙 좁아서 비행기가 주위를 돌면서 폭격을 못 하고 그냥 갔다.

● 새밭터

[형태] 터

[위치] 저고리골 옆, 미륵바위를 모신 곳이다.

[유래담] 김정리 미륵바위를 모신 곳이다. 대룡암 굿당이 있다.

● 새창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갈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미상이다.

● 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 산 밑이다.

[유래] 미상이다.

● 벼들숲

[형태] 숲

[위치] 시밀 뒤에 있는 계곡에 있다.

[유래] 벼드나무가 많았다.

[유래담] 시밀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옛날 할아버지들이 벼들숲이라고 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 섬바위

[형태] 바위

[위치] 장자골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바위가 척척 쌓여 있어서 섬을 쌓아놓은 것 같다. 산꼭대기에 있다.

[유래담] 예전에는 화전민이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 삼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삼밭이 있던 골짜기이다.

● 세풀이

[형태] 골짜기

[위치] 용천암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미상이다.

[유래담] 용천암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세풀이에 돌부처가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가져갔다. 동네에 서 모시던 부처이다.

● 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배나뭇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미상이다.

● 쇠번데기

[별칭] 세번데기

[형태] 골짜기

[위치] 아랫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벼들숲 위에 있다.

[유래] 깜깜해서 쇠번데기인 듯하다고 했다.

● 송모재(崇慕齋)

[형태] 사당

[위치] 느릿재 오른쪽 계곡 언덕 위에 있다.

[유래] 감정리에 살고 있는 강릉 최씨의 사당이다. 매년 10월에 시제를 올리고 있다.

[유래담] 강릉 최씨네가 봉어명당인데, 돌을 파헤쳐 명당을 놓쳤다는 전설이 전한다.



송모재

● 승방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승정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봉산의 독주봉 올라가는 봉우리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이곳에 옛날 절의 승방이 있어서 불러졌다 고 한다.

● 승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승방아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미상이다.

● 시구재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담] 시구재에서 호랑이 새끼를 가져왔다가 다시 갖다 놨다고 한다.

● 시밀

[별칭] 이십곡리, 스므곡

[형태] 마을

[위치] 갑자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감정리의 가운데 있는 으뜸이 되는 마을이다. 감정2리 1반과 2반에 걸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한글로 ‘시밀’이라 하고 한자로는 ‘이십곡리(二十谷里)’라 하고 이십곡리에 있다고 하였다. 십(+)이 두 개 합하면 정(井)이 된다고 한다.

[어원풀이] 『춘천백년사』에 ‘시밀’에서 ‘시’는 ‘스물’의 춘천식 방언이고, ‘밀’은 ‘골짜기’, ‘계곡’을 뜻하는 방언이다. 따라서 ‘시밀’은 ‘스물골짜기’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이곳에 골짜기가 20개가 있다고 한다. 한자식 표기로는 ‘이십곡리(二十谷里)’라고 한다.

● 신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신배나무(돌배나무)가 있던 골짜기이다.

● 아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느릿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느릿재 아래에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 약수터

[별칭] 유령약천(楡嶺藥泉)

[형태] 샘

[위치] 느릿재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로 들어가는 데다가 돌을 쌓아 놓았다. 거기로 들어가면 약수터가 있다.

[유래] 감정리에 있는 약물터이다.

[유래담] 일제강점기 때 왜놈들도 와서 약수를 먹었다. 보통 약수가 아니다. 물이 흘러가면 아래에서 아주 하얗게 얼음처럼 된다. 그 물을 펴다가 상처난 곳에 바르면 낫는다.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이 걷지를 못해서 가마를 타고 왔는데 그 물을 마시고 걸어서 갔다고 한다.

● 양지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양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양지+막+골’이니 ‘양지바른 쪽이나 뒤 가 막힌 골짜기’이다.

● 어동골

[별칭] 어두우니

[형태] 골짜기

[위치] 세풀이 바로 위 골짜기이다.

[유래] 다른 곳보다 빨리 어두워져서 어동이라 했다. 골짜기 사이가 좁다. 골이 깊어서 캄캄하다 한다.

[어원풀이] ‘어두운+이’로 분석되며 ‘-이’는 명사파 생접미사로 지명에서는 ‘마을, 골, 들, 산, 고개, 터’

등 다양하게 전의되어 활용된다. ‘어두니/어두우니/어두미’ 등의 이형태가 있다.

● 여상골

[형태] 마을

[위치] 이십곡리에 있다고 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동명(洞名)으로 ‘여상골’이라 한글로 쓰고, 한자로는 ‘연상동(薦床洞)’이라 하고 이십곡리에 있다고 했다. 지금의 연산골을 일컫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한자표기가 전혀 달라 다른 지명일 수도 있다.

● 연산골

[별칭] 연산동(連山洞)

[형태] 마을

[위치] 장자골 위에 있다. 감정1리 2반이다.

[유래] 산의 골짜기가 연달아 있다. 구봉산으로부터 내려 온 구릉이 기복을 이루며 춘천 후평동 쪽으로 뻗어있다. 또 골짜기가 연잎처럼 생겨서, 또는 연이어서 집이 있어서 연산골이라 한다고 했다.

[어원풀이] ‘느릿재’의 ‘느리/느르’와 같은 어원형을 가진 ‘연산(連山) 느르뫼’로도 불린다.

● 옥점고개

[별칭] 옥정고개

[형태] 고개

[위치] 감정리에서 평촌리(坪村里)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옥처럼 맑은 샘물이 나오는 고개란 의미로 보인다.

● 자지봉

[형태] 산

[위치] 시밀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봉우리이다. 지



자지봉

내리 방면의 산이다.

[유래] 옛날 물이 차서 다 잠겼는데 저 산이 자지

[남성의 성기]만큼 남았다.

[유래담] 홍수설화의 일봉이다. 그래서 한 사람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자손을 퍼뜨렸다. 감정리의 독주봉도 같은 홍수설화를 가지고 있다.

길어 장자골이라 한다.

● 쟁버리도로

[형태] 도로

[위치] 감정리에서 시작해서 상결리를 거쳐 홍천군 구성포까지 이르는 도로이다.

[유래] 고성에서 세계 쟁버리대회를 할 때 이 도로를 뚫었다고 해서 일명 쟁버리도로라 불렀다. 이 도로는 느릿재와 가락재를 지나간다.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상결리, 평촌리 사람들은 내평리를 거쳐 춘천시내로 오갈 수 있었다. 그런데 쟁버리도로가 생기면서 상결리와 평촌리와 품결리 등 의 사람들 생활권이 달라졌다.

● 장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주지』에 옛날 장사가 살았다고 한다.

● 장자골

[형태] 마을

[위치] 연산골 아래이다.

[유래] 옛날 장자[부자]가 살았다고 한다. 또 골이

● 저고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저고리처럼 생긴 골짜기이다. 또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저고리만 남겨두어서 생겨난 지명이라고 한다. 화전민이 살 때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 지당터

[별칭] 산신제터

[형태] 민속

[위치] 웃골

[유래] 감정리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유래담] 그믐날 들어가서 자고 초하룻날 아침에 지냈다. 산신제 묘막도 지었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제당을 부순 후 제사가 끊어졌고, 그 사람은 부인만 빼고 모두 죽었다고 한다.

● 지르매재

[형태] 고개

[위치] 느랏재 뒤에 있는 재이다.

[유래] 소등에 얹는 지르매처럼 생겼다고 한다. 또 그 고개를 올라가려면 하도 지루해서 생겨난 지명이라고도 한다.

● 진산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양지막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미상이다.

[어원풀이] ‘진산[鎮山]+지+ㅅ+골’인 듯하다. ‘마을의 진산이 있는 골짜기’로 추정된다.

● 통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제비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미상이다.

● 팔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팔배나무가 있던 골짜기이다.

● 평풍석

[별칭] 병풍석

[형태] 바위

[위치] 장자골 섬바위 옆으로 뻗 둘러 서 있다.

[유래] 병풍처럼 둘러 있다고 해서 평풍석이라 한다.

● 호랑굴

[형태] 굴

[위치] 독점에 있는 굴이다.

[유래] 옛날 호랑이가 이 굴에서 새끼를 쳤다고 한다.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구봉산, 서쪽으로 의암호가 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자연마을에는 굼벵이(상천곡리), 금대울, 도일, 샘골 등이 있다. 만천리 일대에는 노송들로 이루어진 숲이 있는데, 이곳에 백로떼가 날아와 번식하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로 유명하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동산외면(東山外面)에 만법리(萬法里)가 있었다. 『여지도서』도 동산외면(東山外面)에 만법리(萬法里)를 표기하였으나, 『호구총수』는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에 만법리(萬法里)를 표기하였다.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만법리(萬法里)를 실었다. 『강원도지』는 동면(東面)에 만천리(萬泉里)가 있다고 했고, 『수춘지』도 동일하다. 『춘주지』는 춘성군(春城郡) 동면(東面)에 만천1리, 만천2리, 만천3리를 구분하여 실었다. 현재 행정리는 만천리고 법정리는 만천1리부터 만천9리까지 있다.

유래 |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대울, 굼벵이, 도일, 뒷모테이, 만법리, 천곡을 병합하게 되었는데, 만법(萬法)과 천곡(泉谷)의 이름을 따서 만천리(萬泉里)라 하였다.

● 거리치성터

[형태] 민속

[위치] 만천2리에 있다. 고려철강 바로 뒤이다.

[유래] 베드나무가 큰 게 있다. 옛날 이 길이 마을 앞으로 가는 큰 길이었다. 여기서 거리제사를 지낸다. 거리제사는 음력11월에 날을 받아서 지낸다. 당집이 따로 있지는 않다.

나 있어 지나는 길손들이 물을 마시고 타는 목마를 달랠 수 있었다.

● 국저울

[형태] 마을

[위치] 외곽도로 거두리로 해서 넘어 가는 곳에 있다.

[유래] 미상이다.

● 구름다리

[형태] 다리

[위치] 만천리에서 후평3동 방면으로 난 길을 가다가 길을 가로 질러 놓은 현수교이다.

[유래] 그 모양이 구름과 같다고 해서 구름다리라 부른다.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걸을 때 다리가 출렁출렁한다. 인근의 후평동과 만천리 주민들이 애막골로 향하는 안화산 등산을 할 때 이 다리를 많이 이용한다.



만천리와 후평동 경계에 있는 구름다리

● 구사리

[형태] 골짜기

[위치와 유래] 상걸리에서 대룡산을 넘어 만천리로 넘어오는 고개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아홉구비를 돌아야 해서 아홉사리 골짜기라 하기도 한다. 이곳에는 약수가 나오는 약수골이 하

● 굽벵이

[별칭] 굽베이, 상천곡리(上泉谷里), 궁벙이

[형태] 마을

[위치] 구봉산 아래 천곡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만천3리 4반이다. 구봉산 밑이 된다. 3리는 웃말이라고도 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곡명(谷名)이며 한글로 ‘궁벙이’라 하고 한자로는 ‘궁방곡(弓方谷)’이라 하고 상천곡리에 있다고 했다. 굽벵이의 형상을 한 마을이라 한다.

● 굽벙산

[별칭] 굽베이산, 구봉산

[형태] 산

[유래] 구봉산을 이 마을에서는 굽벙산이라 불렀다. 구멍[굴]이 있는 산이란 의미로 볼 수도 있다.

● 굽베이고개

[별칭] 굽병고개, 굽벙이재

[형태] 고개

[위치] 만천리에서 감정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감정리로 넘어가는 산이 굽베이인데, 그 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굽베이고개라 부른다.

● 금대울

[별칭] 금대곡(金垈谷), 금대월

[형태] 마을

[위치] 굽뱅이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만천3리 5반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곡명(谷名)이며 한글로는 '금디월'이라 하고 한자로는 금대곡(金垈谷)이라 하 고 상천곡리에 있다고 했다. 전에 금(金)이 많이 나 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천리에서 거두리로 넘어가기 전, 명봉(643m) 아래 산자락 마을이다.

[어원풀이] '금(金)+대(垈)+월(고을)'로 분석되며, 쇠 나 금이 나오는 지역을 '쇠골/쇠골산/금대울'로 부 르곤 한다.



깃대봉 명봉 이정표

● 녹두봉

[형태] 산

[위치] 대룡산 위에 있는 봉우리이다. 옆에 깃대봉 과 명봉이 있다.

[유래] 옛날 천지개벽할 때 산의 꼬대기가 녹두(콩) 만큼 남았었다.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 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상결리에서 대룡산을 넘어 오는 곳에 있다.

[유래] 골이 길어서 길골이라 한다.

● 깃대봉

[별칭] 명봉

[형태] 산

[위치] 만천리에서 상결리로 넘어가는 고개 위에 있는 봉우리이다.

[유래] 옛날 봉화(烽火)를 올리던 곳이어서 깃대봉 이라 불렸다. 또 일본인이 혈을 끊으려고 기를 꽂 았다고 한다. 만천3리에서 쳐다보면 제일 높은 봉 우리이다. 봉우리 8부 능선쯤에 전망대도 있다. 깃 대봉이 명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도일

[형태] 마을

[위치] 샘골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도일'은 '샘골'에 서는 서북쪽이나 현재는 그 사이에 만천2리마을회관이 있고, '샘골' 근처가 크게 개발되어 '샘골'은 만천3리 앞 만천교차로와 만천2리마을회관 사이 라 하는 것이 그 위치가 알기 쉽다.

● 도토골

[별칭] 번새기

[형태] 골짜기

[위치] 만천2리 박씨묘 있는 골짜기이다. 박씨묘에 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농사를 짓는 골짜기 끝이 나오는데, 이곳을 도토골이라 한다.

[유래] 옛날 덫을 놓아 짐승을 잡았다. 또 옛날 도 토리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 뒷모테이

[형태] 마을

[위치] 도일과 샘골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만천2리 1반에 있다.

[어원풀이] ‘뒤+ㅅ+모탱이’/‘모테이’로 분석되어 ‘도일(마을)’ 뒷 모탱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만천리에서 비교적 연혁이 오래된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이 이뤄질 때 만천리를 구성하는 주요 마을이었다.

● 마나리

[별칭] 적골, 마나리, 미나리, 절골, 만법리

[형태] 골짜기

[위치] 춘천여자고등학교에서 동쪽으로 600m 정도 거리에 있다. 그 앞(남쪽)에 ‘적골저수지’가 있다.
[유래] ‘마나리’는 별칭 지명 ‘적골’ 그리고 ‘만법리’ 등과 아울러 살펴보면, 모두 ‘사찰(절)과 불법’과 관련 지워진다. 아마도 ‘적골’은 ‘절골[寺洞]’일 수 있다.

● 만군부락

[별칭] 만군마을

[형태] 마을

[위치] 장학리와 만천리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동면 만천1리 6반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군인들이 개간하여 만들어진 농토와 마을이다. 마을의 농경지가 계단식으로 개간되었다. 화전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1966년 2군단장 책임 하에 이기자부대가 23일만에 개간했다. 1966년 5월 31일 만군부락 이양행사를 가졌다.

● 만천리 고분군(古墳群)

[형태] 고적

[위치] 만천3리 마을의 뒤편 야산에 위치한다.

[유래] 삼국시대 고분으로 추정되는 묘 3기가 있다.

● 만천리 사지(寺址)

[형태] 터

[위치] 만천리

[유래] 만천리에 옛 절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이 절터는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끝에 있으며 축대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규모도 매우 작아 작은 암자 정도의 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조사되어 있다.

● 만천천(萬泉川)

[형태] 하천

[위치] 대룡산 지역의 갑둔이고개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만천리를 지나 후평동에 이르러 의암호로 흘러드는 작은 강이다. 갑둔이 고개 깃대봉 쪽에서 시작한다.

[유래] 만천리 앞을 흘러 만천천이라 한다.



만천천

● 명봉

[별칭] 깃대봉

[형태] 산

[위치] 만천3리에서 대룡산을 보면 가장 높게 보이

는 봉우리이다. 깃대봉과 녹두봉 가기 전에 있다.

[유래] 아침에 해가 뜰 때 가장 먼저 밝아진다. 제일 먼저 훤히져 볼 수 있다고 명봉(明峰)이라 한다.



명봉

● 몰개울길

[형태] 길

[위치] 만천리에서 후평동 몰개울로 넘어 다니던 길이다.

[유래] 몰개울은 후평동 광명주택에서 후평파출소 있는 데를 부르던 이름이다. 개울도 있었고, 연못 도 있었다.

● 바시락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굽베이재 올라가면 그 옆이 바시락골이다.

[유래] 골에 들어가면 뭔가 바시락 소리가 났다고 하여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 박씨묘(朴氏墓)

[형태] 무덤

[위치] 동면 만천1리 백로서식지에 있었다.

[유래] 만천리에 살던 천석꾼인 박승의(밀양박씨)이란 사람이 박씨의 시조인 박혁거세(朴赫居世)를 모신 승덕단(崇德壇)을 쌓은 것이며 지금도 후손들이

봄·가을 두 차례 제향을 올리고 있다.

[유래담] 주위 일대에는 노송들이 숲을 이루고 백로 폐가 날아와 번식하면서 장관을 이룬다. 소유주인 박씨 문중과 주민들이 길조라 하여 적극 보호하고 있다. 『강원도지』, 『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에 자세한 자료가 전한다. 춘천시내 학생들이 이곳에 소풍을 많이 왔다.



박씨묘

● 백로번식지(白鷺繁殖地)

[별칭] 학마을

[형태] 숲

[위치] 만천2리에 있는 백로 번식지이다.

[유래] 박씨묘 주변 소나무군락지에 서식하는 백로 번식지이다. 소나무를 번식지로 삼아 백로가 날아와 매년 번식을 하고 있다. 강원도 기념물 제44호이다. 『춘성의 맥』과 『춘주지』 등에 자세한 자료가 전한다.



백로번식지

● 보안넘어길

[형태] 길

[위치] 만천리에서 후평동 보안으로 넘어 다니던 길이다.



서낭당터

● 비아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봉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뒤집혀서 하얗게 보이면서 비가 온다고 해서 비아골이라 불렀는데, 비아골로 바뀌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비아+골’로 분석된다. ‘비아’는 ‘벼랑’ ‘비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벼랑이나 비탈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샘골

[별칭] 천곡(泉谷)

[형태] 마을

[위치] 만천2리 2반에 있다.

[유래] 마을에 좋은 샘이 있다. 한자로는 천곡(泉谷)이라 한다.

● 서낭당터

[형태] 민속

[위치] 은골 올라가다가 길이 굽이진 곳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서낭목이다.

[유래] 옛날 만천3리 은골사람들이 마을제사를 올리던 서낭당이다.

● 석질거리

[형태] 마을

[위치] 만천1리 5반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석+질+거리’로 분석된다. ‘석’은 ‘쇠 [鐵]’에서 유래하여 ‘쇠질골’과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된다.

● 소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만천2리에서 구봉산으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도토골과 적골 사이이다.

[유래] 방목한 소가 모여 풀을 뜯던 골짜기라 한다.

● 순정봉

[별칭] 순정마루

[형태] 산

[위치] 만천3리에서 대룡산을 쳐다보면 보이는 봉우리이다. 해발 533m. 순정봉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면 명봉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구봉산이 있다.

● 순정봉전망대

[위치] 대룡산 순정봉에 세워진 전망대이다.

[유래] 춘천 시내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다. 전망대

는 나무로 만들고 지붕은 없다.



순정봉전망대

● 시개울

[형태] 마을

[위치] 애막골 뒷산 현 kcc아파트 건너 뒷골목 마을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집이 몇 채 있는 작은 마을이다.

● 심금솔

[형태] 솔숲

[위치] 만천3리마을회관 건너편

[유래] 예전에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생겨난 지명이다. 현재는 택지개발로 큰 소나무를 찾을 수 없다.

[어원풀이] ‘심금/심은[植, 栽]+솔[松]’로 분석된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숲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솔숲이란 의미이다.

●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만천1리 1반과 2반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있다고 하여 양지마을이라 한다.

● 애광나무골

[별칭] 애왕나무골, 야광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굼베이재 옆이다.

[유래] 애광나무가 많아서 골 이름이 되었다. 애광나무는 공식이름이 산사나무이다. 가시가 있고 붉은 열매가 달리는데 밤에도 잘 보인다고 하여 야광나무라고도 불린다.

● 여우바위

[형태] 바위

[위치] 현재 만천3리 골프장 있는 곳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여우가 이곳에서 새끼를 많이 낳아 길러서 갔다고 한다.

● 연무당골

[별칭] 염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만천3리 은골 옆이다.

[유래] 옛날 연못이 있었다고도 하고 절이 있었다고도 한다. 현재는 그 형태만 남아 있다. 옛날 이곳에 논이 있었는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연못을 팠다. 또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는데, 스님이 염불을 한다고 해서 ‘염불당골’이라 했는데, 그게 연무당골로 바뀌었다고 한다.

● 웃샘골

[별칭] 상천곡리(上泉谷里)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이명(里名)이며 한글로는 ‘웃심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상천곡리(上泉谷里)라고 상천곡리에 있다고 했다.

● 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만천3리 마을회관 위쪽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가 은은하다고 한다. ‘스모곡’ ‘이십곡’이란 지명을 통해 ‘숨은골’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숨은[隱]’이 ‘스물’로 되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이십곡’이 되었다. 입구에 서낭제사를 지내던 서낭목이 있다. 옛 노인들 말에 산형태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마을이 바람도 없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포근하다. 눈이 와도 은골에는 금방 녹는다. 골은 깊은 데 마을이 크지는 않다.

● 응달말

[형태] 마을

[위치] 만천1리 4반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유래] 응달진 쪽에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 자경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만천3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적곡저수지

[형태] 못

[위치] 네이버도시첨단산업단지 아래 능선으로 춘천여자고등학교 우측 골짜기에 소재한다.

[유래] 절골에 있는 저수지란 의미이다.

● 중간말

[형태] 마을

[위치] 만천2리이다. 만천1리는 아랫말, 3리는 옷말이라 했다.

[유래] 1리와 3리 중간에 있어서 중간말이라 했다.

● 진선이장등

[별칭] 진선이길, 진선이산

[형태] 길

[위치] 대룡산에서 만천3리를 지나 후평동으로 가는 산 능선길이다.

[유래] 고개가 길어서 긴 선이 이어진 장등이라 했다. 한마디 정도 걸어야 상걸리에서 후평동까지 갈 수 있었다. 산 위로 길이 나 있다.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긴 길이다. 이 길이 이어져서 석사동 애막골 등산로를 지나 후평동까지 간다. 지금은 등산길이 되었다.

● 최봉골

[별칭] 채봉골, 초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만천3리 외곽순환도로 좌측편 옛 군부대 부근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에 시신을 풀로 덮어 가매장한 골짜기라 한다.

위치와 현황 | 마을 대부분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곽 지역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자연 마을로는 공골, 잣밭골, 초당말 마을 등이 있다.

연혁 | 『여지도서』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하걸은리(下傑隱里), 상걸은리(上傑隱里)를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에 하걸은리(下傑隱里), 상걸은리(上傑隱里)를, 『춘천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하걸리(下傑里), 상걸리(上傑里)를,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하걸은리(下傑隱里)와 상걸은리(上傑隱里)를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에 상걸리(上傑里)를, 『강원도지』, 『수춘지』는 동면(東面)에 상걸리(上傑里)를 표기하였다. 『춘주지』는 춘성군(春城郡) 동면(東面)에 상걸1리, 상걸2리 포함시켰다. 현재 행정리는 상걸리고 법정리는 상걸1리, 상걸2리다.

유래 | 걸은골 위쪽이 되므로 웃걸은리라 하였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공골, 곡골, 질골, 잣밭골, 초당말, 걸은골을 병합하여 상걸리(上傑里)라 하였다.

● 가락재

[별칭] 가락고개, 가지(加峙), 추목령(楸木嶺)

[형태] 고개

[위치] 동산면(현재는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와 경계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영명(嶺名)이며 한글로는 ‘가리고기’라 하고 한자로는 추목령(楸木嶺)이라 쓰고 상걸리에 있다고 했다. 현재는 터널이 뚫려 있다.

[어원풀이] ‘{골>갈}+{-악/억}+고개/재/터(峙)’이다. ‘갈’은 ‘分, 岐, 細, 長’의 의미역을 가진다. ‘-악/억’은 ‘주-(주다)+억->주먹’처럼 쓰이는 접미사이다. 여러 방향으로 갈라진 고개란 의미와 가늘고 긴 고개란 의미로 볼 수 있다.



가락재터널

● 가래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걸은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가래나무가 있던 골짜기, 또는 갈라진 골짜기란 의미이다.

● 갑둔이고개

[별칭] 갑둔재, 갑둔치(甲屯峙)

[형태] 고개

[위치] 상걸리에서 동내면 거두리, 고은리, 동면 만천리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영명(嶺名)이며 한글로 ‘갑둔이고기’라 하고 한자로는 갑둔령(甲屯嶺)이라 쓰고 상걸리에 있다고 했다. 느릿재터널이 뚫리고 챔버리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주로 이 고개로 춘천까지 다녔다. 갑둔이고개에 오르면 서낭당이 있어서 무사하기를 빌고 갔다.

[어원풀이] ‘갑+둔+재(갑둔이고개)’로 분석된다. ‘둔’은 ‘둔덕, 언덕’이고 ‘갑’은 어두 지명에서 ‘갑옷’을 상기하는 ‘고송의 껍질’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소나무 껍질처럼 구불구불한 언덕에 있는 고개란 의미로 추정된다.

● 갑둔이재 서낭당

[별칭] 제당

[형태] 민속

[위치] 갑둔이고개를 오르는 길에 상걸리 사람들이 무사히 다녀오기를 비는 서낭당이 있었다. 나무 밑에 돌제단을 해 놓은 형태였다.

● 거지울고개

[형태] 고개

[위치] 동산면 거지울[가지울]로 가는 고개이다. 홍천군 북방면 사랑말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기도 한다.

[유래] 가지울로 가는 고개란 의미이다.

● 걸은골

[별칭] 걸은동(傑隱洞)

[형태] 마을

[위치] 상걸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걸(上築)리 1반과 그 아래쪽 수몰지역이 해당된다.

[유래] 의병들이 이곳에서 숨어 있었다고 한다. 조

선후기 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고흥유씨, 남양홍씨, 전주이씨, 평창이씨 등의 사족(士族)들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이곳에 진(사실상 隱居)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 옛날 이곳에 숨어 있는데, 워낙 골이 깊으니까 이들을 잡으려 들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이라 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 걸은골 서낭당

[형태] 민속

[위치] 걸은골로 올라가는 길가에 있었다.

[유래] 마을 세 개를 걸쳐나가는 서낭이라 대서낭이라 했다. 여기는 거리제 형식이라 개를 잡아 놓고 제사를 지냈다.



상걸리 걸은골 현각도원의 산신각

● 곡골

[별칭] 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상걸리 백자동에서 가락재로 가는 길가 왼쪽에 있다.

[유래] 전부터 아름다운 진달래꽃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곡(谷)+골(골짜기)’로 동의 반복 지명이다.

● 공골

[별칭] 공동(孔洞), 공곡(孔谷)

[형태] 골짜기

[위치] 상걸2리 1반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곡명(谷名)이며 한글로 ‘공골’, 한자로는 공곡(孔谷)이라 쓰고 상걸리에 있다고 했다. 공씨가 개척한 동네라 공골로 불렸다고 한다.

● 구사리

[형태] 마을

[위치] 『춘천백년사』에서 상걸1리 3반과 그 아래쪽 수몰지역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유래] 물길이 굽어 흐르는 곳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길골

[형태] 마을

[위치] 『춘천백년사』에서는 상걸1리 3반과 그 아래쪽 수몰지역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곡명(谷名)이며 한글로 ‘길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노곡(路谷)이라 쓰고 상걸리에 있다고 했다. 골이 길어서 길골이라 했다.

● 꽃골

[별칭] 화동, 곡돌

[형태] 골짜기

[위치] 상걸2리 2반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곡명(谷名)이며 한글로 ‘꽃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화곡(花谷)이라 쓰고 상걸리에 있다고 했다. 진달래꽃이 많이 피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꽃골’은 ‘꽃[串]+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물가쪽으로 특 튀어난 곳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꽃골 장승

● 대장간터

[형태] 터

[위치] 걸은골 입구에 대장간이 있었다. 대장간이 지금 평산신씨 사당 바로 밑에 있는 개울 옆에 있었는데 꽤 컸다.

[유래] 옛날 대장간이 있었다. 동네가 품걸리나 홍천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있어 대장간에 맡겨놓고 샘밭장을 보러 갔다. 화전민이 다 나간 다음에는 없어졌다.

● 덕밧재고개

[형태] 고개

[위치] 상걸리에서 홍천군 풍천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덕+밧[外, 田]+재[峙]+고개’로 분석된다. 둔덕 바깥에 있는 고개, 또는 둔덕에 있는 밭에 있는 고개란 의미로 추정된다.

● 도치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걸은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독바위

[형태] 바위

[위치] 상걸리 백자동에서 가락재로 가다가 산골식당 맞은 편 산중턱에 있다.

[유래] 홀로 있는 바위이다. 6.25때 마을사람들이 피난을 하던 바위이다. 사람 6~7명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크기이다. 높이 10여m, 폭 5m 정도 되는 화강암이다.



독바위

● 독봉

[형태] 산

[위치] 상걸리에서 바라보는 대룡산 꼭대기에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유래]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란 의미이다.

● 떡갈나무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떡갈나무가 많은 고개란 의미이다.

● 무당고개

[형태] 고개

[위치] 상걸리 백자동에 있는 고개이름이다.



독봉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무당이 살던 집이나 제당이 있던 고개로 추정된다.

란 의미이다.

● 바깥노른봉

[형태] 산

[위치] 상걸리에서 부르는 대룡산의 한 봉우리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백자봉(柏子峰)

[형태] 산

[위치] 상걸2리 3반에 있다.

[유래] 잣밭골을 따라 올라가면 대룡산 줄기의 높은 봉우리이다. 백자봉에서는 매년 산신제를 지낸다. 『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백자동(柏子洞)

[별칭] 잣밭골, 잣나무골

[형태] 마을

[위치] 상걸리 마을회관과 보건진료소 안쪽으로 난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곡명(谷名)이며 한글로는 ‘잔나무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백자곡(柏子谷)이라 하고 상걸리에 있다고 했다. 잣나무가 많은 골짜기

● 범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결은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범[虎]+박/바위[岩]+골[谷]’로 추정된다. 범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부사김태복영세불망비

[형태] 비석

[위치] 상걸리 논 옆에 있는 돌비석이다.

[유래] 김태복 부시를 잊지 않겠다고 세운 돌비석이다.

[유래담] 오래 되어 희미하지만 ‘행부사김공태복영세불망비(行府使金公台福永世不忘碑)’라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제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부사김태복영세불망비

● 상걸은리(上傑隱里)

[별칭] 웃걸은골, 상걸리

[형태] 마을

[위치] 현재 상걸리를 말한다.

[유래] 걸은리의 위쪽 마을이란 의미이다.

● 안노른봉

[형태] 산

[위치] 상걸리에서 부르는 대룡산의 한 봉우리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약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길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큰 약수골과 작은 약수골이 있다. 큰 약수터 골 꼭대기에는 옛날 절이 있었다.

● 여산

[형태] 산

[위치] 상걸리에서 대룡산 봉우리를 부르는 이칭이다.

[유래] 산의 신이 여신(女神)이라 해서 여산이라 부른다.

● 잣발교

[형태] 다리

[위치] 잣발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멘트콘크리트 다리이다.

[유래] 1997년 12월 10일 착공, 1998년 12월 31일 준공되었다.



잣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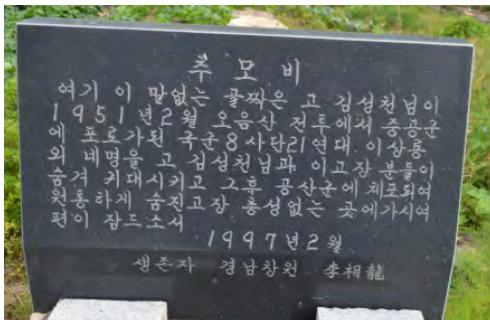
● 잣발교추모비

[형태] 비석

[위치] 잣발교 옆

[유래] 6.25한국전쟁 때 이곳에서 전사한 사람을 기리는 추모비이다. 1997년 2월 생존자인 경남 창

원 이상룡(李相龍)이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잣밭교추모비

● 장독재

[형태] 산

[위치] 상걸리 쪽에서 본 대룡산의 한 봉우리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초당들

[형태] 들

[위치] 초당말 앞에 있는 들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평명(坪名)이며 한글로 '초당들'이라 하고 한자로는 초당평(艸堂坪)이라 쓰고 상걸리에 있다고 했다. 초당말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초당말

[별칭] 초당촌(草堂村)

[형태] 마을

[위치] 상걸1리2반과 수물지역이다.

[유래] 옛날 초당을 짓고 공부하던 곳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때 초당서당(草堂書堂)과 동흥서당(東興書堂)이 있었다. 1943년 4월 1일 개설하여 1950년 대까지 간간히 운영되었다.

● 충충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걸은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큰충충골과 작은충충골이 있다.

● 화채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봉명(峰名)이며 한글로 '화치봉'이라 하고 한자로 화채봉(畫彩峰)이라 하고 상걸리에 있다고 했다.

위치와 현황 |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소양호 주변에 위치한 산간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골말, 연엽동, 논말 등이 있다. 신이리는 산이 높아서 우물과 같이 보인다는 우뭇골과 배 맥골 등의 골짜기와 봉우리가 독수리 머리처럼 생긴 수리봉이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를 보면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 안에 신이동리(辛梨洞里)가 표기되었고, 『강원도지』는 동면(東面)에 신이리(辛梨里)로, 『수춘지』는 춘성군(春城郡) 동면(東面)에 신이리(辛梨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신이리다.

유래 | 신배(돌배)나무가 많아 신백골, 신리동 또는 이동이라 하였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우무골, 골말, 논말을 병합하여 신이리라 하였다.



신이리 앞 소양호 전경

● 감투봉

[별칭] 감투산

[형태] 산

[유래] 감투처럼 생긴 산이다.

● 논말

[형태] 마을

[위치] 신이리

[유래] 논이 있는 마을이다.

● 개굴소

[형태] 소(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소명(沼名)이며 한글로

‘기굴쇼’라 하고 한자로는 와소(蛙沼)라 하고 신이
동리에 있다고 했다.

● 떡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유래] 마을 앞에 있는 소(沼)이다.

● 골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 바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바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배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여냇골 바로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성황평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내용] 『조선지지자료』에 평명(坪名)이며 한글로는 '성황평'이라 하고 한자로는 성황평(城隍坪)이라 하고 신이동리에 있다고 했다.

● 수리봉

[별칭] 연봉(鷺峰)

[형태] 산

[유래] 수리가 날아드는 봉우리이다. 『조선지지자료』에는 봉명(峰名)이며 한글로는 '술리봉'이라 하고 한자로는 연봉(鷺峰)이라 하고 신이동리에 있다고 했다.

● 신배골

[별칭] 신뱃골, 신리리, 신리동, 이동(梨洞)

[형태] 마을

[위치] 신이리

[유래] 신이리의 원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에 이명(里名)이며 한글로는 '신비설'이라 하고 한자로는 신이동리(辛梨洞里)라 하고 신이동리에 있다고 했다. 『춘천백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한자식 표기는 '신이리(辛梨里)'라고 한다.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연유는 이곳에서 돌배나무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이리(辛梨里)를 구성하는 주요 마을이 되었다. 소양댐 건설로 마을의 상당 부분이 수몰되었다. 현재 신이

리 1반과 그 아래쪽 수몰지가 된다. 과거 주로 산민들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 여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이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연엽골

[별칭] 연엽동(蓮葉洞)

[형태] 마을

[위치] 우뭇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봉명(峰名)이며 한글로 연엽봉이라 하고 신이동리에 있다고 했다. 『춘천백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한자식 표기로는 연엽동(蓮葉洞)이라고 한다. 현재 신이리 3반과 그 아래쪽 수몰지역이 해당된다. 우무골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신이리 연엽골 이정표

● 우뭇골

[별칭] 우무동(又舞洞)

[위치] 신이리 2반과 수몰지이다.

[유래] 산이 높아 우물과 같이 보인다고 한다. 『춘천백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현재의 신

이리 2반과 그 아래쪽 수물지가 해당된다. 이 명칭은 마을의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마치 높은 우물이 둘러져 있는 것과 같은 데서 유래 하였다고 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평명(坪名)이며 한글로 황논들이라 하고 한자로는 황답평(黃畠坪)이라 쓰고 신이동리에 있다고 했다.

● 자개월

[형태] 골짜기

[위치] 신리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우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우뭇골 곁에 있는 골짜기이다.

● 조고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바릉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배맥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호랑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봉명(峰名)이며 한글로 호랑봉이라 하고 한자로는 호랑봉(虎狼峰)이라 하고 신이동리에 있다고 했다.

● 황논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소양강댐이 있는 산간 농촌 마을로 골짜기가 많다. 자연마을에는 가막골, 건드레, 영당말 등이 있다. 월곡리에는 지방골, 돌리매, 철투골 등 골짜기가 많다. 또 연옥(軟玉) 광산이 있고, 이를 원료로 한 옥 가공품이 다양하게 생산된다.

연혁 | 본래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속했는데 1895년(고종 32)에 두 면으로 나누어져 동산 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과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이 되었다.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 일작면(東山外一作面)의 월곡리(月谷里),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는 동면(東面) 월곡리(月谷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월곡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동산외일작면(동면)의 지역인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막골, 쇠골, 영당말을 병합하여 월곡리라 하였다.



빙산에서 본 소양호와 소양강댐. 오른쪽 소양강댐 옆 산에 있는 정자 옆으로 돌아가면 가막골이 된다.

● 가막골

[별칭] 오악골, 가마골, 오악곡(烏岳谷)

[형태] 마을

[위치] 두리봉(두루봉) 밑에 있는 마을이다. 콧구멍 다리에서 월곡리 쪽으로 가다가 빙산과 두리봉을 넘으면 가막골이다. 품안리로 가는 길목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곡명(谷名)이며 한글로는 ‘가마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부곡(釜谷)이라 하 고 월곡리에 있다고 했다.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가마골 마을은 없어졌다. 소양댐 건설할 때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숙하고 밥 먹고 하였다. 지금 배수로 만든 곳이다. 품걸리와 품안리 사람들이 시내로 갈 때 이쪽으로 다니기도 했다.

[어원풀이] ‘가막골, 감악골, 감악산/가막산’ 등과 연관되며 지명에서 흔히 ‘신성한 마을, 산’을 뜻한다. ‘가막골’의 한자 지명 ‘오악-곡(烏岳谷)’은 ‘가막/감+악’의 ‘감/검’에서 ‘검다(黑)’를 추출하여 흑색조인 ‘까마귀 오(烏)’ 자를 차용한 것이다. 곧 ‘어둠의 흑색’을 상징하여 그 신성성을 내밀화한 것이다.

● 가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마골에서 품안리 황천골 사이에 있는 골이다. 가마골 바로 옆이다.

[유래] 가래나무가 있던 골짜기, 또는 양쪽으로 갈라진 골짜기란 의미이다.

● 거지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개골 옆에 있다.

[유래] 거지가 이 골짜기에서 일어 죽어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 건드레

[별칭] 건들레, 월곡리

[형태] 마을

[위치] 영당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월곡리에 있는 마을이름으로 한글로 ‘건들레’라 하고 한자로는 ‘월곡리(月谷里)’라 하였다. 물이 귀해 마른 내라 하여 건드레

라 불렸다고 한다. 지내리 쪽에서 월곡리를 부를 때도 건드레라 했다.

[어원풀이] ‘건[乾]+들[坪]+에’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노루목’과 동일한 지명이다. ‘놀르/노루’는 ‘길다’는 의미이고 ‘목’은 좁다란 입구를 말한다.

● 건월천

[형태] 마을

[위치] 월곡리

[유래] 월곡리의 다른 이름이다. 옛날에 월곡리를 부를 때 건월천이라 했다고 한다.

● 능뻔지

[형태] 무덤

[위치] 아랫건드레 회관 있는 데에서 산에 올라가는 데가 능뻔지이다.

[유래] 옛날에 유명한 사람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능이 있다고 해서 능뻔지라 한다.

[어원풀이] ‘능(陵)+뻔지/평지’로 분석된다. 무덤이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금옥골

[형태] 마을

[위치] 매봉산 아래 2반이다.

[유래] 월곡리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원래 금옥골이 있는데, 마을사업을 하면서 월곡리 입구에 금옥골장수마을이란 마을 안내판을 설치했다.

● 능산

[형태] 무덤

[유래] 고대국가 맥국의 왕릉이 있던 곳이라 하여 능산(陵山)이라 했다고 한다.

[유래담] 발산리 맥국의 왕궁에 살던 사람들이 죽으면 월곡리에 무덤을 썼다고 전해진다.



금옥골

● 놀르매기

[형태] 마을

[위치] 덕평에서 3반 쪽으로 이어진 마을이다.

[유래] 노루가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어원풀이] ‘놀르/노루+매기/목[項]’으로 분석된다.

● 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암산에서 내려오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대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범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덧보대이

[별칭] 덧보뎅이, 덕평

[형태] 들

[위치] 월곡리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평명(坪名)이며 한글로는 ‘덧벼덩이’라 하고 한자로는 덕평(德平)이며 월곡리에 있다고 했다. 옛날에 호랑이와 맷돼지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다고 한다.

[어원풀이] ‘덫+보대(보대기)+이’로 분석되며, 어린 소나무를 방언으로 ‘보데기, 보대기’라 하는데, 소나무를 휘어서 덫을 놓은 곳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덧벼덩이’이라 하면 평지, 들의 의미로 바뀐다. 또 ‘덫+보(堡)+뎅이’로 분석하며, ‘보(堡)’는 ‘제방, 둑’을 뜻한다.

● 도종골

[별칭] 도정골, 되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아랫건드레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물방앗간이 있었다.

[어원풀이] ‘도정(방앗간)+골’로 분석된다. 방앗간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돌리매

[형태] 골짜기

[위치] 샛골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옛날 돌리매 아래 돌탑이 있었다.

[어원풀이] ‘돌/돌리[回]+매/메/뫼[山]’로 분석된다. 굽이진 산이나 물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돌리매개울

[형태] 하천

[위치] 돌리매를 따라 흐르는 개울이다.

[유래] 돌리매에서 내려오는 내이다. 지내천과 연

계된다. 매봉산에서 발원하여 월곡리를 거쳐 지내천으로 흘러든다.

[어원풀이] ‘돌/돌리[回]+매/메/뫼[山]+개울[川]’로 분석된다.

● 뒷방말

[형태] 마을

[위치] 옥광산 뒤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뒤쪽 방향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땀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막대족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담]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땀[汗]+매/메/뫼[山]+ㅅ+골’로 분석하며 ‘땀맷골’에서 ‘땀맥골’로 변이되었다.

● 땅비굴

[형태] 길

[위치] 월곡리 고갯길을 마을에서 일컫는 말이다.

[유래] 길이 위낙 좁아서 토끼가 다니는 길 같았다. 수레도 못 끌고 다녔다. 땅비가 굴을 뚫듯이 조그만 길이라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유래담] 땅비는 땅속에 굴을 뚫고 무리를 지어 사는 작은 별이다. 이곳은 위낙 좁아서 6.25한국전쟁 때도 전쟁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 막대족골

[별칭] 막대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막대처럼 생긴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막대+좆+골’이 변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치] 월곡리 가운데 논밭이 있는 곳이다.

[유래] ‘들’을 의미하는 고유어가 ‘벼덩’이다.

● 매봉산

[형태] 산

[위치] 월곡리 뒤와 감정리 사이로 나 있는 산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매봉산정상(457m)이라는 대리석 표석이 있다.

[유래] 천지개벽할 때 산꼭대기에 매 한 마리가 앉은 것처럼 보여서 매봉산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 맹이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산명(山名)이며 한글로는 ‘밍리산’이라 하고 한자로는 ‘맹리산(孟理山)’이라 하고 월곡리에 있다고 했다. 옛날 홍수 때 매 만큼 남았다고 한다.

● 무암산

[형태] 산

[위치] 월곡리와 지내리 사이에 있는 산이다.

[유래] 무당바위가 있다.

[어원풀이] ‘무(巫)+암(岩)+산(山)’으로 분석된다. 현재 월천사라는 절이 자리하고 있다.

● 범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정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호랑이가 출몰하던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부처지골

[별칭] 부체지골, 부처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체짓골 입구에는 무당의 굿당이 자리하고 있다. 개울물이 양 갈래로 흐르는 한쪽에 위치해 있다.

[유래] 돌부처가 있는 골짜기이다. 머리 없는 불상이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부처[佛]+지[집]+골[谷]’로 분석된다. 부처를 모신 집, 즉 절이나 암자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유래담] 무당굿당이 있는 곳으로 돌부처가 500쌍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모두 파괴되었다고 마을사람들은 말했다. 지금은 정자나무 밑에 한 개가 있다고 한다. 산 중턱이다.

● 물푸레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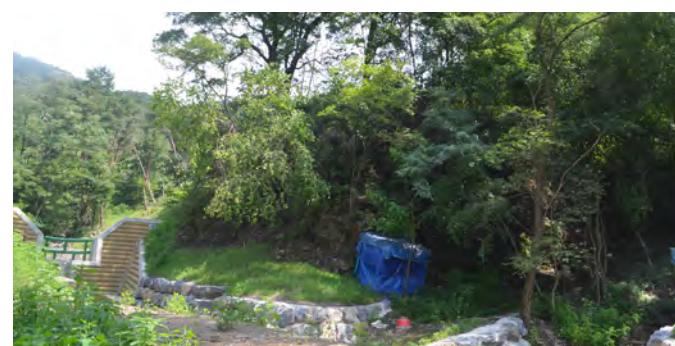
[형태] 골짜기

[위치] 물푸레 약수터가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물푸레나무가 있던 골짜기, 또는 푸른 물처럼 나무가 무성한 골짜기란 의미이다.

● 벼덩

[형태] 들



부처지골 입구

● 빙산

[별칭] 깃대봉

[형태] 산

[위치] 소양강댐 옆으로 길게 뻗은 산이다. 해발 384m이다.

[유래] 소양강 옆으로 낭떠러지가 이어진다.

[어원풀이] ‘빙/비랑/벼랑+산’으로 분석된다. 가파른 벼랑에 있는 산이란 의미이다.



빙산 정상 표석

● 새골말

[형태] 마을

[위치] 품안리 샛골로 가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골짜기 사이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샛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품안리 샛골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샛골은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월곡리 중간에 있는 고개로 옥광산에서 세월교 방면으로 넘는 고갯마루이다.

[유래]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암(여)서낭과 남서낭이 따로 있었다.

● 선당잇고개

[형태] 고개

[위치] 품안으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서낭당이 있던 고개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선/서낭+당(堂)+○(접미사)+ㅅ+고개’로 분석된다.

● 세월교

[별칭] 콧구멍다리

[형태] 다리

[위치] 지내리와 월곡리가 맷닿은 곳에 위치해 있다. 신북읍 산천리와 연결되는 다리이다.

[유래] 물이 넘는 다리라 하여 세월교라 했다. 세월교는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면 잠기는 잠수교다. 다리를 셧으면서 넘친다는 의미의 세월교(洗越橋), 달을 셧는다는 뜻의 세월교(洗月橋), 무심히 흐르는 세월의 세월교(歲月橋), 초승달을 의미하는 세월교(細月橋)라고도 불린다. 월곡리 3반이다.



세월교와 새로 건설한 다리

● 송장고개

[형태] 고개

[위치] 서낭당 옆에 있던 고개이다.

[유래] 송장이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송장고개라 불렀다. 남서낭당이라 했다. 마을 서낭당으로 송장

이 실린 상여가 가지 못해서 따로 서낭당 옆으로 상여가 가는 길을 만들었다.

● 쇠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세월교에서 계곡을 따라 서낭고개로 가는 길목이다.

[유래] 옛날 사금을 캐던 곳으로 붉은 첫풀이 흘러 쇠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어원풀이] ‘쇠[鐵]+골’로 분석된다. 누군가 이곳에 “사금 캐던 곳”이라 팻말을 써 놓았다. 예부터 이곳에는 철분이 많았다고 한다. 또 옛날 이곳에서 소꼴을 많이 베어 소[쇠]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쇠골

● 쇠골개울

[형태] 하천

[위치] 빙산을 타고 내려온 개울이 소양강으로 흘러든다.

[유래] 쇠골을 따라 흐르는 개울이다. 비가 와서 장마가 지면 부러지, 폐리, 메기 등이 무척 올라왔는데 소양강댐이 건설된 후로는 고기가 없다고 한다.

● 아래건드레

[별칭] 아랫건드레

[형태] 마을

[위치] 건드레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춘천백년사』에서는 구 월곡리 3,4,5반에 있던 마을이름이라 했다. ‘건드레’ 참조

● 안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거지샛골 옆이다. 마을에서 세월교로 가기 전이다.

[유래] 안개가 자주 낀다고 한다.

[어원풀이] ‘안개[霧]+골[谷]’로 분석된다.

● 어영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옥광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왼쪽 골짜기이다.

[유래] 어영군 안호문이 왔던 곳이라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어원풀이] ‘어영(御營)+터+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담] 조선 인조 때 안호문이 안향의 영정을 모시려고 왔던 곳이다. 안호문은 중국 심양에 어영군을 이끌고 갔다 왔다.

● 연옥광산(軟玉礦山)

[형태] 광산

[위치] 지내리에서 월곡리로 들어가는 마을입구에 위치한다.

[유래] 연옥을 캐는 광산이다. 월곡리에는 품질이 뛰어난 연옥광산이 있고 이를 원료로 한 옥 가공품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대일광업은 100~150톤의 원석을 채취, 반지, 목걸이, 팔찌, 도장 등을 만들어 동남아 등지에 수출과 함께 시판하고 있다. 아울러 옥과 광산의 쟁을 이용하여 치료, 체험, 목욕탕 등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옥산가

[어원풀이] ‘옻[漆]+샘[泉]’으로 분석된다.

● 옥객골

[별칭] 옥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아랫건드레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옻+개+ㅅ+골’로 분석한 뒤 ‘요+ㅅ+개

[溪谷]+ㅅ+골[谷]’로 재분석된다.

● 영당말(影堂-)

[별칭] 월곡영당터, 회현영당(晦軒影堂)

[형태] 터

[위치] 월곡리 79번지이다.

[유래] 주자학을 처음 들여온 안향의 영정을 모셔 제사를 지내던 마을이다. 월곡영당(月谷影堂) 또는 회현영당(晦軒影堂)이라고도 했다.

[어원풀이] ‘영당(影堂)+말/마을(洞)’로 분석된다. 문 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을 배향하였던 영당이다. 안향의 후손 안호문(安好問)이 1641년(인조29)에 강원도 어영군(御營軍)을 이끌고 심양(瀋陽)으로 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온 뒤에 문종과 합의하여 월곡리에 영당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그 후 영당은 1865년(고종2년)에 철폐되었다. 이곳에 있었던 안향의 영정은 순흥(順興)의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 웃건드레

[형태] 마을

[위치] 월곡리 1,2반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유래] 건드레 마을 위에 있어 웃건드레라 했다.

● 월천사(月天寺)

[별칭] 해안사(海眼寺)

[형태] 절

[위치] 무암산 기슭에 지어진 절이다.

[유래] 처음에는 박순복이라는 사람이 절을 짓고 살았다. 무암산을 월천사 주지 윤인기(尹仁基)는 팔공산(八公山)이라 불렀다. 월곡리는 달 월(月)자를 쓰는데, 달 신앙과 연계하여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어머니가 부처라고 인식하였다. 이것이 월천사라는 절 이름을 짓게 된 계기라 했다.

● 웃샘

[별칭] 웃물

[형태] 샘

[위치] 옛날 마을회관 뒤에 있던 샘이다.

[유래] 논구석에서 솟아나던 샘이다. 웃이 울랐을 때 이 물로 씻으면 말끔히 나았는데 새로 길이 뚫리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 월칠진원(月七鎮園)

[형태] 터

[위치] 부체짓골로 올라가는 입구 좌측에 있다.

[유래] 어느 농부가 자신의 농장명을 일곱 개의 달이 있는 참 동산이라는 뜻으로 지어 놓았다.



월칠진원

● 점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점토로 사기를 구웠던 골이다. 큰 점골, 작은 점골이 있다.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리 쪽에서 월곡리로 들어가는 입구 옥광산이 있는 앞 길가에 돌탑이 있었다.

[유래] 탑을 쌓았던 골짜기이다. 2006년경 옥광산의 달아실 건물을 확장하면서 탑을 헐었다. 동면 월곡리 마을 입구에 동네가 형성될 때부터 있었다는 돌탑이었다. 벼슬한 사람이 공부한 내용만큼의 돌을 모아 세우고 후손들에게 권계로 삼았다고 한다. 이 마을 출신의 염선달과 안참봉의 벼슬을 기념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탑은 높이 2.5m, 둘레 6m쯤 되고 상석이 놓여 있다. 마을사람들은 '건드래탑'이라고 불렀다.

[어원풀이] '탑(塔)+쌓은/싼+골'로 분석된다.

● 지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처집골 곁에 있는 골짜기로 욕객골 부근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철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욕객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춘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월곡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탑산골

[별칭] 탑싼골, 벼슬돌탑, 건드래탑

위치와 현황 | 북쪽에서 서쪽으로 소양강이 흐르고 있으며, 골짜기가 매우 많은 전형적인 농촌이다. 자연마을에는 거니리, 가래울, 새말, 노루목, 하일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장항(獐項)이 나온다. 『여지도서』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학곡리(鶴谷里)로 표기하였고, 『호구총수』는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 학곡리(鶴谷里)로 표기하였다.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학곡리(鶴谷里)로,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에 학곡리(鶴谷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동면(東面) 장학리(獐鶴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는 동면(東面) 장학1리, 장학2리가 되었다. 현재 행정리는 장학리며 법정리는 장학1리부터 장학15리까지 있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동산외일작면(동면)의 지역인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래울, 건일, 장항, 자월, 학곡을 병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항(獐項)과 학곡(鶴谷)의 이름을 따서 장학리(獐鶴里)라 하였다.

● 가래울(加來鬱)

[형태] 마을

[위치] 하일 북쪽, 소양강 가에 있는 내다리산 아래 마을이다.

[유래] 양쪽으로 갈라진 지형으로 인해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가래울’은 전국에 산재하며, ‘가래(나무)’의 한자 ‘추(楸)’에서 ‘추동(楸洞), 추곡리(楸谷里), 추항(楸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르면 ‘가래골>가래울’의 의미는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 마을’이 된다. 또 ‘가래’가 ‘갈라지다[岐], 가지[枝]’일 경우이며, 이때 ‘가래골>가래울’은 ‘갈라진 골짜기, 마을’이거나 ‘그 마을에서 갈라지는 거리에 위치한 곳’이 된다.

●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형태] 건물

[위치] 동면 소양강로 343(장학리444-6)번지.

[유래] 강원도 내수면의 고기 등을 양식 방어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1964년 10월 강원도립양어장으로 화천댐 하단부에 설립되었다. 이후 1965년 5월에 평창군으로 이전했다가, 1969년 9월에 삼척시로 이전하여 관리되었다. 1985년 5월에는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명칭을 변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경했다. 1992년 12월 춘천시 동면 장학리 444번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2012년 7월에는 강원도민 물고기자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거닐고개

[형태] 고개

[위치] 장학리와 만천리와의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장학리에서 만천리 건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어원풀이] ‘거닐(건일)+고개’로 분석된다.

● 건일(乾日)

[별칭] 거너리

[형태] 마을

[위치] 노루목 서쪽에 있다. 노루목저수지 남쪽에 해당한다.

[유래] ‘거너리(건일)’는 ‘놀목/노루목’에서 산동성이 ‘건너 마을’을 뜻한다. 현재 만군부락이라고 부르는 마을의 원래 이름이다. 웃건일, 작은건일이라고 나눠서 부르기도 했다.

● 공동묘지

[형태] 무덤

[위치] 손흥민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이다.

[유래] 국유지여서 산 없는 사람들이 묘지를 썼던 곳이라 공동묘지라 부른다.

● 기와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장학1리 논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이곳에 기와집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 내다리

[형태] 들판

[위치] 소양 5교 아래를 ‘내다리’라 한다. 내수면센터에서 신내골앞 강까지의 지역을 일컫는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내[川]에 다리를 놓았던 곳이었는지, 내[自己] 다리로 강을 건너던 곳이었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유속이 빠르고 다리가 놓여있지 않았던 곳이라 한다.

[어원풀이] 근처에 다리가 없었다는 증언에 따라 ‘내[川]+다리/들[野]’로 분석할 수 있을듯하다. 물 가 인쪽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유래담] 내다리산에서 내수면센터까지는 작은 산 능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소양강댐을 만들 때 산을 허물어 흙을 가져갔다. 그래서 지금은 평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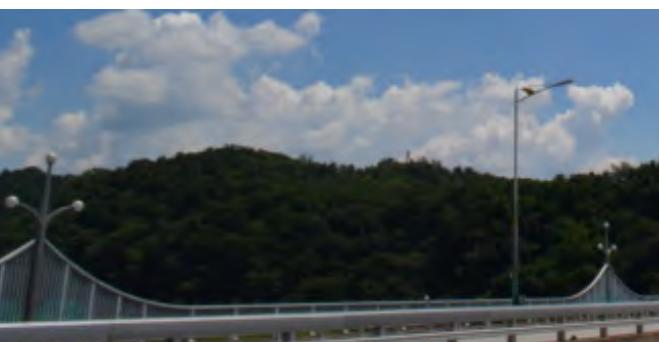
● 내다리산

[형태] 산

[위치] 장학리 하일 소양5교[맥국교]와 소양강로 사이에 있는 작은 산이다.

[유래] 내다리 옆에 있다고 해서 내다리산이라 한다.

[어원풀이] ‘내다리’ 참조.



소양강에서 본 내다리산

● 너울숲공원

[형태] 공원

[위치] 장학2리 하일 장학초등학교 부근에 만든 공원이다.



너울숲공원에서 농구를 하는 청소년들

● 노루목

[별칭] 놀목, 장항(章項)

[형태] 마을

[위치] 장학1리 1반과 2반에 걸쳐 있다.

[유래]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고 한다. 장학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어원풀이] ‘노루목’은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와 또 노루가 다니는 습성이 넓은 길은 다니지 않고 좁은 길로만 다니기에 ‘노루나 다닐 법한 좁은 길목’이란 뜻으로 쓰인 지명이다.

● 노루목저수지

[별칭] 장학저수지, 놀목저수지

[형태] 저수지

[위치] 장학리 노루목에 있는 저수지이다.

[유래] 노루목에 건설된 농업용 저수지이다. 장학리와 만천리와 후평동 일대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1957년 축조되었다. 면적은 9만 1824m²이고 제방 길이는 190m이고 제방 높이는 10m이다. 처음

노루목저수지를 만들 때는 80ha에 달하는 논이 이 물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지역이 모두 도시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019년 현재 논농사를 짓는 곳이 한 곳도 없다.



노루목저수지

● 노을공원

[형태] 공원

[위치] 장학2리 하일의 소양강가 우두산을 마주보는 곳에 있다.

[유래] 2021년 산책로를 만들면서 공원을 조성했다.



노을공원에서 본 저녁노을

● 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장학1리 1반 기와집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에 다랑이논이 2천 평 정도 있었다고 한다. 물이 없어서 천수답으로 농사를 지었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 안으로 들어가면 민씨네 묘 30개 정도가 있다.

● 놀목고개

[형태] 고개

[위치] 노루목 뒤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를 넘으면 감정리로 간다.

[유래] 노루의 목처럼 잘록하면서 길게 이어진 고개란 의미이다.

● 능꼴

[별칭]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민성기가옥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서 뒷골이라 불렸는데, 일제의 작위를 받았던 민영휘의 무덤이 있어서 능꼴로 부른다고 한다.

[어원풀이] ‘능(陵)+골[谷]’로 분석된다.

● 달맞이봉

[형태] 산

[위치] 장학리 노루목과 건일 사이에 있는 동산이다.

[유래] 정월대보름에 장학리 만군마을 가는 쪽 동산에 올라가서 달맞이를 하였다고 한다.

● 독수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독수리가 많이 살았던 골짜기라고 한다.

● 독지봉

[형태] 산

[위치] 감정리와 장학리와 만천리가 만나는 지점으로 구봉산 있는 곳의 봉우리이다.

[유래] 옛날 홍수가 나서 모두 물에 묻혔는데 이곳의 봉우리가 독만큼 남아서 독지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어원풀이] ‘독(巖)+지(地)+봉(峰)’으로 분석된다.

● 뒤뚜루개울

[형태] 하천

[위치] 장학리와 후평동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는 작은 개울이다. 지금 장학초등학교 있는 곳이다.

[유래] 장학리에서 뒤뚜루(후평동)로 흘러가는 개울이다.

● 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행인들이 가다가 똥을 누고 가는 곳이라 한다.

● 만군고개

[형태] 고개

[위치] 만군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약 200여m 정도 되는 산길을 따라 난 길이다.

[유래] 옛날 만군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때 넘던 고개이다. 또 중상군(中商群)이 이곳을 통해 트럭에다 곡식을 사서 넘던 고개라고 한다.

[유래담] 중상군(꾼)은 중간상인을 이르는 말로 농촌에서 곡식을 사서 대처에 가서 팔던 상인들이다. 지금 큰 길이 나기 전에는 이 길을 따라 춘천시내로 나가장을 보고 일을 보았다.

● 만군마을

[별칭] 만군부락, 건일

[형태] 마을

[위치] 논골 맞은편 길 건너 만군고개를 넘으면 나오는 골짜기 마을이다. 만천리와 경계를 이루며 장학리와 만천리가 함께 있다.

[유래] 원래 웃건일인데, 27사단 군인들이 와서 땅을 개간했다고 하여 생겨난 지명이다.

● 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골짜기이다.

● 목골

[형태] 마을

[위치] 장학2리 마을회관 있는 곳이다.

[유래] 옛날 목씨가 살았다고 전한다.

[어원풀이] ‘목[項]’+‘골[谷]’로 분석된다. ‘목(項)’은 ‘목/목이/매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하고,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킨다. 질록하면서도 긴 골짜기 또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이 되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목터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1930년 경오년(庚午年) 장마에 목이 끊어진 골짜기라고 한다.

● 몽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손흥민운동장 아래 공동묘지 있던 곳이다.
스크린골프장이 있다.

[유래] 공동묘지가 있던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몽/묘+골[谷]’로 분석된다.

를 돌보는 사람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



민성기 가옥

● 목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목밭이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목+밭+골’로 분석하며 ‘목-’은 ‘밭’과 결합하여 ‘오래 내버려두어서 거칠어진 밭’을 뜻한다.

● 민씨묘(閔氏墓)

[형태] 무덤

[위치] 장학1리에 있다.

[유래] 구한말 당대 거부이자 세도가이던 친일파 민영휘의 묘이다. 민영휘(閔泳徽, 1852~1935)는 명성황후의 외척세력을 배경으로 높은 벼슬에 올랐다. 1910년 한일합병 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작위와 은사금까지 받았다. 상업은행의 전신인 천일은행을 세웠고, 1906년 5월에는 서울의 휘문학교를 세웠다. 대표적인 친일파 인물이다.

● 미끄렁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미끄러운 바위를 말한다.

[어원풀이] ‘미끄럼-+앙/엉+바우(바위)’로 분석하며 ‘앙/엉’은 명사파생접미사로 지명에 자주 보인다.

● 미끄렁바우샘

[형태] 샘

[위치] 미상이다.

[유래] 미끄렁바우 밑에서 나는 샘이다.

● 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현재 강원고등학교와 한림성심대 있는 지역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민성기가옥(春川閔聖基家屋)

[형태] 가옥

[위치] 장학리 능꼴 앞에 있는 옛 가옥이다.

[유래]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조선시대 후기에 건립된 묘막(墓幕)이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은사금을 받고 부귀를 누렸던 민영휘의 묘소

● 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밭이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밭[田]+골[谷]’로 분석된다.

● 배터께

[별칭] 배터거리, 우두배터, 하일배터

[형태] 나루

[위치] 우두산 바로 밑에 나루터가 있어서 장학리 하일까지 왕래했다.

[유래] 장학리 하일에서 우두동으로 왕래하는 나룻배가 다니던 배터이다.

● 뱃산

[형태] 산

[위치] 학봉 앞에 있는 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뱀/뱅[벼랑]+산’으로 분석된다. 가파른 벼랑으로 이루어진 산을 의미한다.

●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불당(佛堂)이 있던 골짜기이다.

● 사심이 뿔빠진 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전에 사슴의 뿔이 빠진 골짜기이다.

● 삼푸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자월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춘성의 맥』에 삼푸지 곧 삼굿을 하던 골짜기라 했다.

[어원풀이] ‘삼[麻]+푸짓(굿)+골[谷]’로 분석된다. 옛날 삼을 써는 굿을 하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삼굿은 예전에 삼[대마]을 심어 그 껍질로 길쌈을 해

서 삼베옷을 해 입었는데, 삼껍질을 벗겨 길쌈을 하기 위해 삼을 써는 과정이다. 땅을 파고 돌을 쌓아 불을 때 돌을 달구어 그 안에 삼을 넣고 물을 부어서 돌에 불이 닿아 끓으면서 나오는 김으로 삼을 익힌다. 이를 ‘삼굿’이라 한다.

● 새골

[별칭] 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일자동차 건물이 있는 골짜기이다. 논골 옆으로 더 들어간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새[草]+ㅅ+골’, ‘새[사오]+ㅅ+골’로 분석할 수 있다. 두 골짜기 ‘사이/새’, 또는 두 마을 ‘사이/새’에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 새낫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하일에 있는 골짜기이다. 승지골 옆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새말

[형태] 마을

[위치] 장학2리 마을회관 있는 곳이다.

[유래]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말이라 했다. 6.25한국전쟁 때 이곳이 수용소로 쓰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피란민들이 이곳에 그대로 정착하면서 마을이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한다.

● 샘딸치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샘이 나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샘(泉)+딸(딸린)+치’로 분석하며 ‘치’를 지명접미서로 보면 ‘재/고개(峙)’이고, ‘딸’은 ‘샘’과 ‘치’를 의미상 연결하려면 ‘딸린’이 상정된다. ‘샘이 있는 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샘물동지

[형태] 언덕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샘물이 있는 둔덕이라 했다.

● 선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고인돌을 말한다.

[어원풀이] ‘선[立]+바우/바위(石)’로 분석된다.

● 성황당

[형태] 민속

[위치] 손흥민운동장 있는 바로 앞 10m 위치이다.

[유래] 나무가 큰 것이 있고 지나는 사람들이 기원을 했다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다. 길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금줄을 빙 둘러서 쳐놨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나 떡 같은 걸 놓고 가기도 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없어졌다.

● 손흥민체육공원

[형태] 공원

[위치] 장학리에서 감정리로 넘어가는 곳에 있다.

[유래] 7만1793㎡ 규모로 조성된 공원이다. 풋살장과 족구장, 뜸운동장, 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다.

● 솔밭

[별칭] 장학리 솔밭, 지내솔밭

[형태] 솔숲

[위치] 논골과 기와집골 옆에 있는 솔밭이다.

[유래] 소나무가 잘 자라 있어서 옛날 춘천 학교의 소풍장소로 많이 이용되었다. 춘천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이곳에 소풍을 왔다고 한다.



솔밭

● 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하일 세 번째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박승지가 살아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유래답] 승지는 벼슬이름이다. 박승지가 살다가 떠나면서 약 4백 평 되는 땅을 마을에 기부를 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연못을 팔았다. 그 연못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하일의 안말사람들이 논을 부쳐 먹었다고 한다. 지금은 안말에도 잡초들이 나서 논이 다 묵었다.

● 승지골샘

[별칭] 승지골 수도

[형태] 샘

[위치] 하일 승지골에 있다.

[유래] 승지골에서 나는 샘이다. 옛날 마을사람들

의 우물터로 쓰였다고 한다.

● 신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장학2리와 지내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학2리 4반이다.

[유래] 신내고개로 가는 골짜기이다. 칠원윤씨비각이 있는 곳이다.

[어원풀이] ‘신[新]+내[川]+골[谷]’로 분석된다. ‘신내’는 ‘새내’ 즉 동쪽에 있는 개천이란 의미로 보인다.

● 신내고개

[형태] 고개

[위치] 장학리 신내와 지내리에 걸쳐 있는 작은 산을 넘는 고개이다.

[유래] 장학리 노루목에서 이 고개를 넘어가면 신내골이 나온다. 해발 235.1m라고 한다. 장학리 하일이나 노루목 부근에서 모두 오를 수 있는 고개이다. 옛날 신작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 고개를 넘어 다녔다고 한다.

[어원풀이] ‘신내골’ 참조.



신내고개 정상

● 신내고개등산로

[형태] 길

[위치] 장학리 노루목길에 있다.

[유래] 장학리 신내고개를 잇는 등산로이다. 하일과 노루목으로 올라 하일 내다리산 쪽으로 갈 수 있고, 그 반대로 올라 걸을 수 있다. 지내리 쪽으로는 2021년 현재 길이 막혀 있다.

● 쑥개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쑥대밭이었던 들이다.

[어원풀이] ‘쑥[艾]+개[川]’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안말

[형태] 마을

[위치] 하일 승지골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아주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마을 안쪽에 있다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다.

[유래담] 안말과 새말 사람들은 둘이 나누어져서 서로 말싸움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서로 “안말 놈들, 새말 놈들”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안말은 하일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곳이다.

● 양지편

[형태] 마을

[위치] 지내리와 경계지점으로 계속가면 지내리 김재궁이 나온다.

[유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우두배터

[별칭] 하일배터

[형태] 나루

[위치] 장학리 하일과 우두동을 오가던 배가 있던 나루터이다. 우두동 뱃터는 현재 우두산 아래 폴리텍대학 부근이다.

● 자월

[형태] 마을

[위치] 장학리 한림성십대와 지내리와 신복읍 소양강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신내 옆, 내다리산 아래이며 자월소류지 아래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자월’의 뜻은 애매하다. ‘자월(子月)’과 ‘자월(紫月)’을 상정할 수 있는데, 지명으로는 ‘자월(紫月)’이 쓰이곤 한다. ‘자월(紫月)’은 ‘명월(明月)’보다 밝아 희디희다 못해 ‘정한이 서린 자줏빛 달빛’이다. 또 ‘자[城]+월[鬱]’로 ‘잣[城]+고개’를 생각할 수 있다. 봉의산 아래 한림대학교 있는 곳이 갖고개인데, 봉의산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장학리의 자월은 마을이 성처럼 주변을 둘러 쌓은 지역을 뜻할 수도 있다.

● 자월거리제터

[형태] 민속

[위치] 자월 마을의 앞산에 있는 큰 소나무에서 마을제사를 지냈다.

[유래] 자월 마을에서 지내던 마을제사 터이다.

● 자월배터

[별칭] 자월배터

[형태] 나루

[위치] 자월에 있던 나루터이다.

● 작은건일

[형태] 마을

[위치] 만군마을(만군부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현재 만군부락을 건일이라 했는데, 웃건일과 작은건일로 나눠 불렀다.

[어원풀이] ‘건일’ 참조.

● 장뚜루

[형태] 들

[위치] 현재 강원고등학교 옆 MS마트 있는 곳이다.

[유래] 노루목에 있는 벌판이다. 장학리 일대에서는 비교적 큰 들이다. 후평동은 뒤뚜루라 했고, 이 곳은 장뚜루라 했다.

[어원풀이] ‘장(長, 埸)+뚜루(들, 坪)’로 분석된다. 긴 들판, 또는 장이 서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재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장학리저수지를 안으로 끼고 들어가면 넓은 인삼밭이 나온다. 인삼밭을 지나 더 들어가면 왼쪽에 구한말 이소옹 등과 의병활동을 했던 정인회(鄭寅會, 1868~1902)의 기념비가 있다. 이 기념비를 지나 조금만 가면 호성사(扈聖祠)라 현판을 한 초계정씨의 사당이 있다.



재궁골의 초계정씨 사당

[유래] 초계정씨 사당과 중시조 묘가 있는 골짜기이다. 사당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사당 옆에는 묘가 있다. 재궁골 일대 땅이 대부분 초계정씨의 문중 땅이라고 한다.

● 정인회기념비

[형태] 비석

[위치] 재궁골로 들어가서 초계정씨의 사당으로 가기 직전 왼쪽 산 밑에 있다.

[유래] 재궁골에 있는 정인회(鄭寅會)선생기념비이다. 원래는 사당 있는 곳에 있었는데,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두 개의 비가 있는데, 한 개는 대리석으로 정인회의 약력을 적어 놓은 것이고, 한 개는 화강석으로 된 비이다. 화강석으로 된 비는 우두동에 있던 것을 발굴해서 옮긴 것이다.



정인회 기념비

● 정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초계정씨의 묘막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초계정씨의 사당이 있는 재궁골을 가리키는 듯하다.

[어원풀이] ‘정(-씨)+제(祭, 묘막)+골’로 분석된다.

● 중무덤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중의 무덤이 있던 골짜기라고 한다.

● 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길게 생긴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진/긴+골’에서 ‘긴’이 ‘진’으로 변이되는 것은 길바닥’이 ‘질바닥’으로 변이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 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집이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집[家]+골

● 철새전망대

[별칭] 철새도래지공원

[형태] 공원

[위치] 하일의 소양강 가에 위치해 있다.

[유래] 소양강 중간 벼드나무가 많이 자란 지역에 가마우지떼가 집단 서식을 하고 있다. 전망대 지역은 서리꽃이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 서리꽃은 상고대라고도 한다.

● 칠원윤씨비각(漆原尹氏碑閣)

[형태] 비석

[위치] 신내골에 있다. 장학2리 하일에서 지내리 쪽으로 가다가 보면 대리석 이정표석에 한자로 ‘칠원윤씨비각’이라 하고 화살표를 그려 놓았다. 그곳

으로 따라 들어가면 몇 채의 집이 있고, 마지막에 비각과 비각을 관리하는 가옥이 보인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각을 볼 수 있다.

[유래] 칠원윤씨(漆原尹氏) 낙향중시조(落鄉中始祖) 윤재병(尹再聘)의 제단과 고성군수를 역임했던 윤언필(尹彦弼)과 통덕랑(通德郎) 윤세손(尹世孫)의 제단석을 모신 비각이다.



칠원윤씨비각

● 하일

[별칭] 학곡리(鶴谷里)

[형태] 마을

[위치] 노루목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학2리와 후평동 버스종점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학곡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鶴谷里(호일)’이 기재되어 있다. 학이 서식해서

붙은 명칭이다. 또는 학의 목처럼 긴 등성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도 가능하다.

[어원풀이] 『춘천백년사』에서 ‘하일’ 중 ‘하’는 ‘학(鶴)’의 음전이고, ‘일’은 ‘곡(谷)’의 춘천 방언이라 고 하였다.

● 하일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하일에 있는 고개이다.

● 하일뜰

[별칭] 하일버덩, 학곡평

[형태] 들

[위치] 현재 장학초등학교 있는 부근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학곡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鶴谷坪(호일뜰)’이 기재되어 있다. 하일에 있는 들이다. 지금은 모두 택지가 들어와 도시가 되었다.

● 학봉(鶴峯)

[형태] 산

[위치] 하일 뒤에 있는 산이다. 하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유래] 학이 깃들어 있던 산이다.



신내고개에서 본 하일 전경

위치와 현황 |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북쪽으로 소양강이 흐르며, 골짜기가 많고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을에는 속말, 수평말, 양정말, 양지말, 지겹말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지내(枝內)가 포함되어 있다. 『여지도서』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지내리(枝內里), 『호구총수』는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 지내리(枝內里),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지내리(枝內里)를,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에 지내리(枝內里)를 포함시켰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동면(東面)에 지내리(枝內里)를 포함시켰다. 『춘주지』는 춘성군(春城郡) 동면(東面)에 지내1리, 지내2리, 지내3리를 포함시켰다. 현재 행정리는 지내리며 법정리는 지내1리부터 지내3리까지 있다.

유래 | 지내리는 이 마을 지형이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그 안쪽에 있어서 가지 지(枝)자에 안 내(內)자를 써서 지내리라 하였다. 지내리는 가지안, 갓안, 지내라고도 불린다.

● 가산(嘉山)

[별칭] 지내리, 갓안

[형태] 마을

[위치] 지내리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枝內里(가산)’이 기재되어 있다. 물가 안쪽 마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어원풀이] ‘가/가지+ㅅ+안’으로 분석된다. ‘갓/가지’는 ‘갈라지다(岐, 枝)’, 또는 ‘가(물가)’란 의미를 지닌다.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지형 안쪽에 있는 마을, 또는 물가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가산개울

[별칭] 지내천

[형태] 하천

[위치] 지내리 복판으로 흐르는 내이다.

[유래] 지내천의 다른 이름이다. 감정리에서 시작하여 지내리를 거쳐 소양강으로 흘러간다.

● 개치개울

[형태] 하천

[위치] 지내리에 있는 개울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리 소재 천명(川名)으로 ‘기치기울’이 기재되어 있다. 가산개울과 같은 의미로 추정된다.

● 공깃돌바위

[형태] 바위

[위치] 지내1리에 있다.

[유래] 힘이 쌤 장수가 공깃돌 놀이를 하던 바위라고 한다.

[유래담] 크기는 설악산 훈들바위 2배나 되는 큰 바위이다. 약 2m 높이의 잔돌 담위에 엎혀 있는데

옛날 샘밭에 살던 족가산이란 사람이 술을 잔뜩 마시고 이 돌로 공기받기를 하면서 강을 건너와 이곳에 벼렸다는 전설이 전한다.

● 공동묘지

[형태] 무덤

[위치] 지내2리 정승고개 위에 있다.

[유래] 지내리 사람들만 쓰는 공동묘지 터이다.

● 굴아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굴이 뚫린 바위이다.

[어원풀이] ‘굴+아우/바우(岩)’으로 분석된다.

● 김재공

[별칭] 김재궁, 재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경말에서 아래 골짜기로 돌아 들어가면 재궁골이 나오는데, 원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유래] 김씨의 묘가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선산김씨의 묘가 나오고 묘를 지나면 사당이 나온다.

[유래담] 사당은 오봉재(五鳳齋)라 했는데, 선산김



선산김씨 사당 오봉재

씨의 사당이다. 선산김씨 오봉재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6일에 시제를 지낸다. 이곳에는 김경직묘비명(金敬直墓碑銘)이 있다.

● 늘목고개

[별칭] 노루목고개

[형태] 고개

[위치] 지내리에서 장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노루가 다니는 길이라 하여 노루목, 늘목고개라 했다. 또 마을의 형국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고 한다.

● 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언덕이 긴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덕(언덕/둔덕)+골’로 분석된다.

● 돌박이

[별칭] 돌배기

[형태] 마을

[위치] 양지말 맞은 편 옥골막국수집 길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지내2리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이 마을은 삼태기 모양으로 생겨서 복이 들어오는 곳이라 한다.

[어원풀이] ‘돌+박이/배기’로 분석된다. 돌이 박혀 있는 마을 이란 의미이다. 돌은 비석, 고인돌, 솟대 등으로 추정된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겹말 뒤에 있다. 뒷골로 올라가면 가산초등학교 학교림이 있다.

[유래] 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땀띠물

[별칭] 약수터

[형태] 샘

[위치] 샘골에 있는 샘물이다. 현재 춘천수돗물을 보급하는 지내리 노루목고개에 있는 양수장 바로 뒤에 있다.

[유래] 여름 더위에 땀띠가 났을 때 씻으면 나았고, 위장에 탈이 났을 때도 이 물을 마시면 나았다고 한다.

● 무당바우

[별칭] 무당바위, 무암바우, 춤추는 바위

[형태] 바위

[위치] 지내2리 무암산 중턱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기도하던 바위여서 무당바위라 한다. 보통 어른 키 두 길 정도의 높이이고, 한 개의 돌이다. 무당 바위 옆에 옛날 아주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무암산

[형태] 산

[위치] 지내2리 뒷산으로 정승고개와 공동묘지가 있는 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리 소재 산명(山名)으로 ‘巫岩山(무암산)’이 기재되어 있다. 무당바우가 있다 한다.

[어원풀이] ‘무(巫, 舞)+암(岩)+산(山)’으로 분석된다.

무당바위가 있는 산이란 의미이다.

[유래담] 홍수설화가 있는데 옛날 물이 찼을 때 꼭 대기가 무만큼 남았다고 한다.

● 미역바위

[형태] 바위

[위치] 지내3리 소양강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미역을 감던 바위이다.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유래담] 『춘주지』에 “동면 지내3리에서는 최근까지(73년) 독특한 기우제가 벌어졌다. 소양댐에서 흘러내리는 강 가운데 있는 미역바위에서 인근 마을 아낙네들 40~50명이 모여 비가 내려 줄 것을 빌었는데, 집집에서 제주(祭酒)와 메를 마련하여 미역바위에 놓고 치성을 드린 다음 무색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키를 씻었다. 키를 씻을 때 특히 세마을의 과부가 끼어야만 된다고 한다.”라 하였다.



지내리 소양강에 있는 바위

● 민씨영세기념비(閔氏永世紀念碑)

[형태] 비석

[위치] 지내리 가산초등학교 교정에 있다.

[유래] 민영휘 묘를 조성할 때 동면 사람들이 수고하였다 하여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閔大植) 등이 동면의 교육을 위하여 학당을 세워 주었다. 면민들이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원래 동면사무소 내에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 삼성

[형태] 터

[위치] 지내1리 가산로와 양정길 교차지점인 가산교 바로 옆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삼성당(三聖堂)

[형태] 민속

[위치] 미상이다.

[유래] 『강원도지』 우두사(牛頭寺) 조에 “절을 창건 할 때 지내촌(枝內村)의 삼성당(三聖堂)에서 밤마다 잔치를 열어 즐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절이 불에 타 없어진 첫날 밤, 곡을 하며 울고 슬픔에 젖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다.”라 하였다.

● 삼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삼태기처럼 생긴 골짜기이다.

● 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면 면사무소 뒤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땀띠물이 나는 샘물이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샘[泉]+골[谷]’로 분석된다.

● 서낭고개

[별칭] 정승고개

[형태] 고개

[위치] 지내2리에서 소양강 콧구멍다리(세월교)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마을 서낭목이 있는 고개이다. 정승이 지나갔다고 하여 정승고개라고도 불린다. 고갯마루 길

가에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그루만 남아 있다.

● 속말

[별칭] 속마을, 송말

[형태] 마을

[위치] 지내1리 가운데 있는 마을이다. 현재 면사무소 있는 곳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서는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여러 마을 복판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속[裏, 가운데]+말[마을]’로 분석된다.

● 솔밭

[별칭] 지내리 솔밭

[형태] 숲

[위치] 지내3리 4반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유래] 비교적 넓은 평지 위에 오래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생겨난 지명이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즐겨 소풍을 가던 곳이다. 소양강댐을 만들 때 현재 소양강가에 있는 흙을 파서 가져갔다. 당시 솔밭에서 육묘장까지 땅이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솔밭

● 송울말

[형태] 마을

[위치] 지내리 솔숲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지내리솔밭’에 있는 본 마을로 30여 가구가 살았는데, 1967년 소양댐 공사로 마을 모래를 퍼가며 대부분 이주하여 겨우 몇 가구와 일부 솔밭만 남아있다.

[어원풀이] ‘송[松]+율[栗]+말[마을]’로 분석된다. 소나무와 밤나무가 많은 마을이란 의미가 된다. 지내리 솔숲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으므로 ‘솔밭말’이 와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솔밭말’이 ‘솔밤말’로 발음이 나기에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松栗’로 한 것이다.

● 수평말

[형태] 마을

[위치] 속말에 딸린 마을이다.

[유래] 『춘천백년사』에 “지내1리 1,2,3반에 걸쳐 있는 마을이름이다. ‘수평’은 넓은 숲을 의미하는 ‘수평(數坪)’인 듯하다.”고 했다. 숲속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수평밀’은 ‘숲+안+말’이 변음되었다.

● 아랫두루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제일 아래에 있는 들이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두루/들[野]’로 분석된다.

● 아랫청룡

[형태] 들

[위치] 청룡들 아래쪽의 들이다.

● 안삼순 묘

[형태] 무덤

[위치] 지내리 소양강양어장 맞은편 산으로 난 곳으로 가면 있다.

[유래] 애국지사 안삼순의 묘가 있다. 길가에 “애국지사 안삼순선생 묘지안내판,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686, 300m전방”이라고 쓰여 있다.



안삼순 묘 안내판

● 앞구렁

[형태] 들

[위치] 아랫두루 남쪽에 있는 들이다.

[유래] 마을 앞쪽, 즉 남쪽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양정말

[별칭] 양쟁이, 양정촌

[형태] 마을

[위치] 동리 북서쪽 소양강 가에 있는 마을이다. 솔밭이 있는 곳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리 마을이름으로 ‘揚汀里(양정이)’가 기재되어 있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마을사람들은 ‘양쟁이’, ‘양정이’, ‘양재이’라고 불렀다.

● 양정포(揚汀浦)

[형태] 나루

[위치] 양정말 앞에 있던 포구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리 소재 포명(浦名)으로 ‘揚汀浦(양정구미)’가 기재되어 있다.

● 양지말

[별칭] 양지촌, 양지편, 양지골

[형태] 마을

[위치] 월곡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옥광산 올라가는 마을 초입으로 지내1리마을회관이 있다.

[유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 우름바우

[형태] 바위

[위치] 지내리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굴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 울려나온다.

● 웃양정

[형태] 마을

[위치] 양쟁이 위쪽의 마을이다.

● 웃청룡

[형태] 들

[위치] 청룡들 위쪽의 들이다.

● 워나리나루

[별칭] 원아리, 원진(元津), 원할진(願荷津)

[형태] 나루

[위치] 지내리에서 신북읍(新北邑) 천전리(泉田里)로 건너는 나루터이다. 콧구멍다리에서 약 50미터 내려오면 있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리 소재 나루 이름으

로 ‘元津(워나리)’이 표기되어 있다. 옛날 원님이 이 나루를 건넜다고 하여 원나루였는데, 나중에 워나루라 불렀다고도 한다. 한자 표기에 따라 으뜸이 되는 나루터란 의미도 되고, ‘위에 있는 나루터’란 의미의 ‘우나리/워나리’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 워나리뜰

[형태] 둘

[위치] 지내리 워나리나루 앞에 있는 들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元津坪(워나리뜰)’이 기재되어 있다.

● 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응달이 진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음(陰)+골[谷]’로 분석된다.

● 자작고개

[형태] 고개

[위치] 지내리 솔밭에서 장학리 하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유래답] 『강원의 설화』에는 이 고개에서 여우를 만나 구슬을 삼키고 유명한 지관이 되었다는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 정승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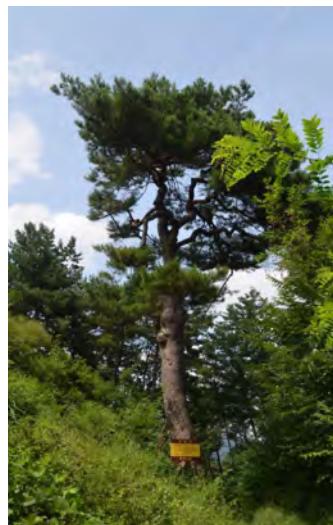
[별칭] 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지내2리 경로당에서 소양강 콧구멍다리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면 지내리 산 5-2번지이다.

[유래] 옛날 어떤 정승이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정승고개라고 한다고 했다. 정승고갯마루에는 큰 소나무 당산목이 있어서 오고가는 길손들의 서낭당으로 안식처 역할을 했다.

[유래답] 고갯마루 옆에는 지내리 공동묘지가 있다. 마을 앞으로 찻길이 뚫리기 전에는 월곡리와 지내리 사람들이 샘밭으로 지나다니는 큰 길이었다. 소나무 밑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돌을 들어 올려놓았다. 또 병이 나면 경을 짚어 귀신을 가두는데 귀신 가둔 단지를 서낭목 부근에 묻었다.



서낭목 보호수

● 지겸말

[별칭] 지겸촌(芝謙村), 지계마을

[형태] 마을

[위치] 지내리 면사무소 뒤쪽 재궁골로 가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지내3리에 해당한다.

[유래] 가산에 펼린 작은 마을이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지혜 지(智)’에 ‘겸손할 겸(謙)’자를 썼다고도 한다. 지혜있는 분들이 살았고 겸손하다는 의미로

생겨난 지명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설명한다.

● 지검말 우물터

[형태] 샘

[위치] 지검말에 있던 우물이다.

[유래] 지검말에는 개인우물은 없고 모두 공동우물을 썼다.

● 지내리 사지(寺址)

[형태] 터

[위치] 동면 지내3리 지정마을이다. 지정마을의 남북으로 흐르는 산기슭의 밭 경사지에 있다.

[유래] 『문화유적총람』에 “파괴된 2개체분의 석불(대리석제)의 잔해가 남아 있다”고 하나 현재 남아 있는 석재는 없으며, 마을주민에 의하면 석재는 마을에서 개울둑과 논둑을 보수할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 이 절에는 빈대를 죽이려다 절이 불에 탔다는 전설이 전한다고 한다.

● 지내리 지석묘(支石墓)

[형태] 무덤

[위치]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지석묘이다.

[유래] 『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도로에서 8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북방식 지석묘로 무정형이다. 현 위치가 본래의 위치로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 개석 밑에는 10~20cm의 천석들이 적석되어 있다. 개석 밑 남측부에는 동측 장벽석이 수직으로 제 위치에 세워져 있고, 서측 장벽석은 개석과 흙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 지내천(枝內川)

[형태] 하천

[위치] 감정리 구봉산 독점과 대룡산 느랏재 부근

에서 발원해서 지내리 가운데를 지나 소양강으로 흘러드는 내이다.

[유래] 『춘주지』에 “대룡산(大龍山) 독점고개에서 근원하여 북류(北流) 감정리(甘井里)를 지나 지내리(枝內里)에서 소양강(昭陽江)에 유입(流入) 한다. 하류(下流)에서 평형천(平衡川)을 이루어 지내리에서 퇴적(堆積)이 왕성(旺盛)히 이루어져 비교적 평야가 발달하였다. 동면의 중심지를 이루며 농업취락이 발달하였다.”고 했다.

● 지정마을

[형태] 마을

[위치] 지내3리에 있는 자연마을 이름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청룡(靑龍)

[형태] 산

[위치] 지내리 왼쪽에 있는 산이다.

[유래] 풍수지리에 따라 마을의 좌측 산을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 청룡들

[형태] 들

[위치] 청룡 밑에 있는 들이다.

● 향토사료관

[형태] 건물

[위치] 동면 가산로 89(동면 지내리 237-2)에 있다. 동면사무소 옆에 있다.

[유래] 동면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전통 물건을 내어 만든 향토사료관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다.

위치와 현황 | 대부분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구릉성 지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부는 고도가 높은 산지가 자리한다. 자연 마을로는 평촌, 무푸레골, 함박골 마을 등이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에 평촌리(坪村里)를 포함시켰다. 『강원도지』는 동면(東面)에 평촌리(平村里)라 표기하고, 『수춘지』는 춘성군(春城郡) 동면(東面) 평촌리(坪村里)라 표기하였다. 『춘주지』도 마찬가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평촌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동산외일작면(동면)의 지역인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무푸레골, 함박골, 갈개터를 병합하여 평촌리라 하였다.

● 갈개터

[별칭] 갈기터

[형태] 마을

[위치] 평촌에 떨린 작은 마을이다.

[유래] 평촌리에서 마을이 제일 먼저 생긴 곳이라 한다. 터가 조금 넓고 큰 밤나무가 마을이 오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지인이 제보한 유래에 따르면, ‘땅을 간 터’로 이해된다.

[어원풀이] ‘갈(갈다, 分, 岐)+개+터’로 분석된다. 양쪽으로 갈라진 지형으로 인해 생겨난 지명이다.

● 거릿제사터

[형태] 민속

[위치] 마을로 들어오는 금파 있는 곳 바로 건너편 물 옆에서 지냈다.

[유래] 옛날 산제당이 있어서 마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산편을 하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지당 나무를 베었다. 그 후 평촌리에서는 거릿제사를 지냈다.

● 건년들

[별칭] 도평(渡坪)

[형태] 들

[위치] 평촌리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평촌리 소재 들판이름으로 ‘渡坪(건년들)’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건년(渡)+들(坪)’로 분석된다. 건너편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곰차골

[형태] 골짜기

[위치] 느랫재 터널 있는 곳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금패바위

[형태] 바위

[위치] 평촌리와 신이리 경계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어떤 부자가 금항아리를 묻고 표시를 해 두었다는 전설이 있다.

[어원풀이] ‘금(金)+패(표(標))+바위’로 분석된다. 금을 묻은 표시를 한 바위이다.

[유래담] 옛날 이곳에 살던 부자가 금항아리를 묻어놓고, 한문으로 바위에 무슨 글씨를 써 놨다고 한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말을 전하고 아들이 찾으러 왔으나 못 찾고 갔다는 전설이 전한다.

● 느랫재

[형태] 고개

[위치] 평촌리에서 감정리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고개가 지루할 정도로 길어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챔버리도로를 만들 때 터널이 뚫렸다. 행정 소재지로는 감정리에 속하지만 느랫재터널은 평촌리에 있다.

[어원풀이] ‘느르-+앗/엇+재[峴]’로 분석된다. ‘느르’는 ‘길다’ ‘늘어지다’ 등을 말하기에 길게 늘어진 고개란 의미이다.

● 독점고개

[형태] 고개

[위치] 감정리의 독점으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평촌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독점고개’가 기재되어 있다. 감정리의 ‘독점’은 옛 ‘옹기점’이다.

[어원풀이] ‘독(叢)+점(店)+고개’로 분석된다. 옹기를 구워서 팔던 가게가 있던 고개란 의미이다.

● 돌매기

[형태] 골짜기

[위치] 곰차골 옆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무푸레골

[별칭] 수청동(水青洞), 물푸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함박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비골과 싸리골 사이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평촌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수청골(水青谷)’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백년사』에 “수청동(水青洞)이라고도 한다. 함박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름. 현재 평촌리 2반과 그 아래쪽 수몰지역이 해당된다. 과거 이곳에 물푸레나무가 많아 식생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물푸레/무푸레+골’로서 ‘물푸레나무’와 관련된 지명이다.

● 바른골

[형태] 골짜기

[위치] 병문안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바른+골’로 분석된다. 지명첩두사 ‘바른’은 ‘곧다[直]’ ‘우측[右側]’ ‘바람[風]’ 등의 의미로 쓰인다. 곧게 뻗은 골짜기, 마을 우측에 있는 골짜기, 바람이 많이 부는 골짜기 등의 의미이다.

● 병문안

[형태] 골짜기

[위치] 효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병[병풍]+문[門]+안[內]’으로 분석된다. 입구에 병풍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봉황재(鳳凰峙)

[형태] 고개

[위치] 신선봉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있다.

[유래] 샘이 있는 곳에 봉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유래담] 〈봉황재에 얹힌 전설〉 고개 샘에서 닭이 나와서 우는데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봉황새이기에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곳을 봉황재라 했다.

● 산제터골

[별칭] 약수터, 산지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평촌리에서 마주 보이는 산 중턱에 있다. 잼버리도로 건너 1km정도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철탑이 보이는 아래이다.

[유래] 산지터골로 올라가면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 들어가면 물이 있다. 이 물을 먹으면 위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유래담] 옛날 화전하던 시대에 장씨 성을 가진 부부가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1년 가까이 그곳에 움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치료를 해서 나았다고 한다.

● 샘물등지

[형태] 샘

[위치] 신선봉 위 봉황재 있는 곳에 샘이 있다.

[유래] 샘물 근처에 봉황이 깃든 등지가 있어서 생긴 지명이다. 샘 부근에서 봉황이 나와 울었다고 한다.

● 솔봉

[별칭] 송봉(松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평촌리 소재 봉우리 이름으로 ‘松峰(솔봉)’이 기재되어 있다.

● 수양버드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갈기터 밑으로 돌아 나오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벼드나무가 많아서 생겨난 지명이다.

● 수통골

[형태] 골짜기

[위치] 병문안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신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우무골과 무푸레골 사이에 있다. 신이리의 연엽골 맞은편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신선봉

[형태] 산

[위치] 평촌리 마을에서 느랏재 옆으로 있는 봉우리이다.

[유래] 신선봉 위에는 바위가 두 개 겹쳐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바둑판이 그려져 있다. 이곳에 신선들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다고 한다.

● 쌔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푸레골과 함박골 사이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쌔리나무가 많은 골짜기, 또는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아갈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짐승이 아가리를 벌린 것처럼 생긴 바위이다.

● 안산

[형태] 산

[위치] 수양버드나무골에서 현재 평촌리 마을 중간으로 넘어오는 곳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마을의 앞쪽에 있는 산[秦山]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우목골

[별칭] 우물윗골, 우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제터골 옆이다. 품안리 지르마재와 평촌리 신비골 사이에 있다.

[유래] 우물 위쪽에 있는 골짜기, 또는 움푹 패인 것처럼 산에 둘러싸인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산 위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우뚝골’의 이칭으로 보인다.

● 효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제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줄바윗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통골 위이다. 느릿재 터널 옆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바위가 병풍처럼 줄을 맞춰 서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평촌(坪村)

[형태] 마을

[위치] 평촌리의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들판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현재 소양댐 건설로 수몰되었다.

● 함박골

[별칭] 함박동(咸朴洞)

[형태] 마을

[위치] 평촌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우뚝골 밑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평촌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함박골(咸朴谷)’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백년사』에 “평촌리 1반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한자식 표기로는 함박동(咸朴洞)이라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평촌리를 구성하는 주요한 마을이었다. 소양댐 건설로 대부분 수몰되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함박+골’로 분석된다. 함박(꽃)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위치와 현황 | 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간 마을로 북쪽에 소양호가 있다. 자연마을에는 고약동, 늘뚝, 말걸리, 사호랭이(사오랑), 요옥동 등이 있다. 바위에 돌을 던져서 엊히면 장가를 간다는 혼인바우도 있다.

연혁 | 『여지도서』는 동산외면(東山外面) 말걸리(末+乙傑里)라고 기록하였다. 『호구총수』는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에 말걸리(末傑里), 『춘천읍지』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 품곡리(品谷里)와 말걸리(末傑里)를 같이 기록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에 상품곡리(上品谷里), 하품곡리(下品谷里), 말걸리(末傑里)를 표기하였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동면(東面) 품걸리(品傑里)라 하였다. 『춘주지』는 춘성군(春城郡) 동면(東面)에 품걸1리, 품걸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법정리는 품걸리이고, 행정리는 품걸1리, 품걸2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동산외일작면(동면)의 지역인데 행정구역 개편때 상품곡리 일부와 말걸리, 관항리를 병합하여 품곡리(品谷里)의 ‘品’자와 말걸리(末傑里)의 ‘傑’자를 따서 품걸리(品傑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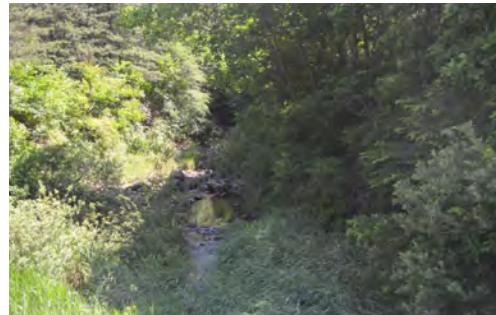
● 가랫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1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 양쪽으로 갈라진 지역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가래[楸]+ㅅ+골[谷]’로 분석된다.



가리산골

● 가리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개경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가리막을 이곳에서 만들었다. 제보자는 가리막이 나무로 만든 함지라 했다. 목기를 깎는 대목을 같이대목, 목기 틀을 같이틀이라 한다.

● 가산초등학교 품결분교터

[형태] 터

[위치] 품결2리 마을 가운데에 가면 옛 품결분교가 있던 터를 볼 수 있다. 길 아래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학교 옆으로는 작은 시냇물이 흘러 운치를 더하고 있다.

[유래] 1947년 개교하였다가 소양댐 건설로 이전하였고 이후 학생 수 감소로 2005년 폐교되었다.



가산초등학교 품결분교터

● 가리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2리 가리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이다.

[유래] 가리산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수불사라는 절이 있다.

● 가삿고개

[형태] 고개

[위치] 품결리에서 물로리로 넘어가는 가삿골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가삿골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가삿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리에서 물노리로 넘어가는 가삿고개가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갈라진 곳에 있는 골짜기, 또는 물가나 평지쪽으로 틀 튀어나온 지형인 곶(串)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갈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북산면 물로리의 갈골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갈골’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갈골’은 ‘갈다/갈라지다(分, 岐)+골’로 분석된다. 양쪽으로 갈라진 지형에서 유래되었다.

● 개경골

[별칭] 개긴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1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칠성목을 지나 10여 분 올라가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큰 개경골’과 ‘작은 개경골’이 있다.

● 건너버덩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건너편에 있는 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건너+버덩+들’로 분석된다.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뜻한다. 건너편에 있는 벼덩이란 의미이다.

● 고등골

[별칭] 곤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1리마을회관에서 남동쪽 방향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품곡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直洞(곳운골)’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곧게 생긴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등/곤은[直]+골[谷]’로 분석된다. 곧게 뻗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고약골

[별칭] 고약동(古約洞)

[형태] 마을

[위치] 홍천 야시대리에서 가리산으로 들어오는 늘목 고개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말걸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고약골(古約洞)’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늘목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약+골’로 분석된다. ‘고약’은 ‘오얏(자두나무)’의 강원 방언이다.

● 광산골

[별칭] 광산동(礦山洞)

[형태] 마을

[위치] 홍천 야시대리에서 품결리로 들어오는 입구인 품결1리에 있는 곳이 ‘아랫광산’이고, 품결2리 2번에 있는 곳이 ‘윗광산’이다.

[유래] 『춘주지』에 의하면 가리산에는 가리산중석광상(加里山重石礦床)과 판항광산(板項礦山)이 있었다. 가리산중석광상은 “동면 품결리 남측사면에 위치한다. 8.15이전에는 대당광산(大堂礦山)이란 명

칭으로 활발하게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휴업중이다.”라 하였고, 판항광산은 “동면 품걸리 가리산 서측 약 2km 지점에 위치한다. 8.15 이전에는 선광장(選鑛場)을 설치하여 활발하게 개발하였으나 현재는 휴업중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광산(礦山)+동(洞)’으로 분석된다. 광산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날근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품걸리에 있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낡은/날근+고개’로 분석된다. 옛날에 마을터나 농지터가 있었던 고개란 의미로 추정된다.

● 날근고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날근고개 밑의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날근고개’ 참조.

● 노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걸1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늘목

[형태] 마을

[위치] 삼년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 고개가 있다. 품걸2리 1.2반에 걸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년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큰 고개가 있음”이라 소개되어 있다. 큰 고개

도 늘어져 있고, 고개 밑으로 마을이 길게 늘어져 있다. 마을이 목처럼 길게 늘어져서 생겨난 지명으로 추정된다.

● 늘목고개

[별칭] 판항고개, 판항현(板項峴)

[형태] 고개

[위치] 늘목과 삼년골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품걸1리와 2리로 오가는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말걸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板項峴(널목고기)’이 기재되어 있다. 옛날 일제가 중석을 캐가면서 닦아놓은 산길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 해발 567m이다.

[어원풀이] ‘늘목[板項]+고개’로 분석된다. 좁고 길게 늘어진 고개란 의미이다.

[유래담] 품걸1리 방면에 옛날 산적을 하던 마씨들이 고개에 움막을 쳐놓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늘목교

[형태] 다리

[위치] 품걸분교 뒤

[유래] 2001년 11월 7일 착공하여 2002년 5월 31일 준공한 콘크리트다리이다.

● 달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걸2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달밭’은 ‘다락밭’이라고도 하는데 ‘산전(山田)’ 또는 ‘산밭’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을 개간하여 계단식으로 만든 밭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대거리(大巨里)

[형태] 마을

[위치] 늘묵마을 부근

[유래] 큰 거리란 의미이다.

표지판을 세워 두었다. 길이 그곳에서 끝난다. 예전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골짜기라고 한다.



막다른골 표지판

● 더르래기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품결리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덜[서덜]+래기’로 분석된다. ‘서덜’은 강(개천)가에 돌이 많은 곳을 뜻한다. 돌투성이 골짜기란 의미이다.

● 말거리

[별칭] 말결리

[형태] 마을

[위치] 품결1리(마을회관)에서 북쪽 소양호 방면으로 도로지명 품결길을 따라 1.5km 정도 가면 ‘말거리’가 나온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말결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末傑里(말걸리)’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품결리 중앙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에 있는 마을[거리]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덧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 덧을 놓았던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덧/덧/+골’로 분석된다.

● 덧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덧골에 있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 막다른골

[별칭] 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2리 제일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품결리 제일 끝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누군가 ‘막다른 길’이란



품결1리 소양호 배터쪽에서 바라 본 말거리 마을 전경

● 매봉재

[형태] 고개

[위치] 품결2리 '막다른골'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있다. 기상관측소가 있다.

[유래] 매봉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가리산에는 큰 관측소가 있고, 매봉재에는 작은 관측소가 있다.

● 머드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불사 들어가서 안쪽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가리산 올라가는 골짜기로 바위가 얼기설기 놓여 있다.

● 물노리고개

[형태] 고개

[위치] 북산면 물로리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품결2리에서 물로리로 가는 고개이다.

● 물안봉

[형태] 산

[위치] 품결2리와 물로리를 연결하는 가리산의 봉우리이다.

[유래답] 해발 781.1m이다. 측량의 기준인 삼각점 안내판이 있다. 봄이면 철쭉이 군락을 이뤄서 곱게 핀다.

● 밤바우골

[별칭] 야전동(夜田洞)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야전동'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밤+바우+골'로 분석된다. 그 한자(훈차) 지명이 '야전동'이면 '밤'을 '야(夜)'로 훈차한 것이

다. 이는 음차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야전'은 '栗田'이 어울린다. '밤나무(栗)가 많은 바위가 있는 골'이란 의미이다.

● 배터

[형태] 나루

[위치] 품결1리에서 소양호 쪽으로 가면 나온다.

[유래] 소양댐이 생기면서 배터가 생겼다. 낚시꾼과 지역민이 이용한다.



배터 가는 길

● 베틀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선녀가 이 바위에서 베를 깠다고 한다.

● 부처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부처처럼 생긴 바위라고 소개되어 있다.

● 북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2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북나무가 많아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 사실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사실골 위에 있는 고개이다. 홍천군 화촌면(化村面)과의 중간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실골 위에 있는 고개. 홍천군 화촌면과의 중간에 있음.”이라 소개되어 있다. ‘사실골’ 참조.

● 사실골

[형태] 골짜기

[위치] 홍천군 화촌면에서 품걸리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홍천군 화촌면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실+골’로 분석된다. ‘사실’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사실’을 ‘사이+실[谷]’으로 본다면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가 된다.

● 사오랑(沙五郎)

[별칭] 사호랑, 사호랭이

[형태] 마을

[위치] 품걸1리마을회관과 품안마을 사이에서 남서쪽 큰 골짜기(사오랑골)에 들어가면 ‘사오랑/사호랭이’(작은 마을)가 나오고, 더 들어가면 ‘사호랑고개/사호랑치(沙五郎峙)’를 넘게 되며, 곧 도로지 명 연엽골길에 들어서게 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호랑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유래답] 사오랑, 사호랑, 사호랭이 등 부르는 사람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에 그 유래도 다양하다. 첫째는 네 마리의 호랑이가 살아서이고,

둘째는 네 집이 있어서이고, 셋째는 사오랑이라는 일본 현병을 의병이 죽인 곳이어서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 사오랑고개

[별칭] 사호랑고개, 사오랑치(沙五郎峙)

[형태] 고개

[위치] 품걸리 품안마을에서 쳐다보이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북소면(北小面)과의 경계에 있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사오랑’ 참조.

● 삼년골

[별칭] 삼년동(三年洞)

[형태] 마을

[위치] 물안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말걸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三年洞(삼연골)’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거리 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 7월 장마에 큰거리 사람이 겨름대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본즉 민가가 있어서, 언제부터 사느냐고 물으니 삼년이 되었다고 하여 삼년골이라 하였다 함”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삼령(三嶺)+골[谷]’로 분석된다. ‘삼령골’을 빌음나는대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三年洞’이 된 것이다.

● 상품곡리(上品谷里)

[별칭] 웃풀실

[형태] 마을

[위치] 품실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품걸2리이다.

● 석거리 바우

[형태] 바위

[위치] 품걸리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품걸리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석+거리+바우(바위)’로 분석된다. ‘석’은 ‘三’이란 의미로 삼거리에 있는 바위란 뜻이다.

‘품걸리’도 ‘삼거리’란 의미로 추정할 수 있다.

● 석장골

[별칭] 석장곡(石藏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돌함이 나왔다는 골짜기라고 소개되어 있다. 돌이 많은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설통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설통 모양으로 된 바위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설통’은 강이나 개울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에 거꾸로 놓은 통발을 말하거나 ‘토종벌’을 키우는 벌통을 말한다. 직사각형 형태의 바위를 보통 부르는 이름이다.

● 성산천

[형태] 하천

[위치] 가리산에서 발원하여 홍천군 화촌면으로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 성제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형제처럼 서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형제/성제+봉’으로 분석된다. ‘형님’을 ‘성님’으로, ‘혓바닥’을 ‘섯바닥’으로 부르는 강원방언의 특징을 담고 있는 지명이다.

● 소태못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소태나무+ㅅ+골’에서 ‘나’가 생략된 변이형이다. 소태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쟁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쇠[鐵]+골’이며, ‘쇳/쇤/쳥’은 그 변이형들이다.

● 시목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걸2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예전에 화전민이 많이 살았던 골짜기인데 현재는 잣나무 조림지이다.

● 시영골

[별칭] 수영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걸2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윗광산 맞은편 늘목고개로 넘어가는 부근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아래말거리

[형태] 마을

[위치] 품결1리 말거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품안리의 곤은골과 가깝다.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 아랫광산

[형태] 터

[위치] 가리산으로 올라가기 전 홍천 야시대리에서
품결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다. 품결2리 1반이다.

[유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중석을 캐던 곳이다.

● 아랫무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
라 하였다.

● 양가터

[형태] 마을

[위치] 품결2리에 있다. 마을회관 맞은편이다.

[유래] 옛날 양씨 몇 가구가 그곳에 살아서 유래하
였다고 하고, 또는 골짜기에 두 집이 살아서 생겨
난 지명이라고도 한다.

● 양지모태이

[형태] 터

[위치] 품결1리에 있다.

[유래] 양지에 있는 언덕이란 의미이다.

● 엇밧든지

[형태] 터

[위치] 품결1리에 있다.

[유래] 품결1리에 있는 밭이다.

[어원풀이] ‘엇(빼뚜로)+밧(밭)+둔지(언덕)’로 분석된
다. 지형을 따라 비뚤비뚤 경지가 조성된 언덕이란
의미이다.

● 열두다물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리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
라 하였다.

[어원풀이] ‘열두+다물+골’로 분석된다. ‘다물’은
‘근처, 부근’을 뜻하기보다는 세는 단위 ‘열두’와의
상관성에서 고구려어계의 ‘옛 땅을 회복’하는 뜻의
‘다물(多勿)’이 좀 더 합리적인 듯하다. 슷하게 개간
해야 겨우 쓸만한 골짜기 땅이란 의미이다.

● 오망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리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
라 하였다.

[어원풀이] ‘오망/오만+골’로 분석된다. 험하기가
오만가지인 골짜기란 의미이다.

● 요골

[별칭] 요옥동(堯玉洞)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1리 큰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말거리 동쪽 골짜기에 있
는 마을이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요골로
가면 물로리가 나온다. 큰 요골, 작은 요골이 있다.

● 웃광산

[별칭] 윗광산

[형태] 광산

[위치] 품결2리 2반이다.

[유래] 일제강점기 때 아랫광산과 같이 중석을 캐던 광산이다.

● 웃덕새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리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웃말거리

[별칭] 윗말거리

[형태] 마을

[위치] 말거리에서 가리산 방향으로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품결1리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마을이다. 아랫말거리는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 웃무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안봉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上]+ㅅ+무랑/물안/골[谷]’로 분석된다. ‘물안골’ 위쪽이란 의미이다. ‘물안골’은 북산면 조교리에 위치한다.

● 웃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

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웃버덩들

[형태] 들

[위치] 품결2리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품결리 위쪽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웃+버덩+들’로 분석하며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가리킨다.

● 웃풀실

[별칭] 상품곡리

[형태] 마을

[위치] 품결2리를 말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품곡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上品谷里(웃풀실)’가 기재되어 있다.

● 음지모태이

[형태] 터

[위치] 품결1리에 있다.

[유래] 음지쪽에 있는 언덕을 말한다.

● 작은고미기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장자덤부리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재 아래는 지금 물이 다 쳤다. 이곳이 옛날 품결1리의 중심마을이었다. 품안리에도 지르마재 마을이 유명하다.

● 전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불사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전나무가 많아서 생겨난 지명이다.

● 철물낫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1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첫물이 나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정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요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칠성목

[별칭] 서낭당터

[형태] 나무

[위치] 품결1리 웃말거리에 있는 당목이다.

[유래] 북극성과 북두칠성 모양으로 소나무를 심었다. 마을제사를 드리던 곳인데,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칠성목과 북극성 소나무

● 지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2리에 있는 마을제사를 지내는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마을 앞 지당골에 아름드리나무가 있어서 그곳에서 마을치성을 드렸다.

[어원풀이] ‘지당/제당(祭堂)+골[谷]’로 분석된다. 제당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지르마재

[형태] 마을

[위치] 품결1리에 있다.

[유래] 말안장처럼 굴곡이 있고 긴 고개란 의미의 ‘지르마재’ 아래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지르마

● 큰거리

[별칭] 대거리

[형태] 마을

[위치] 말거리 동남쪽 위에 있는 마을이다.

● 큰고미기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리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위치] 품결1리에서 품결2리로 연결하는 고개이다.

[유래] 판항으로 가는 고개라 해서 판항현이라 했다.

[어원풀이] ‘늘목/늘뚝/널목’의 한자지명은 ‘판항령(板項嶺)/판항현(板項峴)/판항(板項)고개’이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1리 칠성목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이 깊고 크다.

● 품걸리 도로

[별칭] 늘목고개길, 판항고개길, 품걸리오지마을길

[형태] 길

[위치] 품결1리에서 2리로 가는 산길이다.

[유래] 이 도로는 임도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일인들이 품결2리 가리산에 있는 중석을 캐가기 위해 주민들을 시켜 닦은 도로이다. 마치 임도(林道)처럼 보이지만 일인들의 수탈에 의해 닦여진 아픈 역사가 있는 도로이다.

● 터골

[별칭] 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마을회관 반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도량에서 올려다보면 몇 개의 턱이 있다. 갑자기 언덕이 져서 언덕을 넘어야 골짜기가 보인다. 턱이 져서 턱골이라 했다. 밑에서 보면 길만 보이고, 마을은 안 보인다. 옛날 고려가 몰락하면서 왕(王)씨가 몰래 와서 전(全)씨로 성을 바꿔 이곳에서 살았다고 전한다.

● 품걸리 배터

[별칭] 뱃터

[형태] 나루

[위치] 말거리에서 소양호 쪽으로 가면 있다.

[유래]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배터이다. 하루에 두 번 아침 9시30분과 오후 4시에 운행한다.



품걸리 배터 이정표

● 파랑광산

[별칭] 판항광산

[형태] 광산

[위치] 판항고개에 있는 광산이다.

[유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중석을 파갔다.

[어원풀이] ‘파랑+광산’이며, ‘파랑’은 ‘판항’의 변이 형태이다.

● 품걸리 전망대

[형태]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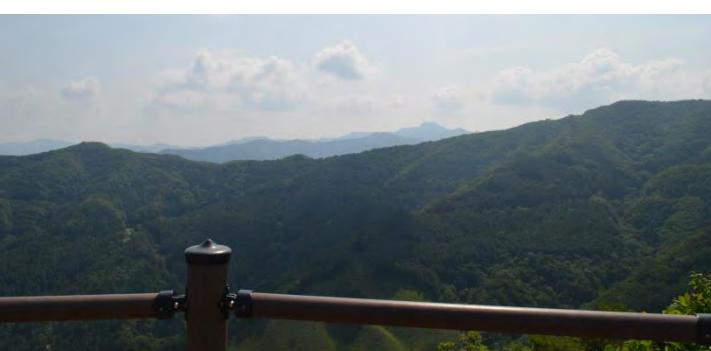
[위치] 상걸리에서 품걸1리로 가는 길목에 2015년

경 설치한 전망대이다.

[유래] 전망대에 오르면 가리산을 비롯한 품결리 전 산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매년 1월 1일에 해맞이행사를 한다.



품결리 전망대에서 본 가리산



해맞이행사를 하는 전망대

● 품실

[별칭] 품곡(品谷)

[형태] 마을

[위치] 품결리와 품안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는데, 소양호에 묻혔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행정지명 품안리와 품결리의 유래가 되는 지명이다.

● 품안초등학교터

[형태] 터

[위치] 품안리에 있던 초등학교이다.

[유래] 1941년 개교하였고 소양댐 건설로 마을이 사라지면서 1978년 가산초등학교 분교가 되었다가 1999년 폐교되었다.

● 형인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2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호랑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 혼인바우

[형태] 바위

[위치] 늘목고개 길에 있다.

[유래] 이 바위에 돌을 던져 얹히면 장기를 가게 된다고 한다. ‘품결리 오지마을길’ 둘레길 도중에 있는 바위로 현재는 명소가 되었다.

● 화채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품결1리에 있다.

[유래] 모양이 화채 뚜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화채는 상여를 말한다.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소양호가 있는 산간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고른동, 귀미, 바깥풀
실(하품곡), 샛골(조곡), 안현동, 안풀실 등이 있다. 품안리는 독수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는 수리바웃골 등 골짜기가 매우 많다. 이 밖에도 공동묘지가 있는 공동툇구렁 골짜기, 응
달쪽에 있는 골짜기여서 붙여진 귀미옹달 등이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를 보면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에 안현리(鞍峴里)로 표기하였
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동면(東面) 품안리(品安里)라 기록하였고, 『춘주지』도 춘성군
(春城郡) 동면(東面) 품안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품안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동산외일작면(동면)의 지역인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미, 안풀실,
두리봉, 소진개, 안현동, 고른골, 새골, 바깥풀실을 병합하여 품실(品室)과 안현(鞍峴)의 이
름을 따서 품안리(品安里)라 하였다.

● 가마소

[별칭] 가마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마처럼 된 소(沼)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가마/가매+소(沼)'로 분석된다. '가마술'

모양인 경우가 많고 '신성한 곳'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있다.

[유래] 큰 바위가 서 있는데 중간에 고쿨처럼 오목하게 생겼다.

[어원풀이] '고쿨+바우'로 분석된다. 고쿨은 옛날 전통가옥에서 벽난로처럼 벽 중간에 만든 작은 화덕이다. 이 곳에 관솔로 불을 때 조명으로 사용하였다.

● 캠번대기

[형태] 골짜기

[위치] 신이리로 가는 곳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두리봉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는데, 품안리 토박이 김홍길 제보자는 아니라고 하였다.

● 곰의도랭이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품안리에 있는 골짜기. 돌이 많음"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곰의/검은+돌[石]+앵이'로 분석된다. 검은빛의 돌이 많은 곳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고갯다리

[형태] 골짜기

[위치] 지르마재 고개가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개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공동랫구렁

[형태] 골짜기

[위치] 안지르마재 맞은편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현재는 묘를 거의 다 이장하여 공동묘지 구실을 하지 못한다.

[어원풀이] '공동(共同)+뫼[墓]+ㅅ+구렁'으로 분석된다.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고른동

[별칭] 곧은골, 직동(直洞)

[형태] 마을

[위치] 안풀실 옆이며 큰골 옆에 있다. 지르마재 맞은 편이다.

[유래] 골짜기가 길게 쭉 곤게 뻗어있다.

[어원풀이] '곧은[直]+동(洞)'으로 분석된다.

● 광산굴

[별칭] 금광굴

[형태] 굴

[위치] 지르마재에 있다.

[유래] 광산을 하여 생긴 굴이다. 『춘주지』에 의하면 품안리에 동성광산(東星鑛山)이 있었는데 북산면 품안리에서 남쪽으로 지르마재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약 1.5km 지점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마

● 고쿨바우

[형태] 바위

[위치] 두리봉 가기 전에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굴

을주민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사람들이 이 곳에서 금을 캐기 시작하였고 해방 후에도 한국 사람이 큰 발전기를 설치하고 금을 캤다고 한다.

● 구미(口尾)

[별칭] 귀미

[형태] 마을

[위치] 안풀실 남쪽 굽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춘천백년사』에 “품안리에 있던 마을로서, 1973년 소양댐 건설로 수몰되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품안리를 구성하던 주요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아, 연혁이 비교적 오래된 마을인 것 같다고 했다. 귀미에 바위가 염청나게 좋은 게 있었다. 바위 밑이 은은한데 그곳에 방앗간[정미소]이 있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구만이’라는 지명은 모두 강가에 위치한다.

● 구재바웃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구재바우라는 바위가 있는 소(沼)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귀미응달

[형태] 골짜기

[위치] 귀미(구미) 뒤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귀미 응달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구미, 귀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하는데, ‘응달’은 그곳에 그늘이 진 장소이다.

● 궁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구유처럼 생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구유/귀유/궁+골’로 분석된다. 소의 여물을 담는 구유처럼 길게 생긴 골짜기를 말한다.

● 날름고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수리바웃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내품곡(內品谷)

[별칭] 안풀실

[형태] 마을

[위치] 품안리를 말한다.

[유래] 안풀실의 한자어이다.

[어원풀이] ‘안[內]+품(品)+설[谷]’로 분석된다. 그대로 행정지명 ‘품안리’이다.

● 넓적등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넓적하게 생긴 등성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넓적+등’으로 분석된다. 넓고 평평한 등성이란 의미이다.

● 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논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논[沓]+골[谷]’로 분석된다.

● 늘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두리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르마재골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길게 늘어진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닥밭보

[별칭] 닷밭보, 저전보(楮田洑)

[형태] 보

[위치] 미상이다.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품곡리 소재 ‘보명(洑名)’으로 ‘楮田洑(닥밭보)’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닥나무밭에 설치한 보(洑)란 의미이다.

● 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이곳에 산제당이 있었다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당[山祭堂]+골[谷]’로 분석된다.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더령산

[형태] 산

[위치] 두리봉 맞은편에 있는 산이다. 안지르마재에서 옆으로 돌아가면 나온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2021년 현재 김홍길 씨의 어장이 있다. 산이 험하고 돌이 많으며 돌담도 있다고 한다.

● 덕새

[형태] 산

[위치] 더령산 앞쪽 물 건너 있다. 논골 위에 있다.

[유래] 산이 벌렁 드러누워 있다고 해서 덕새라 했다고 한다. 옛날 화전민이 있었다.

● 동면코

[형태] 터

[위치] 품안리로 배를 타고 들어올 때 빠죽 튀어나온 곳이다.

[유래] 낚시꾼들이 동면코라고 일컫는다. 코처럼 튀어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 되눈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작은양지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르마재에 있다. 광산골 가기 전 오른쪽이다.

[유래] 작은양지 건너편에 곡식이 조금 나올 만큼의 땅이다.

[어원풀이] ‘되는/된+터+ㅅ+골’로 분석된다. ‘되다/궤다’는 ‘논밭을 다시 갈다’는 말로 ‘논밭을 개간한 터가 있는 골’이란 의미이다.

● 된양지

[형태] 골짜기

[위치] 광산골 위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절터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두리봉

[형태] 산

[위치] 지르마재 뒤에 있는 큰 봉우리이다.

[유래] 지르마재 뒤 해발 412m의 봉우리이다. 소

양댐 서쪽 월곡리와 품안리를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샛골로 들어가서 중간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산이다. 두리봉 중턱에도 화전민 1개 반이 있었다고 한다. 두리봉(412m)은 소양댐 서쪽 월곡리와 품안리를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들 중 한 산이다. 두리봉(412m)과 545봉, 후봉, 364봉은 모두 1km 간격으로 소양호를 가두는 천연의 장벽이 되고 있다.

● 둔덕말

[형태] 마을

[위치] 안지르마재 있는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언덕이 진 마을이라 하였다. 2021년 현재 한 가구가 소양호에서 물고기를 잡고 염소를 기르며 살고 있다.

[어원풀이] ‘둔덕(언덕)+말(마을)’로 분석된다. 둔덕에 있는 마을이란 말이다.

● 등산재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학동 동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마당바우

[형태] 바위

[위치] 신이리 밑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마당처럼 넓적하게 생긴 바위라 하였다. 현재는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마당+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마당마웃소

[형태] 소(沼)

[위치] 신이리 마당마우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마당마우 부근에 있는 소(沼)라 하였다. 현재는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 마산등

[형태] 산

[위치] 안지르마재 건너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말의 등허리처럼 생긴 긴 산등성이이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쥐골 옆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품안리 끝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막(-한)+골[谷]’로 분석된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골짜기란 의미이다.

● 말죽은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말이 떨어져 죽은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매차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매차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 모약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르마재골 안에 있다. 지르마재고개 밑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모이(뫼)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명한 인물의 묘가 아니라 마을주민이 죽어 묻힌 곳이라 한다.

[어원풀이] ‘묘/뫼/모이+악/억+골’로 분석된다.

● 바깥풀실

[별칭] 하품곡

[형태] 마을

[위치] 현재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품실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춘천백년사』에 안풀실의 외곽에 있던 마을이라고 하나, 수몰되어 자세하게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바깥+풀+실’은 ‘하품곡’이라고도 한다.

● 박대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광산골 맞은편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박달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박달/박대+나무+ㅅ+골’로 분석된다.

● 방축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염석천 안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방축(防築)’은 우리말 ‘방죽’의 한자 지명이다.

● 방죽아래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방죽들 아래 있는 들이라 하였다.

● 배기터

[형태] 골짜기

[위치] 안지르마재의 둔덕말 지나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영산재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船]+기(基)+터[垈]’로 분석된다. 배터가 있는 곳이란 의미로 보인다. 또는 ‘배기+터’로 분석하여 솟대나 장승이 서 있던 곳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 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르마재골 입구에서 조금 들어간 곳이다. 고른동에 딸린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른동에 딸린 골짜기. 배나무가 있었음.”이라 하였다.

● 백장의백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백장이 살았다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백장(백정)+의+백골’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벌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두리봉 밑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두리봉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벼락바우

[형태] 바위

[위치] 지르마재의 둔덕말 건너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벼락을 맞은 바위라 하였다. 바위가 다 헐어졌는데 사람들이 벼락을 맞은 바위라고 했다. 한국전쟁 때 비행기가 벼락바위에 떨어졌다고 한다.

● 부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르마재골에 있다. 소양호에서 내려 죽 걸어 올라가면 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부대처럼 생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부대+ㅅ+골’로 분석된다. ‘부대’는 ‘포대’의 와전으로 보인다.

● 상금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두리봉 밑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두리봉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새말어구

[별칭] 신촌포(新村浦)

[형태] 나루

[위치] 현재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품곡리 소재 나루터 이름으로 ‘新村浦(시말어구)’가 기재되어 있다.

● 샛골

[별칭] 새골, 조곡(鳥谷)

[형태] 골짜기

[위치] 안지르마재 옆에 위치해 있다. 골짜기로 올라가면 두리봉이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새가 많았다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춘천백년사』에서는 “한자식 표기로 ‘조곡(鳥谷)’이라고도 한다. 역시 소양댐 건설로 수몰되었다. 구미와 함께 비교적 오래된 마을이다.”라 했다. 현재 골짜기 아래는 수몰되었고 상부에 한 가구가 살고 있다.

[어원풀이] ‘새[鳥]+ㅅ+골[谷]’로 분석된다. 새가 많아서 생겨난 지명일 수도 있고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설명도 가능하다.



샛골

● 샛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샛골고개를 넘어가면 월곡리 가마골이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샛골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샛골’ 참조.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길을 찾기 힘들다.

● 석장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두리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성애골

[형태] 골짜기

[위치] 쥐골 맞은편에 있다. 신이리 연엽골 방면으로 가는 골짜기이다.

[유래] 『춘성의 맥』에 큰 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어원풀이] ‘성애+골’로 분석된다. 성애가 끼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소진개 옆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속개+ㅅ+들’로 분석된다. ‘속개’는 ‘소진개’의 축약형으로 보인다. ‘속샛골’과도 관련된 지명으로 보인다.

● 성엇골

[별칭] 싱앳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르마재 광산골 위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된양지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성애골’과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성어/싱애/성에+ㅅ+골[谷]’로 분석된다. ‘성어/싱애/성에’는 ‘서릿발’이다.

● 속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배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쥐골에서 돌아가면 갈 수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뭇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속[裏, 內]+새[間, 鳥, 草]+ㅅ+골[谷]’로 분석된다. ‘샛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소진개

[별칭] 소중포(所仲浦)

[형태] 나루

[위치] 샛골 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품실 북쪽, 소양가에 있는 마을. 소(沼)가 있음”이라 하였다. 소진개 옆에 밭도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소진+개’로 분석된다. ‘소진’이란 나루가 있는 물가란 의미이다. ‘소진’은 ‘소+진(津)’으로 분석되는데 여기서 ‘소’는 ‘속[裏]’ 또는 ‘새[東]’란 의미로 추정된다.

● 손꾸락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말죽은산골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손꾸락(손가락)+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쇠매깃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소를 먹이던 곳이라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소/쇠[牛]+매기/-/매기-+ㅅ+골[谷]’로 분석된다.

● 속갯들

[형태] 들

[위치] 소진개 옆에 있는 들이다. 소양호에 수몰되

● 수리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르마재로 올라가서 능선 있는 왼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독수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또는 수리가 이곳에서 새끼를 쳐서 갔다고 해서 수리바위골이라 한다.
[어원풀이] '수리(매, 독수리)+바우+ㅅ+골'로 분석된다.

● 실등

[형태] 산

[위치] 수리바웃골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실처럼 가늘게 된 등성이 라 하였다. 실등에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수리가 새끼를 쳐서 수리바위라 불린다고 한다.
[어원풀이] '실[絲]+등'으로 분석된다.

● 쌔리두명

[형태] 골짜기

[위치] 두리봉 밑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벌개골 옆에 있는 골짜기 라 하였다.
[어원풀이] '쌔리+두명'으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두명'은 물을 많이 담아 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말한다.

● 안갯골

[별칭] 안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지르마재 둔덕말에서 돌아가면 두 번째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안개가 자주 끼는 골짜기 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개[霧]+ㅅ+골[谷]'로 분석된다.

● 안지르마재

[형태] 마을

[위치] 지르마재와 샛골 사이에 있다.
[유래] 지르마재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2021년 현재 한 가구가 살고 있다.
[어원풀이] '안[內]+지르매[말안장]+재[峙]'로 분석된다.



품안리 안지르마재 풍경

● 안풀실

[별칭] 내풀곡

[형태] 마을

[위치] 품걸리를 지나 안풀실쪽으로 가면 말걸리가 나온다.
[유래] 『춘천백년사』에 “품안리에 있던 마을 이름. 1973년 소양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었다. 안풀실은 이 일대에서 비교적 취락이 발달되어 있었던 곳으로서, 연혁 또한 비교적 오래된 마을이었다. 전통시대에는 신분이 낮고 빈한한 산민(山民)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內]+풀실(品室)'로 분석된다.

● 애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곧은골 있는 곳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갱번대기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양재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배기터 밑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양재/양지+들’로 분석된다. 양지쪽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어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잉어골 맞은편이고, 곧은골 옆이 된다.

[유래] 소양호에 물이 차고 나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어부(漁夫)+골[谷]’로 분석된다. 소양호에 물이 차고 어부들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지명이다.

● 얼음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이리 연엽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얼음[氷]+골[谷]’로 분석된다. 얼음처럼 서늘한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영산재

[형태] 고개

[위치] 둔덕말 앞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귀미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영산(靈山)+재[峴]’로 분석된다. 신령스런 산으로 가는 고개란 의미로 보인다.

● 워남정

[별칭] 운암정

[형태] 터

[위치] 둔덕말 아래이다.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귀미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울소

[형태] 소(沼)

[위치] 금광굴 앞에 있는 소(沼)이다.

[유래] 소(沼)가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꾸러미가 다 들어가고도 모자랐는데 웨놈들이 굴에서 파낸 돌을 그곳에 자꾸 넣어서 지금은 한 길도 안 된다고 한다.

[어원풀이] ‘울(鬱, 鳴)+소(沼)’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잉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곧은골과 학교뒷동산 섬하고 멀지 않다.

[유래] 소양호가 생기고 나서 새로 생긴 지명으로, 잉어가 많이 잡혀서 낚시꾼들에 의해 불러진 이름이다.

● 작은양지

[형태] 마을

[위치] 되눈덧골 아래에 있다.

[유래] 작은양지 입구에 돌배나무가 큰 게 있다.

● 장승배깃들

[형태] 들

[위치]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장승이 서 있던 들이다.

[어원풀이] ‘장승배기+ㅅ+들’로 분석된다.

● 중사린골

[별칭] 중산에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르마재 안쪽 고갯다리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절터가 있었고 기왓장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어원풀이] ‘중[僧]+살린/살던+골’로 분석된다. 스님의 살던 절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쥐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막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막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쥐[鼠]+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지르마재

[별칭] 지르매재, 안현동(鞍峴洞)

[형태] 마을

[위치] 품안초등학교 옆, 두리봉 아래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안현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鞍峴里(지루마지)’가 기재되어 있다. 지르마재장 등 바로 아래 있는 마을이어서 지르마재라 불렀다.

[어원풀이] ‘지르마재’를 ‘안현-동(鞍峴洞)’이라 했으니 ‘지르마’는 ‘길마’이다. ‘길마’는 소 등에 엊어 물건을 운반하는 데 쓰는 연장으로 지역에 따라 ‘지르마/질매/질마/지르매(강원도)’라고도 불린다. ‘지르마’는 말의 안장을 부르는 방언이기도 하다.

● 지르마재고개

[별칭] 안현(鞍峴)

[형태] 고개

[위치] 지르마재 서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안현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鞍峴(지루마지고기)’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지르마재 서남쪽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품안리에서 감정리와 월곡리로 통하는 고갯길이다. ‘지르마재’ 참조. 지르마재고개를 넘어가면 감정리가 나온다. 빠른 걸음으로는 1시간 남짓 걸리지만 보통 걸음으로는 3시간 이상 걸린다. 품안리 쪽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감정리쪽은 가파르다.

● 지치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싸리두명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지초(芝草)가 산재한 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지치+바우+ㅅ+골’로 분석된다. ‘지치’는 한자어로는 지초(芝草)·자초(紫草)·자근(紫根)이라고 한다.

● 진무개양지

[형태] 골짜기

[위치] 두리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르마재 옆 금광을 하던 곳이다. 곧은골 옆이다. 안풀실에 딸린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절터가 있다고 함이라 하였다. 골짜기가 커서 생겨난 지명이다.

● 큰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두리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큰 소(沼)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品谷川(품실기울)’이 기재되어 있다. 남부의 대룡산지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 소양호로 유입된다. 지금은 소양호 속에 묻혔다.

● 큰터앗보

[별칭] 대대보(大垈洑)

[형태] 보

[위치]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품곡리 소재 보명(洑名)으로 ‘大垈洑(큰터앗보)’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大]+터[垈]+아+ㅅ+보(洑)’로 분석된다. 큰골에 있는 보(洑)란 의미로 추정된다.

● 품안초등학교터

[형태] 터

[위치] 품안리에 있던 초등학교터이다.

[유래] 품안리에 있던 초등학교로 물이 차자 품결리로 옮겼다가 폐교가 되었다. 폐교는 현재 펜션으로 바뀌어 손님들의 휴식처로 운영하고 있다.

● 하품곡(下品谷)

[별칭] 아래품실, 바깥품실

[형태] 마을

[위치] 바깥품실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품곡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下品谷里(아리품실)’가 기재되어 있다.

● 학교뒷동산

[형태] 섬

[위치] 지르마재로 가는 뱃길에 있다.

[유래] 옛 품안초등학교 뒷동산이다. 학교는 소양호에 모두 수몰되었고 학교 뒷동산만이 호수 위로 튀어나와 섬을 이루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섬을 학교뒷동산이라 부른다.



품안초등학교 뒷동산

● 품안나루

[형태] 나루

[위치] 품안리 앞에 있는 나루이다.

[유래] 품안리와 북산면 청평리를 연결시켜주는 나루이다.

● 품안천(品安川)

[형태] 하천

[위치] 품안리 앞을 흐르던 내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품곡리 천명(川名)으로

● 합죽할멈 뭇구렁

[형태] 무덤

[위치] 쥐골과 막골에서 돌아가면 나온다.

[유래] 합죽할멈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 호랑명더리

[형태] 바위

[위치] 샛골로 들어가서 고개 밑에 왼쪽이다.

[유래] 호랑바위가 있는 서덜이다. 이곳에는 명더리 돌도 많고 무척 커서 호랑명덜이라 했다.

[어원풀이] ‘호랑+먼/명+서덜+이’로 분석된다. ‘서덜’에서 ‘서’가 탈락되었고, ‘명’은 ‘멀다’의 관형형 ‘먼’으로 본다. 그리고 ‘서덜’은 ‘강가에 돌이 널부러져 있는 형상’을 뜻한다.

● 호랑바우

[형태] 바위

[위치] 호랑명덜에 있었다.

[유래]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이다.

● 홍문안

[형태] 골짜기

[위치] 두리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르마재로 들어가서 수리바위 있는 그 너머가 홍문안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화랑밭들

[형태] 들

[위치]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장승배기 부근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황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잉어골에서 월곡리 가래골로 가는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황천(黃泉)+골[谷]’로 분석된다.

● 횃감배기

[형태] 골짜기

[위치] 지르마재로 올라 중사린골 못 가서 광산골 있는 그 너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 중사린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횃돌이 많아서 생겨난 지명으로 보인다. 예전에 품안리와 품걸리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모두 이곳에서 회를 캐갔다고 한다.

[어원풀이] ‘회[灰]+ㅅ+감+배기’로 분석된다.

● 흐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갯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르매재 옆이기도 하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안갯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골이 깊어서 벼섯도 따고 산삼도 더러 캤다고 한다.

[어원풀이] ‘흐릿/흐린+골[谷]’로 분석된다. 골이 깊어 흐릿하다고 하여 생겨난 지명이다.



동내면(東內面)

동내면

춘천시의 동쪽 근교에 위치한 면이다. 동쪽과 북쪽은 동면(東面)과 동산면(東山面), 남쪽은 동산면, 서쪽은 신동면(新東面)에 접한다. 신촌리·거두리·고은리 등 5개 행정리를 관할한다. 『춘주지』는 동내(東內)에 웅곡(熊谷), 암곡촌(暗谷村), 두음곡(頭音谷), 사리아(沙里牙), 거두일(擧頭逸), 방현(方峴), 일언(逸言), 후웅곡(後熊谷)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여지도서』는 지석리(支石里)·두음곡리(豆音谷里)·사암리(沙岩里)·암곡리(巖谷里)·내동리(內洞里)·고은동리(古隱洞里)·거두곡리(巨豆谷里)·석사리(碩士里)의 위치와 호구가 표기되어 있다. 현재 거두리의 한자 표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1895년(고종 32)부터 ‘동내면’이라는 면명을 사용하다가 1946년 신남면과 통합하여 신남의 ‘신’과 동내 ‘동’자를 취하여 신동면이 되었다. 1989년 ‘동내면’이라는 옛 이름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1995년 춘천시 동내면이 되었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옥수수 등이며, 균교농업이 발달하였다. 대규모의 시설원예 단지가 조성되어 딸기·복숭아·참외·포도·오이·사과 등의 과일과 채소가 생산되고 있으며, 젖소·돼지·닭 등 축산을 하는 농가도 많다. 면내에 춘천교도소·춘천소년원이 있다.

위치와 현황 | 대룡산과 금병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농촌 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뜬안, 윗거들, 방아골, 굴양지, 중두루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동내(東內)에 거두일(舉頭逸)이 있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는 동내면(東內面) 거두곡리(巨豆谷里)로, 『춘천읍지』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는 동내면(東內面) 거두곡리(巨頭谷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부내면(府內面) 거두리(舉頭里)로 표기하였고, 『강원도지』는 춘천읍(春川邑) 거두리(舉頭里)로, 『수춘지』는 신동면(新東面) 거두리(舉頭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는 신동면(新東面) 거두1리, 거두2리로, 『춘천백년사』는 동내면 거두1리, 거두2리, 거두3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거두리이고 법정리는 거두1리부터 거두18리까지 있다.

유래 | 거두일(舉頭逸) 또는 거두곡(巨頭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후상리를 병합하여 거두리(舉頭里)라 하여 부내면에 편입되었다가 동내면에 편입되었다.



거두리 윗마을에서 내려다 본 춘천의 풍경

● 가래돌

[형태] 바위

[위치] 평판이 위에 위치해 있다. 평판이는 거두리 끝자락에서 감정리 고개로 올라가는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고 했으니, 대룡산에 있는 바위이다.

[어원풀이] ‘가래+돌’로 어원상 나뉘지는데 가래는 ‘흙을 파서 갈아엎거나 파내는 데 쓰는 기구’ 또는 ‘눈을 칠 때 쓰는 넓적한 나무 도구’이다. 그러므로 가래처럼 생긴 넓적한 돌이다.

기조각들이 있어서 가마터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옹기조각의 흔적을 볼 수 없다.



가마바위공원 글귀



가마바위공원

● 가마바위공원

[형태] 공원

[위치] 거두리 부영아파트 옆쪽 옆 약 50m 지점에 있는 작은 공원이다.

[유래] 이곳에 옛날 옹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 공원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곳에 오면 깨어진 옹

● 가매골

[별칭] 가매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거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가매바우

[별칭] 가마바위

[형태] 터

[위치] 지금 거두리 시내 쪽을 말한다. 가마바위공원이 있는 곳이다.

[유래] 옹기를 굽던 가마(가메) 터가 발견된 곳이다.

● 갑둔니고개

[별칭] 갑둔치(甲屯峙), 갑둔니고개, 갑둔이영(甘屯里嶺)

[형태] 고개

[위치] 방아골 동쪽에 있는 고개로 동면과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거두리와 만천리에서 대룡산을 넘어 상걸리로 연결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방아골 동쪽에 있는 고개. 동면(東面)과의 경계에 있음.”이라 하였고, 『조선지지자료』에 후상리에 있다고 했다.

[유래] 현지조사에서 갑둔치는 큰 소나무가 있는 고개라 했다.

[어원풀이] ‘갑(甲)둔/갑둔니’는 주로 ‘거송(巨松), 노송(老松)’이 있는 지역에 쓰였다. ‘갑둔치’의 ‘-둔’은 ‘단, 돈, 둔’ 등의 이형태로 나타나는데, 고구려 지명에서 ‘곡(谷)’과 대응하는 ‘단(旦), 탄(吞), 둔(頓)’에 해당한다. 후대 지명에서 ‘단, 돈, 둔’은 주로 ‘마을, 골짜기, 고개’ 등을 가리킨다.

● 거두리농공단지

[형태] 터

[위치] 주소는 동내면 거두리 1152번지이다. 거두리 본향 앞쪽, 거두길과 금촌로 사이 구릉에 조성된 농공단지이다.

[유래] 거두리에 조성된 농공단지이다. 춘천시가 271억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8년에 걸쳐 공장부지 15필지와 도로, 상·하수도, 계류지,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여, 이후 많은 회사와 공장을 유치하였다.



거두리농공단지

● 거두리사거리

[형태] 길

[위치] 거두리 사거리이다.

[유래] 이곳에서는 방애골, 만천리, 신촌리, 거두리 저수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곳에 거두리사거리라 명기되어 있다.



거두리사거리 이정표

● 거두리연못

[별칭] 못안, 못안마을

[형태] 못

[위치] 거두리1리 못안마을에 있던 연못이다.

[유래] 거두리연못은 논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졌던 연못이다. 못안마을은 모두 연못 안을 메워 마을로 만든 것이다. 못둑이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있는 곳에 있어서 물을 가두었다. 이 연못의 물로 가마바위 아래에 있는 논농사를 할 수 있었다. 물을 옮기는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연못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못둑을 허물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못둑을 사이에 두고 못안과 못밖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 거두리축구장

[형태] 터

[위치] 주소는 동내면 거두리 1156번지이다.

[유래] 거두리축구장은 1998년 조성된 천연잔디 구장이다. 거두리에 있어서 거두리축구장이라 하였다.

● 거두1교

[형태] 다리

[위치] 여성인력개발센터 앞에 놓인 시멘트콘크리트 다리이다.

[유래] 2003.8.14.에서 2004.12.6.까지 공사를 했다. 길이 28m이다.

● 거두일리(舉頭逸里)

[형태] 마을

[유래] 『한국지명총람』에서 거두리에 딸린 마을을 말한다고 했다.

● 거들

[별칭] 거두곡리

[형태] 마을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거두곡리(舉頭谷里)라 하여 전한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방앗골’이 ‘거들’ 동쪽에 있는 마을임과 ‘갑둔치’가 ‘방앗골’ 동쪽이며 동면과의 경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들(거두리의 본향)’의 위치는 금촌로와 거두로 교차지점 동쪽으로 대룡산 자락 명봉(643m) 사이 큰 마을이 된다.

[유래] 거두리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으로 보인다. 아랫거들, 윗거들이 있다.

[어원풀이] ‘거두리’는 ‘거들/거들+리(里)’이며, 거두(舉頭)-리(里)’는 음차표기이다.

● 게바우

[형태] 바위

[위치] 대룡산 활공장 위에 있는 커다란 바위이다.

[유래] 활공장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게바우라 한다. 바위 모양이 게처럼 생겼다.

● 고깔바위

[형태] 바위

[위치] 거두리 대룡산 쪽에 있다.

[유래] 거두리 대룡산 쪽에 있는 고깔 모양의 바위를 일컫는다. 바위가 컸다. 그러나 사방댐을 만들어 물을 막는다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 컷던 바위가 꼭대기 부분만 남아 있다.

● 광산굴

[형태] 굴

[위치] 아갈바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광산한 굴이 있다. 신촌리 느티나무 있는 데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유래] 일제강점기 때 광산을 했던 곳이다. 이 골짜기를 넘어가면 쇠파니라는 곳이 있다. 1980년대에 광산을 하려고 굴을 뚫었던 곳이다. 지금은 광산 입구를 철로 막아놓았다. 옥돌이었는데 재질이 좋지 않아서 캐다가 막아놓았다.



광산굴 입구 안내판

● 구송정(九松亭)마을제사터

[형태] 민속

[위치] 대룡산 아래 마을 방아골에 있는 구송정터이다.

[유래] 구송정은 옛날에 어느 분이 소나무를 아홉 그루 심었던 곳이다. 6.25 난을 때 군인들이 뗄감으로 잘라가서 없어졌다. 소나무가 그 당시 벌써 아름드리었다. 엄청 굵었는데 없어졌다. 구송정에서 마을 정성을 드렸다.

● 굴양지

[형태] 마을

[위치] 대룡산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한 개 빙이 살았다. 거두리 화전민의 삶터이다. 화전정리할 때 모두 내려와서 마을이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양지바른 곳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어원풀이] ‘굴+양지(陽地)’로 분석되며 ‘굴’은 논 또

는 밭이 기름진 부분을 뜻하는 고어로 보인다. ‘굴양지’는 ‘양지 바른 기름진 땅’이다.

● 굴양지서낭당

[형태] 민속

[위치] 굴양지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는데 그곳에서 서낭제를 지냈다. 거두리 끝에서 보면 방송국 안테나가 보이는데 그 앞에 해당한다. 행글라이더 활공장 부근에 해당한다.

● 금대골

[형태] 마을

[위치] 방아골을 넘어가면 나오는 마을이다.

● 기와둔지

[형태] 못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미둔지(尾屯池)라 하여 거두곡리에 있다고 했다.

● 논골

[형태]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담곡(菴谷)이라 하여 후상리에 있다고 했다.

● 다리목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교항(橋項) 디리목이라 하여 거두곡리에 있다고 했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리가 있던 마을이라 했다.

[어원풀이] ‘다리(橋)+목(項)’으로 분석하며 지명접미사 ‘목(項)’은 ‘목/목이/메기/매기/모기’ 등의 이 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 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

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킨다.

● 닥나무골

[형태]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저목곡(楮木谷) 닥나무꼴이라 하여 후상리에 있다고 했다.

● 덕거리(德巨里)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덕거리라 하여 거두곡리에 전한다고 했다.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거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도장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도장골'은 '안방'의 고어로서 '사방이 산이나 둔덕으로 둘러쌓아 안방'처럼 아득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 독전곡(讀田谷)

[형태]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독전꼴이라 하여 후상리에 있다고 전한다.

● 뒤뜰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뒤뜰 후중리(後中里)를 일컫고 있다.

● 뒷골

[별칭] 마을

[유래] 거두리 대룡산 아래 마을이다.

● 뚝새골

[형태] 골짜기

[유래] 거두리연못 둑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 또는 골목이다. 지금은 못밖 아래 호반베르디움아파트가 있는 골목이다. 호반베르디움아파트가 연못 둑 바로 안에 있었다. 이곳에서 신촌리로 넘어가는 곳이다.

● 목념에

[형태] 산

[유래] 광산골 지나 조금 올라가서 장등이다.

● 못밖

[별칭] 숲밖

[형태] 마을

[위치] 거들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거두리에 있던 연못 밖에 해당한다고 못밖이라 했다. 연못은 거두리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는 “거들 남서쪽에 있는 마을. 큰 못과 숲 바깥쪽이 됨.”,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숲밖이라 부른다. 거들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거두리회관을 중심으로 동쪽 숲속 마을은 ‘못안, 숲안’ 마을이고, 남서쪽은 ‘못밖, 숲밖’ 마을이다. ‘못밖’ 사이로 경찰지방경찰청을 지나 후평동으로 넘어가는 대로가 뚫렸다.

[어원풀이] '못(淵)+밖(外)'로 분석하며 '큰 못'과 '숲' 바깥쪽이어서 '못밖' 또는 '숲밖'이라고 부른다.

● 못밖공원

[별칭] 거두2지구유적

[형태] 공원

[위치] 오스타아파트 뒤쪽 작은 산 밑이다.

[유래] 거두2지구 유적조사를 하고 만든 공원이다.



못밖공원 신석기시대 주거터

그 위치가 거두리 연못 밖에 있어서 못밖공원이라 했다. 공원 안에는 유적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고, 청동기 시대의 움집 등도 모형을 만들어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원 입구에는 ‘춘천 거두2지구 유적’ 현황도와 함께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거두2지구 유적 안내문

● 못안

[별칭] 숲안, 못안마을

[형태] 마을

[위치] 거두1리 2반이다. 못밖 안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거두1리회관을 중심으로 동쪽 숲속 마을은 ‘못안, 숲안’ 마을이고, 남서쪽은 ‘못밖’ 마을이다. ‘못밖’ 사이로 강원지방경찰청을 지나 후평동으로 넘어가는 대로가 뚫렸다.

[유래] 큰 못과 숲 안쪽의 마을이다. 숲안, 못안마을이라고도 부른다. 거두리연못이 있을 때 연못 안쪽에 있던 마을이다.

[어원풀이] 못(淵)+안(內)으로 구성된다. 옛날 거두리에 연못이 있을 때 못 안이었던 지역이다.

[유래답] 거두리 못안과 못밖은 연못을 기점으로 생긴 지명이다. 거두리못밖공원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던 논이 있을 때 생긴 지명이다. 이때 연못 안쪽을 못안이라 했고, 밖을 못밖이라 했다.



못안마을 거두1리 마을회관

● 못안마을서낭당

[형태] 민속

[위치] 못안마을 앞 작은 야산에 있다. 택지개발 하느라 축대를 쌓은 산이다.

[유래] 마을에서 매년 음력 11월 초순에 날을 받아서 지낸다. 예전에는 꽤 크게 지냈는데, 지금은 축소가 돼서 간단하게 지낸다.

● 못안1교

[형태] 다리

[위치] 거두리 강원경찰청 앞 도로에 위치해 있다.

[유래] 2006.7.27.부터 2007.9.11.까지 공사를 했다. 길이 17.5m 폭27m의 시멘트콘크리트다리이다. 못안교는 세 개가 있다.

● 물마른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거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거두2리 방아골 위쪽이다.

[유래]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만 가뭄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물+마른+골’로 분석된다.



효자각 안에 걸려 있는 정려문

● 박대울

[별칭] 박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못안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박주국 효자문 있는 곳 아래로 난 골짜기이다.

● 박주국 효자문

[형태] 민속

[위치] 동내면 거두1리 704. 만천리에서 거두리 방면으로 난 외곽도로를 따라 가다가 강원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바로 직전 골목으로 들어가면 작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바로 그 산봉우리 남쪽으로 터를 닦고 세워져 있다. 길에서 보면 효자각과 비석과 안내문이 바로 보인다.



박주국 효자문과 비각 및 안내문

● 반고개잔등

[형태] 산

[위치] 거두리 방아골에서 대룡산 쪽으로 위치해 있다.

[유래담] 예전에 이곳에서 달맞이를 했다.

● 반희언 비석

[형태] 비석

[위치] 거두리에서 대룡산으로 올라가는 고개 옆에 반희언의 비가 세워져 있다.

[유래] 비석에 반희언(潘希彦)이 아버지를 극진히 장사지내고, 어머니에 효도를 한 사실을 적었다.

[유래담] 임진왜란 때 장군 반처량의 아들로 1554년에 퇴계동에서 출생하여 살아가셨다.

아버지 처량이 전사하자 선산에 안장, 묘막을 짓고 3년간 시묘하였고 그 후 어머니께서 병세 악화로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대룡산에 가면 시체 3구가 있는데 가운데 시체의 목을 잘라 고아드려라.” 하기에 시키는 대로 하였



반희언 추모비

더니 병환이 나셨다. 그 목은 산삼이었다. 목을 들고 온 것이 거수리라고 하다가 거두리로 바꿔 부르고 있다. 효도를 한 내용이 유래담으로 전한다.



반희언 추모비 취지문

● 밤방골

[형태]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율전곡(栗田谷)이라 하여 후상리에 있다고 했다.

[어원풀이] ‘밤+밭+골’로 분석된다.

● 방아골

[별칭] 방애골, 용곡(春谷)

[형태] 마을

[위치] 대룡산 명봉 아래 뒷골 위에 있다. 거두리소



방아골 마을

류지에서 길을 건너면 나온다. 거두리 버스종점이 있다. 거두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거두리가 시작되는 곳이다.

[유래]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겨서 유래된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에서는 용곡(春谷) 방아골이라 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거들 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방아처럼 생기었다 함.”, 『춘천의 지명 유래』에 “거들 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방아처럼 생겼다.”고 했다.

● 방아골소류지

[별칭] 방아골저수지, 거두리저수지

[형태] 못

[위치] 거두리2리 마을회관 부근인 방아골에 있는 저수지이다. 거두리314-2번지이다.

[유래] 현재 거두리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다. 농사용 저수지이면서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다. 1962년 축조되었다. 면적은 $7,404m^2$ 이다.

● 방아재

[형태] 고개

[유래] 방아골 너머로 가는 고개를 일컫는 이름이다.



방아골저수지의 전경

● 백목동(柏木洞)

[형태]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잣나무숲이라 하여 후중리에 있다고 했다.

● 범벽골

[형태] 골짜기

[위치] 못안마을 뒤쪽 강원경찰청에서 석사동 애막골로 넘어가는 고개 옆에 있는 주유소 뒤쪽의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이곳에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범[호랑이]이 많았다.

● 삼석당(三石堂)

[형태] 민속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숨섞당이’라 하여 거두곡리에 있다고 했다.

● 설통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거두리 바른골과 도장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설통모양의 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또는 바위에 설통을 많이 놓아 명명된 지명이다. 설통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토종벌통을 이르는 방언이다.

● 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거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촌리 쪽에서 거두리 쪽의 고개에 있다.

● 소둔지(小屯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쇼둔지라 해서 후상리에 있다고 했다.

● 쇠죽골

[형태] 골짜기

[유래] 거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 신선바위

[형태] 바위

[유래] 거두리의 성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킨다. 산끝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평평하고 넓다. 바위 아래쪽에서는 올라가지 못한다.

● 아갈바위

[형태] 바위

[위치] 거두리와 신촌리에 인접해 있다. 길에서 쳐다보면 보인다. 대룡산으로 올라가는 산줄기 끝 부분 길 위 약 6m 위치에 있다. 지금은 누가 별통을 놓았다. 자동차가 대룡산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 길가에 있다. 신촌리 느티나무 있는 곳으로 곧장 올라가면 된다.

[유래] 바위가 입을 벌린 모양이다.

[어원풀이] ‘아갈+바위’ ‘아갈’은 입을 일컫는 방언



아갈바위

이다.

[유래담] 거두리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앞에 뚫어진 구멍을 막으면 거두리가 좋고, 구멍을 열어놓으면 여자가 바람이 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예전에 거두리 사람은 이 뚫린 구멍을 막아놓고 신촌리 사람을 열어놓았다.

● 아랫거들

[형태] 마을

[위치] 거두1리이다. 웃거들도 있다.

[유래] 거들의 아랫마을을 가리킨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거들의 아랫마을이라 했다.

● 안골

[형태] 마을

[유래] 안골은 거두리에 들어와 있는 중간 마을이다.

● 안장거리

[형태] 마을

[위치] 방아골에서 위쪽으로 꼭대기 부분에 있는 마을이다.

● 예교물꾸렁

[형태] 골짜기

[위치] 거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거두리에서 대룡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이다.

[유래] 산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샘이 나는 곳에 ‘교(教)’자가 새겨진 돌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예교(禮教)물구렁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어원풀이] ‘예교+물+꾸렁’ 교(教)자가 새겨진, 물(샘), 꾸렁(구렁, 계곡)의 뜻을 가진다.

[유래담] 상걸리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샘에서 쉬어가면서 물을 마셔 목을 축였다. 바위가

큰 장마에 조금 움직였다. 옛날에는 이쪽 대룡산으로 해서 거두리와 상걸리가 길이 뚫려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는 등산객이 이 길을 따라 다닌다.

● 오리동(五里洞)

[별칭] 오리골

[형태] 마을

[위치] 거두1리 마을회관 앞부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오리골이라 하여 거두곡리에 있다고 했다.

● 오리오리

[형태] 들

[위치] 장승고댕이 너머에 있다.

[유래] 지금은 개발이 되어 기업체가 들어선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예전에는 논이 있었다.

● 윗거들

[별칭] 웃거들

[형태] 마을

[위치] 거두2리에 있는 방아골 밑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거들의 위쪽마을이라 했다.

● 응골

[형태] 골짜기

[유래] 금대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 밑으로 만천리가 펼쳐져 있다.

● 장애평(長艾坪)

[형태] 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장애벌이라 하여 후하리에 있다고 했다.

● 장승고댕이

[형태] 민속

[위치] 거두리 2구 내려가는 골목에 있었다.

[유래] 장승이 서 있던 그곳은 지금엔 마을회관이 들어서 있다.

● 적산

[별칭]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거두3리 지역이다. 뚝새골 옆에 있다.

[유래] 옛날 일본인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적산을 큰골이라고도 한다.

● 제주말뜰

[형태] 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제주말뜰 제주마평(濟州馬坪)이라 하여 후하리에 있다고 했다.

● 중두루

[형태] 들, 마을

[위치] 거두리 중간에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거두리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거두리 중간에 있는 들이라 했다.

[어원풀이] '중(中)+두루/들(野, 坪, 村)'로 분석된다.

● 증어거리(中魚巨里)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증어거리라 하여 후증리에 있다고 했다.

● 쥐역들

[별칭] 주역평(周易坪), 주역들

[형태] 들

[위치] 거두리에 있는 들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주역평(周易坪) 쥐역들이라 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거두리에 있는 들이라 했다.

[어원풀이] '쥐역+들'은 그 의미가 애매하다. '주역들'의 변이형이라면 '주역(駐驛), 주역(駐易)'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소로 시장을 옮겨 다니다가 말을 비꾸어 티는 곳이다.

● 집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룡산에 있는데 밭이 대부분이었다.

[유래] 집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해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 춘천교도소

[형태] 터

[위치] 동내면 신촌양지길 거두리와 신촌리의 경계 지역으로 거두리에 속한다.

[유래]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 2월에 통감부가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 산하의 춘천분감으로 개청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의 정식 명칭은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였다. 양구군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최도환이 이곳에서 옥사하였고, 강원도 지역의 3·1 운동 참가자들도 수감되었다. 1946년에 미군정이 춘천형무소로 승격시켰다. 제주 4·3 사건 관련 죄수들이 춘천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한국 전쟁 중 학살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1961년에 춘천교도소로 개편되었고, 1981년 7월에 현재의 위치인 동내면 거두리로 이전하였다.

● 충중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룡산 신촌리와 거두리 사이에 있는 골이다.

● 큰골

[별칭] 적산

[형태] 골짜기

[위치] 큰골은 거두1리 뚝새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거두3리이다.

[유래] 골짜기가 커서 큰골이라 했다. 큰골공원이
있다. 또 이곳에는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산이
라고 했다.

● 후상리(後上里)

[별칭] 방아골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방아골이라 하여 후상리
에 있다고 했다.

● 후하리(後下里)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자안말이라 하여 후하리
를 일컫고 있다.

위치와 현황 | 대부분의 지대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지형이다. 자연마을로는 다리목, 밤나무실, 배나무실, 웅곡 마을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동내(東內)에 웅곡(熊谷)이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는 동내면(東內面)에 고은동리(古隱洞里)와 후옹곡리(後熊谷里)로, 『춘천읍지』는 동내면(東內面) 후옹곡리(後熊谷里)로 표기하였다. 『춘천부지』는 고은(古隱), 『관동읍지』는 동내면의 고은동리(古隱洞里)와 후옹곡리(後熊谷里), 『조선지지자료』는 동내면의 고은동(古隱洞)으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부내면(府內面)의 고은리(古隱里), 『강원도지』는 춘천읍(春川邑)의 고은리(古隱里)로 표기하였다. 『수춘지』, 『춘주지』는 신동면(新東面) 고은리, 『춘천백년사』는 동내면 고은1리, 고은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고은리고 법정리는 고은1리, 고은2리다.

유래 | 곰실 또는 고은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은리(古隱里)라 하여 부내면에 편입되었다가 동내면으로 편입되었다.

● 걸은골

[별칭] 거랭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도둑골과 부채년골의 사이가 된다.

[유래] 거랭이(거령뱅이)가 흥년에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골짜기이다.

● 고은동(古隱洞)

[별칭] 곰실, 고은리, 웅곡(熊谷), 후웅곡리(後熊谷里), 고은동리(古隱洞里)

[형태] 마을

[위치] 춘천시 동내면지역이다. 주변에는 동내면의 신촌리, 사암리, 대룡산이 둘러싸고 있다.

[유래] 고은동 소재에 있으며 곰실이라 한다고 『조선지지자료』에 전한다.

[어원풀이] ‘고은(古隱)’은 ‘고은리(곰실)’의 음차자이다. ‘곰+실(室, 村)’로 분석되며 ‘곰’은 흔히 ‘곰(熊)’에 직결되곤 한다. 그 어원은 ‘곰/굼/감/검/굼/개바/굼마’ 등의 이형태를 가진 알타이어계 고어로 ‘승(崇)’의 뜻을 합유한 “k-m-”형으로 재구(再構) 된다. 곧 ‘곰’은 ‘높고 신성한 곳이나 대상’을 뜻한다. ‘곰실’은 춘천의 주봉 대룡산을 품고, 춘천을 관통하는 대룡산 공지천의 원류를 제공하는 ‘높고 신성한 곳’이다.

● 고은리 개울

[형태] 하천

[위치] 대룡산에서 발원하여 고은리 앞으로 흐르는 개울이다.

[유래] 서산발개울과 수레간개울이 합쳐져서 이루 어진 개울이다.

● 고은소류지

[별칭] 고은리 저수지

[형태] 못

[위치] 곰실 근처에 있는 연못이다. 고은리버스정류장 옆이다. 대룡산(899m) 등산의 출발점이다.

[유래]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고, 6.25한국전쟁 이후 주민들이 품을 각출하여 만들었으며, 약 삼십여 년 전에 보완을 했다.

● 곰실

[별칭] 웅곡(熊谷), 고은리

[형태] 마을

[위치] 고은리1반을 가리킨다. 땅이 평평하며 널찍하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웅곡(熊谷)이라 부른다고 했다.

[어원풀이] ‘고은동’ 참조.

● 관화현(觀華峴)

[형태]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은동에 속한다고 했다. 한글로는 관역고기라 했다.

● 굴양지

[형태] 마을

[위치] 서산발 너머에 있는 곳이다. 대룡산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나았다.

● 기목들

[별칭] 끼목들, 화찻간들

[형태] 들

[유래] 화찻간들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유래담] ‘화찻간들’의 별칭으로 ‘화차/화채, 상여’

가 ‘끼목들’에 있었다.

● 너브랭이

[별칭] 너브래, 광평(廣坪), 너브렁이

[형태] 마을

[위치] 지금의 고은리 3반을 가리킨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곰실 뒤에 있는 골짜기라 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서는 곰실 뒤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라 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한자로 광평(廣坪)이라 하고 고은동에 속하며 한글로는 너부렁이라 했다. 넓은 들이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어원풀이] ‘너브+랭이’로 ‘너브’는 ‘넓은’에서 온 말이고, ‘랭이’는 ‘나부랭이, 화랭이, 노랭이, 바랭이’ 등처럼 어근 뒤에 붙어 형상이나 바탕 등을 꾸미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너브랭이’는 ‘넓은 들’ 또는 ‘넓은 마을’ 정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대룡산샘터

[형태] 샘

[위치] 고은리에서 대룡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 중간쯤에 있는 샘터이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가 좌측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얇은 계곡에 물이 흐르는 샘이 있다.



대룡산 샘터

● 매바우

[형태] 바위

[위치] 곰실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고은리에 있는 바위라 했다.

● 무당굴터

[별칭] 무당굴

[형태] 굴

[위치] 고은리의 못 입구에서 약 400m 위에 위치해 있다. 부채년골에 있다.

[유래] 옛날 무당이 이 굴에서 제사를 지냈다.

[유래담] 높이 약 가로 약 3m, 깊이 약 2m, 높이 약 1m30cm 정도의 크기이다. 오른쪽으로는 시멘트로 된 작은 제단이 있고 안쪽으로는 돌로 제단을 쌓아놓았다. 왼쪽으로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다.



고은리 대룡산 무당굴

● 배바위

[형태] 바위

[위치] 산지박골 입구에서 산을 보면 산기슭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사람 배 모양으로 생겼다.

[유래담] 옛날에는 나무를 다 잘라 뱃감으로 썼는

데, 그 모양이 사람 배 모양으로 드러났다.

● 벼덩재

[별칭] 새벼덩

[형태] 터

[위치] 고은리에서 대룡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오른쪽에 있다.

[유래] 작은 밭이다.

● 병어리바우

[별칭] 병어리바위

[형태] 바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곱실에 있는 바위라 했다.

● 본부락

[형태] 마을

[위치] 『춘천의 지명유래』에 고은리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라 했다.

[어원풀이] ‘본부락’의 ‘부락’은 일본식 이름이다.

● 부채년골

[별칭] 부처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은리의 본 골짜기를 말한다. 가장 커다란 골짜기이다. 이곳으로 해서 대룡산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 있다.

[유래] 버스종점 부근에서 작은 개울을 지나 대룡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 무당들이 굿을 하던 무당굴이 입구에 있다. 옛날에는 부처를 놓았으나 누가 가져갔다.

[어원풀이] ‘부처+논(놓은)+골’로 분석된다.

● 북방령(北坊嶺)

[형태] 고개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고은동에 속한다고 나온다.

[유래] 한글로는 뒤빙이고기라 했다.

● 산지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은리 서산발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담] 산지박골은 동네사람들이 천렵을 하려 많이 놀러왔다. 계곡 안에는 폭포도 있고 너럭바위도 많이 깔려있다. 이 계곡을 따라 가면 입새에 배바위가 있다.

● 새벼덩

[형태] 마을, 들

[위치] 지금의 고은리 2반을 말한다. 부채년골 오른쪽에 있는 마을인데 폭포수 밑에 위치해 있다.

[유래] 예전에 새밭을 만들어서 불러진 이름이다. 밭을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새[草]가 많아서 불리는 이름이라 전해오기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곰실에 있는 벼덩이라 했다.

[어원풀이] ‘새+벼덩’, 공지천으로 흐르는 상류에 새벼덩천이 있다.

● 서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은리 저수지 맞은 편에 있다.

[유래] 저수지 맞은편에 있는 작은 산 뒤의 골짜기를 말한다.

● 서문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은리의 개울 건너 서쪽에 있는 골짜기가

좁은 곳이다.

● 서산말

[별칭] 서산밭, 서산밭, 양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레간 옆의 북쪽 방향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서산밭골 또는 양지골이라고도 하는데 해가 잘 드는 곳이라 한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 해를 잘 받는다.

● 서산밭개울

[형태] 하천

[유래] 서산밭에 있는 개울이다.

● 성당모퉁이

[형태] 길

[위치] 곱실공소 옆. ‘곱실공소’는 순환대로에서 고 은리 안쪽(동쪽)으로 300m 지점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성당 옆에 있는 모퉁이라 했다. 여기서 성당은 곱실공소이다.

● 소도둑골

[형태] 골짜기

[유래] 난리에 소를 잡아먹은 골짜기라 전해 온다. 골짜기라기보다는 벼덩이다. 산신당이 있다.

● 소삼밭

[형태]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곰실에 있는 산골짜기라 했다.

[어원풀이] ‘소(小)+삼(夢)+밭(田)’로 분석된다.

● 수레간

[별칭] 수래간, 수래관, 수뢰간, 수려간

[형태] 골짜기

[위치] 대룡산 밑 동쪽 부분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에서 가장 큰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3단 폭포가 있다. 새버덩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물이 흘러가는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수뢰간이라 하고 한자로는 수려간(水麗澗)으로 표기하고 고은동에 속해 있다고 했다. 폭포가 있어서 경치가 뛰어나고, 폭포 아래에는 꽤 넓은 시내가 형성되어 있다. 자갈이 굽게 깔리고 평평한 너럭바위가 있어서 놀기에 좋다. 계곡 옆에는 나무가 울창해서 그늘도 진다.

[어원풀이] ‘수레(水雷, 水麗)+간(澗)’으로 분석된다.

● 수레간개울

[형태] 하천

[유래] 수레간에 있는 개울이다.

● 수레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레간이 있는 대룡산 골짜기애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곰실 뒤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어원풀이] ‘수레+간+골’로 『조선지지자료』에는 고 은리에 수려간(水麗澗)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의하면 ‘수레(水麗)+간(澗)+골(谷)’로 물길이 아름다운 시내 골짜기인 ‘수레간에 있는 골짜기’가 된다.

● 수레간폭포

[형태] 폭포

[위치] 수레간 골짜기로 약 10여 분 오르면 볼 수가 있다.

[유래] 3단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는 약 15m 정도 된다. 수량이 많을 때는 장관을 이룬다.



수레간폭포

● 수리동

[형태] 산

[위치] 『한국지명총람』, 『춘천의 지명유래』에서는 곰실에 있는 산이라 했다.

[유래담] 고은리에 있는 산으로 수리동은 알 수 없지만, 대룡산에 수리봉(644m)은 있다.

● 아갈바우

[형태] 바위

[위치] 대룡산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아가리를 벌린 것 같은 모양의 바위라 했다.

[어원풀이] ‘아갈/아가리+바우(바위)’로 풀이할 수 있다.

● 아들바위

[형태] 바위

[위치] 산지박골 입구 계곡 옆 좌측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옛날에 아들 못 낳은 사람들이 와서 사과 배 등의 제물을 차리고 문창호지와 실타래를 달아놓고 기원을 했다.



아들바위

● 우와곡(牛臥谷)

[별칭] 소루골

[형태]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은동에 속하고, 한글로는 소루골이라 했다.

● 유기점(鎗器店)

[형태] 터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고은동에 있다고 했고 한글로는 유기점이라 했다.

[유래] 놋그릇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 자개울

[별칭] 자개동(自開洞)

[형태] 마을

[위치] 서문골 뒤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자개동(自開洞)이라 하여 고은동에 속하고, 한글로는 증기울이라 했다.

● 작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골 옆의 수레간 쪽의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담] 큰골에 비해서 골이 작다.

● 장앗벼덩

[별칭] 장앗벼렁

[형태] 들

[위치] 『한국지명총람』에서 곱실에 있는 벼덩이라 했다.

[어원풀이] ‘곱실’은 고은리에서 대룡산 쪽 ‘고은소류지’ 앞 마을이고, ‘장앗’을 ‘장안’의 변이형으로 본다면 ‘장앗벼덩’과 ‘곱실’의 위치가 전혀 걸맞지 않다.

● 장애언(長崖堰)

[형태] 제방

[위치] 고은리에 있던 제언(堤堰, 둑)이다.

[유래] 조선시대에 쌓았던 제방이다.

[유래담] 『수춘지』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신동면 지금의 고은리(古隱里)에 있다. 속언(俗言)에 전하기를, 옛날에 부사(府使) 맹효남(孟孝男)이 대룡산(大龍山)에서 절벽을 따라 돌을 쌓고 나무를 베고 샘물을 끌어들여 둑을 만들고 물을 저장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밭을 개간하게 했다고 한다.

● 고은리저수지

[별칭] 고은리소류지

[형태] 못

[위치] 고은리 버스종점 밑에 있는 저수지이다.

[유래] 원래는 논이었는데, 저수지 아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었다.

● 칠원윤씨동천비각(漆原尹氏東川碑閣)

[형태] 민속

[위치] 대룡산 밑 동쪽 부분에 있는 사당이다.

[유래] 통정대부 윤사지(尹泗智)와 그의 부인 청주 손씨(孫氏)의 비각이 있다. 동천서예(東川書藝)라는 현판과 동천서예기(東川書藝記)가 있다.

[유래담] 고을 원님 세 분을 낸 윤 씨의 묘가 있다. 이곳에서 해마다 시제를 지낸다고 한다. 사당 밑에 사는 사람이 토지를 사용하고 제사를 준비한다. 위 토를 둔 것이다. 위토가 많아서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칠원윤씨동천비각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레간과 서산발 사이에 놓여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가 작은 골에 비해서 크다.

[유래담] 마을에서 보면 골이 크다.

● 향군저수지

[별칭] 향군소류지, 향군마을소류지

[형태] 저수지

[위치] 신촌리에서 외곽도로를 지나 고은리로 들어가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다. 길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유래] 1963년 3월 10일 기공하여 9월 20일에 완공한 향군모범농장 인공저수지이다.

[유래담]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사용해서 저수지를 팠다. 7천 평 규모이다. 1963년 고은리와 신촌리 일대의 땅을 개간하여 실업향군 50세대에게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농시를 짓도록 하였다. 이때 대룡산 수뢰간의 물을 끌어들여서 저수지를 만들고 이 저수지 물로 농시를 지었다. 지금은 원창저수지의 물을 끌어 쓰고 있다.



향군저수지 전경

라 했다.

[어원풀이] ‘화차/화채(상여)+ㅅ+간(秆)+들(野,坪)’, 끼목들은 정확히 알 수 없다.

● 호성암

[형태] 터

[위치] 『수춘지』에는 대룡산에 있다는 호성암(護聖岩)을 소개하고 있다.

[유래담] 『수춘지』에는 “예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지계사(池繼泗)가 여러 성현의 위판(位版)을 지고 대룡산의 암혈(巖穴) 중에서 화를 피했으므로 이름하였다.”고 했다.

● 화찻간들

[별칭] 끼목들

[형태] 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상엿집이 있었음이

위치와 현황 | 대룡산과 금병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원 농촌 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안마을, 태백동, 안골, 암실, 점말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동내(東內)에 사리아(沙里牙)가 있는데 사암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여지도서』는 동내면(東內面) 사열리(沙悅里), 암곡리(巖谷里), 내동리(內洞里)로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사탄리(沙灘里), 암우리(巖右里), 내동리(內洞里)로 표기하였고, 『춘천읍지』는 동내면(東內面) 사열리(沙悅里), 내동리(內洞里)로,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내면(東內面) 사열리(沙悅里), 암곡리(巖谷里), 내동리(內洞里)로, 『조선지지자료』는 동내면(東內面) 내동리(內洞里), 암곡리(岩谷里), 사열리(沙悅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부내면(府內面) 사암리(沙岩里)로, 『강원도지』는 춘천읍(春川邑) 사암리(沙岩里)로, 『수춘지』는 신동면(新東面) 사암리(沙岩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는 신동면(新東面) 사암1리, 사암2리, 사암3리, 사암4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사암리고 법정리는 사암1리, 사암2리, 사암3리, 사암4리다.

유래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동리(內東里), 사열리(沙悅里), 암곡리(岩谷里)를 병합하여 사열(沙悅)과 암곡(岩谷)의 이름을 따서 사암리(沙岩里)라 했다.

● 가래울들

[형태] 들

[위치] 사암리, 나래네농원 끼고 상류로 올라가는 점말길 아래에 있는 들이다.



강원도청공무원복지조림지

● 가막골

[별칭] 개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사래울 뒤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서는 개막골이라고도 부른다고 덧붙였다.

[어원풀이] '감+악+골'로 분석되며 '감'은 '곰'과 동일한 어원형이고, '-악'은 명사과생접미사이며, 여기에 '골(골짜기)'로서 그 지형적 특징을 드러낸 것이다. '사래울' 뒤, 대룡산(899m) 자락 수리봉(644m) 아래 '신령스러운 서기가 깃든(崇)' 깊숙한 골짜기일 것이다.

● 건너말

[형태] 마을

[위치] 사암4리 자연마을이다. 본 마을 사암1리 남서쪽 건너편에 현재(2020년) '부홍정미소' 주위에 마을이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 검정동(檢井洞)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금정골이라 하고 암실리에 있다고 했다.

● 괴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사암리에 있는 골짜기라고 했다.

[유래] 고양이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했다.

[어원풀이] '괴(貓)+박(바위, 岩)+골(谷)'로 분석한다. '괴 밥 먹듯 한다'처럼 '고'는 일부 속담에 쓰이는 '고양이'이다. '괴박골/괴바우골'은 고양이와 관련된 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 갈기리못

[형태] 못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사래울에 있는 못이라 했다.

● 강원도청공무원복지조림지

[형태] 숲

[위치] 깃대봉에서 내려와 갈림길이 나오는데, 수리봉으로 오르다 중간 지점에 있다.

[유래] 잣나무가 잘 기꾸어져 있다.

● 내동(來洞)

[별칭] 안골

[형태] 마을

[위치] 사암2리마을회관에서 4시 방향 동쪽으로 1.1km 정도 거리에 있다. 중앙고속도로톨게이트 아래(남쪽) 가까이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암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어원풀이] '안골'의 한자 지명이다.

로 들어와 화전을 일구고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산이 온통 헐벗어 흥수가 지면 흙이 밀려 내려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기도 했다.



수리봉비

● 너래바우폭포

[형태] 폭포

[유래] 넓은 바위가 있는 곳에 폭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넓은 바위가 있는 폭포라 했다.

[어원풀이] '너래[넓은, 廣]+바우[岩]+폭포[瀑布]'로 분석된다.

● 대룡산 수리봉 산림욕장

[형태] 숲

[위치] 대룡산 정상 능선 수리봉으로 올라가는 길목 아래로 만들어진 산림욕장이다.

[유래담] 나무가 울창해서 산림욕을 하기에 좋다. 시민들이 걷기에 좋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대룡산 수리봉산림욕장 안내판

● 대룡산 수리봉

[형태] 산

[위치] 산

[유래] 대룡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다.

[유래담] 군부대가 있어서 민간인이 출입을 할 수가 없다.

● 대룡산비

[형태] 비석

[위치] 해발 899m 높이의 깃대봉에 있다.

[유래] 춘천시민산악회가 2004년 4월 25일에 세웠다. 전망대가 있어 춘천시 일대가 눈에 훤히 들

어온다. 좌측으로는 거두리의 명봉이 있고 우측으로는 가락재로 가는 길이 있다.



대룡산비

● 대룡산철쭉단지

[형태] 숲

[위치] 대룡산 정상 부근이다.

[유래] 대룡산 정상일원에 가면 춘천시에서 철쭉과 주목을 심었다.

[유래담] 철쭉은 18,630그루, 주목은 50그루를 심었다. 2009년 3월 23일부터 5월 2일에 식목을 했다. 목적은 춘천의 자랑인 대룡산에 아름다운 휴식처를 조성하여 춘천시민과 방문객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었다.



대룡산철쭉단지 안내문

● 도독별들

[형태] 들

[위치] 사암2리마을회관 옆 공지천을 따라 조금 올라가다가 남쪽에 있는 들이다.

● 돌방재공원

[형태] 공원

[위치] 수살대를 지나 마을 끝부분에 있다.

● 동고현(東古峴)

[형태]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동고기라 하여 사열리에 있다고 했다.

● 동동뫼

[형태] 무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암리에 있는 옛 무덤이라 했다.

[어원풀이] ‘동+동+뫼/묘(墓)’로 분석하고, ‘동동’은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동쪽 마을에 있는 묘’일 경우 ‘동(東)+동(洞, 村)’으로 해석한다. 동동은 ‘동동산’, ‘딴뫼’, ‘딴산’과 같이 홀로 있는 큰 무덤이나 산을 일컫는다.

● 동두막

[별칭] 동두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사래울 위에 있는 골짜기라 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사래울 뒤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유래담] ‘동두막/동두막골’은 ‘사래울’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런데 현재(2020년) ‘사래울’ 주위는 남동쪽 일부 야트막한 구릉을 제외하고는 크게 개

발되어 그대로 예전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 두둑들

[별칭] 두둑벌들

[형태] 들

[위치] 사암2리에서 4시 방향 동쪽에 있는 넓은 ‘두둑논’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들이라 했다.

[어원풀이] ‘두둑+들’의 ‘두둑’은 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두도록하게 만든 것이다.

● 둔덕들

[형태] 들

[위치] 사암2리마을회관에서 중앙고속도로 방향으로 ‘두둑벌들’ 북쪽에 있는 들이다.

● 둔지동(屯之洞)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둔지골이라 하여 사열리에 있다고 했다.

● 들우물

[형태] 샘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들에 있는 우물이라 했다.

[어원풀이] ‘들[野,坪]+우물[井]’로 분석된다.

● 매막재들

[별칭] 내막재들, 매막재

[위치] 사암3리 오리골못과 중앙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들이다. 수리봉인 매봉으로 올라가는 고갯길 막다른 입구이다.

● 바르르미들

[형태] 들,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사래울에 있는 들이라 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사래울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어원풀이] ‘바르름+이 +들’로 분석되는 경우 ‘곧고 평평한 들’일 가능성 있다.

● 복거리들

[형태] 들

[위치] 사암4리마을회관 앞에 있는 들이다.

[유래담] 옆으로 공치천이 흐른다.

● 복바우

[형태] 바위

[위치] 사암3리 마을 회관 앞 느티나무 부근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담] 예전에는 이 바위가 아주 커다랗고 해서 아이들이 개울에서 멱을 감다가 추운 몸을 바위에 말리기도 했다. 너럭바위쯤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바위 아래쪽에 갈라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느티나무(약 30여년 생)를 심어 지금은 커다란 그늘을 만드는 나무로 자라 있다.



복바위

● 복숭아꽃수레마을

[형태] 마을

[위치] 사암2리이다.

[유래] 예전에 장승으로 올라가는 길이 수레도 겨우 올라갈 정도였다. 지금은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이름을 수레와 이 마을의 특산물이 복숭아꽃이라는 이름을 따서 복숭아꽃수레마을이 된 것이다. 사암2리에서 해마다 복사꽃축제를 열고 있다.

● 사래울

[별칭] 사리아(沙里牙), 사열(沙悅), 사례울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암실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사암1리이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사열리(沙悅里) 사례울이라 하여 사열리에 있다고 했다.

[유래] ‘사암리’의 명칭은 ‘사래울’과 ‘암실’에서 어두 음절을 결합한 것이다.

[어원풀이] ‘사래+울(고을)’로 분석되며, ‘사래/사리아(沙里牙)/사열(沙悅)’ 등의 변이형을 가지며, 음차 표기된 한자는 그 어원과는 무관하다.

‘사래’는 ‘쇠’의 고어로서 ‘사래>쇠(‘쇠’ 탈락)’의 변천을 가지며, 지명에서는 주로 ‘쇠나 금의 산지’를 내포한다.

윤선도의 고시조에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하나니”에서 ‘사래’는 ‘길게 늘어진 산등성이 아래 뱀골인 이랑’을 뜻하며, 지명에서는 주로 ‘마을’보다는 ‘뜰’을 가리킬 때 쓰인다.

● 사암굿당

[형태] 민속

[위치] 원창고개로 오르는 옛길을 따라 가다가 계곡으로 들어가면 학곡리약수터가 나온다. 사암약수터라고도 한다. 학곡리약수터에서 원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다 우측으로 약 100여 미터 가다 보면 보인다. 학곡리와 사암리의 경계지역으로 학곡리 경계에서 약 300m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닦은 길을 따라 가다가 오른쪽 계곡에 있다. 이곳 역시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에 굿당을 만들어 두었다.

[유래] 무당들이 굿을 하는 장소이다.

[유래답] 학곡리 쪽에서 굿을 하던 무당들이 사암리 쪽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아카시아나무 밑에 2단으로 제단이 차려져 있고 그 우측으로 다시 1단으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지금도 전국의 무당들이 와서 치성을 드린다고 알려져 있다.



사암리 굿당

● 사암리 서낭나무

[형태] 민속

[위치] 수살배기를 지나 마을로 조금 더 들어가면 길가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이다.

● 사암약수터

[형태] 샘

[위치] 원창고개로 넘어가는 길 왼쪽에 있었다.

[유래] 지금은 집이 들어서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 사암1교

[형태] 다리

[위치] 학곡2리마을회관에서 사암4리마을회관 중간쯤에 있는 공지천 지류 위에 건설된 다리이다.

[유래담] 인근에 오래된 부흥정미소가 있다.

● 샛골

[형태] 마을

[위치] 사암3리 지금의 대룡산 군부대에서부터 난 골짜기이다. 대룡산 잔등에 해당한다. 기도원 맞은 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사래울에 떨린 작은 마을이라 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서는 샛골에 있는 고개를 샛골고개라 부른다고 덧붙였다.

[어원풀이] ‘샛골’은 두 공지천 지류 ‘사이/새(間)’에 있는 골(작은 마을)이다.

● 샛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샛골에 있는 고개라고 『한국지명총람』에서 기술했다.

[유래담] ‘샛골고개’는 야트막한 구릉을 넘어가는 고갯길인 듯싶다.

● 서거론리(西巨論里)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서거론리가 기재되어 있다.

● 서거론리현(西巨論里峴)

[형태]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서거론이고기라 하여 암실에 있다고 했다.

● 서낭나무

[형태] 민속

[위치] 사암리에 있는 소나무로 마을로 들어가는 길가에 있다.

[유래] 사암리 마을로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 큰 소나무로 마을에서 제사를 받던 곳이다.



서낭나무

● 석두바우

[형태] 바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암실에 있는 바위라 했다.

[유래] 사람 머리 모양의 바위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암실’에 있는 바위(바우)이니 ‘석두’는 석두(石頭)이다.

● 세거리

[형태] 마을

[위치] 사암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암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세 갈래 길이 나 있음”이라 했다.

[어원풀이] 사암리에서 원창리 수리봉(644m) 북쪽 도로지명 ‘대룡산길’ 끝을 넘어 올라가다가 세거리 갈림길에서 북동쪽이 ‘세거리’이고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원창저수지에 닿는다.

● 세거리개울

[형태] 하천

[위치] 수리봉 밑 세거리에 있는 개울이다.

[유래] 세거리에 있는 개울이다.

● 송무평(松茂坪)

[형태] 들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송무뜰이라 하여 사열리에 있다고 했다.

● 쟁면들

[형태] 들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사래울 부근에 있는 들이라 했다.

[어원풀이] ‘쟁면’은 방언형이거나 축약형(Contraction) 일 가능성 있는 특이형이다.

[유래담] ‘사래울’ 부근에 있는 들인데, 그 일대는 현재(2020년) 개발로 많이 변개했다.

● 수리바우굴

[형태] 굴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독수리처럼 생긴 바위 밑에 있는 굴이라 했다.

[어원풀이] ‘수리(독수리)+바우(岩)+굴(窟)’로 분석된다.

● 수리봉

[형태] 산

[위치] ‘수리봉(644m)’의 소재지는 사암리와 동산면 원창리의 경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이 산 바위굴에서 독수리가 해마다 새끼를 많이 친다 함이라 했다.

● 수리봉산림욕장 잣나무길

[형태] 숲

[위치] 강원도공무원복지조림지를 지나 약 오십 여미터 가다보면 잣나무 숲길이 나타난다.

[유래담] 고즈넉하여 산책을 하기에 알맞다.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에 들어 마치 원시림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갖게 한다.



산림욕장의 잣나무길

● 수살배기

[별칭] 수살대

[형태] 민속

[위치] 사암리에 있는 장승과 솟대를 세워 둔 곳이다.

[유래] 마을에 들어오는 살(煞)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승과 솟대이다.

[유래담] 수살배기라는 곳인데 지금도 수살대 안내판과 함께 세워져 있다. 안내판에는 수살대라 크게 쓰고, “재앙이나 병마를 막아 동네를 수호한다고



사암리 수살대

하여 만든 긴 장대나 나무, 그 위에 물새를 엎어 놓는데 흔히 장승과 함께 세운다. 또한 이 지역이 수살대가 여러 곳에 있었으므로 옛 지명이 수살배기라 하였다.”고 했다.

● 신선바우

[형태] 바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암실에 있는 바위라 했다.

[어원풀이] ‘신선(神仙)+바우[岩]’로 분석된다.

● 아들바위

[형태] 바위

[위치] 대룡산에서 중앙고속도로 쪽 능선을 타고 조금 내려오면 볼 수 있는 바위이다.

● 안골

[별칭] 안마을, 내동(內洞)

[형태] 마을

[위치] 사암2리마을회관에서 4시 방향 동쪽으로 1.1km 정도 거리에 있다. 중앙고속도로 툴게이트 아래(남쪽) 가까이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사암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사암리에는 ‘안골’과 ‘안마을’이 따로 있다.

● 안마을

[별칭] 내동리(內洞里)

[형태] 마을

[위치] 사암1리 자연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사암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한글로 안솔로 표기하고 내동리에 있다고 했다.

● 암실(岩室)

[별칭] 암곡촌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사래울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사암3리이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암곡리에 있다고 했다.

[유래] 바위가 많고 지형이 둥글게 생겼다고 했다.

[어원풀이] ‘암(岩)+실(室, 村)’은 그 지형(골짜기)을 포함한 지명 ‘암(바위)+곡(골짜기)+촌(마을)’과 같다. ‘사암리’의 명칭은 ‘사래울’과 ‘암실’에서 어두 음절을 결합한 것이다.

● 암실개울

[형태] 하천

[위치] 사암3리 앞을 흐르는 개울이다.

● 약수교

[형태] 다리

[위치] 사암4리마을회관에서 공지천 최상류 가까이에 있는 다리이며, 복거리들 바로 위쪽에 있다.

● 약물샘

[별칭] 약물터

[형태] 샘

[위치] 사암리 약물터골에 있는 약수이다.

[유래] 2021년 정월대보름 행사로 양력2월 26일 사암리 농악보존회와 나라풍물굿에서 전국5대강 벌원지 순환상생굿으로 ‘2021년 나라샘굿’을 했다.



2021 나라삼굿 포스터

● 약수터골

[별칭] 약물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학곡리와 경계에 있는 원창고개로 오르는 옛 지름길 옆에 있다.

[유래담] 학곡리 약수터골이라고도 한다. 무속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곳이다.

● 어언곡(於彦谷)

[형태]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어언골이라 하고 내동리에 있다고 했다.

● 연장골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사래울 뒤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현재(2020년) 사암리 동쪽 끝에 있는 5가구 작은 마을로, 중앙고속도로 동쪽 300m 거리에 있다. 그 앞에 순복음춘천교회빌립보기도원이 자리했다.

● 오리골

[별칭] 오리포(五里浦), 오릿개, 오릿갯못

[형태] 못

[위치] 사암1리 안마을 북쪽 바로 위에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사래울 부근에 있는 들을 오릿갯들, 오릿개에 있는 못을 오릿갯못이라 했다. 『조선지지자료』에 오리기라 하여 사열리에 있다고 했다. 『한국의 지명유래』에는 오리골이 없고, 오릿갯들(사래울 부근에 있는 들)과 오릿갯못(오릿개에 있는 못)이라 기록했다.

● 오릿개들

[형태] 들

[위치] ‘오리갯들’은 사암리 본 마을인 ‘사암1리’ 남쪽으로 800m 정도 떨어져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래울 부근에 있는 들이라 했다.

● 오릿갯못

[형태] 못

[위치] 사암1리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800m 정도에 있다. 공지천 상류로 올라가다가 중앙고속도로 못 미쳐에 있는 연못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오릿갯에 있는 못이라 했다.
[어원풀이] ‘오리+ㅅ+개+ㅅ+못’으로 분석하며 지금(2020년)은 ‘오리골못’으로 부른다.

● 원창현(原昌峴)

[별칭] 원창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사암리에서 동산면 원창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금은 길이 학곡리에서 곧장 뚫려 고개를 넘는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원창고기라 하여 사열리에 있다고 했다.

● 원텅고개

[별칭] 원창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학곡리와 원창리로 오가는 고개이다. 사암리도 조금 걸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원텅으로 가는 고개라 했다. 원창고개와 같은 고개로 표기만 다르다.

[유래답] ‘원텅고개’는 ‘원창고개’로, 동내면 학곡리와 동산면 원창리를 넘나드는 고갯길이며, 사암리는 그 초입 언저리를 같이 하고 있다.

● 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사래울 뒤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 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사암3리의 개울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독대체험마을

[형태] 마을

[위치] 돌방재공원 위쪽으로 약 150여미터 가면 있다.

[유래] 이곳에서 장(醬)에 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장승

[별칭] 장승제터, 거리제터

[형태] 민속

[위치] 수살대가 있는 곳이다.

[유래답] 원래는 수살대 자리에 있는 장승에서 장승제를 지내다 지금의 마을회관 앞으로 가져와서 거리제를 지낸다.

● 장승평(長承坪)

[형태] 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장승뜰이라 하여 암실에 있다고 했다.

● 절골

[형태] 마을

[위치] 부대가 있는 산 쪽으로 올라가다 지금의 기도원이 있는 자리를 밀한다.

[유래답] 예전에 이곳에 여섯 집이 살았다고 한다. 지금은 부대가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

● 점말

[별칭] 옹기점리, 점촌(店村)

[형태] 마을

[위치] 사암4리 마을회관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옹기점이 있던 마을이라 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옹기점리(甕器店里)라고 하고 옹기점말이라 하여 사열리에 있다고 했다. 인근 고은리에는 천주교인들이 옹기를 구워 팔았고, 그곳에 곱실공소가 있다.

[어원풀이] ‘옹기+점(店)+말(마을)’로 분석된다.

● 주택

[형태] 마을

[위치] 사암3리에 있는 마을이다. 대룡산 입구에 있다.

[유래] 화전정리를 하면서 화전민 정착촌을 만든 마을의 주택이다. 이 주택을 그냥 주택이라 불렀다.

[유래답] 이 마을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난 다음 대룡산에 살던 화전민이었는데 70년대 산림 정리 때 정부에서 40만원씩을 주어 이주하게 한 곳이라 한다. 화전민의 호수는 약 70호

정도였는데 보상을 받은 일부는 타지로 나가고 일부는 이 '주택'이란 곳에 정착을 했다. 지금도 약십여 호가 남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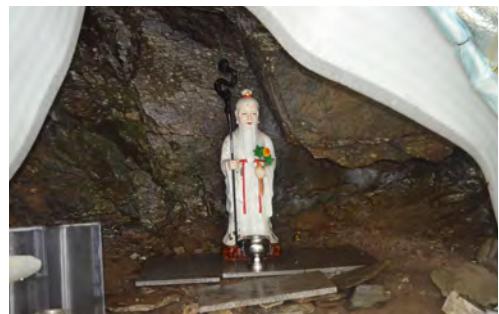
화전민 주택

● 지당골

[별칭] 지장골

[위치] 사암3리 위쪽으로 난 산신제를 지내는 골짜기이다. 대룡산 입구에서 시작한다.

[유래] 산신당이 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굴 안쪽



지당굴 바깥 모습

● 지당굴

[별칭] 바우굴

[형태] 굴, 민속

[위치] 마을 입구에서 왼쪽으로 약 200m쯤 가면 건너편에 있다.

[유래]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굴이다.

● 지둔지(地屯池)

[형태] 못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디둔지라 하여 사열리에 있다고 했다.

● 천도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당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사암3리 마을 회관 뒤쪽에 있으나 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다. 복숭아나무가 많다.

● 칡밭

[형태] 골짜기

[위치] 지금의 군부대 밑에 위치해 있다.

[유래] 칡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KBS 대룡산 종계소

[형태] 터

[위치] 대룡산으로 오르다 9부 능선쯤에 있다.

[유래] KBS, SBS, MBC, G1, TBN 등 여러 방송사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종계소 표지판

● 탄약교

[형태] 다리

[위치] 학곡2리마을회관과 순환대로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 태백교

[형태] 다리

[위치] 사암2리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는 다리이다.

[유래] 태백동에 있어서 태백교라 한다.

● 태백동(太白洞)

[별칭] 태백, 태박, 태백당리(太白堂里)

[형태] 마을

[위치] 안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사암2리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태백당리(太白堂里)라고 한글로 턱박당리라 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안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안마을’ 남서쪽 엔 현재(2020년) ‘부홍정미소’가 있는 마을이 있다.

[어원풀이] ‘태백+동’으로 분석된다. ‘태백’은 ‘솟대배

기’가 발음나는 대로 ‘소태배기’로 불리다가 ‘소’가 생략되면서 ‘태배기’, ‘태백이’로 불린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통수골

[별칭] 통수곡(通水谷)

[형태]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통수곡(通水谷)이라 하고 한글로 통수골로 쓰고 내동리에 있다고 했다.

● 피난굴

[별칭] 금광굴

[위치] 수리봉 못 가서 대룡산 샛골 오른쪽에 있다.

[유래] 6.25한국전쟁 때 피난을 했다.

[유래답] 예전에 금광 자리였다고 한다. 지금은 굴 입구가 좁아져서 사람이 구부리고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면 서서 갈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금을 캤다.

● 피목현(皮木峴)

[형태] 고개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가죽나무고기라 하여 사열리에 있다고 했다.

● 해골터들

[형태] 들

[위치] 학곡2리마을회관에서 공지천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 작은 구릉 앞에 있는 들이다.

● 호랑바우굴

[형태]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했다.

[어원풀이] ‘호랑(虎)+바우(岩)+굴(窟)’로 분석된다.

위치와 현황 | 대부분 지역이 평지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서쪽으로 신촌천이 흐르고 근처에 방아골소류지가 있다. 자연마을로 뒷골, 서말, 장안마을, 후하리(後下里)가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는 동내면(東內面)에 신촌리(新村里), 후중리(後中里), 후하리(後下里)로 표기했는데, 『강원도지지조서』에선 부내면(府內面) 신촌리(新村里)로 통폐합됐다. 『강원도지』는 춘천읍(春川邑) 신촌리(新村里)로, 『수춘지』는 신동면(新東面) 신촌리(新村里)로 표기했다. 『춘주지』는 신동면(新東面) 신촌1리, 신촌2리, 신촌3리로, 『춘천백년사』는 동내면 신촌1리, 신촌2리, 신촌3리로 표기했다. 현재 행정리는 신촌리이고 법정리는 신촌1리, 신촌2리, 신촌3리, 신촌4리이다,

유래 |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새말 또는 신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후중리, 후하리를 병합하면서 신촌리라 하였다.

● 가마바위

[형태] 바위

[위치] 신촌리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가마처럼 생겨서 이름이 붙여졌다.

[유래답] 가마바위와 가마바위공원은 조사결과 거두리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지명총람』에는 신촌리에 가마바우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가마바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감투니고개

[형태] 고개

[위치] 상걸리 넘어가는 마루턱에 위치해 있다.

[유래] 예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 감투만큼 물 위로 솟아나왔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 광산굴

[형태] 굴

[위치] 신촌리에서 대룡산으로 오르는 입구 계곡 옆에 있다.

[유래] 일제 강점기 때 굴을 뚫다가 돌이 나쁜 것이어서 그만 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폐광 처리되어 철문으로 막아져 있다.



광산굴

● 괴바우

[별칭] 계바우

[형태] 바위

[위치] 활공장 근처에 있다.

[유래] 모양이 바닷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한다. 사람이 여나쁜 명이 앓을 정도로 넓다.

● 굴양지

[별칭] 굴낭지

[형태] 골짜기

[위치] 신촌리 대룡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굴양지 서낭당

[형태] 민속

[위치] 굴양지에 서낭당이 있었다.

[유래] 1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 때 이곳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던 화전민들이 약 20여 호 살며 제를 지냈다.

● 깃대봉

[형태] 산

[위치] 대룡산에 위치해 있다. 대룡산 정상의 봉우리를 깃대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물이 넘쳐 깃대만큼 솟아나 이름이 붙여졌다.

● 녹두봉

[형태] 산

[위치] 대룡산에 위치해 있다.

[유래] 물이 넘쳐 콩알만큼 봉우리가 보여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유래답] 옛날의 홍수설화가 지명의 유래에 담겨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지구를 덮었을 때 이 봉우리가 녹두인 콩알만큼 남았다고 한다.

● 덕두리

[형태] 산

[유래] 대룡산 밑의 능선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동내면사무소 내 합기옹선수 마라톤제패기념비, 방향봉여사공덕비, 윤주원선생공덕비, 전면장박규철송덕비

● 독바우

[형태] 바위

[위치] 신촌리에 있다.

[유래담] 사람 여나쁜 명이 합칠 정도의 크기를 가진 바위이다.

● 뜻골

[별칭] 독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촌리에서 산 쪽으로 우측에 위치해 있다. 자개울 안마을을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

● 동우리뫼

[형태] 무덤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서말 복판에 있는 무덤이라 했다.

[유래담] ‘동우리뫼(묘)’가 있는 ‘서말’ 근처는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음식점들과 가옥들이 길가를 따라 늘어서 있다. 묘는 흔적도 없다.

● 동내면사무소

[별칭] 동내면행정복지센터

[형태] 건물

[위치] 동내면사무소는 동내면 신촌리에 있다.

[유래] 동내면을 관할하는 면사무소이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4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합기용선수 마라톤세계제패비, 방향봉 여사 공덕비, 윤주원 선생 공덕비, 전 면장 박규철 송덕비이다.



동내면사무소

● 둑새골고개

[형태]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둑시골고기라 하여 신촌리에 있다고 했다.

● 뒷골

[별칭] 뒤클, 후동(後洞), 후중리(後中里)

[형태] 마을

[위치] 신촌리에서 가장 뒤에 있다. 신촌1리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신천리의 뒤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자개울을 포함하여 장안말 위쪽에 있다. 신촌리에서 면적이 가장 넓다. 거두3리 방애골이 경계이다.

[어원풀이] 후동(後洞)은 뒷골의 한자 표기이다.

● 뒷골느티나무

[형태] 민속

[위치] 뒷골 입구 오른쪽에 있다. 약 백여 년이 넘은 나무이다.

[유래] 예전에 이 자리에 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느티나무를 베어 깎아 마차 바퀴로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그 후 다시 그 자리에 움이 나서 자란 것이 오늘날의 뒷골느티나무이다.



느티나무

● 뒷골거리제사터

[형태] 터, 민속

[위치] 마을 삼거리에서 1년에 한번 2월 초하룻날 저녁에 지냈다.

● 뒷골서낭나무

[형태] 민속

[위치] 뒷골에 있는 소나무이다.

● 뚝셋골

[별칭] 둑셋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거두리와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어원풀이] ‘뚝/뚝+새/사이+ㅅ+골’로 분석된다.

● 몽내미구령이

[형태] 골짜기

[위치] 비선모골 위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골짜기이다.

● 목너메

[형태] 고개

[위치] 자개울에서 광산골로 넘어가는 곳을 가리킨다.

● 물마른골

[형태] 골짜기

[유래] 대룡산에 위치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귀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 바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촌1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촌1리에서 가장 커다란 골짜기이기도 하다.

[유래] 골이 깊고 곧장 뻗어 있어서 유래된 이름이다.

● 방고개

[별칭] 방고개현(方古介峴)

[형태] 고개

[위치] 거두리와의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거두리와의 경계에 있는 고개라 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방고기| 방고개현(方古介峴)이라 했다.

● 병풍바우

[형태] 바위

[위치] 아갈바우 옆에 위치해 있다.

[유래] 병풍처럼 생겨서 이름 붙여졌다.

● 비선모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룡산 밑의 골짜기이다.

[유래]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많이 와서 이름이 붙었다.

● 산수빌

[형태] 건물

[위치] 산수빌은 신촌 4리이다.

[유래] 신촌리에 있는 아파트이다. 이곳에 2리와 4리가 있다.

● 새말

[별칭] 신촌(新村)

[형태] 마을

[위치] 동내면 신촌리

[유래] 신촌리 ‘신촌’의 고유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신촌리라 했다.

● 새말쉼터

[형태] 공원

[위치] 신촌리 느티나무 앞에 세운 쉼터이다.

[유래] 느티나무 앞에 정자각을 세우고 ‘새말쉼터’라 썼다.



새말쉼터

● 서낭나무

[형태] 민속

[위치] 뒤흘에 위치해 있다.

● 서말

[형태] 마을

[위치] 장안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즉 뒤흘 밑에 위치해 있으며, 대룡산막국수에서 동내 초등학교 앞 다리까지 경계를 짓는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장안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했다.

[유래] 서(徐) 씨가 많이 살아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서말이라 하여 신촌리를 일컫고 있다.

● 설통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룡산에 위치해 있다.

[유래] 벌통을 많이 놓아서 이름이 붙여졌다.
[어원풀이] ‘설통(벌통)+바우+골’로 분석된다.

● 소등지

[별칭] 소능지

[위치] 뒤흘의 안마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이곳을 지나가면 거두리가 나온다.

[유래] 소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름이 붙여졌다.

● 쇠죽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룡산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이다.

● 신촌천(新村川)

[형태] 하천

[위치] 신촌리 앞으로 흐르는 내이다.

[유래담] 대룡산에서 발원하여 신촌리 끝자락 극동 아파트 앞까지 이어지다가 공지천과 합류한다. 하천 옆에는 신촌천이라는 안내판이 있다.



신촌천 안내판

● 아갈바우

[형태] 바위

[위치] 광산골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모양이 아가리를 벌린 모양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아갈(아가리)+바우’로 분석된다.

● 안골

[형태] 바위

[유래] 신촌리의 안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 약물구령

[형태] 샘

[위치] 신촌1리에서 좌측에 위치해 있다.

[유래] 웃이 올랐을 때 먹고 씻어 효험을 본 약물이 있던 샘이다. 예전에 이곳에 약물이 솟았는데, 웃 같은 것이 오르면 와서 그 몸을 씻고 물을 마시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러나 지금은 땅이 파헤쳐지고 해서 사라지고 없다.

●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장안말 위쪽에 위치해 있다. 신촌1리이다.

● 자개울

[별칭] 자개울골

[위치] 신촌1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룡산 밑 입구 부분에 위치해 있다. 광산골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대룡산 활공장에서 이룩한 행글라이더가 착륙하는 대룡산 활공 착륙장 뒤쪽이다.

[유래] 일설에는 이곳에 자갈이 많은 골짜기여서 명명되었다고 한다.

● 자개울약물

[별칭] 자개울샘물

[유래담] 땀띠가 날 때 세수하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솟아나와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했고 여름에는 차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왔다. 가마를 타고 온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물을 마시고 낫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사라지고 없다.

● 장승배기

[형태] 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장승이 서 있던 들이라 했다.

[어원풀이] ‘장승+배기’로 분석한다.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풋말로,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수(里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대개 남녀로 쌍을 이루어 한 기둥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또 한 기둥에는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라고 새긴다. 지명



신촌천과 사암천이 만나는 합수머리, 안쪽이 장안들

접미사 ‘-배기’는 ‘점박이, 불박이, 차돌박이’에 접미된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 장안

[별칭] 장안말, 장안마을

[형태] 마을

[위치] 교도소가 있는 맞은편 지역으로 향군부락 아래 신촌3리 일대이다. 동내면사무소가 있다. 동내초등학교 있는 다리까지를 경계한다.

[유래] 장안은 시장(市場)이 서던 안쪽의 마을이라 하여 명명되었다. 마을사람들 대부분 장안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지명총람』에도 시장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했다.

[어원풀이] ‘장(市場)+안(內)’으로 분석된다.

● 장안교

[형태] 다리

[위치] 춘천교도소 앞 신촌천을 가로지르는 시멘트 콘크리트다리이다.

[유래] 1990.5.16.에서 1991.10.16.까지 공사를 했다. 길이 53m 폭 9m이다.

[유래답] 장안교 바로 옆에는 신촌리와 거두리와 고은리를 알리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

● 장안구렁

[형태] 골짜기

[위치] 장앗버덩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앗버덩 옆에 있는 골짜기라고 했다.

[어원풀이] ‘장안+구렁’으로 시장 안쪽의 마을에 있는 구렁이다. ‘구렁’은 ‘땅이 웁푹하게 팬 곳’을 뜻하며, ‘구렁논, 구렁배미, 구렁창, 구렁텅이’ 등의

이름으로 쓰이는 것과 같다.

● 장안들

[별칭] 장안뜰

[형태] 들

[위치] 신촌3리 신촌천과 공지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들이다.

[유래] 장안 마을에 있어서 장안들이라 한다. 지금도 넓은 들에 논이 형성되어 있다.

● 장안말

[별칭] 장안마을

[형태] 마을

[위치] 형무소가 있는 곳, 지금의 교도소가 있는 앞쪽을 가리킨다. 신촌3리 전체를 장안말이라 한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 장(場)이 섰다. 도로를 중심으로 대룡산 방향으로 장안말, 그 다음이 서말, 대룡산 밑이 뒤흘이 된다.

● 장안버덩

[별칭] 장앗버덩

[형태] 들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고은리와의 중간에 있는 들이라 했다.

[어원풀이] ‘장안+버덩’으로 분석되며, ‘버덩’은 ‘좀 높고 편편하며 잡풀만 난 거친 땅’을 뜻하는 보통 명사 ‘버덩’이 지명 접미사로 쓰인 것이다.

● 총종애골

[형태] 골짜기

[유래] 신촌리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닌 곳이다. 골이 깊고 길다.

● 태백교

[형태] 다리

[위치] 신촌리 끝자락 공지천을 가로지르는 시멘트 콘크리트다리이다. 극동아파트 바로 앞에 있다.

[유래] 1998.2.2.에서 2003.12.31.까지 공사를 했다. 길이 115m 폭 25m이다. 태백교라는 이름은 사암리 앞 내를 가로지르는 다리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사암리에 태백이라는 마을이 있다.

● 해맞이공원

[별칭] 대룡산해맞이마을, 해맞이마을

[형태] 마을

[위치] 신촌리 자개울 옆 공터이다.

[유래] 새농촌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년 정월 초하루 해맞이 행사를 하였다.

● 향군마을

[별칭] 향군부락, 향군모범농장

[형태] 마을

[위치] 신촌2리와 고은리 일부이다. 산수빌이라는 아파트 옆이다. 현재는 신촌2리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다.

[유래] 1963년 춘천시 동내면 신촌2리에 향군모범 농장을 만들었다. 제대군인 50명을 선발하여 대지 60평 건평 10평의 주택 50개를 짓고 무상 분배하였다. 세대 가족 320명이 입주를 했다. 3년간 구호 양곡을 얻어 주민생계식량조달을 하였다. 20만평의 토지 중 육군 탄약고 10만평을 징발하여, 호당 807평을 분할하여 농사를 짓게 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고은리 쪽에 7천 평의 저수지를 팠다. 저수지 물은 대룡산 수레간에서 끌어왔다. 지금은 수레간에서만 물이 내려오지 않고 원창저수지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다. 저수지는 1963년 3월 10일

에 기공을 하고 9월 20일에 준공을 했는데, 이날 박정희 군사혁명최고의장이 참석하였다.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제대군인들이어서 향군이란 말이 붙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뒷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유래] 신촌리의 옛 이름이다.

● 향군마을공동식당

[별칭] 공동취사장, 생활개선의 집

[형태] 건물

[위치] 마을회관 옆에 있다.

[유래] 향군마을 안에 있는 공동식당이다. 마을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공동으로 취사를 하였다. 지금도 공동식당이 있고, 취사도 구가 모두 갖춰져 있다. 마을행사가 있을 때는 이 곳에서 취사를 한다. 마을회관 옆에 위치해 있다. 마을에서는 생활개선의 집이라 부르기도 했다.



향군마을공동취사장

● 활공장(滑空場)

[형태] 터

[위치] 대룡산 9부 능선쯤에 있다.

[유래] 행글라이더를 띠우는 장소이다.

● 후하리(後下里)

[형태] 마을

[위치] 뒷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태백천이 흐르고, 대룡산과 금병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중말, 장거리, 갈기리, 정지말 등이 있다. 학곡리는 두름실, 두음동(豆音洞)이라고도 부른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동내(東內)에 두음곡(頭音谷)이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는 동내면(東內面) 두음곡리(豆音谷里), 『춘천읍지』, 『춘천부지』는 동내면(東內面) 두음곡(豆音谷), 『관동읍지』는 동내면(東內面) 두음곡리(豆音谷里), 『조선지지자료』는 동내면(東內面) 두음곡리(豆音谷里)라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부내면(府內面)의 학곡(鶴谷), 『강원도지』는 춘천읍(春川邑) 학곡리(鶴谷里), 『수춘지』는 신동면(新東面) 학곡리(鶴谷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는 신동면(新東面) 학곡1리, 학곡2리로, 『춘천백년사』는 동내면 학곡1리, 학곡2리, 학곡3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학곡리고 법정리는 학곡1리, 학곡2리, 학곡3리, 학곡4리이다.

유래 | 본래 두름실 또는 두음동(豆音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길, 정지말을 병합하여 학곡리(鶴谷里)라 하여 부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9년 신동면에 포함되었다.

● 2군단사격장

[형태] 터

[위치] 정지말 우측에 있다.

[유래] 군부대에서 사격을 하는 장소이다.

● 갈기리

[별칭] 갈길, 갈길이

[형태] 마을

[위치] 원창고개 넘어가기 전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떡갈나무가 많았던 마을이라 했다. 예전엔 논도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집을 지어서 논은 다 없어졌다. 이곳을 지나면 사암리가 나온다. 『조선지지자료』에는 갈기리(葛其里)라고 하여 두음실에 있다고 전한다. 또 갈라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갈길’이라 했다. 대룡산 자락과 금병산 자락으로 갈라지는 곳에 위치해 있다.

[어원풀이] ‘갈길+이’인데 ‘갈길’을 ‘떡갈나무’에서 취했다면, “떡갈나무의 목재는 나이테가 뚜렷하고 심재는 암적갈색, 변재는 회백색, 또는 황갈색이다.”에서 그 연유를 짐작할 수 있다. ‘떡갈나무의 길’이다.



갈기리 마을

● 갈전교

[형태] 다리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갈기리에 있는 다리라 했다.

[어원풀이] ‘갈전교’는 ‘갈길’에 있어 ‘갈(갈길)+전+교’로 분석되는데 ‘전’의 해석이 애매하다.

● 공회당

[형태] 터

[위치] 중말에 있었다. 그 자리엔 지금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들어서 있고 마을회관 앞에 파란 지붕의 약 50여년이 된 건물이 있는데 그곳이 공회당 건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회관으로 지은 건물이었다고 한다.

[유래] 관사가 하나 있었고 기다란 모양의 공회당이 있었다.

● 굴바우골

[별칭] 굴바우

[형태] 골짜기

[위치] 학곡리에서 금병산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굴이 뚫린 바위가 있어 굴바우라 했다.

[어원풀이] ‘굴(窟)+바우(岩)+골(谷)’으로 분석된다.

● 금병산깃대봉

[형태] 산

[위치] 학곡리에서 보이는 금병산 봉우리이다.

[유래] 이 마을 사람들이 깃대봉이라 불러 나중에 그 이름대로 깃대가 선 것이라 믿고 있다.

● 동내도서관

[형태] 건물

[위치] 학곡리 24-6번지에 있다.

[유래]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춘천시립공공도서관이다.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어린이실, 정보검색실, 종합자료실이 있고, 2층은 학습실, 회의실, 휴게실이 있다. 지하1층에는 서고실과 기계실이 있다. 2021년 3월 현재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실에 총 62,711권의 장서가 비치되었다. 근무직원은 4명이다.



동내도서관

● 동내미구령

[형태] 골짜기

[위치] 진병산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진병산에 있는 산 구렁이다.

[어원풀이] ‘동내(東內)+미(峴, 산)+구령(谷)’으로 분석된다.

● 두름실

[별칭] 두음실, 두음곡리, 두음동

[형태] 마을

[위치] 학곡리

[유래] 학곡리를 일컫는 옛 명칭이다.

[어원풀이] ‘두름/두룸/두루미(鶴)+실(室, 村)’로 분석하며 행정지명 학곡리의 바탕이 된다. 두음동(豆音洞)은 ‘두름실’의 한자 지명이며 그 한자 표기 ‘두

음(豆音)’은 음차자이다.

● 두음곡리(豆音谷里)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두음실이라 하여 두음곡리에 있다고 했다. 학곡리를 뜻하는 두름실의 이칭이라 할 수 있다.

● 마차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정지말 안쪽의 사슴농장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유래] 마차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말무덤

[형태] 무덤

[위치] 지금의 탄약부대 쪽에 위치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학곡리에 있는 큰 무덤이라 했다.

[어원풀이] ‘말+무덤(墓)’을 ‘말(馬)’의 무덤이라 하지 않고, ‘큰 무덤’이라 했다. ‘말별, 말거미, 말잠자리’ 등은 ‘크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 ‘말-’이 쓰였다. 그러나 이 ‘말-’은 지명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미렷재

[형태] 고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두름실에 있는 재라 했다.

[어원풀이] ‘미렷+재(峙)’에서 ‘미렷’의 말음 ‘ㅅ’은 지명에서는 ‘ㄱ’과 상통하여 ‘미력’의 이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미렷재/미력재’의 ‘미력’을 타지역의 경우 ‘미륵’의 변음으로 해석한다.

● 불당골

[별칭] 불당골, 불땅꼴

[형태] 골짜기

[위치] 전에 불당이 있던 골짜기를 일컫는데 정족리와의 경계 부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전에 불당이 있던 골짜기라 했다.

● 약수터골짜기

[형태] 골짜기

[위치] 원주 방향으로 가다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이곳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예전에 등이 훈할머니가 맡아서 관리했다고 한다.



학곡리 약수터 옆 굽당터

● 새마을촌

[별칭] 신학곡

[형태] 마을

[위치] 학곡3리 동내도서관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이에 위치해 있다.

[유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로가 뚫리면서 새롭게 생긴 마을이다.

● 신학곡(新鶴谷)

[별칭] 새마을촌

[형태] 마을

[위치] 원창고개 입구 갈거리 근처 마을이다.

[유래] 1980년대 새로 마을이 생기면서 붙여진 지명이다. 학곡리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용가맛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정지말에서 정족리 방향으로 우측에 있다.

[유래]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골짜기이다.

● 원창고개

[별칭] 원창치(原昌峙)

[형태] 고개

[위치] 죽림이골 옆에 위치해 있다. 동산면 원창으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학곡리에서 원창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담] 『한국지명총람』에는 동산면(東山面) 원창으로 가는 고개라 했다. 옛날 골이 깊고 하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목에는 산적이 있어 지나는 마을 사람이나 상인들에게 통행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넘을 때면 여럿이 모여서 같이 산을 넘었다.

● 안화산(鞍靴山)

[별칭] 안마산(鞍馬山)

[형태] 산

[위치] 춘천 원창고개로 가는 중간 학곡리 입구에 있는 해발 303m의 산이다. 퇴계동, 정족리, 학곡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유래] 산의 지형이 말안장을 얹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안화산이라 하여 두음실에 있다고 했다.



원창고개 오르는 길



원창고개 오르는 옛길

[유래] 큰승지골보다 크기가 작아서 이름이 붙여졌다.

● 장거리(場亘里)

[형태] 터

[위치] 동산면에서 걸어내려 오면서 사암리와 경계를 이루는 중말 밑이다.

[유래] 중말 밑을 가리키는데 옛날에 장이 섰던 곳이다.

● 장배밋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길다랗게 생긴 들을 가리킨다.『한국지명총람』에는 기다랗게 생긴 들이라 했다.

[어원풀이] ‘장(長)+배미+八+들(野)’로 분석되며, 지명접미사 {-배미}는 ‘논배미’에서 온 것으로 주로 ‘논[畠]’의 의미를 띠며 지명접미사화한 것이다.

● 으능쟁이

[별칭] 은행촌(銀杏村), 은행정리(銀杏亭里), 은행골

[형태] 마을

[위치] 학곡리 네거리 밑을 가리킨다.

[유래] 이곳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 전해 온다. 은행나무정자가 있던 마을이다.

[어원풀이] ‘으능쟁이’가 ‘은행나무’의 어원을 가진다면 많은 변이를 고려해도 그 형태소 분석이 애매하다. 일단 ‘으능쟁+이(접미사)’에서 ‘으능쟁’이 ‘은행(杏)’인 셈이다.

● 작은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승지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점텃버덩

[별칭] 즘터버덩, 증텟버덩

[형태] 들

[위치] 군부대 사격장 밑에 있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 옹기점이 있었다고 전해온다.『한국지명총람』에는 옹기점이 있던 버덩이라 했다.

[어원풀이] ‘점(店, 옹기점)터(垈)++버덩’으로 분석하며, 지명접미사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뜻한다. 점텃버덩’은 마을 근처 ‘버덩에 있던 옹기점 터’이다.

● 정자동(亭子洞)

[별칭] 정자말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정자말이라 하여 두음실

에 있다고 했다.

● 정지말

[형태] 마을

[위치] 춘천에서 홍천 방향으로 우측에 있는 마을이다. 학곡1리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다.

[유래] 마을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전에 좋은 정자나무가 있어서 정자말로 불렸는데 나중에 이것이 바뀌어 정지말이 된 것이라 한다. 또 하나는 옛날 역마가 쉬었다 가던 곳이어서 정지말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 한다.

[어원풀이] ‘정자나무’는 집 근처나 동리 마당 또는 길가에 있는 큰 나무로서,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 놀거나 쉰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다 보니 정자를 짓게 되어 ‘정자(亭子)나무’라 부르게 되었다.

● 정지말서낭나무

[형태] 민속

[유래] 정지말에 갈나무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치성을 드렸다.

[유래담] 마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지나가며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 정지말우물

[형태] 샘

[위치] 정지말, 중말을 합쳐 이 마을에 하나 있던 우물이었다.

[유래] 돌을 덮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 했다.

● 정지말천

[형태] 하천

[위치] 정지말천 우측으로 탄야부대로 넘어가는 중 말천이 있다.

[유래] 정지말로 흘러내리는 냇가이다.

● 정짓대

[형태] 샘

[위치] 정지말 우측의 산 끝 부분 중말천 방향에 있다. 지금은 갈대와 모래가 덮여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유래] 예전엔 이곳에서 온수물이 나왔었는데 겨울엔 따뜻하여 마을 사람들이 와서 빨래를 했던 곳이라 한다.

[어원풀이] ‘정(井)+짓(짓다)+대(터)’로 분석된다.

● 죽림이골

[별칭] 중니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랫버덩 옆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원창고 개 넘어가는 오른쪽의 솔밭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유래] 큰 소나무와 산죽이 많아 숲을 이루었다.

● 중말

[형태] 마을

[위치] 정짓말 아래에 위치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학곡리 중앙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유래] 학곡리가 긴 모양인데 중앙에 있는 마을이어서 그렇게 불렸다. 정지말과 합쳐 약 70여 호가 살았었다.

[어원풀이] ‘중(中)+말(마을, 村)’로 분석된다.

● 증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금병산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담] 정지말 사람들이나 석사동 사람들이 와서 주로 나무를 하던 곳이었다.

● 청두마곡(靑頭馬谷)

[형태] 골짜기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청두막골이라 하여 두읍 실에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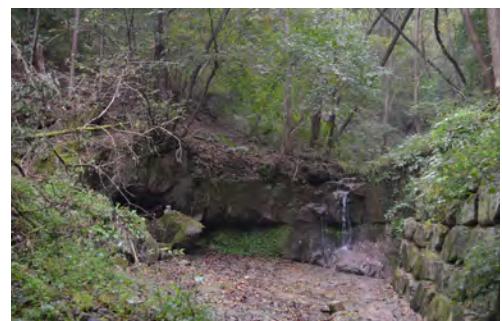


학곡리 굿당1

● 큰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내미구렁 옆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학곡리 굿당2

● 평골

[별칭] 평꼴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는 불당꼴[불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했다.

● 학곡리굿당

[형태] 민속

[위치] 원창고개 옛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집이 한 채 있고 집 앞에는 옛날 약수터로 알려진 계곡물을 만나게 된다. 집 앞으로 난 계곡을 따라 약 40여m정도 오르면 굿당을 만날 수 있다. 원창고개 밑, 사암 약수터 맞은 편 골짜기 사암 4리 쪽의 경계에 있다.

[유래] 무당들이 굿을 하는 곳이다. 제단은 벚나무 밑에 있는데 가로로 약 5m 정도이고 높이는 약 2m 50cm 정도이다.

● 학곡리약수터

[형태] 샘

[위치] 원창고개 올라가는 왼쪽에 있다.

[유래] 약수가 있다.

[유래담] 예전에 이곳에 상여에 색칠을 하던 환쟁이(그림 그리는 사람)가 살았고 또한 무당이 살고 있던 곳이기도 했다.

춘천지명사전 | 중

남면 · 남산면 · 동면 · 동내면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발행인 윤용선

편찬기획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40

전화 033-254-5105

www.cccc.or.kr

편집디자인 여름출판사

춘천지명사전 | 중



ISBN 979-11-92171-81-4 (05090)
ISBN 979-11-92171-78-4 (세트)